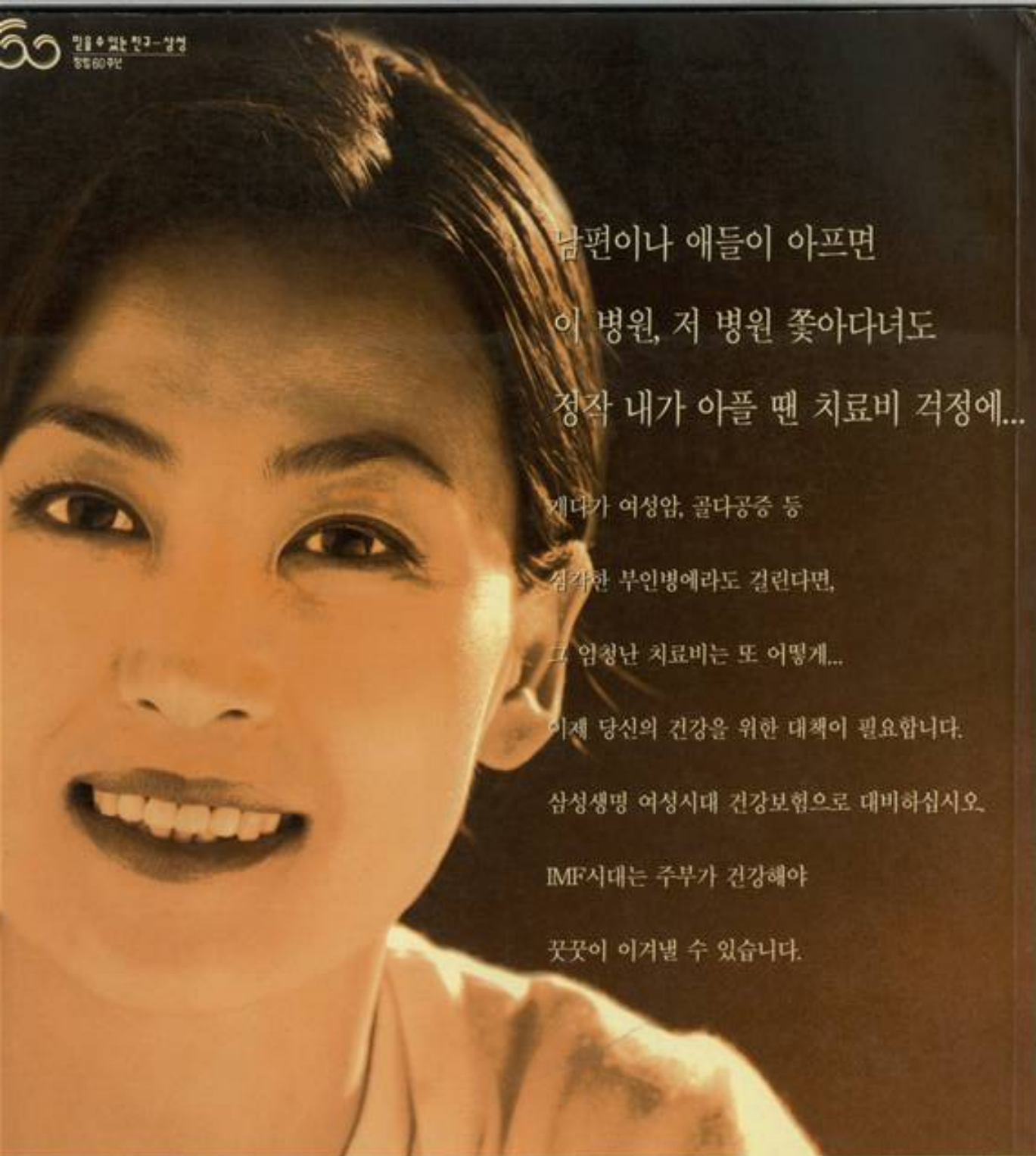




만들 수 있는 친구 - 일명
장동 60주년



남편이나 애들이 아프면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녀도
정작 내가 아플 땐 치료비 걱정에...

게다가 여성암, 골다공증 등
심각한 부인병에라도 걸린다면,
그 엄청난 치료비는 또 어떻게...
이제 당신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으로 대비하십시오.
IMF시대는 주부가 건강해야
쫓쫓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월 2~3만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여성들의 각종 질환을 중점 보장해 드립니다.

- 여성특정암(자궁, 유방, 난소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생시 2,000만원까지 보장
- 부인과 질환, 골다공증(골절), 관절염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수술비, 입원비 고액보장
- 장기입원시 장기간병자금 및 건강회복자금 지급
- 재해로 인한 골절발생시와 교통재해 입원시 응급치료비 지급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

자! **이리저리** 놀자!

feminist journal

if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특집 집 떠나는 여자들

심층취재 여자들, 왜 떠나는가?
여성작가 5인의 집떠나는 이야기
김정란 민영희 이경자 강연 이남희 신현림
정신건강연구소 이니미가 말하는 '떠나는 여자들'의 심리
여섯 여자가 들려주는 기출이야기

세계의 테러리스트 박남준 선생에게
백악관 해프닝 실수인가, 예술인가
비이그리움, "웃겨, 고추에 목숨거는 남자들"

female gaze

"동국의 타계당면 남작의 권다"
알려려의 재미송 "비랑과 함께 살아지나?"



98 가을

8,500원



ALWAYS COCA-COLA

이동전화의 핵심은 전파

98 상반기 히트상품 선정



악한 전파는 거저 줘도 안 써!

몇 톤 싸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악한 전파를 쓰는 이동전화는 거저 줘도 싫다.
안 터지고 끊어지는 스트레스 이동전화는 싫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나 터져주는
강한 전파의 이동전화를 원한다!

전파의 힘이 강하다!
파워디지털 017



구강질환의 원인인 '입속 세균'을 없애주는 - 케어가글

「케어가글」의 10대 효과!



1 치주염 예방

잇몸이 붓고 흔들리며 피가 나는 치주염(통치)은 우리나라 40대 이상 성인의 80%가 해당되는 질병으로 케어가글이 이를 예방해줍니다.

2 구내염 예방

입속 점막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곳에 세균이 침투하여 입안이 빨갛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하는데 케어가글은 이를 예방해줍니다.

3 입냄새 제거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서 생기는 입냄새는 물론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냄새까지 없애 주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4 충치 예방

치실질로 완벽히 제거하기 힘든 이와 이 사이, 이와 잇몸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줌으로써 충치를 예방해줍니다.

5 감기 예방

감기는 호흡기를 통해 세균(바이러스)이 침투함으로써 걸리게 되는데 케어가글은 강력한 살균력으로 감기를 예방해줍니다.



6 후두염 예방

감기에 따른 증상의 하나로써 기침이 나고 목이 붓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되는 후두염을 케어가글이 예방해줍니다.

7 인두염 예방

목감기(인두염)는 코의 뾰루지 같은 곳인 인두에 바이러스가 침입함으로써 걸리는데 케어가글이 이를 예방해줍니다.

8 편도염 예방

구개편도에 염증이 생기는 편도염은 감기 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케어가글은 강력한 살균력으로 이를 예방합니다.

9 발치수술 후에

사람나 등 치아수술을 한 뒤에 케어가글을 사용하면 수술부위를 깨끗이 소독, 살균함으로써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10 구강수술 후에

구강내의 상한 상처 등을 수술한 뒤에는 케어가글을 사용하면 수술부위를 소독, 살균함으로써 염증발생이 예방됩니다.

100억 마리의 입속 세균, 양치질로는 부족합니다

양치질을 해도 입속에는 100억 마리의 세균이 남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 입속 세균을 없애야만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균력이 강력한 염화벤제돌을 성분으로 만드는 케어가글을

만나보십시오. 케어가글은 세균을 '억제' 하는 양치약이 아니라 세균을 '살균'하는 전문 양치약(의약품)이므로 잇몸질환(치주염), 입냄새 등의 구강질환은 물론 충치 예방,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입속 세균을 없애주는 ~

케어가글 액

■ 표준소매가격 : 90ml / 1,300원 1000ml / 13,000원

■ 15ml 정도의 양으로 양치(가글)하고 물로 헹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사랑法

피임은 여자가
필요할 때만
느껴지지 않게-



이제 노원으로 피임하세요.

피임은 남자가 하는 것?
피임은 매일매일 하는 것?
피임은 거추장스러운 것?

노원을 만나보시면
이런 고정관념이 꼭 달라집니다.
필요할 때만 피임하는 간편하고
자연스러운 좌약식 피임약, 노원

사랑을 준비할 땐 - 노원

- 노원은 먹는 피임약이 아닙니다.
- 노원은 비혼은 피임약입니다.
- 노원은 필요할 때만 간편하게 사용하는 좌약식 피임약입니다.
- 노원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쓰이는 Nonoxonyl-9이 주성분으로 피임효과가 우수합니다.

임신과 피임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임신은 행복하지만 두려운 경험. 그러나 우리 사회에선 임신 임신이, 피임도 올바른 지식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볼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한미약품 전체 홈페이지를 눌러주세요. 임신과 피임에 대한 것을 전체 홈페이지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02)821-0815

■ 부작용 금기 및 주의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록을 본지의 사용에 의해 일체로가 중상계 없으. 가지를 들. 임기의 불순, 남성의 예노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을 하. ■ 일반적 주의사항 1/ 약으로 먹고 2/ 약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3/ 꼭 필요할 때 사용하며 과다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피임 및 조임상에는 사용하지 않 것.



간편한 좌약식 피임약 - 노원

■ 표준소매가격: 12개 3,300원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기업 · 열린 기업 · 평등한 기업

정직한 기업정신으로
더 큰 패션세계를 열어갑니다.



SONIA RYKIEL
PARIS

YVES SAINT LAURENT

MARKS & SPENCER

(주)성주인터내셔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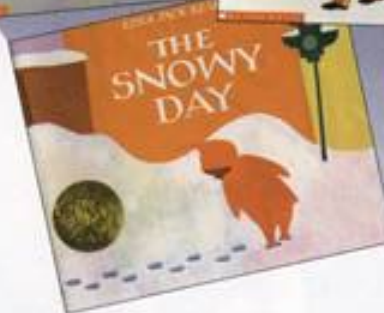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경향로 1가 118번지 한국그랜드빌 TEL: (02)369-7741 ~ 5 FAX: 369-2089



국내최초의 English Book Club
국제영어책읽기한국모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11-7
TEL: (02)529-0519 FAX: (02)572-6785

"엄마, 영어동화책 읽어 주세요"

Fantastic Story Land
(어린이영어동화교실)
개강: 98. 10. 10(토)
문의: (02)3463-1905



제 32기
영어독서지도사과정
개강: 98. 10. 24(토)
시간: 오후 3~6시(4주과정)
문의: (02)3463-1905



국제 영어책읽기 한국모임
English Book Reader's International Club
회원가입 · 교육문의 : (02)529-0519

female gaze

美人圖



제작 오정민

female gaze 영화페러디



터키탕 · 1998 · 서울

앵그르 작, <터키탕>의 여성들을 한국사회 대표적인 가부장적 얼굴과 합성했다. (한국의 터키탕엔 남자만 간다.)

기획 if

제작 푸른사람들 (<http://www.blupers.com>)

female gaze



CUNT CABARET

7월 3일, 저녁 카페 라브리스

컨트캐바레



사람들은 우리와 천국을 멀어뜨려놓으려 하지.
그들은 우리의 삶을 자욱으로 만들지.
우리를 죄와 수치심으로 증독시키면서 우리가
대항 하더라도 하면 감옥이 기다리지.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감히 드러내지 못하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사랑법.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리라.
라벤더의 밤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건 두렵지 않아.
—우테 뎀퍼의 <라벤더송> 중에서 11

사진 박영숙

In new screen splendor...

female gaze
The most magnificent picture ever!

DAVID O. SELZNICK'S PRODUCTION OF MARGARET MITCHELL'S

"GONE WITH THE WIND"



바람
“바람과 함께 살아가나?”

전세계를 울린 헐리의 테마송

“내일은 내일의 스캔들이 떠오를 거야”

마비되어 쓰러진 인간 정신'의 부활을 꿈꾸며.....

불타는 대지

작가 이하천이 던지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

“나는 한국인의 심리 속에 집단무의식으로 잠재해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으며, 마비되어 쓰러져 있는 인간정신의 부활을 이 소설을 통해 꿈꾸어 본다. 그것은 어쩌면 주인공 김상준이, 음지를 대변하는 김경민과 양지를 대변하는 백상희를 양과 음으로 거치면서 영혼의 마비로부터 풀려나듯 '여성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작가의 말에서

대학 시절 열성적인 운동선수였던 주인공 김상준은 그 후 10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세상에 나오지만, 세상은 여전히 너무도 달연한 삶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진다. 그때부터 주인공 김상준은 자신의 심리 속에 이 절망을 막아 낼 한 마리의 용을 키우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상준은 근친상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입은 김경민의 자살기도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다. 정신장애자가 되어버린 경민을 깨닫지도, 버리지도 못하면서 우울하고 어두운 심리적 터널을 헤쳐나간다. 어느날, 대학 시절 상준을 추종하여 따르던 후배 백상희가 나타나고 이인간 지 11년만에 더 이상 소녀가 아닌 성숙하고 당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상희의 통장은 상준에게 극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게 하는데.....

이하천 지음/ 신국판 285쪽/ 값 6,000원



중

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황제하여 준다는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로동1가 82 대우빌딩 201호
TEL: 636-6873 FAX: 636-6874



특집 집떠나는 여자들 60

- | | |
|-------------|----------------------------------|
| 총론 | 집떠난 남자, '자식버린' 여자 62 |
| 집중취재 | 왜 떠나는가? (황금희) 64 |
| 여성시 분석 |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은 외출 (김정란) 72 |
| 민요 분석 | "날벼도라 날벼도라 삼십안팎에 날벼주소" (박미라) 82 |
| 여성작가의 집떠나기 | 한선녀 (機仙女)의 최후전설 (한림화) 88 |
| | 나는 더 이상 이혼을 꿈꾸지 않는다 (이경자) |
| | 그녀의 삶을 향한 긴 여정 (김연) |
| | 가족에 관한 몇 가지 잡담 (아남희) |
| |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걸어가 보라 (심현희) |
| 심리분석 | 가솔을 꿈꾸는 여자들의 유형 (아나비) 116 |
| 떠날 때와 돌아올 때 | 여섯 여자가 들려주는 가솔 이야기 120 |
| 가솔회담기 | 나는 이럴 때 떠나고 싶다! 138 |



female gaze 12

황미연도/ 영화 패러디: 터키탕. 1998, 서울
"바람과 함께 살아자나!" - 힐러리의 테마송/ CUNT CABARET

IF SPIRIT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나 이번 웃고 있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폭발하는 일회성인, 자존아로드는 분노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 자, 웃어!

너는 누구? 우리는 이제야 깨어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내면에 어떤 기쁨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뒤집고 있다. 이 세상을 한번 전복시켜 버리고 싶다. 끝까지 끝까지 어떻게 할까?

놀자!

우리는 그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 왔다. 이제 또 이 세상을 건지는 것은 고통과 인내, 희생과 버려진 학살마당에 달려서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흔들리게 하겠고 노예의 장안을 안시겠다. 이번 삶다. 즐겁고 있다. 재미있고 있다. 웃고 있다. 그러하여 우리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다.



남자에게 42

세기의 테러리스트 백남준 선생에게 - 백악관 해프닝 실수인가, 예술인가 (류숙철)

if수다방 48

"남자를 말한다"

남자의 성경험 56

환상 속의 섹스와 의미없는 섹스 (김일)

뉴스우먼 22

통일 부르는 큰 무당, 김금희/ 교육계 새바람, 최연소 이육식 교장/
혼혈아동과 기지촌여성을 위한 콘서트 안 인순이/ 전방위 방송인 배유정
여성주간 국민훈장 모란장 받은 박영숙 소장/
자금성의 기운을 달아낸 사진작가 송영숙/
낙서전 여는 영화배우 강리나/ <아, 정정화>의 여주인공 원영애



잡설 206

하나 뚝 · 바 · 로 찍혀라 (김정복)
틀 거짓말, 거짓말, 진짜 거짓말 (권혁란)
셋 21세기식 사랑법과 비아그라 (배종훈)
넷 순결, 그 오랜 집단광기! (김혜련)

우먼스트릿 38

10월 맞은 여성신문, 재도약 위한 기지개
15주년 맞은 한국여성전환연합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기념관 건립
호주제 폐지, 여성의 문명을 바꾼다
여성인권 논의된 동아시아 인권 국제학술대회
웹진 <달나라 말세포>, 인터넷에 깃발 꽂다
극장 마녀 새집으로 이사



CONTENT 98년 가을

만화

색녀열전 콜렉터(정현실) 150

미즈노 겐츄생활 3개월, 결혼후 내가 좋아하게 된 것들(한국회) 240

난나의 이프세상 신녀와 나무꾼 그후 1, 2 142, 204

이 여자 박서원 144

'천년의 거울을 건넌 여자' 박서원(류숙철)

유채지나의 영화산책 154

〈여고괴담〉이 진짜 공포스러운 몇 가지 이유

집중탐색 160

박화아의 묵묵하는 여자들 엿보기(박신의)

Riview 177

연극 동거, '불멸의 사랑' 인가, '적과의 동침' 인가(이숙인)

〈원룸〉, 〈엄마, 안녕...〉

영화 고개속인 남자, 고개 든 여자(목혜정)

〈생과부위자료청구소송〉, 〈시티 오브 엔젤〉

미술 여성의 일상에 관한 경배(오혜주)

홍미선, 이진경 전

만화 여자들이 보여주는 맛깔스런 우정과 사랑(오은하)

유시진, 천계영

서평 비디오도 힘이 된다(제미란)

『페미니즘·비디오·미술』

출판 이가 붉은 가을의 책(윤숙경)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221

'목숨건'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여자의 꿈 230

여자들, 놀맛나는 세상을 꿈꾸며(이혜경)

허스토리 262

한남동에 자신의 갤러리 연 앨런 김 머피(김민숙)

이럴뎌 이렇게 236

나는 더러운 성차별주의자로서이다(김자경)

상대적이고 적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난영) 238

if 번개토론 243

바이그라피담, "웃겨, 고추에 욕숨거는 남자들"

CROSSOVER 249

여자의 여행 나이 욕심에 떠난 유럽 배낭여행(2)(박향옥) 250

세계의 여성들 256

'잘나가는' 여배우의 커밍아웃

'뉴욕의 타나 브라운, 미래학 영화사로 이적

고전문학을 보는 눈, 남녀 따로 노스 따로

독일 거울 정치인들의 '여성정치' 선언

터키의 가족법 개정안과 순결검사

표지 : '집나가는 여자들'을 주제로 한 이번호의 표지는 '집에 남은 남자'로 정해졌다. 아래가 벗어놓고 간 꽃무늬 에이프론을 두르고 남자는 부엌으로 들어간다. 플라스틱 바가지도, 프라이팬도, 국자도 들어보지만 모든 것이 어색하기만 하다. 여자가 떠난 집에서 남자는 무능하고 무력해지기만 한다. 세상 '여자의 집'과 '남자의 집'이 너무도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번 특집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기초공간인 '우리의 집'이 남녀 모두에게 진정한 휴식과 재산상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이번호 표지모델은 가정살림의 경험이 있는 기혼남성이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사진 박영숙

제호 : 집지의 장표를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저널'과 고유이름 'IF'를 합해서 만들었다. IF는 페미니스트들이 '인악에...'라고 가정해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아니설로 읽을 수도 있다. 그외에도 'm Feminist' 또는 'm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통일을 부르는 큰 무당, 김금화

단오날 임진각서 통일 상생굿판 벌여

지난 5월 30일 단오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야외 무대에서는 '세살 아이 어미 젖줄 찾듯' 애타게 통일을 기원하는 굿이 한판 벌어졌다. 무속인 70여 명과 소리꾼 장사익, 소설가 황석영 등이 모여 벌인 이 굿판의 백미는 '시왕천 가르기'. 통일 걸림돌을 상징하는 흰 천을 서른여섯 명의 무속인이 일제히 가르는 장단이 펼쳐졌다. 술과 떡과 소리와 춤이 어우러지고 눈물과 기도가 넘쳐난 통일상생굿판, 여기 한다 하는 무속인들을 한 데 모아 민족의 해원굿을 벌인 중심에 바로 큰 무당, 김금화(67)가 우뚝 서 있다.

그는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이북 실향민이다. 이끌져올 사람 아픈 태를 어루만지다 보니 분단이란 큰 병마를 외면할 수가 없더라. 그해 90년에는 백두산에서 통일기원굿판을 벌였고 올 5월 단오맞이굿에 앞서서는 베를린까지 날아갔다.

"베를린 장벽에서 통일의 '기'를 받아와 판문점에 내려 놓으려고 그랬어. 그 사람들 장하잖아. 어쨌든 이뤄냈잖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해마다 이 굿 할 건데 죽기 전에 그만 하는 날이 왔으면 해."

큰 무당 김금화, 무형문화재 82호 서해안 풍어제 기능보유자. 그는 이제껏 다른 무당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사진촬영도 질색하는 무속인이 있는 반면 그는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사람들에게 알린 편이다. 물론 무당이야, 여자로서 살아온 삶의 신산함은 그 역시 누구 못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당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세상도 그때부터 그를 달리 보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그 결과 사라질 뻔한 황해도굿의 본류를 학자들은 김금화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다. 잦은 무대공연과 TV출연, 우리 굿을 전통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리면 어디든 달려갔다.

"사람이 자라면서 공부를 하잖아? 무당도 자꾸 배우고 깨달아야 커지는 거야. 나도 처음엔 그냥 나오는 대로 아는 말(점)하고 춤추고 했는데 그냥 이대로 살 일이 아니었다 싶더라."

"소원이 하나 있어. 그간 너무 말을 많이 했어. 어디 산 좋고 물 맑고 깨끗한 곳에 집 하나 짓고 조용히 기도만 했으면 해. 천지간 마음에 괴로운 사람들, 비명에 간 사람들, 다 다독이고 '떡이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우선 반듯하니 정기를 모아야 돼. 헌데 뭘 하려고 해도 막는 데가 너무 많아서..."

그는 말끝을 흐린다. 이번 굿을 준비할 때도 당골들이 죄다 사재를 털었다. 그러다 소설가 이경자의 지원으로 황석영을 만났고, 이어 그이들에 힘입어 사람들도 모이고 기금도 모았다. 하지만 정작 이북 5도청은 귀찮은 양 뒷짐을 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다. 가장 어려운 대상은 종교인들이다. 하다못해 기도하는 집을 짓고 싶은 소원만 해도 그렇다. 전통문화예술 보존 차원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읍소해도 무슨 자금이나 행사 지원이 가로막히는 뒤에는 항상 종교단체의 입김이 있었다.

"하긴 그 동네만 그리 되는 게 아니야..."

굿판 역시 날로 개인 길복 위주로 바뀌는 이즈음 세상이 그는 아쉽다. 한 번 벌였다 하면 농수버들 휘둘러진 온 마을이 한 닷새 들쭉였던 황해도 대동굿이며, 푸른 바다에 배 띄우고 선주와 선원이 한마음으로 벌였던 배원신굿이 그는 정말 그렇다.

"아냐. 이제는 굿을 해도 한 7,000만은 모여야 해. 그 정도 대동굿은 돼야지 신이 나서 하지. 그래야 힘이 나서 벌떡벌떡 춤도 추지..."

그는 이제 거반 '통일꾼'이 다 되어 있었다. 

글 이복/사진 조아권



너희가 교장을 믿느냐?

학생중심 학교 시도하는 한가람고 이옥식 교장



학

교 다닐 때 교사들을 집안 어른에 비유하는 것이 무척 싫었다. 교장은 할아버지로, 담임은 아버지나 어머니로, 사회의 틀은 그렇지 않은데 그 무슨 봉건적인 발상이란 말인가. 거기서 모든 약속이 비롯되고 합리화되는지도 모르고, 얼마 전 담임 바뀌달라는 초등생들의 주장이 이 나라 어른들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건드렸다. "제 에미 에비도 바뀌달라 너석들"이라냐? 이처럼 학교란 곳은 본디 이 나라 가부장피라미드의 중추력이다.

평교사로 시작해 32세에 최연소 교장이 된 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40)은 그런 함의를 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여교장, 우리는 많은 거죠. 일본 나고야만 해도 하나도 없어요. 숫자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나아요." 물론 그도 한가람이 비록 2대일망정 모계전승의 사립학교니까 자신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제는 제 상황을 적절히 활용할 줄도 압니다. 어린 여자(교장 모임에서 그는 당연히 애송이다)가 나선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 사소한 일에는 조심하는 한편, 제가 뭔가 주장하거나 하는 데는 거침이 없어요. 그러면 뭘 모르니 그런다 싶든지 아니면 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보는지 도리어 귀를 기울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 4동에 자리잡은(7학급 소제) 한가람고는 남녀혼성반으로 이루어졌으며 97년 3월에 개교한 전교 621명(1, 2학년 각 6학급)의 작고 어린 학교다.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반면 대중매체를 '탄' 것은 여러 번 된다. 우선 이 학교는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통합운영 연구학교'이다. 쉽게 말해 20여 가지가 넘는 문·이과와 모든 과목을 일일이 이수하지 않고도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통합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사회과학 하면 '미술이론 1학기+정치 2학기'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식. 거기에 밑도있는 수업을 위해 100분씩 수업을 한다. 그런 100분 동안 다양한 시청각, 실험실습 기재를 갖춘 교과실을 운영한

다. 교사가 과목실에 있고 학생이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방식이다. 또 아무리 교재가 뛰어나도 강의식 100분 수업이 지루하고 일방적인 것을 우려해 토론과 모둠학습 등 학생 중심 수업을 한다. 교사제도 역시 남다르다. 전교사 계약제에 학생이 하는 교사평가제, 시종일관 '수요자 중심'의 학교인 것이다. 놀랍다. 이런 학교에 신입생 모집은 학군제를 따르다니 공평하지 않단 생각까지 든다. 하지만 세상에 표면과 이면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어디 있단가.

"작년까지는 '그런 학교를 어떻게 하느냐, 아마 조금 지나면 다시 똑같아지리라'던 반응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2년후, 지금 2학년의 대입결과를 크게는 교육계 전반, 작게는 지역사회와 한가람고의 학부형들이 죄다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밝고 싱그럽게 자라는 데다 모의고사 결과도 우수(서울시내 70개교 중 5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는 교장들 만나면 '꼭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육이 변한다'고 격려합니다."

교장을 함께 걷는데 돌연 이교장이 어디론가 급히 뛰어간다. 붉은 건물 4층 창에 웬 남학생 몸 하나가 허벅지까지 쭈욱 드러난 것이 꽤 아슬아슬해 보인다. 그는 단숨에 그리로 달려가 손짓으로 주의를 준다. 다시 돌아온 이 교장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다. 왜 여기서 큰소리를 치면 되지 거기까지 뛰어갔나 하자 그럴 아이가 당황하니까 그런다고 했다. 멀리 있던 아이들까지 그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했으므로 우리는 가던 걸음을 자주 멈춰야 했다.

교문 입구에 웬 수수한 할머니 한 분이 정문을 지키는 아저씨와 허물없이 농을 주고 받는 것이 보였다. 이교장의 어머니, 학교설립자 이봉덕씨였다. 그랬다. 한가람은 할머니와 어머니 냄새가 물씬 났 학교였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그런 낡은 비유가 웬지 역겹지 않았다. ■

글 이복/사진 조여권

“안녕하세요” 기자가 아파트 문을 들어서자 세 인이가 쏜크를 달려나오며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한다. 9시가 다된 늦은 저녁에 찾아온 낯선 사람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터인데, 세인의 불임성있는 인사 예절은 꽤 청정들인 ‘전소리’의 걸작인 듯하다. 인순이씨 (42)는 어느새 다섯 살난 세인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방송을 통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말이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가수 인순이에게서 초보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신선함이었다. “받은 게 많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인순이에게 세인은 그가 믿는 하나님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

그가 살아온 시대에 혼혈인은 뿌리와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이방인이자 주변인이었다.

‘근본 없는 아이’로 치부하는 한국사회의 권력과 무시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인순이’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혼혈아동을 돕고 있는 발백재단을 비롯해 동료, 친구들, 그가 믿는 카톨릭과 교인들 그리고 가족들. 그들의 도움으로 인순이는 어린 시절 고대했던 가수가 되었고, 세인의 엄마도 됐다. 그래서 이제 그는 “받은 것을 되돌려줘야 할 때”에 자신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

“저는 제가 기도했던 것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나름의 보답을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학창시절 학비를 지원해준 발백재단에 후원회장으로 있으면서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 관심

과 지원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97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기도 했다. 가수인 그에게 노래는 가장 좋은 후원금이자 후원금 이상의 것이다.

지난 6월 28일 기지촌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새울티가 주최한 〈혼혈아동과 기지촌여성을 위한 인순이 뮤지컬콘서트〉가 바로 그런 취지다. 새울티공연은 그에게 무척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공연준비를 위해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새울티 실무자들의 모습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무대에 선 그와 관객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한바탕이 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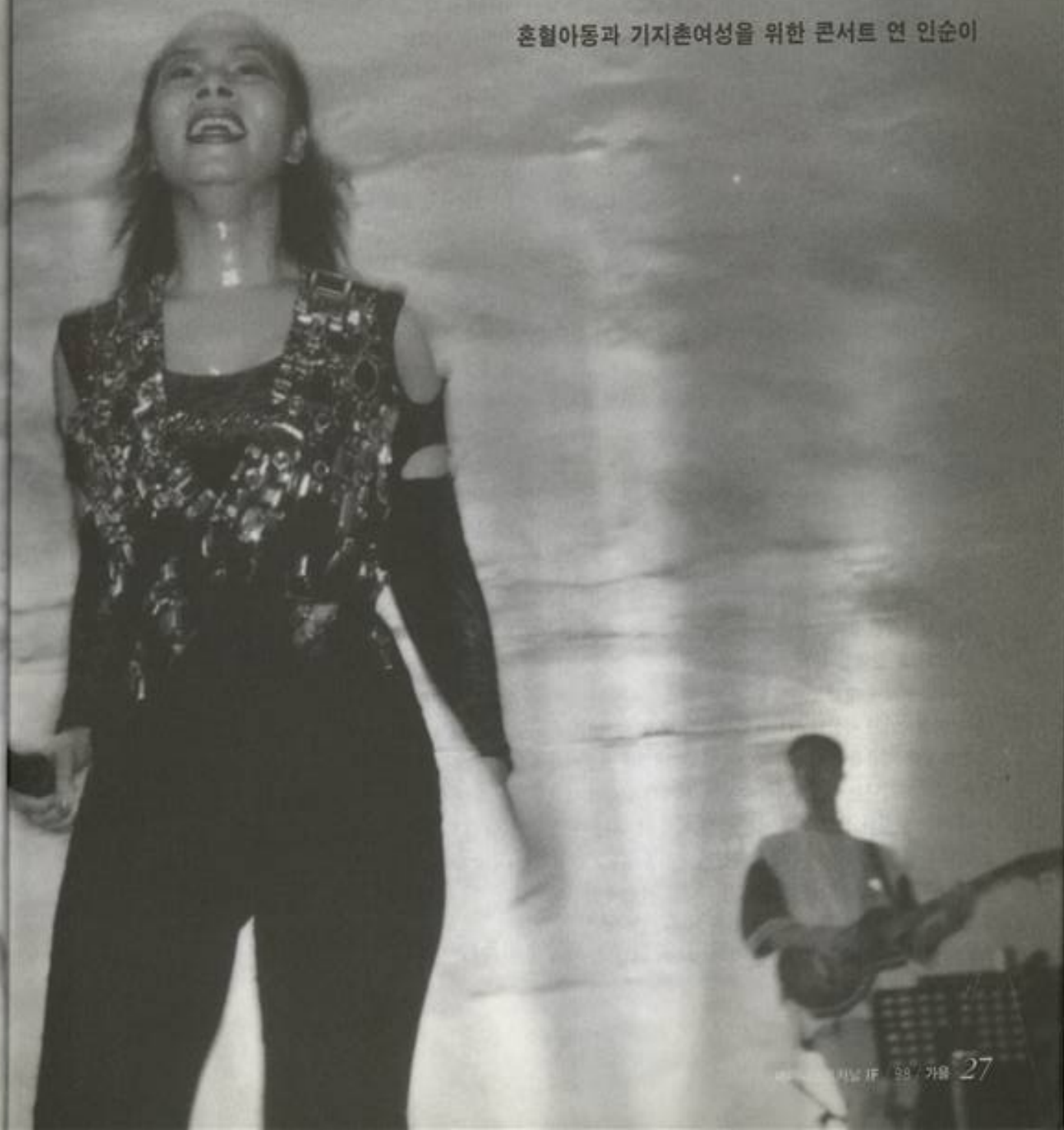
그가 말한 대로라면 “나이는 여자가수는 시든 꽃으로 취급한다”는 언에게에서, 마흔이 넘은 그가 예전보다 더욱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홉을 돌아볼 줄 아는 그의 따뜻한 가슴 때문이 아닐까. 히트곡이 많지 않아도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큼은 자신있고, 화상으로 주름을 갈라기보다 이렇다면 ‘웃는 주름’을 만들자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에게는 초초함이 없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준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세인에게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부듯하다.

세상에 멋진 여자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순이의 집을 나서는데 세인이가 먼저 문 앞으로 나서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참, 세인이가 카운터라는 가수는 엄마가 아니라 박진영이란다. **11**

글 황금희 사진 조아연

이 여자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혼혈아동과 기지촌여성을 위한 콘서트 연 인순이



연 전에 PC통신 SBS방송국 모니터란을 뜨겁게 달구던 미녀대회 출신 여성진행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탄핵과 질책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발음, 외모, 웃음소리, 출신학교 입학과정까지... 통신이란 가히 현대판 조리돌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절감했을 그 여성진행자는 결국 자의든 타의든 도중하차했고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여성진행자들이 포진했다. 물론 그것이 근거없는 마녀재판이 아니었던 것이, 그후 그 프로의 통신방은 조용해졌고 이제는 이런 의견들만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다.

“배유정씨, 똑똑한 건 알지만 너무 나서는 것 아니에요?”, “상대 남자진행자에 비해 너무 혼자 말을 다 한다. 잘난 건 알지만 좀 심하다.”

배유정(34). 연극인, 최근 영화 한 편에 출연한 영화배우. 그보다 먼저 시작한 직업은 동시통역사... 그보다 더 중요한 그의 밑그림은 과연 무얼까.

먼저, 올 가을 극장에 오르는 영화 <아름다운 시절> 이야기.

“철저히 감독의 영화였다고 봐요. 물론 개인적으로 제 배역이었던 전통적 여인상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기자란 유리그릇 같은 것 아닐까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걸로 만족합니다.”

최근 무대에 대한 연극배우로서의 발언.

“여성작가가 여성의 시각으로 여성의 심리와 고뇌를 절절이 담은 작품을 많이 써주어야 합니다. 대개의 고전이라는 것에 드러나는 여성배역의 수동성, 명정히 있다가 사거나 치는 한심한 설정 등에 지는 몹시 화가 납니다. 연극, 정말 어렵죠. 연극관이 대중적 확산력에서 좀 떨어지는 분야잖아요? 기진할 만큼 맘 흘려서 무대에 서는데 컴컴한 빈 객석을 볼 때, 이게 참 힘든 거구나 합니다.”

너무 산만한 나날이 열정을 갈아먹는 건 아닐까. 창작

인터뷰의 계기가 되었던 아침방송에 대한 자평은 그래서 인지 좀 인색했다.

“제 방송이 인상적이라니요? 그저 무난하고 평범할 따름인데요. 아침방송 자체 성격이 그렇지 않나요? 전 이전에 했던 <뉴스 따라잡기> 같은 것이 제게 걸맞는 프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통역을 합니다. 여러 일에 걸친 산만함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좋구요. 먹고 살 게 있으니 하기 싫은 일 거절할 수 있어 더욱 좋구요.”

다른 나라에선 완숙함으로 대접받는 나이가 퇴출연령이 되고, ‘쭉쭉빵빵’ 여자MC들이 명멸하는 이 나라 연에게 풍토 가운데 배유정의 모습은 분명 눈에 띈다. 이제 그에게서 단순한 도드라짐을 넘어선 어떤 힘의 집적을 막연하나마 기대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일에 걸쳐 사니까 욕심이 많다고 보는데 사실 전 바보 같은 정도로 앞뒤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잃는 것도 많지요. 하지만 제 꿈은 그래요. 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제 안에 부는 바람’에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정말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극이든 영화에서든... 여성의 실존을 진지하게 탐색하는 작품? 좋지요.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데요. 네, 그건 당연하죠.”

거침없고, 솔직하고 마치 대사를 ‘치듯’ 하는 그의 달변에 예정된 시간이 순식간에 흘렀다. 못다한 이야기가 많다. 그의 생이 아직 분명한 윤곽선을 갖추지 않은 것처럼. 아니 결코 거기 갈라기 싫어하는 것처럼. ■

글 이목/ 사진 조여권

전방위 방송인, 배유정 따라잡기

연극배우, 영화배우, MC 그리고 동시통역사까지

“여성발전 유공자라고 정부에서 주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3일의 일이죠. 원래 상을 받는다는 데 연연해 본 기억도 없고, 사실 여성의 삶의 발전에 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상을 받아서 쑥스럽기도 하지만, 모두 함께 한 일을 인정해준 것 같아 의미를 두었어요.”

박영숙 소장(66)은 다감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50년도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YWCA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쏟아온 그녀는 이번 상이, 지난 13대 국회에서의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성단체, 민주화운동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연합하기보다는, 보다 집결된 힘의 필요성을 느껴 만든 '여성단체운동연합'의 수석 부회장으로 있었을 당시, 여성정책팀을 만들던 평민당에서 입당 제의가 왔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소절이나 야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체의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필요할 것 같아 정책팀에 합류했다.

“여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처음부터 단호하고 집요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여성정책은 늘 없던 일로 돼버리기가 일쑤였지요.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가족법 개정, 직장여성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탁아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입법 제정을 위해 애썼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퍼렇게 살아서 여성의 삶을 옥죄던 법들은 조금씩 개정되고 제정되었다.

어쩌면 박영숙 소장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적잖은 피해를 본 사람이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다 재산형성에 비리가 있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시간이 지나 재산도 인물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성의 재산에, 정계진출에 평등하지 못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시각은 아주 씁쓸한 일이다.

그는 현재 정치일선에서 물러선 상태지만 92년 리우 지구정상화 회의에 다녀온 이후로는 환경운동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고 <환경사회정책연구소>를 열었다. 이 일은 국회에 들어가 보사분과에 적을 두면서부터 업무에 둔 일이었다.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영국의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지오그래피 디파트먼트'에서 1년 넘게 공부했다. 골프장, 핵폐기물, 대기오염, 수질문제 등 환경에 관한 한 어느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폐기물 문제에 천착해 왔다.

앞으로 환경문제뿐 아니라, 신행민으로서 통일문제와 IMF 상황에 따른 여성들의 실직문제에도 눈을 돌릴 계획이다.

“늘 뒤처지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고, 정을 나누고자 애쓰며 살았습니다. 여성운동이건 환경운동이건,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 가면 세상도 변하고 개인의 삶도 변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글 권혁관/ 사진 조아권



“세상도 개인도
작은일부터 변합니다”

여성주간 국민훈장 모란장 받은 박영숙소장



“자금성의 기운을 폴라로이드에 담아냈다”

절정의 순간을 위해 인고했던 사진작가 송영숙

15년간의 공백을 깨고 자금성의 '살아 있는 기운'을 폴라로이드에 담아내는 데 성공한 사진작가 송영숙씨. 그는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자금성을 통해 작가활동의 포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번 사진전에서 그를 가장 가슴 벅차게 했던 말은 “자금성의 기운을 사진 속에 몰고 왔다”는 평과 사진전을 보러왔던 한 중국부인이 그를 중국인으로 착각했을 만큼 “중국의 참모습을 담았다”는 평이었다. “중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것은 처음이라며 사진 속의 빨강이 진짜라고 했을 때 제 작업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생생한 자금성’을 담아냈던 것은 지난 15년간을 엄마와 아내로, 사업가로서의 ‘치열한 삶’, 작가로서는 ‘꼭 썩는’ 침묵의 시간으로 꺾꽂이 채워왔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가 83년 사진을 그만뒀던 것은 자녀를 키운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작가로서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었다.

늘 문화예술계 언저리를 넘나들며 내면의 에너지를 축적했던 그는 사업상 중국을 드나들면서 중국을 새롭게 발견하고 2년 전부터는 자금성과 본격적인 대면을 시작했다. “중국은 대단한 에너지를 지닌 나라입니다. 그러나 매번 갈 때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중국의 생생한 모습을 중심부부터 해체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진은 테크닉보다 마음으로 찍어야 하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성숙의 단계에 오를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대로 자금성 찍는 작업도 그렇게 이뤄졌다. 6년간 중국을 오가

며 오랜 관망의 시간을 가졌고 막상 사진작업에서는 ‘혼이 빠져나갈 정도의 마음’을 주는 밀착의 순간을 맞출 수 있었다.

‘먼저 주고 다음에 받는다’는 그의 생활철학이 이번 사진작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고나 할까.

“자금성의 메인홀은 누구나 다 찍지만 저는 자금성의 옛 정취와 화려했던 영화 뒤의 빈 공간, 비록 폐허가 됐지만 지금까지 사람 냄새 나는 곳은 없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고민은 촬영작업을 거의 마칠 즈음 자금성의 부속건물, 뒷골목의 습기찬 바닥과 벽, 문 등 곰팡내 나는 곳을 발견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정말 찍고자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을 찾아낸 것이다. 단 한 사람 ‘부의’를 위해 수천 명이 넘나들던 문턱과 스쳐지나던 담벼락이야말로 진정한 사람들의 ‘숨소리’와 ‘느낌’이 배인 곳이라 느꼈다.

“폴라로이드를 택한 것은 사진의 경계를 넘나들며 해체와 분해, 연속성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순간의 느낌을 포착하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을 켜던 자금성의 모습은 무려 1,000장이 넘었다. 그는 사진으로 자금성을 자르고 조각냈고, 전혀 다른 관계성 속에서 연속성을 잡아낼 수 있었다.

연극인 박정자씨 후원회인 <꽃봉지회> 회장등 여러 예술인 스폰서로도 활약중인 그의 오랜 인내의 결실은 자금성의 기운을 되살린 그의 6번째 사진전이었고 중국을 중단하면서 중심부부터 해체하려는 그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다. □

글 박해숙/ 사진 송영숙





낙서처럼 솔직하게, 낙서처럼 자유롭게

낙서전 여는 영화배우 강리나

“내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백남준과 바스키아예요.”

까무잡잡한 작은 얼굴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강리나(33)씨는 입을 열었다. 우리가 영화배우로 기억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첫 마디를 “아, 그 〈서울무지개〉의 강리나씨죠”로 시작하게 하는 사람... 그가 홍익대 동양 화과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아주 긴 시간 영화배우로 살아왔기에, 그것도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은 ‘에로배우’의 이미지로 굳어져왔기 때문에, 더 오랜시간 동안 그림 속에 영혼의 깊은 부분을 묻어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는 힘든 일이다.

“어릴 때부터 온 집안을 그림으로 가득 채워놓곤 했어요.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았죠.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보다 먼저 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림을 택했던 거예요.”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의 미대생이 되었지만 집안의 도움을 바랄 수 없었다. 여자라면 자고로 양전하고 착하면 되고, 고등학교 정도 졸업해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 잘 가서 자식 낳고 살면 최고의 성공한 삶으로 규정짓고 있는 집안 분위기에서, 선머슴처럼 덜렁대며 뛰어다니는 그의 미대 입학은 그리 환영받을 수 없었다.

‘물감도 잘 안 시주는’ 상황이었다. 영화배우로의 길은 우연하게 다가왔다. ‘에쁘게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들어간 모델학교에서 개성적인 얼굴로 여기저기 모델 일을 하게 되었고 화구값이라도 벌어보려던 그 일은 예기치 않게

가지를 치며 뻗어나갔다.

“〈우뢰매〉의 이티 엄마역, 〈대물〉, 〈밀크 초코릿〉, 〈웨딩 드레스〉, 〈난 너를 천사라 부른다〉, 〈거꾸로 가는 여자〉, 〈변금련〉, 〈중팔〉 등의 영화를 찍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영화 내의 미술 담당도 맡아 했었죠.”

영화배우로 살면서도 틈틈이 한 작업으로 동료들과 전시회도 했다. 그러나 우연히 걸어들어가 엉뚱할 만큼 ‘야한 이미지’로 자신의 자리가 굳어져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은 달갑지 않았다.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작업’을 시작했다. 혼자만의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작업한 그림 30여 점을 ‘낙서’란 주제로 모았고 예술의 전당에서 첫 개인전(9월 16일~10월 5일)을 열게 되었다.

“이전까지 해온 배우 일을 썩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여러모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마음을 열고 가슴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낙서’라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려내면서 이 일이 주는 기쁨이 크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한가지, 강리나씨는 이프와 인연이 깊다. 만화 『素女列傳』을 그리는 ‘수박두리’의 두 개의 수박 중에 하나가 바로 그였다는 사실. 하지만 이제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더 전지하게 해보기 위해 색녀열전은 잠시 쉬기로 했다. □

글 권혁만



“난 그녀의 이름을 교과서에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 정정화〉의 여주인공 원영애

“그렇다. 이 길은 한 여인의 길이다. 일한 살에 시집과 세상 문을 닫고 규방에 갇히고, 열아홉에 첫 아이를 낳아 잃고, 남편을 떠나보낸, 가슴 얼어오는 그 모든 사연을 십대의 나이에 모두 치른 한 여인의 길이다. 이 길은 모진 풍파로부터의 도피도 아니며 안주도 아니다. 또 다른 비바람을 이번에는 스스로 맞기 위해 떠나는 길이다.”

‘정정화’라는 한 여자가 남긴 『늑두꽃』이란 책의 첫머리다. 그녀는 스무 살의 나이에 겁도 없이 제 발로 두벌두벌 독립운동의 한복판인 상해임시정부로 걸어 들어가 근 30년 동안을 투쟁과 유랑으로 살았다.

독립운동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 백범 김구, 안중근, 안

창호, 윤봉길, 또 유관순... 인구에 회자되는 사람들과 달리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여자, 대여섯 차례나 밀사의 자격으로 독립자금을 조달하려 사선을 넘었던 여자, 정정화는 연극배우 원영애의 몸과 마음을 빌어 정부수립 50주년 올해, 〈아, 정정화〉라는 연극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 역사에 숨어 있던 꽃이지요. 91세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번도, 나 독립운동 했네 하고 떠벌이지 않은 분이예요. 독립자금을 모아 허리에 두르고 두만강을 건너 열흘 넘게 기차를 타고 다니던 그 당당한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지요.”

원영애씨는 대학 1학년 때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냥 연극반에 들어가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한

번 들어선 연극의 세계는 생각보다 중독성이 강해서 이차저차하게 살아가리라는 그림을 그려볼 새도 없이 십몇 년의 세월을 배우로 살아가게끔 만들었다.

연극을 한 편 시작하면 맡은 역에 온몸의 에너지와 영혼을 쏟아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동안 맡았던 어떤 역할도 이번 정정화만큼 그를 매료시킨 적이 없었다.

“너무 당차고 대단한 여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망가의 딸로 태어나, 그저 그렇게 무리없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먼저 독립을 위해 망명했다지만 겁없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힘든 쪽으로 옮길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나 택하는 손쉬운 삶을 그녀는 스스로 버렸지요.”

아무래도 정정화의 넋이 원영애라는 여자 속으로 들어온 듯, 그녀는 그렇게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정화를 연기했다.

살아오는 동안 한 번 한다면 해내는 고집으로, 이 어려운 경제속국의 시대에 역사에 묻혀 사라질 한 여자를 힘들게 되살려낸 원영애씨도, 어쩌면 정정화 못지 않은 독립투사가 아닐는지. 서른일곱의 나이이고 명절만 되면 결혼하라는 성화에 시달리지만 돈이나 명예, 시댁같은 인연에 목매지 않는 것만 봐도 그는 정정화 할머니 못지 않게 당차고 멋져보였다. ■

글/사진 권하만



10살 된 여성신문, 재도약 위한 기지개

문화행사, 지면개혁 등 모색

여성신문이 오는 10월이면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1988년 창간한 이후 여성신문 10년이 걸어진 길은 '가시밭길'이라고 말하는 이 계경 대표이사의 말처럼, 한국 최초의 여성언론으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자급난, 인력난 등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나 누가 알았단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성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아하면서 한국사회에 최초로 뿌리내린 여성언론으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9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올해의 여성운동상 주인공으로 여성신문의 이계경 사장을 선정했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는 지난 7월 3일 열린 여성주간 행사 기간중 여성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여성신문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때 여성단체와 함께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위 사진)를 주관했던 것이 여성신문의 대외 지명도를 한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10년을 아어온 '한국여성의 대변자'라는 타이틀 하나로 일간신문도 하기 어렵다는 대신후보 토론회를 거둔 채 치뤘던 것이다.

88년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만든 자본금으로 첫 호를 낸 여성신문은 오는 11월이면 500호를 낸다. 창간 10주년을 즈음해 여성신문에서는 몇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신문이 주력해온 문화행사 등이 10주년 행사로 기획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신문이 창간 10년을 맞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면개혁이다. 얼마 전, 21세기를 향해 세계로 뻗어가는 여성언론을 상징하는 새로운 신문의 상징(아트디렉터 박규호 작)을 만든 여성신문은 지면에도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여성언론의 위상을 담기 위해 편집구 식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아아 여성신문 창간 10주년은 다가올 10년을 위한 재창간 1주년이 될 모양이다.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

15돌 맞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회장 신혜수)이 창립 15돌을 맞았다. 지난 1983년 전화기 한 대로 아내구타문제 전화상담을 시작한 여성의 전화는 현재 전국 18개소에 지부들 둔 명실상부한 여성운동의 구심체로 성장했으며 전국지부들 아무런 수 있는 중앙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월 중앙조직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출범시켰다.

그간 여성의 전화는 상담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생생한 여성문제의 현실을 토대로 여성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다.

매 맞는 아내문제를 비롯해 여러 성폭력 사건들, 매춘문제, 여성노동자의 성차별과 구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을 비롯한 여러 여성관련법들의 제정과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여성의전화연합은 15돌을 맞아 지난 7월 2일에서 15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고용문제, 매춘규제, 복지정책, 여성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모두 7개 항의 여성산언문을 채택했다.



여성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온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15돌 기념대회

조각난 역사를 꿰맞춘다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개관



심상하면 불거지는 일본정체인들의 망언. 얼마 전 일본의 농수산성인 나카가와 쇼이치는 2차대전중 일본군이 중국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있었다고도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자신의 말이 예상 외로 큰 소란을 일으키자 나카가와는 했던 말을 취소하면서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강제성이 있었는지 점점 알 수 없게 됐지만 정부의 견해에 따라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두

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었다', '없었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망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는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 역사관을 만들었다. 이른바 (일본군위안부역사관). 총 공사비 8억여 원과 3년여에 걸친 공사기간 끝에 연건평 104평의 2층 건물 두 동의 규모로 지난 8월 14일 문을 열었다. 이 역사관에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 여성들을 군위안부로 강제징용해, 참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위안부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당시 위안소의 실제모습 재현, 한 데 모은 국내외 위안부 관련자료 등을 통해 전시된다.

역사관은 1관과 2관으로 나뉘어 있는데 1관에는 증언의 장과 체험의 장이, 2관에는 기

록의 장, 고발의 장, 추모의 장이 각각 설치된다. 주제별로 구성된 각각의 장을 따라 역사관을 둘러보면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일본의 민행은 움푹달라질 수 없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 3월 1일 역사관 외관이 건립된 이래 약 1년 반 정도 걸린 역사관 내관 설치에는 위안부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 특히 조각가 윤영석 교수(경원대), 화가 문석남씨(본지 발행인)를 비롯해 화가 임옥상씨, 설치미술가 육근영씨 등 수십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역사관은 조만간 인터넷 사이버역사관도 개설할 예정이다.

역사관을 통해 문제되거나 왜곡된 채 흩어져 있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어 나갈 것이라는 나눔의 집 간사 오경자씨는 역사관 개관을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한다. 역사관 위치는 경기도 광주군 복촌면 원당리 65번지 (전화: 0347-768-0064)

"호주제 폐지, 여성의 운명을 바꾼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얼마 전 컴퓨터통신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다. 갓 결혼한 여성의 글이었는데,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남편 할아버지의 재산날이 친정아버지의 생신과 겹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살아 생전에 생신날을 챙길 수 없다는 한탄이 적혀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번도 보지 못한 죽은 시할아버지보다는 살아 있는 내 아버지가 더 소중한지 않은가? 그러나 결혼한 여성

은 부가입적(夫家入籍) 때문에 남편집안의 허부구조로 편입되어 시집의 행사에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것이 여자의 도리이자 운명이라고. 그러나 천만에 말할! 그것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도리나 운명을 강요하는 호주제라는 악법 때문이다. 호주 중심의 호적법은 여자에게 사종제도(아버지, 남편, 아들, 손자를 따르려!)를 강요하며, 남편집안의 귀신이 되기

를 강요(부가입적)할 뿐만 아니라 입적, 제적, 복적과정에서 차별(결혼, 이혼, 재혼시 호적 정리과정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차별)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악법 호주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가 발족된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칭)가 바로 그것. 한의사인 고은광순씨가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호적제도에 관한 공부모임이 모태가 된 연대모임

은 지난 8월 12일 첫 번째 창립준비위원회를 연 이래 약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4일에 정식 발족될 예정이다. 고은광순씨는 호주제를 "흔스러운 피소적 변태성 논리"라고 비난한다.

현재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칭)

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인우회, 가정법률상담소, 한국노총, 민주노총, 여성신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육아연구회, 또하의 문화, 경남여성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원불교 여성회, 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연구소, 바른정치실현

시민연대 등 15개 단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고은광순 02-577-0601)

지난 9월 2일 열린 두번째 창립준비모임



동아시아 인권국제학술대회서 여성 인권문제 본격논의



이번학술대회에 참가한 오금숙씨(왼쪽)와 김은실 이대여성학과 교수(오른쪽)

전쟁과 폭력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8월 21일부터 나흘간 제주도 유스 호텔에서 열린 제2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냉전체제하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여성체제의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대회 둘째 날인 22일,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을 주제로 여성문제가 본격 논의됐다. 김은실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제국주의와 성폭력(Fujie Yuki 大阪外語大学 교수), 국가폭력과 여성체제(김성례 서강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전쟁과 미군정하의 오키나와 여성의 삶(아라키기 아수코, 오키나와 이민사 연구가), 50년대 대만의 백색공포와 여성의 삶(壽守輝 臺灣地區政治受難者 婦女代表), 그리고 한국의 광주민중항쟁과 제주 4·3항쟁 당시의 여성체제(안성례 광주시의원, 오금숙 제주 4·3연구소 연구원) 등 냉전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여성 피해사

례가 공개됐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냉전구조하의 동아시아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를 드러내고, 새로운 평화와 인권신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한 한국, 일본, 대만의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 지난 해 2월 대만에서 처음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 4·3인 중형정 제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도에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199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통티모르 독립운동가 라모스 오르타를 비롯하여 일본·오키나와·대만에서 150여 명, 국내에서 100여 명의 학자·법조인·예술인 등이 대거참석했다.

(문의: 757-4843)

초보여성직장인을 위한 지침서 발간

내가 여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라. 회사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장이 아니다. 조직 안에서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 남성 동료에게 지나친 친절은 여성동료들을 적으로 만든다. 야단 맞아도 눈물 보이지 말고, 칭찬

받아도 응석부리지 말라. YES, NO를 분명하게...

초보여성직장인의 99가지 행동지침을 담은 자료집이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회장 최영희)에서 나왔다. 건설회사, 은행, 백

화점 등에서 근무하는 중간급 여성신배들이 후배들에게 말하는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충고다.

『초보여성직장인을 위한 99가지 지혜』라는 이름의 이 자료집은 초보직장인 중에서도

초보여성직장인을 위한

99가지 지혜



내일여성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회장 최영희)에서 발간한 초보여성직장인을 위한 99가지 지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어린 여성들을 위한 책이다. 고졸 사무직 여성들은 직업의식 부족으로 인해 취업 1~2년차에 이직률이 높고 또 성희롱등의 인권유린도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취업한 선배와의 네트워크가 부족해 직장생활의 노하우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대졸여성들도 취업 전에 물어두면 도움이 될 듯. 또 초보직장을 맨 직장인일지라도 자신이 타성에 젖어 있다고 생각될 때 퍼보면 삼기일이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가입해서 구입하거나 단체구입을 할 수 있다. (문의: 338-7480)

웹진 <달나라 말세포>, 인터넷에 깃발 꽂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모여 만든 여성주의 잡지 <달나라 말세포>(달말)가 인터넷에 뜬다. 인터넷상의 잡지(웹진)인 만큼 서점에서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인터넷의 kpd.sing-kr.org/~daughter로 찾아가면 9월초 창간된 '달말'을 만날 수 있다.

달말을 만드는 이들은 서울대에서 여학생 운동을 했던 관여여성모임인대의 멤버들이었다. 이들은 학내에서 벌였던 여성운동을,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왔고, 마침내 지난해 여름 7~8명의 졸업생들이 <여해 그림>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선택한 매체가 바로 웹진.

그렇다고 이들이 컴퓨터에 익숙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책 형식의 잡지보다 돈이 훨씬 들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웹진을 계획했고, 무작정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컴퓨터영'이었던 그들은 이제 예쁜 디자인을 갖춘 여성주의 웹진을 창간하게 된 것이다. 지난 7월경 신보인 준비호는 일일 조회수 300여 회를 상회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미래세대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게 될 인터넷에 미리 페미니즘의 깃발을 꽂은 <달나라 말세포> 파이팅!



극장 마녀 새집으로 이사

여성문화예술기획(대표 이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극장 <마녀>가 새집으로 이사를 한다. 극장 마녀는 9월중 현재 있던 홍대입구에 서 대학로로 이사간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가 극장 마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그동안 여문기획은 극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대학로로의 이전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압축살림으로 극복해 보려

는 여문기획의 돌파구인 셈.

극장 마녀가 들어갈 새집은 현재 <극단 오늘>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극단 오늘, 여문기획, 극단 한강이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 극단 마녀의 새집살림이 비록 '세 집 살림'으로 시작했지만, 연극의 메카, 해화동에 페미니즘연극을 펼쳐갈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반길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글 황금희

세기의 테러리스트 백남준 선생에게 백악관 해프닝, 실수인가 예술인가

백악관 만찬장에서
클린턴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가선 순간
바지가 주르륵 흘러내렸고 속옷을
입지 않은 당신의 하체가 알몸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조기와 의장대를 배경으로 한
나비넥타이 연미복 차림의
양국 대통령과 함께
늙고 병든 노예술가의 벌거벗은
아랫도리 모습이
온 세상에 공개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백 남준 선생님! 이렇게 불러놓고 보니 또 다시 웃음부터 터집니다. 당
신은 지난 6월의 어느날, 나를 하루종일 웃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
점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웃을 일이 없는 시절에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면서
당신이 선사한 웃음은 너무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됐을 이 웃음의 진원지는, 지난 6월 9일 저녁 빌 클
린턴 미국대통령이 방미중인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위해 베푼 백악관
국민만찬장입니다. 처음에 당신은 만찬장에 초대받은 2백여 손님 중 한 사람
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중앙무대에 등장하자 곧장 주인공으로 돌변
하고 말았습니다.

클린턴의 바지속과 백남준의 모자이크만

언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진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휠체
어를 타고 입장한 당신은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내외 앞에 이르러 지팡이
에 의지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1미터 앞에서 인사를 하려고 다
가선 순간 바지가 주르륵 흘러내렸고 속옷을 입지 않은 당신의 하체가 알몸 그
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조기와 의장대를 배경으로 한 나비넥타이 연미
복 차림의 양국 대통령과 함께 늙고 병든 노예술가의 벌거벗은 아랫도리 모습
이 온 세상에 공개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물론 팬티를 입지 않아 그대로 드
러난 당신의 치부는 모자이크처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자이크처리가 오
히려 상상력을 자극했다면, 그래서 누구라도 지퍼개이트에 시달리는 클린턴
대통령의 연미복 바지 속과 현장에서는 정직하게 드러났으나 모자이크 안에
감춰진 김일 이전의 사진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세계적인 예
술가인 당신에 대한 모독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종일 웃어대다가 나는 금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평소



바지 속에 팬티를 입는지 안 입는지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당신은
젊은 시절부터 멜빵바지 차림이 트레이드마크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신
불수에 가까울 정도로 마비된 몸으로 백악관 국민만찬장에 간 당신이 바지에
멜빵을 안 매고 가다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당신이 흘러내린 바지를 올리지 못하자, 백악관 행사
요원이 당신의 바지를 끌어올렸고 당신은 영겨주춤한 자세로 양국 정상대외들
과 악수를 나누었다지요. 섹스캔들로 어지간히 단련을 받은 때문인지, 클린
턴 대통령(그는 자신이, 부인이 아닌 여자와 오랄섹스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
로 밝힐 수밖에 없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자 그 장본인입니다)
은 표정변화를 보이지 않고 당신과 가볍게 악수를 교환했고 동방예의지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당황한 듯 "뭇분들이 기다리십니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빨리
지나가도록 재촉을 했는지요. 당신은 지정된 테이블에 가서 만찬이 끝날 때까
지 자리를 지켰다고 하더군요.

재미있는 것은 미국언론의 태도입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다음날 "양국
대통령의 프로세서널리즘이 도전받았으나 전혀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단
한 줄로 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보도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뉴스전문채널



백남준의 〈윌리엄 드 구조〉
파리 현대미술관 전시, 1989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텔레비의 등장 이후
종이가 죽었다고 말해.
화장지만 빼고
그래서 비디오아트를
하게 된 거지"

CNN은 "백씨에게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관음증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도가치가 없다"며 문제의 화면을 보도하지 않았고 외외전문 TVC-SPAN은 관련화면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식의 조치에 대해 반성의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위싱턴포스트』는 자사의 기사표현이 모호했던 데 대해 "마감시간에 쫓겨 유감스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고 C-SPAN의 리치 팔 대변인은 "어떤 것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다는 본사 보도방침에 어긋나는 조치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가 만난 백남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일본의 이나모리재단이 시상하는 교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교세라그룹의 이나모리 회장이 창설한 교토상은 노벨상에 해당되지 않은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인물에 주어지는 상이며 상금은 약 5억6천만 원. 재단측은 "백씨가 현대예술과 비디오를 접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수상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신문의 한 칼럼니스트는 당신의 교토상 수상소식에 대해 당신이 "미국 아닌 우리나라에서 예술활동을 했다면 그 천재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지금 같은 획일주의적인 교육풍토와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라면 아마 3류 약사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우리의 문화풍토를 개탄했습니다.

나는 1989년 11월 뉴욕의 휘트니뮤지엄에서 만났던 당신을 떠올렸습니다. 휘트니뮤지엄에서는 〈이미지의 세상: 미술과 미디어문화(Image World: Art & Media Culture)〉전이 열리고 있었고 당신은 〈세기말 II(Fin de Siecle II)〉와 〈매그넷 TV(Magnet TV)〉를 출품했었지요.

당신은 아침 대신으로 사온 커피 한잔이 담긴 갈색 종이봉지 하나만 달랑 들고 인터뷰 약속시간이 한참 지난 데 대해 별로 미안한 기색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예의 그 델랑바지를 입고 출품작에 마지막 손질을 하며 반은 장난기 어린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당신에게서는 저명예술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인사치레나 권위의식, 또는 긴장감이나 진지함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푹푹 던지는 듯한 당신의 대답은 '문화적 테러리스트'라는 평을 듣는 당신의 명성에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영감? 예술은 반은 사기야. 그냥 자다가 생각해요. 영감? 옛날에는 검사나 판사를 영감이라고 그랬지 아마? 예술가는 시대를 미리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나는 텔레비의 등장 이후 종이가 죽었다고

말해. 화장지만 빼고, 그래서 비디오아트를 하게 된 거지. 음악? 내가 독일 유학 가서 처음에는 피아노를 쳤잖아. 그런데 쇼팽을 치거나 리스트를 치거나 이게 내 기분에 따라 느렸다 빨랐다 제멋대로 되는거야. 박자 맞추기가 하도 힘들어서 때려치웠지. 그래서 그 다음에 공연하면서 피아노를 때려부셨더니 '테러리스트'라는 별명이 붙었어."

"영감? 예술은 반이 사기야"

당신은, 넘치는 남성호르몬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위풍당당한 클린턴 대통령이나 또는 고난의 정치역정 끝에 마침내 한국의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명성을 누린 세계적인 예술가입니다. 옛날 기억을 더듬고 당신의 예술활동을 되짚어보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당신의 행위에서 고의성을 따진다는 것이 의미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매우 백남준적인 세기의 행위예술이었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사진에서 당신은 보는 사람에게 충격파를 던지고 이어서 복소를 터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백남준은 이미 옛날의 백남준이 아닙니다. 변모된 당신의 모습은 옷을 뒤엎의 비애스런 슬픔을 남겨주며 가슴을 쓰라리게 합니다. 밤송이처럼 짧은 스포츠형이었던 당신의 머리는 덤수룩하니 자라서 손질 못한 티를 내며 이리저리 후줄근하게 빠졌고, 부기가 완연한 얼굴은 중풍환자 특유의 어눌함과 무력함, 그리고 비루함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 당신이 걸치고 있는 상의는 연미복은커녕 양복도 아닌,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점퍼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차마 바로 볼 수 없는 그 아래는 모자이크와 맨 다리였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지팡이 대용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었고 바지는 바닥에 흘러내려 발목에 걸쳐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바지 위로 맨 살을 드러낸 하체를 비웃듯이 신겨져 있는 양말과 구두는 왜 그렇게 슬퍼보일까요? 당신의 바로 뒤 성조기 앞에 도열한 외장대원들의 줄선 제복과 모자들의 칼로 베일듯한 땃땃함, 그리고 남성이 넘치는 젊은 클린턴과 대조가 되어서인가요?

클린턴의 섹스스캔들과는 다르지만 당신도 한때는 파격적인 공연활동으로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스타플레이어였습니다. 심지어 과도한 노출행위로 공연도 중 제포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지나간 옛이야기일 뿐입니다.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휠체어에 의지하고 등장한 당신의 늙고 병든 몸은 옷 밖에서나 옷 속에서나 한때는 아름다웠던 육체의 잔인한 배신, 젊음의 덧없음.

당신은 자신의 몸을
재물로 바쳐,
한없이 아름다울 수 있으며
또 한없이 비루하게
전락할 수 있는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를
웅변하는 순간의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김홍희는 백남준의 '인생을 바꿔놓은' 운명적 전위음악가입니다. 그의 베타를 가위로 자르고 그 옆에 있던 존 튜더에게 삼부세례를 한 후 사라졌다가, 근방 술집에서 공연장으로 전화를 걸어 공연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세속적인 명성과 부와 권력의 허망함. 이 모든 것을 옹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재물로 바쳐, 한없이 아름다울 수 있으며 또 한없이 비루하게 전락할 수 있는 육체를 지닌 인간의 한계를 옹변하는 순간의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60년대를 대표하는 해프닝의 원조”

백남준예술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핵심개념은 관객참여입니다. 탄생, 죽음과 같은 중요한 일이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듯이, 특정 공연의 의미는 그것이 똑같이 되풀이될 수 없다는 일회성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일회성을 ‘만남의 신비(mystery of encounter)’와 결부시키며 일생에 단 한번 있는 ‘우연한 만남’의 충격을 뇌세포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생리학적 자극으로 풀이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백악관 국민만찬장을 주목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삶과 예술의 통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천위예술가이니까요.

『백남준과 그의 예술』을 쓴 김홍희는 “백남준식 해프닝과 비디오아트는 기존의 예술개념에 반항하며 예술과 삶의 이분법을 해소하고자 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관객의 참여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백남준의 반예술적 참여예술은, 따라서 관객과 혼연일체를 이루는 제의적이고 주술적인 예술”이며 “문명 이전과 모더니즘 이후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시적 예술가인 백남준은 가장 원초적인 무당으로 불리울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가 프레드릭 제임슨이 당신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라고 평한 것은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존 케이지, 요셉 보이스 등과 함께 ‘60년대를 대표하는 가장 실험적이고 극단적인 공연예술, 해프닝’의 원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프닝 공연 사상 가장 전설적인 일화로 남아 있는 당신의 1960년 작품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습작(Étude for Piano Forte)〉은 이번 해프닝과 관련하여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공연이라고 봅니다.

피아노로 쇼팽을 연주하던 당신은 갑자기 관중석에 내려와 관람하고 있던 존 케이지—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운명적 전위음악가입니다—의 베타를 가위로 자르고 그 옆에 있던 존 튜더에게 삼부세례를 한 후 사라졌다가, 근방 술집에서 공연장으로 전화를 걸어 공연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김홍희는 이 공연에 대해, 첫째 베타를 자르는 과격한 행위를 통해 서구문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성중심주의와 남성우월주의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남성문명과 남성권위의 상징인 베타에 대한 공격은 남성에 의해

구축되고 유지되는 서구문명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며 그것이 베타를 자르고 머리를 빠는 것과 같은 최극적 터치로 수행되기 때문에 심오한 파괴라기보다는 경쾌한 익살극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격의 대상을 관중석에 앉은 케이지와 튜더로 지정함으로써 무대를 관중석까지 확장하고 관중을 작품의 필연적 요소로 포함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공연 도중 객석으로 진출함으로써 시간, 장소, 행위가 모두 고정적이었던 무대공연의 세 요소를 무시하고, 즉흥적이고 가변적인 관객참여의 순수해프닝 상황으로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음악의 시각화 작업—백남준식 에로티시즘

주로 여성몸비와의 협연으로 드러나는 에로티시즘의 표출은 백남준예술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입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문학이나 시각예술에서와 달리 음악에서는 성적인 영역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음악에 누드와 섹스를 도입하여 음악의 시각화 작업을 완수했다고 말합니다. 다시말해, 백남준의 에로티시즘은 관객참여를 유발하는 자극제인 동시에 그것을 통해 관객에게 직접 어필하는 소통의 촉매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번 백악관 국민만찬장의 해프닝 역시 기성세계의 가치관과 권위를 단번에 무렬리버리며 전복시킨, 그러나 그 누구를 타겟으로 삼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높고 병든 몸을 재물로 바친 백남준식의 테러적 예술행위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찬란한 젊음과 치기어린 예술, 그리고 아름다운 육체의 허망함을 볼모로 잡고 자기모멸을 감수한 그것은 해탈한 노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당신의 병든 육체가 만들어낸 해프닝은 도발도 아니고 풍자도 아니고 오히려 눈물겨운 서글픔과 함께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낳은 걸출한 예술가 백남준을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된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도 머리만 살아남은 채로 영화 감독을 하고 척추마비환자들을 돕기 위한 운동도 펼치며 사회활동과 예술활동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그랬듯이 허찮은 세상을 초월하여 아부하지도 말고 비웃지도 않으며 전복과 놀이에 충실한 당신의 인생을 완성하십시오. 허망한 인생을 감사하게 여기고 즐기며 마지막까지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 해프닝 역시
기성세계의 가치관과 권위를
단번에 전복시킨,
백남준식의 테러적 예술행위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찬란한 젊음과 치기어린 예술,
그리고 아름다운 육체의
허망함을 볼모로 잡고 자기모멸을
감수한 그것은
해탈한 노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류숙렬
문화일보 기자, 본지 편집위원



"남자를
말한다"

일시 : 1998년 8월 어느날 오후

참가자 : 미혼여성 1명, 기혼여성 6명 등 총 7명

지난호에 처음 마련한 if수다방 「최고의 남자, 최악의 남자」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우리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한 정직하고도 자유로운 품평회에 목말라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if는 앞으로 매호마다 수다방을 열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남성들에 대한 품평회를 갖기로 했다.

여령: 오늘 토론의 주제는 뭐지요?

선명: '이 계절의 마초맨'이라며?

유주: 지난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화제 중에서 우리 식으로 남 녀를 바라보는 거지.

김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다방을 여는 이유가 일반 저널리즘이 보지 못한 어떤 틈새를 보여주자는 거죠? 여자들 시시적인 문제를 어떻게 생각 하나 그런 거를?

선명: 그럼 보컬선거 얘기해야 돼. 부산시의회 얘기 합시다. 글썄, 후보자가 유세하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다들 안 봤어요? 신문에 났는데, 부산시의회 의장하고 시의원들 몇 남자가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당직교사가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씨, 여기 커피 좀 타줄 수 있어요?" 그랬단니까. 그걸 또 여교사가 교육청에다 항의를 했지.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여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유주: 그래서 경위선지 뭔지 났다면 서?

김나: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냐.

유주: 전교조에서 대응을 했지.

선명: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북하면 여자들더러 정치적인 자질이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무한테나 커피 좀 타내라고 하는 자질은 없지.

유주: DJ 단골메뉴가 그거잖아. '여자가 여자를 안 뽑아주는데 나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명: 다 그러죠. 입 달린 정치인들은...

김나: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 들으면 막 막해요.

유주: 그렇지. 근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논리지.

선명: 사실 여자를 써주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변명할 때 쓰잖아.

유주: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개혁을 혁명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말뿐이지. 숫자만 채우려고 하면 되나. 뽀뽀기의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을 끌라인에서만 평가해서 너는 지고 너는 이겼다 하는 꼴이지. 애초부터 키워질 기회도 없었던 여자들을... 그러니까 답답하지.

김나: 한국사회는 뒤집어 엎어지기 전에는 남자가 맞춰서 잘 살 수가 없을 거 같애. 나는 왜 그런 생각이 살 수록 자꾸 들죠?

유주: 아, 또 가정폭력방지법 가지고 언론에서 뭐가 문제가 됐대며?

김영: 조선일보 「이규태칼럼」에서 고개 숙인 가장 어디로 가나? 가정폭력 방지법 때문에 짐에도 못 들어가면... 뭐 그런 건데 통신에 비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박선: 가뜰이나 고개숙인 남자들 더

고개 숙이게 됐다 이거지.

선명: 그거 이시형이 했던 말이잖아.

여령: 대저 사나이 대장부가 뭐 고갯 일 때문에 고개를 숙여? (모두 웃음)

유주: 근까 그만큼 한국의 남성성이 취약한 거지.

선명: 맞아. 유아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유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나도 난리법석이지.

김나: 정말 그 가정폭력방지법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뜨더라고. 때 맞는 남편 사건이 생기질 않나. 또 어떤 남자는 안방출입금지명령도 받았잖아.

선명: 남편 때린 여자가 나를 당황시키더라. 그 여자 구속됐지요?

유경: 아휴, 나는 남자를 엄살 때문에 못 살겠어. 자기네가 맞으면 얼마나 맞는다고 북하면 '배맞는 남자' 얘기나 하고.

박선: 그땐 그렇게 말해야 돼. 가정폭력방지법 만들어지길 정말 다행이야. 약한 남자들 지켜주고...

여령: 그러게, 진작에 만들지. 왜 이제 만들고 난리야.

유경: 맞은 남자는 진단이 10일밖에 안 나왔던데?

박선: 할퀴고 꼬집었다며? 담배로 지치고 방망이 휘두르고 핵대로 때리는 거하고 같애?

유주: 그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게 바로 우리의 현주소야.

선명: 이거 확인해 봐야 해요. 할퀴고 후라이팬 좀 던졌다고 구속이야?

박선: 후라이팬 좀 던졌다고? 요렇게 던졌는지 (크게 휘두르며) 이렇게 던졌는지 어떻게 알아. (모두 웃음)

유주: 여자가 술에 취해 가지고 그랬대. 술에 취하면 여자도 때릴 수 있다 이거지.

박선: 하여튼 용감한 남자야. 나 맞는다 이거지. 얼마나 용감해. 그리고 그런 남자 더 나와야 돼. 남자도 수틀리면 맞는다.

유주: 보통 남자들이 술먹고 여자 때리잖아. 그런데 이제 여자들도 술 먹고 때릴 거다 이거지.

유경: 그러면 안 되지. 여자는 힘이 모자라는데.

선명: 그럼, 그것도 자신이 있어야 때리지. 폭력이 폭력을 불러.

박선: 그래. 괜히 말 잘못했다가 더 맞아. 우리 여자들.

여령: 아주 안타까워. 대저 남자라면 강하게 잘 살아야지. (모두 웃음)

박선: 맞는 남자보고 이래야 돼. 예잇 약한 모습!

여령: 올면 안돼.

유주: 때려놓고?

선명: 이르지도 말고...

유주: 귀찮하게...

여령: 움직이지 마! (모두 웃음)

유주: 나는 안방 접근금지 그거 너무 웃겨. 그 판사 너무 한거 같애. 어떻게 판결을 그렇게 내려?

여령: 그럼 마누라는 계속 안방에만 있어야 돼?

박선: 화장실 나가면 맞겠네.

여령: 언제는 법 때문에 안 됐나? 불러내서 때면 되지. 아. 너 이리 좀 봐.

유주: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길거리에서 싸우면 여자가 고발할 수 있지. 제 삼자도... 그래도 너무 웃겼어. 안방금지명령은...

선명: 그래도 안방이라도 확보한 게 다행이예요.

박선: 공론화했다는 것만으로도 남자들이 위축될 수 있을까?

유경: 성덕 바우만도 얘기해봐요.

유주: 그래. 아버지는 지금 전혀 모를 거 아냐. 생부는...

김나: 예. 누군지 모르죠. 엄마만 유전자 감식해서 알고.

유주: 엄마는 실제로 입양을 시켰으니까 입양한 애들이 올 때마다 괴로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도 똑같이 괴로워야 된다는 거야.

김나: 아니. 그거는 나는 안 맞는 거 같애. 남자한테 너무 심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애. 남자는 원래 몰라요. 자연의 섭리야. 자기 자식이 결국은 누군지 모르는 거. 헬렌 피셔 보셨어요?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바뀐 거야. 유인원 같은 거 관찰해 보면 암컷 혼자 기르는 거야. 애들. 수컷은 뭐냐 하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컷이 기르는 애들한테 잘해주는 거지. 다른 거

없어.

박선: 그러니까 권리와 함께 따르는 고통이지.

유주: 아니. 내 얘기는 남자들에게만 권리가 있고, 여자들한테는 권리가 없이 고통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김나: 글썽. 원래 남자는 인간에 대한 권리가 없는 거야. (모두 웃음) 부권(父權) 주고 고통받으라고 하지 말고. 부권을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간 본능에 거부장제(거부장제)는 맞지 않는다는 이거지.

박선: 그런데 사실 한국 아이들 입양해서 잘 키우는 외국 사람들 너무나 존경스러워.

유경: 특히 장애인들 입양하는 경우는...

김영: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틀린 게 우리나라는 한 번 입양하면 쉬쉬하고 이사까지 하잖아요.

유주: 위선의 문화야.

김영: 피검사까지 해서 입양하잖아요.

박선: 그놈의 혈통 때문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재산 모아서 분배해야 하는 과정도 무시 못 할 거예요.

선명: 남의 씨에 재산 물려주는 꼴은 또 한국사람들 못 보지.

박선: 남북이산가족 재회 한창 할 때 생모랑 만난 우리 친척 있는데 재산 문제로 부모하고 또 다시 갈라서더라구.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 싫어하

더라구요.

유주: 그러니까 영원한 혈통은 없는 거야. 영원한 고향도 없고.

박선: 그놈의 혈통 때문에 내 부모. 내 자식 굴이굴이 찾아가지고 그놈의 혈통 때문에 또 갈라서지는 거지. 아 유. 지긋지긋해.

유경: 성덕 바우만 얘기 더 해요. 재미있는데.

유주: 그 엄마가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용서는 무슨. 이미 다 했다. 앞으로도 만나자 그랬다고 하더라고.

김나: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지. 근데 한국여자들이 너무 피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일이 생겨요. 남자들은 무책임하고...

유주: 스무 살에 연애해 가지고 성덕 바우만을 낳은 건데 남자가 유부남이 었대. 엄마가 자기 지금 남편하고 사춘기 두 애들 생각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나타난 거야. 유전자 감식 해가지고.

김나: 근데 성덕 바우만은 엄마의 평안한 삶을 깨지 않기 바란다고 철든 소리만 하더라고.

박선: 근데 대부분 입양아가 친부모 만나고 나면 "이게 다인가. 이게 뭐가?" 이런 생각 들 거 같애. 얼마나 낯설겠어.

선명: 그렇대. 저번에 TV에 나오는 데 이산가족 만난 사람들의 80%가

다시 남편대.

박선: 그런 거 보면. 정말 기가 막

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명: 그럼. 기쁜 장이야.

김나: 어쩌면 성덕 바우만도 잘 된 거야. 한국에서 그렇게 잘 길러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역설로 이렇게 말하면 돼. 고아수출 많이 하자. 태어난 나라는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입양으로라도 바꾸자.

박선: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입양해 온 아이다. 언젠가는 네 나라를 찾아라", 이렇게 알려주면서 키우는 것도 좋은 거 같애요.



성덕 바우만

김나: 그럼. 나는 양부모 너무 존경스러워.

선명: 휴머니즘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거 같애.

김나: 인간을 그 자체로서 사랑하는 거 같애. 그 사람들은.

유주: 그러니까 정박이나 지체부자유 아들 데려다 키우잖아.

김나: 라이파이한 얘기합시다.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거기다 싸질러놓고

남자애들 그거 성덕 바우만이

베트남으로 얘기해야 돼.

선명: 어. 재밌네.

김나: 어떤 경우든지 남자는 안 나타나고, 여자들이 결국 책임지고, 우리는 외국에서 입양은커녕 거기다 싸질러 버리고... 라디오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취재

차 베트남에 갔다가 한국 혼혈아들을 많이 만났대. 그런데 그 애들 엄마가 아직도 재혼을 안 하고 애들 아버지 얘기를 좋게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연락처를 주면서 자기 아버지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어떤 남자들은 이름은 맞는데 "너 누군데 이 따위짓 하고 다니냐"면서 욕을 하고 끌어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고 그런대.

선명: 웬일이니? 아버지가?

김나: 응.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줄 게 아니라 같이 도와주자 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더라고...

여령: 그 남자들은 고아수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직잡 가서 하고 오는 걸까? 절차도 복잡하고 아니까. (모두 웃음)

김나: 나는 진짜 한국 남자들의 민족주의가 이런 건가 얘기하고 싶어요.

유주: 열받은 얘기 말고 재밌는 거 없을까?

선명: 나는 박세리 아버지 마음에 들더라. 박준철 말이에요. 딸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

김나: 근데 뭘 했으며? 필드에 나와가지고 애플 막 뭘 했단데?

박선: 막과파더라고.

선명: 나는 그 아버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별론가보지.

박선: 아, 물론 그런 있지. 딸을 사랑한다면 후남이처럼 키워야 된다.

김나: 황산성 발언이 히트였어요. 뭐라고 그랬나 하면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기른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그러는 거 있죠?

박선: 나는 아버지보다 박세리 정서에 관심이 많은데.

선명: 너무 씩씩하더라. 개 눈초리 너무 마음에 들어. 매 같잖아요.

여형: 잘못하면 아버지 주먹이 날아오잖아요. 나래도 일동하겠나.

선명: 아니, 그렇게 주눅든 애가 아니고 애 자체가 상당히 자질이 있는 거 같애.

김나: 어느 텔레비전 기자가 치마 입느냐고 물어봤어. 요리하냐고도 물어보고.

유주: 아휴, 너무 싫어. 그런 건 왜 물어봐.

김나: 너무 주접이지. 언론이, 그러니까 그냥 애가 웃더라고.

박선: 투견장에 데리고 가서 애한테 투견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선명: 그게 박준철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점이야. 근데 투견이 암캐하고 수캐하고 싸우는 거라

내.

박선: 근데 암캐가 이긴다면?

유주: 암캐가 이겨? 그래, 동물의 세계는 그런 거야. 암놈이 이겨. 숫공작이 날개 펴고 공작춤 추는 게 왜 그런데? 암놈한테 이쁘게 보여서 꼬일려고 그런 거잖아.

김나: 숫사자는 웃기대. 자기는 놀고 있고, 그러면 암사자가 밤에 사냥해다가 갖다주고 그러면 숫사자가 먼저 맛보고...



박준철



박세리

박선: 죽나 안 죽나 보려고 먼저 먹는 거 아니에요? 독극물 넣었나 보려고... (모두 웃음)

김나: 숫사자가 사냥 같이 할 때는 물아주는 역할을 한대, 또 울타리를 지

키는 것도 하고.

박선: 근데 동물의 세계에는 역할은 있을지언정 권력관계는 없는 거 같애. 위계질서 같은 것도.

여형: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게 권력 아닌가. 잡아오면 숫사자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암사자하고 새끼들이 먹고...

김나: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물고기인데, 수놈이 아무튼 지극정성으로 기르지만, 자기 새끼들을, 암컷은 산란만 해놓고 가고 수컷이 기르더라고. 정말 개네들은 부성애더라.

여형: 우리 물고기 먹지 말자.

박선: 물고기 인권을 보호하자. 아니야, 물고기권인가.

김나: 어권(魚權).

김영: 그럼 사자 잡아먹자. (모두 웃음)

김나: 우리가 부성애를 배우려면 물고기한테서 배워야 했더라... 근데 그건 물고기 얘기고, 우린 물고기가 아니니까, 근까 헬렌 피셔 얘기가 이렇게 얘길하더라고. 나중에 남겨지는 성(性)이 애는 기르는 거라고. 사람 여자도 나중에 남겨지는 종이고.

유주: 수명도 여자가 길잖아.

여형: 근데 이상하다. 여자는 애 낳다 죽으면 남겨진 남자가 기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자가 와서 기르는데, 사람은 참 달라. 그쵸? 물고기만도 못한 것들...

김나: 그런데 한국에서 동반자살 있

잖아. 애들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데 또 어떤 때는 자기는 살잖아, 어른이라서 면역력이 있으니까.

선명: 아니, 그건 살인이에요. 그건 신문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살인이지 무슨 동반자살이에요?

김영: 차범근은 어때요? 이번에 월드컵하고, '월간조선' 파문으로 문제가 많았잖아.

선명: 나는 중립. 잘 모르겠어.

유주: 나는 그 사람 경직돼 보여서 싫어.

여형: 근데 개인적으로 부인 말을 참 잘 듣는 남자거든요. 착해.

유주: 그러니까 양방향의 측면이 있는데.

선명: 이쁜 구석도 있고 미운 구석도 있고 그런 거지. 뭐, 부인말 잘 듣는 건 이쁘잖아.

김나: 한국에서 여성이 권력을 가진 표본이죠.



오은미

유주: 그렇지. 근데 그 부인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상식적인 선의 가치판단이나 그거하

고 동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여자를 욕먹이기 딱 좋은 모범사례야.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 전형적인 그 케



차범근

이스 아냐.

박선: 누가? 누가?

선명: 오은미.

김나: 나는 그거보다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각색되고 있는 언론의 조작도 문제가 있다고 봐.

선명: 둘을 불러놓고 청문회 한 번 해야 겠다.

유경: 하여튼 그동안 남자들이 오온미를 미워하긴 했어. 남편 다 조종한다고.

유주: 나는 차범근 땀 처음 싫었던 게 어느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멘트를 했잖아. 그래서 김용옥이 반박문 썼잖아. 너무 후련하더라고.

박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나라 이기게 해줬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하나님이나, 그게 무슨 잘못된 선

민의식이나 이런 거지.

김나: 그런 거는 유치하기는 하지만 언론이 더 문제야. 월드컵 직전까지 갑자기 그 부인까지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또 갑자기 패대기를 치는 거 아냐.

유주: 박세리 선풍도 마찬가지야.

김나: 골프는 그건 국가대결도 아니고, 개인의 게임이야. 근데 그렇게 난리야. 민족주의의 열등감을 보여주는 거야.

선명: 보도내용 좀 보라고요. 천민자본주의 속성이 그대로 보여. '박세리 돈 방석에 올랐다.'

김나: 조선일보에 났는데 박세리 사진이랑 노랑나비 이승희 사진이랑 같이 놓고 인터넷에서 이승희보다 박세리 조회수가 더 높다고 기사를 썼어요. 얼마나 선정적으로 여자선수를 다루는지 알 수 있잖아.

유주: 지겨워, 정말.

김나: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은 부실금융 퇴출되고 노조들 농성하고, 그 사건들 아시죠? 그런데 부인들이 나오잖아요. 나는 한번도 노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 보면서 강하게 느껴지는 게, '저 여자들이 어디서 뭐하든 지금 나타났나. 저렇게 남편이 직장 잃은 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면서 왜 남편만 경제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왜 저 여자들은 이 때를 대비하지 못했는가' 그런 생각이

진

들면서 여자들이 어떤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게 늘 저런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데모도 마누라들이 해줘야 해?

선명: 여필종부지. 지금이 바로 중세 사회야. 조선시대라니까.

김나: 데모가 싸움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마누라들까지 늘 동원이 되나고, 그 상황 이면에는 남편이 가족을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이전 어느 정도 남자들이 대한 동성본능에 아무런 금식적인 언론도 남지 않은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유주: 아무도 못 하지.

선명: 아. 이문열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았어?

유주: 그 남자 무슨 21세기 문학상인가 하는 거 받았어.

박선: 21세기 문학상을 왜 자기가 받아? 19세기 문학상을 받아야지.

선명: 맞아. 왕조시대 문학상을 줘야지. 장원급제시켜서.

김나: 사대부의 도리와 아내자의 도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선명: 그럼 장원급제하겠다.

박선: 그 시대에 사대부 남자는 아내자의 도리에 대해 이문열처럼 시사를 풀 얘기 안 했어.

선명: 정주영은 어때? 소 물고 간 거?

유주: 응. 어떤 신문은 '정주영은 영웅이다' 이렇게 감격했더라고. 지난 번에 대선 때 망친 거 요번에 반까지

한 거 같애.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에 서 영웅취급 받을 만한 거 같애. 한국적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화신이지.

김나: 소가 교환의 대상이더라고. 정주영한테는...

유주: 아버지의 소 판 돈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되갚는 거지.

여령: 북한에 간 암소들은 거의 임신 중이었다며?

유주: 임신한 소를 많이 보냈대. 새끼 낳게 하려고.

여령: 정주영씨는 본능은 강한 거 같애. 생식본능. (모두 웃음)

선명: 근데 왜 정주영이 북한에 가서 <아침이슬>은 부른 거야.

박선: 요즘 제2전국이라고 공영광고에서도 상복수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그 노래가 그렇게 쓰일 줄이야.

김나: 그런데 양희은은 그렇게 저항 정신이 있었던 것 같지 않던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지. 양희은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정말 <아침이슬> 같은 것도 그냥 부른 거라고. 사람들이 데모할 때 그거 부른 거 속상했다고.

유경: 속상하다.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속상해. (모두 웃음)

김나: 그냥 순진하게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게 불만이 라고.

김영: 그래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데모할 때 부른 거 생각하면 소름끼친

다고.

박선: 오마이갓!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소름끼쳐.

유주: 양희은은 친구들이 문화운동가들이잖아. 그 당시 대학문화의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지. 그 당시 여가수라는 게 뻔했잖아. 그런데 양희은은 달랐으니까.

박선: 그래도 참 섭하네. 데모하면서 불렀던 나.

선명: 영화 <생과부위자료청구소송>은 어때요?

김나: <투잡3>보다 나아요.

유주: 재미는 있어?

김나: 관객은 웃습시다.

박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자들이 완전히 성적으로 굶은 여자들로 나온다고 하던데요?

김나: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가지고 남편노릇도 못 하고 아버지노릇도 못 하고. 거기서는 아버지노릇은 중요하지 않고, 남편노릇 중에서도 성적인 역할이 제일 강해요. 그걸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회사비리까지 들춰내는데. 핵심은 항상 여자를 성적인 존재로 보는 거지. 거기서 인정할 점이라면 여자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선명: 남자는 어떻게 그러지는 거야. 이 불쌍한 남자들을 보라 이런 거겠네.

김나: 심해진이 여성변호사로 나오는

데 남자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세상밖으로>에서 심해진이 하는 것처럼 신랄하게 해요.

유주: 그런데 그걸 왜 신문에다 "강우석 또 썼다" 이렇게 광고를 해.

김나: 얼마나 안 서면 썼다고 광고까지 내졌어요. 이해해 줘야지.

유주: 남근콕플렉스지. 뭐.

선명: 이제 '이 계절의 마초' 뿔어야지요.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박선: 마초 정의 좀 해보세요. 독자투고에 마초가 뭘 뜻풀이 좀 해달라고 왔어요.

선명: 가부장제 의식을 가진 남자라고 해야 하나.

여령: 남자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남자가 마초 아닌가?

박선: 남성성의 화신?

여령: 벗겨도 벗겨도 남자밖에 없는 남자.

유주: 그거 괜찮은데. 사전에는 사내다운 남자라고 쓰여있는데 본래 마초는 스캐인인데 여자를 많은 남자. 자식 많이 낳고, 처첩 중중하게 거느리고...

김영: 싸나이네?

여령: 그럼 정주영씨밖에 없네. 자식 많고, 여자도 많지 않을까?(웃음)

유주: 근데 정주영은 말투가 사나이답지 않잖아.

박선: 그래. 말투가 맘에 안들어. 그 래가주구... (모두 웃음)

선명: 그럼 한국사회를 통틀어 제일

마초가 누군가?

박선: 전두환.

여령: 전두환은 얼굴이 아니야. 장세동.



정주영



양희은

선명: 장세동은 보스가 아니잖아. 박정희도 마초지요?

여령: 마초라고 하기엔 좀 꼬장꼬장해 보이죠?

박선: 전두환이야.

선명: 근데 뭘가 부족해 보여. 속알머리가 없어서 그런가?

여령: 나는 아무래도 장세동 같애.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항상 향수 칫솔 뿌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야.

유주: 뽕씨뽕의 최고 인기였대.

여령: 마초라는 거는 여자가 좀 따라줘야 해.

박선: 아이. 원래 권력이 있으면 여자도 따라.

유주: 그렇게 따지면 상징적인 마초는 없어. 왜냐하면 사회적 권력, 정치적, 권력, 남성적 개인적 권력이 완전히 합치된 경우는 없으니까.

박선: 이 계절의 마초 뿔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합의가 안 돼서야.

유주: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마초는 없다. 불행이야. 다행이야?

여령: 그렇지만 한국남자들 사실 생각하는 거는 모조리 마초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기 팍팍하지.

박선: 그럼 '없다'로 정리합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부는 독자들에게 맡기고... 오랜 시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E]

환상 속의 섹스와 의미없는 섹스



김일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기자.
저의가 의심스럽다. 혼기가 욕구망에까지 다다른 총각에게 성경험을 고백하라니. 그럴 쉽게 순한 나는 경솔함을 부리고 후회했다. 기습적인 전화로 무리한 요구를 가해다니 정신차릴 새 없이 또 한 번의 확인사살이 이루어지고 나는 어느새 원고 및 장이가 돼버렸다(늘 이런 식이긴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이런 황당한 경우가 여럿 있는가. 지금 이 순간 1F 편집진은 호젓한 미소를 짓겠지. 생각하니 다들 속이 새록새록 아파왔다. 대용 작전을 '배 배라'로 결심했다. 못 쓰겠다는데 어쩌라 싶었다. 그러나 치밀하지 못한 반격은 또 한 번의 실패로 기록됐다. 관록을 자랑하는 상대에 순진한 호소는 세밀도 만 먹혔다. 얻은 성과라고는 마음을 조금 안정한 것 말고는 생각해 보니. 성과는 과거 속의 어안들과 상상 속의 재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과오는 나의 치부이자 고질적인 '포트노이씨병'이 작나하게 공명했다는 것이다. 앞서 당한 '남자의 성경험', 필자들이 소주 한잔 기울이며 상흔을 달래고 있다.

네 살 때부터 이미 성(性)에 눈을 뜬 나는 한마디로 성적 환상주의자다. 유치원에서부터 '올A'를 받은 '천재'였고, 그때부터 난 유난히 섹스에 천재성을 발휘했다. 사춘기를 거쳐 직장생활을 하는 지금까지 난 환상과 현실에서 방황해 왔다. 특히 섹스에서.

예를 들면 이렇다. 사춘기에 다가온 가장 강렬한 유혹은 자위행위였다. 야외 피크닉에서 우연히 발견한 구멍 뚫린 사과를 "이젠 너도 어른이다! 힘껏 속에다 집어넣으렴!" 하고 속삭였다. 밤 한구석에 몰래 감춰둔 몇 개의 우유병들의 "애야, 다 큰 애야, 나에게도 좀 해다오"란 요청에 못이겨 엄청난 양의 정액을 쏟아부었다. 어느날 성기 끝에 조그만 한 주근깨 같은 점이 생긴 것을 발견하곤 잦은 마찰행위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곤 어차피 죽을 목숨, 이왕 시작한 손장난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로 작정했다. 세탁기에서 골라낸 누나의 팬티에 브래지어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발사하면서, 어릴 적부터 페니스의 유혹에 늘상 쾌락을 기록해온 나는 어느날 버스 안에서 한 여자의 옆자리에 앉아 또 한 번의 예정된 유혹에 빠져든다. "저 애가 자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너의 한 손으로 자기의 탕탕한 젖가슴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렇까?" "그럼,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엔 다른 한 손으로 동시에 자기의 거기를 만져달라는 거야. 아주 까무러칠 때까지."

하지만 이런 성적 환상이 핑크빛 일색만은 아니었다. 한 번은 매춘부와 관계를 한 후, 성병에 걸리지는 않았나 고민했다. 그것은 매독에 걸려 성기가 췌덩이처럼 굳어져 결국 뚝 부러지는 상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곤 나의 투신자살을 대서특필한 신문을 보게 되는 때까지 미쳤을 때는 정말 끔찍했다. 또 한 번은 누워서 천장을 향해 사정한 정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정말 장님이 되는 줄 알았다. 아, 이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앞섰다.

술한 고난을 헤치고 비로소 직장인이 된 나는 독신주의자다. 왜냐면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만 선택해 같이 산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

스무 살 초반. 여자친구와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 난생 처음 입맞춤을 하게 됐다. 술을 많이 마신 데다 이성과의 키스가 처음이었던 그녀는, 이성을 잃고 흥분상태였고 그녀는 여관행을 외쳤다.

니까, 나의 공상은 나이 삼십이 넘어서도 매일 밤 화끈하게 달아올라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도록 한다. 죽으면 죽었지 일생을 한 여자와만 자겠다는 계약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

성경험을 말하기 전에 사춘기 시절 읽었던 소설책을 다시 꺼내 보았다. 제목은 『포트노이씨병』. 유대계 미국인 필립 로스(Philip Roth)가 1969년 발표한 이 책은, 당시 미국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연속 40주 동안이나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 책의 주인공 '나'는 알렉스 포트노이다. 저자는 포트노이가 어릴 적부터 겪는 과대성적환상 증세를 '포트노이씨병(Potnoy's Complaint: 강한 윤리적, 이타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태적일 때가 많은 극단적인 성욕 때문에 부단히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병)'이라고 규정하고, 인류역사상 가장 섹스에 민감한 이 시대에 누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 때문이었을까? 사춘기 시절 이 책을 읽고 한편으론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이런 성적 환상에 빠져 고민하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봤다. 장황하지만 길게 책 내용을 소개한 것도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스무 살 초반. 여자친구와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 난생 처음 입맞춤을 하게 됐다. 아마도 서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으로 기억한다. 평소에는 별 생각없이 지내던 사이였기에

더 이상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 도발적으로 전진했다. 술을 많이 마신 데다 이성과의 키스가 처음이었던 그녀는, 이성을 잃고 흥분상태였고 그녀는 여관행을 외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앞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여관이 많았지만 당시에 내가 아는 여관이라곤 집 동네에 위치한 것 밖에는 아는 바가 없었다. 여관문 앞에서 우리는 형식적인 의례행위를 거쳤다. 손가락을 걸고 '아무 일 없기'를 약속했으며 '동정'이었던 내 심정은 기꺼이 도장까지 찍었다. 진심으로 그녀가 나에게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기를, 아무런 연습이나 훈련이 안 된 것을 후회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 따라서 미아리에 가서 대비를 해두었을 텐데 무척 아쉬웠다. 호기있게 여관까지는 안내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경험부족이었다. 그녀가 보는 앞에서 "빈 방 있어요?" "얼마죠?" 하고 물어보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했다. 이제껏 마신 술이 다 깨는 기분이었다. 침대도 없는 행하니 넓은 방에 둘만 남아 이부자리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이불과 베개는 모두 들쭉인데 요는 한 채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둘을 나란히 눕게 했으며 그녀는 '마지막'이라며 곳나잇 키스를 했다. 술집에서 이동한 시간도 있고 여관 앞에서 손가락을 거느라 그때쯤 그녀도 가물가물 제정신을 찾아가는 눈치였다. "이젠 자자"고 그날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사까지 끝낸 직후 내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손스럽게도 점점 쿵쿵쿵쿵 소리가 커져 그녀에게 들리거나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아마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 두뇌회전은 경직되는 모양이다. 심장 뛰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잠을 자야겠다는 것은 의지일 뿐 머리는 점점 맑아지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 일종의 포트노이씨병 증세가 나타났다. 친구들과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내가 "그냥 잤어"라고 말하자 다들 비웃는 거였다. "정말이야? 그래 여자와 단 둘이 여관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말야?"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하자, "그런데 그냥 덮치는 거야. 그 여자도 실망했을 걸"이라는 게 아닌가. 순식간에 상상은 거기에까지 이르렀고 더 이상 잠을 청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했다. 다만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가 고민거리였다. 그렇다. 조금 전 평화조약을 잡그리 무시하고 휴전선을 넘어버리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무력도발로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분위기를 고조시킨 뒤 적지를 함락시킬 것인가. 신사는 약속을 중요시한다는데 아무래도 후자가 좀더 나은 전략 같았다. 키스부터 자연스럽게 단계를 밟기 위해 몸을 약간 뒤 틀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극심한 고민을 거친 끝에 행동을 옮긴 데 비해 그녀의 반응은 의외였다. 무척 졸린 목소리로 "빨리~ 자아~"였다. 해도 너무했지 어떻게 옆에 남자가 누워 있는데 그렇게 쉽게 잠이 온단 말인가. 단계별로 보면 해야 할 일이 무척이나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었다. 결국 그날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잠든 그녀

옆에서 아침까지 뜬눈으로 새웠다. 그후로도 몇번 그녀와 한 이불 밑에 누워봤지만 단 한 번도 섹스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 다른 여자와 실전 경험을 쌓은 후에도 말이다.

그녀의 외면상 이유는 임신이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섹스 따로 결혼 따로'를 그녀는 무엇보다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을.

그 이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섹스를 나누었다. 7년간 한 여인에게 사랑을 바쳤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2명의 '섹스 파트너'와 교대로 만나고 있다. 오로지 섹스만을 위해. 그 중 한 여자는 첫 만남 때부터 내 손을 붙들고 여관문을 열어젖혔다. 내쪽에서 오히려 "잠은 집에 가서 자야 한다"며 거부해 봤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요즘들어 가끔 묻는다. "사랑하냐"고. 대답은 "아니"다. 그러면 "좋아하느냐"고도 묻는다. 자기는 나를 "사랑하게 됐다"면서, 그녀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기는 대답이겠지만 나로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섹스를 하는가. 섹스를 하다 보니 사랑하게 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섹스라는 공통점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사랑은 별개 차원이라고 바둑바둑 우기는 나를 그녀는 이상한 듯 쳐다보지만 그것도 참시다.

두 여자와 헤어질 때마다 '이젠 그만 만나야겠다'고 결심한다. 허무한 베설 뒤에 밀려오는 회한을 이제는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섹스는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상대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면서.

포트노이씨병의 악령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

보봐르와 사르트르

아웃사이더들의 결혼

자신만의 개성있는 취향과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가진 당신.

결혼에는 적령기가 없는 것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당신이 아직 세상을 모른다나...

하지만 당신은 남들처럼 결혼을 위해 「배경이나 조건」

따위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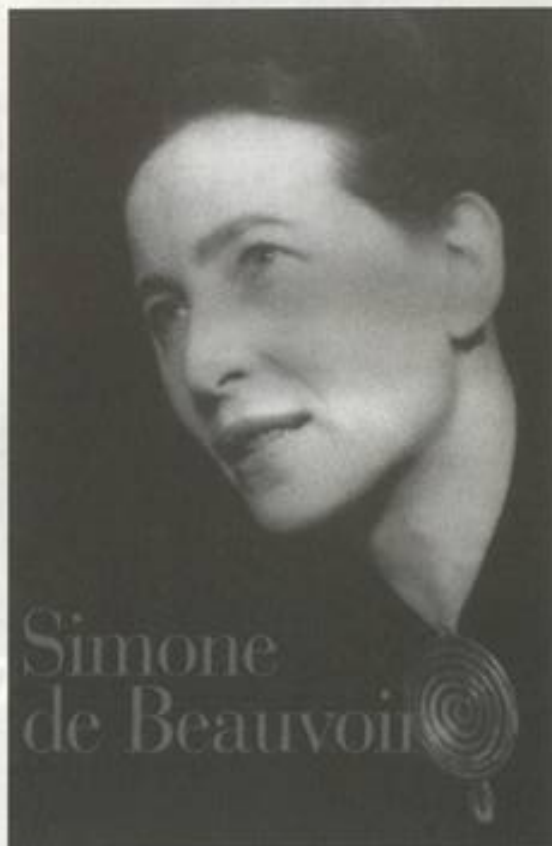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 결혼에 있어서도

당신만의 합리적이고 진지한 기준을 지닌

당신은 멋진 아웃사이더입니다.

이제 아웃사이더와의 만남을 꿈꾸신다면 B&S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B&S가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초대합니다.



아름답고

평등한 부부

B&S는 진실된 만남을 약속합니다.

평등부부상을 지향하는 결혼정보회사

B&S

Beauvoir & Sartre

「보봐르와 사르트르(비앤에스)」는

결혼의 주체적 회복과 결혼 문화를 개선하고자, 타 결혼정보회사와 차별된 프로그램으로 미혼남녀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한 결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비앤에스」는 실혼이 이루어진 경우 여성주례를 추천합니다. • 사회운동 단체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가입비의 30%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IMF 바람과 함께 남자도, 여자도 집을 떠나고 있다. 사실 여자들은 오래 전부터 가출을 꿈꿔왔다. 한국사회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이 가을, if는 '집 떠나는 여자들'을 이번호 특집으로 기획했다. 이 특집은 독자들에게 그동안 '여자의 집'과 '남자의 집'이 얼마나 달랐는지, 여자들은 어떤 때 떠나고 싶어하는지, 여자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해 가슴저린 깨달음을 선사할 것이다.

특집



떠나는 여자들

서진 박영숙



총론

집중취재

여성시 분석

인요 분석

여성작가의 집 떠나기

심리분석

떠날 때와 돌아올 때

가출희망기

'집나간' 남자, '자식 버린' 여자

여자들, 왜 떠나는가? / 황금희

이제 더이상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는 외출 / 김정란

"남자도라 남자도라 심심안맥에 날려주소" / 박미라

연선녀(연선녀)의 최후진술 / 한림화

나는 더이상 이혼을 꿈꾸지 않는다 / 이경자

그녀의 삶을 향한 긴 여정 / 김연

가족에 관한 몇가지 집담 / 이남희

비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걸어가 보라 / 신현림

가출을 꿈꾸는 여자들의 유형 / 이나미

여섯 여자가 들려주는 가출이야기 / 장경선 외

나는 이럴때 떠나고 싶다!

‘집 나간’ 남자 ‘자식 버린’ 여자

여자들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sweet home’이라고 불러 의심치않는, ‘나의 집’이 여자들에겐 어떤 공간이길래 그토록 떠나고 싶어하는가. 실제로 ‘집 떠나는 여자’들 자체는 기존언론에서 적지 않게 기사화됐지만 그들이 ‘왜 집을 떠나는지’에 대해선 누구도 침묵했다. 그깟 여자들의 얘기는 알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남자들에게 집이란 조상의 얼이 새겨진 곳이며(옛날 중국에서는 집안에 조상의 유골이 묻혀 있었고, 우리나라에선 집안에 사당을 모셔놓았다), 그 조상이 씨뿌린 번창한 후손들을 길러내는 곳이었다. 즉 ‘자랑스런’ 부계혈통이 나고 죽고 살아가는 장소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집이란 참으로 경건한 곳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기존 가족은 해체일로에 놓이게 되고 이제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를 이룬다. 자본주의사회의 집이란 일터와 분리된, 휴식하는 곳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위대한’ 노동을 수행한 남자들이 저녁이면 들어가 쉬고 쉬무받는 곳이다. 어디까지나 남성의 시각에서 집을 설명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여자들에게 집이란 노동하는 곳이다. 남편과 아이들이 쉴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남편과 아이들이 아무 생각없이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순간에 여자들의 노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 이 양자간에 불화는 상존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싶은 남자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평가를 받고 싶은 여자 사이에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건 보통 ‘우리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가족공동체에서는 언제나 남성의 논리가 우선시된다

는 것이다. 여자는 죽어라고 집에서 일하는데 정작 주인은 남편이다. 그래서 ‘일하는 집’보다 ‘쉬는 집’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남편의 조건에 따라 집은 수시로 재편성되고 여자는 쉬는 남자를 고려하며 일해야 한다.

더욱 더 이상한 것은 남녀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진정한 ‘노동’으로 인정받는 쪽은 직장일이어서 여자들은 늘 놀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무위도식하면서 생산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재화로 마련한 집이 여자들의 것일 수 없다. 소외된 노동형태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여자들이 집을 떠나면 사회는 부도덕하다고 맹렬하게 비난한다. 과연 부도덕할까? 애초에 ‘결혼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짚어보자.

가부장제 사회는 여자들에게 말해왔다. 여자가 무슨 직업이야. 그냥 한 남자의 품속은 사랑에 기대어 그의 아이들이나 잘 키우면서 수긋하게 살지. 미혼의 한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구애했다. 네가 나랑 결혼만 해준다면 너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게.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고생 같은 건 절대로 안 시킬게.

그러나 결혼은 여자의 모든 기대와 믿음을 깨버린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에 별 관심이 없고, 안주인이라는 역할은 사실 그리 달콤하지 않다. 또 남편의 외도, 폭력, 사별, 이혼, 파산 등의 불행은 우리의 인생 곳곳에 복병처럼 숨어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IMF의 철퇴를 맞은 사회는 요즘, 가족은 남편의 기를 살려가면서 경제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여자는 여왕은커녕 실직한 남편 비위 맞추랴, 집안일 하랴, 우유배달하랴, 몸도 마음도 다 쏟아버렸다. 여자들은 묻는다. 처음에 한 약속은 뭔가요? 나를 이런 취급

하기 위한 속임수였나요? 내 날개를 모두 잘라버리고 이제 와서 날아야만 한다고 말하다니요.

자, 이제 애초의 계약내용이 변질되어 버렸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적인 힘을 갖고 싶었지만 가부장제 사회의 집요한 방해로 그걸 포기했다. 남자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너의 일을 포기하면 행복을 주겠노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은 파기되고, 여자의 의무조항 역시 무효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여자들 행동에 화들짝 놀라고 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여자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던 말인가? ...도대체 우리 사회는 여자들에게 뭘 원하고 있는 건지 여자들은 늘 헛갈린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여자가 가출하면 ‘자식을 버렸다’는 말을 듣게 되고 남자가 가출하면 ‘집을 나갔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남자들이 집을 떠났건만 사회는 소수 여자들의 가출만 문제시한다.’

이 말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남자와 달리 여자에게 집이란 자식이라는 말인가.

가. 여자들이 집을 떠나면 남자들보다 더 비난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엄마와 자식들로 구성된 자궁가족이 남자들의 부계혈통가족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압게도 인정하는 것일까(물론 절대로 아니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역사적으로 한 사회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수많은 남성유랑자가 생겨난다. 집안의 어른이며, 주인임을 목청껏 주장하던 남자들은 가족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가족을 지키기는커녕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

줄행랑을 쳤다. 그렇다면 주인이 없는 가족을 누가 지킬까? 말할 것도 없이 여자. 엄마, 딸들뿐이었다. 그들은 자궁가족의 소속원들이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위기시에도 흩어지지 않고, 초능력적으로 살아남는다.

그러나 고통스럽게 집을 지킬수록 여자들은 간절하게 집을 떠나고 싶다. if는 자궁가족의 유대감을 와해시키고, 모성을 소외시키며, 여자들을 집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가부장제 문화, 그속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면서 이익언기를 포기하지 않는 남성들이 바로 여자들을 집떠나고 싶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정리했다.

그리고 여자들의 집떠나는, 또는 떠나고 싶은 사연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했다. 우리는 왜 집을 떠나고 싶은가.

안타까운 점은 여러 여성들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이 많은 여성들이 집 떠나기를 시도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집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유토피아란 없다(특히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길위에서 서성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자들은 떠나보는 것이 떠나지 않는 것

보다 낫다고 말한다.

“집을 떠나봐야 자신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 알게 되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여자만이 자유로이 머물 수 있어. 자유롭게 머무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거야.” 



집과 여성의 문제를 다룬 루이즈 브로조어의 설치작품.



특집 떠나는 여자들 집중취재

‘왜’ 떠나는가?

경 제위기가 심각해진 이후 부쩍 주부가출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보도에서 집나간 여자는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를 버리는 지독히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또 이 여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아 고질고질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이들 곁으로, 수족처럼 부릴 아내가 없어 폐인이 다 된 남편 곁으로 돌아와, 다시 자기를 버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참고 살라고 요구한다.

지난 5월4일자 7일보에 실린 「엄마 돌아와요」라는 제목의 칼럼은 이런 주장이 압권이다. 이 칼럼에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다”라며 자식을 위해 언제라도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어머니들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이런 전통적인 한국적 어머니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 생활고로 인한 현실도피의 일환으로 주부들이 가출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어린이가 유기되는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주부의 가출은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철저히 파괴해 사회의 뿌리

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5~6월 사이에 몇 개의 신문에 공통적으로 인용된 주부가출 통계는 경찰청의 자료. 지난 한 해 동안 집을 나간 가출여성은 2만7,906명인데 그중 주부가 1만5,000명이라는 통계다. 이들 기사에서는, 위의 통계가 경찰서에 가출신고된 사건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가출주부의 숫자는 훨씬 많아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성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가 빠져 있다. 여성들의 가출을 문제삼는 무수한 논의들 속에 정작 당사자인 집나간 여자들의 의견이 없다. “무조건 돌아오라”를 외치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나간 여자들, 그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자. 당신들은 왜 집을 나갔는가? 가정을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형제와도 연락을 두절하며 왜 집을 나갔는가?

진실은 다르다

“보통 용기 가지곤 안 된다”는 것이 여자의 가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온(나올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 있다. 그들의 사연을 만나보자.

40대 후반의 김윤정씨(가명). 28년 전부터 눈, 입, 손만 살아 있는 남편. 조그마한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달에 60여만 원이 넘는 남편의 약값을 대왔다. 그러나 얼마 전 가게문을 닫고 집도 월세로 옮겼다. 윤정씨마저 간염이 걸려 시간제 노동도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협회의가 운영하는 실업대책본부에 구직의뢰를 해놓고 있지만 일거리가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형편이 더 어려워진 이후 윤정씨는 남편의 약을 안(못) 산다. 두 사람의 약값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자기 약만 사고 있다.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하자 남편의 몸이 썩고 있는지 쿼퀴한 냄새가 진동한다. 가뜩이나 지하방이라 눅눅한 곰팡내가 나는 집인데 집안은 온통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것 같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변했다는 생각에 괴롭다”고 말하면서도 윤정씨는 “내가 살아야 가족을 먹여살릴 것 아니냐”고 말한다. 윤정씨는 속이 탈 때마다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 두어 달씩 있다 왔다. 그러나 윤정씨는 아예 집을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많이 느낀다.

또 다른 여성인 한숙진씨(가명, 35). 지난 7월 27일 서울여성전화 사무실에서 만난 그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모습이었다. 2년 전, “19살에 결혼해 첫순정을 바친 남편”이 싸움 끝에 숙진씨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온몸의 70%가 3도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살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섯 번에 걸친 수술 끝에 숙진씨는 목숨을 건졌다. 살인미수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숙진씨의

“무조건 돌아오라”를 외치는 남편이나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집 나간 여자들, 그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보자. 당신들은 왜 집을 나갔는가? 가정을 버리고, 아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형제와도 연락을 두절하며 왜 집을 나갔는가?





취재를 통해 만난 여성들이 집을 나오게 되는 사연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다. 그들은 현숙한 아내, 좋은 엄마이고 싶어서 자기를 희생하며 인내를 미덕으로 평생을 살아온, 바로 그런 어머니이자 아내였다.

이혼하면 자식 갈라놓는다며, 밤새도록 사람 괴롭히면서, 독이 올라가지고 살벌해진 거예요. 내가 전과자가 된 이상 뭘 못하겠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죽인다고 달려드는 남편을 피해 숙진씨는 옷가지 몇 벌만 챙겨가지고 집을 나왔다.

취재를 통해 만난 여성들이 집을 나오게 되는 사연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다. 그들은 현숙한 아내, 좋은 엄마이고 싶어서 자기를 희생하며 인내를 미덕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회가 요구하는 바로 그런 어머니이자 아내였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은 가족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어했던 그들의 소박한 꿈조차 실현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변호사 김철준씨는 "요즘 많이 보도되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로 집을 나가는 여자도 물론 있죠. 그러나 보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대부분의 가출사건은 가족내의 폭력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고 지적한다.

IMF형 가출? IMF형 폭력!

여성가출의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은 여성의 전화다. 서울여성의전화(회장 이문자)에는 숙진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온다. 지난 1월, 24시간 상담을 받는 위기전화 1366을 가동한 이후부터는 한 달에 1,500여 건의 전화, 방문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여성의 전화 이문자 회장은 "요즘 들어 가정폭력 문제로 가출한 여성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센터는 물론이고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7~8명이 정원인 서울여성의전화 센터에서도 16명이 생활하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가 지난 5월 발표한 올 1/4분기 상담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담 1,730건 중 구타상담이 536건, 그중 89건이 IMF 이후 구타가 더 심해졌다"는 호소였다. 이는 경제위기 때문에 여성들의 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해

남편은 2년만에 출소했다. 병원에 있는 숙진씨에게 남편은 용서해 달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제발 합의해 주고, 탄원서를 넣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고 숙진씨는 불구가 된 몸으로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못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어줬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고도소에 있을 때 자동 이혼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해 꼬지할까봐 스스로 이혼을 하자 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딱 바뀐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IMF형 가출이 문제가 아니라, IMF형 폭력이 문제인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사는 게 팍팍해서 집을 나온 여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접하기 힘들었다. 지난 6월9일부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철순)가 운영하고 있는 실업대책본부의 실직상담 전화에는 남편의 실직이나 자신의 실직 이후 가정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여성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러나 상담을 의뢰해 오는 여성들 중 '먹고살기 힘들어서 집 나왔다'는 여성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실직한 남편이 가출한 이후 생계수단을 찾기 위한 여성들의 문의전화는 많다.

최순임 상담부장의 말에 따르면 "박복해도 저렇게까지 박복할 수 있을까 싶은 여자들"이 많지만 그들은 대부분 '한타까울 정도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허드렛일이라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일거리를 찾고 있다. 최상담부장이 그들에게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지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할 정도다.

외도에도 할 말은 있다

가출여성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남성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남성의 전화, 아버지의 전화, 사랑의 전화 같은 곳이다. 그 중에서 언론에 많이 소개되어 가장 지명도가 높은 남성의 전화(소장 이옥)를 찾아가 봤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매맞는 남편'의 사연도 이 상담소를 통해 흘러나간 이야기다. 이옥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상담건수 1,300여 건 가운데 아내의 가출문제에 대한 상담은 11.5%인 150건 정도, 올해 들어 이런 상담이 많아져 지난 6월까지 120건이 들어왔다. 남성들의 입을 통해 소개되는 아내의 가출 이유는 외도문제가 가장 많다. 이옥 소장은 "남자들은 외도를 하더라도 아내가 참고 넘어가거나 남자들 스스로 '아내 따로, 애인 따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고 말한다. 이소장에 따르면 외도를 한 여자들은 집을 나가거나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두려워 집을 나가기도 하지만 보통 여자들은 남편 따로, 애인 따로의 이중적인 생활을 할 만큼(남자만큼) 뻔뻔스럽지도 않거나, 사랑에 빠지면 거기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성의 전화에 상담을 의뢰하는 많은 남성들이 '바람난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의 소개로 알게 된 김철씨(가명, 50)가 바로 그런 남자다. 그의 사연은 이렇다. "나의 아내는 5개월 전 연하의 남자와 집을 나갔다. 호프집을 운영했던 아내는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 것을 좋아했고, 화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두려워 집을 나가기도 하지만 보통 여자들은 남편 따로, 애인 따로의 이중적인 생활을 할 만큼 뻔뻔스럽지도 않거나, 사랑에 빠지면 거기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집나는 17살의 지은이는
술만 마시면
동네가 떠나갈 듯 소란스럽게
들어오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성격마저도
난폭한 아버지를 증오했다.
사는 게 매일 지옥이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에게 "집을 나가거나
아빠와 별거하라"고
요구했다.

를 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 그전에도 몇 번이나 집을 나간 적이 있다. 이번엔 잘 아는 이웃집 남자랑 집을 나가 고개를 돌지 못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왜 김철씨는 그런 '부도덕한' 아내를 찾고 있나. 폭력배를 동원해 수소문할 정도로 아내에게 미련을 두는 것은 혹시 복수심 때문은 아닌가. 그도 아니면 아내가 없어 생활하는 데 불편해서인가. 다른 여자와 재혼할 능력이 없어서인가.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아내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내 잘못도 50%는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그의 잘못이란 "싸우다 손저점도 '좀' 하고, 잔소리가 '좀' 심했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그가 사업에 실패한 후 보증금 5만원에 월 3만원짜리 단칸방에 살던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견뎌냈고, 몇 해 전 그가 실직한 후부터 생계를 책임져 왔다. 그래서 더욱더 김철씨는 "아내의 실수를 모두 용서할 테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아내에게 가솔이 '실수'였을까.

어머니의 신화, 깨기 싫은 달콤한 꿈

집나오는 여자들의 사연과 만나면서 마음 한 구석에 찔찔하게 남아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아이들의 문제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운 곳'에 자식을 두고 나오는 엄마들도, 그곳에 남아 있는 아이들도 마음이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전화 쉼터에서 만난 여성들은 의연했다. 그들은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불화가 계속되는 한 엄마의 존재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아내에게 폭력적인 남성들이 모두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식들도 엄마와 생각이 같을까.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함께 가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지은이(17세)는 불행한 가정은 자식에게 상처만 남긴다고 말한다. 술만 마시면 동네가 떠나갈 듯 소란스럽게 들어오는 아버지, 경제적으로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성격마저도 난폭한 아버지를 지은이는 증오했다. 사는 게 매일 지옥이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에게 "집을 나가거나 아빠와 별거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쉼터에서 만난 또다른 친구인 민경이(17)와 지혜(17)는 얼굴도 모르는 엄마에게 큰 분노를 가지고 있다. 민경이는 태어나자마자, 지혜는 일곱 살 때 엄마를 잃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한테 버림받았다. 새엄마와 극심한 갈등 끝에 집을 나온 민경이나 매질만 일삼는 아빠보다는 새엄마가 더 좋다는 지혜는 모두 "나를 낳은 엄마가 진짜엄마인데, 그 진짜엄마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엄마 얘기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지은이를 보면 지혜는 "엄마 얘기하면 절대 안 울어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내가 만약 그

런 경우라면 애는 데리고 나갈 거야"라고 말한다.

지은이와 지혜 그리고 민경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드리안 리치가 말한 '제도적 모성'의 개념이 떠올랐다. 여성의 체협에 기반한 모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강요되는 모성. 자식에게 희생적이어야 하며, 불 같은 의지로 뚝뚝 뚫쳐 있어야 하는 존재.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적 존재인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은이와 지혜 그리고 민경이는 그리고 있다. 희생과 인내로 점철된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동경으로 아이들은 어머니로부터 여자의 모습을 볼 때 심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함께 가는 청소년 쉼터'의 김현옥 상담실장은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이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는 아이들이지만 계층에는 어머니의 외도로 인해 심한 상처를 받고 밖으로 나도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말한다.

가정이라는 공간에 대한 재물음

집나간 여자들의 많은 사례들을 취재하면서 나는 그들 모두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우는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집나간 여자들이 모두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자립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출여성 중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살기 위해 집을 나온 여자들도 있고,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새 삶을 찾아나가는 여자들도 있다. 그리고 계층에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가정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현실도피성 가출을 한 여자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여자들의 가출을 한두 가지 이유로 뭉뚱그려 보려는 사회의 편협한 시각이다. 이러한 편견은 '여자들이 왜 집을 나가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이 글은 여자의 가출을 무작정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 다만 여성의 가출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자고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여자의 가출 그 자체만을 문제삼을 때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아무리 '엄마 돌아와요!'를 외쳐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여자들은 많지 않다.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가 여자들이 집을 나온 이유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여성가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여자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삶의 공간이 되지 못하는 가정 때문이다. 그 안에서 굶어터지고 있는 상처들을 들여다보아 집을 떠나게 되는 여성의 고민과 제대로 만날 수 있다. 가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불합리하다. 가정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각각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가치로운 공간이 된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지옥이다.

여자들이 집을 나오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 여자들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가정,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 새롭게 해석해야 될 때에 와 있다. 여자들의 가출은 바로 그것을 알리는 경종인 것이다. ■

매맞은 아내 쉼터서 만난 최순임

그시에 살았던 최순임씨(가명, 45)는 23살에 결혼한 이후 결혼 초부터 남편의 구타를 당했다. 순임씨는 지난 6월 이유없는 싸움 끝에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껴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22년만의 탈출이었다.

- 그 동안 왜 참으셨어요?

= 내가 아는 어머니 역할은 봉사하는 어머니, 자식에게 봉사하고 신랑에게 봉사하는 것이 가정을 위하고 크게는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참으면 전부 다 행복하고 그런 줄만 알고 여태껏 참은 거죠.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스럽죠. 내가 살아온 길이 너무 바보스럽고 부질없었어요. 남은 게 없고

- 아이들이 엄마 입장을 이해하나요?

= 내가 먼저 나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애들이 먼저 나가라고 권했어.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살아 있으라고 서로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내가 나오던 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최의 대가를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겁이 많이 났어요. 정말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 자식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난다는 생각에 더 나오게 된 거죠. 내가 가슴아픈 만큼 개네들도 아프리라고 믿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그런 아픔을 어떻게 나타낼지

- 어린아이를 두고 온 엄마들은 갈등을 더 겪지 않아요?

= 상황에 따라 다르요. 애를 데리고 나와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엄마들이 있나 하면, 애를 데리고 나왔지만 이혼과 동시에 주겠다고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애도 필요없다는 거죠. 애를 데리고 있으면 다음에 신랑과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아예 막 자르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엄마들은 보통 결심 갖고는 못 나오죠. 정말 죽어도 안 산다는 엄마들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식 걱정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질린 거예요. 짜들고 짜들어서 생활이.

- 쉼터에 있다 집에 들어가신 경우도 있나요?

= 내가 있는 동안에는 없어요. 만약 돌아갈 때에는 조건이 따르죠. 그 전에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있으면 쓰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내 의지를 찾아야겠다는 것을 확실히 정해놓고 간다 이거죠. 쉼터의 엄마들하고 얘기해 보면 폭행이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재산을 분할하고, 자신을 찾게 해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고쳐진다면 집에 들어가겠다고. 근데 그거는 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 남자들은 때리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너무 놀랍고, 가장 비합적이고 본능스러운 것은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것, 사람해서 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켜 수 없어 살아왔다는 것, 그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돌아가겠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굳어지는 것이죠.

순임씨는 쉼터에서 2개월 동안 생활하고 나면 직장을 구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남편에게 "엄마는 이렇게 멋지게 자립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남은 희망이다.

새로운 집 꿈꾸는, 집 나온 아이들

가리봉동의 '함께 가는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지혜와 민경이, 지은이가 집을 나온 이유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들은 학교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이들에게 집은 바깥보다 더 두렵고 살벌한 폭력의 공간이었다. 집을 나와 이들은 친구 집을 전전하기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공원에서 낚시를 새우며 살기도 했다. 돈이 궁해 병치기(또래 아이들의 돈을 뜯는 것), 아리랑치기(술취한 사람의 지갑을 터는 것), 소매치기도 했다.

그래도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다. 이들에게 돌아갈 정서적 의미의 집은 없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이 있을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들은 돌아갈 집을 그리워한다. 이들이 절실하게 그리고 있는 것은 따뜻하고 화목한 스위트홈이다. 그래서 아까 같지 않은 좋은 남자 만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한다. "한번 범생이면 범생이, 날라리면 날라리, 양아치면 양아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은이나 지혜, 민경이는 그들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외식 있는 날라리'와 만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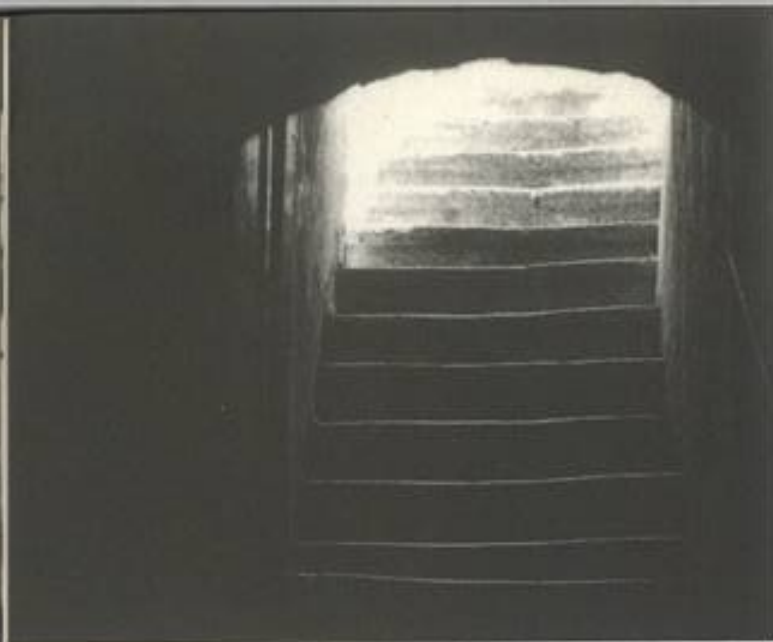
(‘외식 있는 날라리’는 어떤 사람이지?) "우리처럼 공부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돼니까 못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히 노는 애들 찾는 게 아니에요. 순진한 애들은 저희 이해 못 하니까 그런 애들은 싫어요." (지은), "제가 현철이라는 애를 좋아하거든요. 개가 되게 폭력적이에요. 사람도 찌르고 그래서, 지금 수백 개 걸렸어요. 요번에 들어가면 4년 정도 들어간대요. 전 개랑 결혼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

그들의 세계는 그들이 뛰쳐나온 집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여자는 놀면 몸 버리고 마음 버리지만 남자는 숨기면 끝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세계. 여자는 관계를 가지면 임신 때문에 걱정이 많지만 남자들은 "한번 따러고 버리는 게" 일수인 세계. 수십, 수백 명의 여자와 관계를 맺고도 결혼할 때 순진한 여자 찾는 남자가 있는 세계. 무엇보다 폭력으로 위계가 만들어지는 세계. 그런 세계에 과연 그들이 찾는 '외식 있는' 날라리가 있을까. "여자는 남자 위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힘을 가진 것은 남치고, 여자는 여자 할 도리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나온 집과 그들이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집은 어쩌면 달은굴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므로.



함금희

집 나가는 여자들을 취재하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들을 만나거나, 가출소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들의 아픈 상처를 고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일부는 가출 이후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각오로 의식회가 되어 있었지만, 일부는 아직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고맙게도 그들은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마음에서라며 인터뷰에 열심히 응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특히 잡지에 이름 나오는 게 소원이라며 꼭 실원을 써달라던 17살의 세 여자, 지은이와 지혜, 민경이의 도움이 컸다. 그들이 이 글을 읽고 "여성운동이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특집 **떠나는 여자들 여성시 분석**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는 외출

여성시가 보여주는 집허물기와 집짓기

‘여자가 집을 나간다’는 사실은
여자가 집을 나간다는
사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집을 나가서
다른 집, 자기 집을 가진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그 집은,
실제적인 집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집이다. 그런데,
존재의 집은
말로 짓는 것이다.

이 글은 편집자의 주문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쓰여질 것 같다. 편집자는
‘집 떠나는 여자들’이 문학 안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살펴봐달라
는 주문을 했는데, 결국 사회적 문맥 안에서 읽히게 될 이 ‘가출’의 의미를 나
는 훨씬 더 깊게 그리고 깊이, 다른 문맥으로 연장할 생각이다. 내가 다루려고
하는 ‘가출’은 사회적 가출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가출이 될 것이다.

나의 결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다.

첫째, 소설 텍스트 안에서 이 주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테지만, 나는 사
실의 보고에 불과한 현실적 레퍼런스를 문학 텍스트 속에서 찾아 물리적으로
줄줄이 나열할 생각이 없다. 게다가, 나는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의
모든 소설 텍스트들에 별 관심이 없다. 90년대에 생산된 소설 텍스트, 그것도
여성작가들의 텍스트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혀 내 분석욕망을 자극하지
않는다. 너무나 편하고 진부하다. 따라서 나는 시를 중심으로 다룰 생각인데,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성시들—대중과 비평가들의 무관심에도 불구
하고—에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은 사회적, 계몽적 페미니즘의 수준을 이미
오래 전에 뛰어넘어 존재론적인 층위에서 발화되고 있다(사회적, 계몽적 수준
의 페미니즘은 80년대의 고정희와 김승희에게서 이미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여성시인들은 보다 래디컬한 문제해결방식에 착수했다.



둘째, 나는 하나의 문학적 주제를 사회적 층위에서 다루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문
학텍스트는 다른 문화 텍스트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다르다. 그것은 언어행위의
특화된 전략적 표지를 가지는데, 그 언어행위는 결국 존재론적인 해석 지평에서 그 궁
극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여자가 집을 나간다’는 사실은 여자가 집을 나간다는 사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집을 나가서 다른 집, 자기 집을 가진다는 사실로 이
어진다. 그 집은, 실제적인 집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집이다. 그런데, 존재의 집은 말
로 짓는 것이다. 즉, 여자들의 외출은 자신만의 말을 찾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다. 어
렵게 생각할 것 없다. 나는 여자들의 외출은 자신의 철학을, 독립적인 담론을 가지려
는 열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다루려고 하는 ‘여자들의 외
출’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다.

갈려 있음의 인지

가부장제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삶의 태도에 대하여 언제나 O·X의 정해진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건 보나마나 뻔한 얘기다. 왜냐하면, 가부장(家父長)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 구성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을 진리의 담지자로 택했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의 말만이 말이다. 또는 말씀이다. 나머지는 모두
말의 쓰레기, 여편네와 아이들, ‘아녀자(兒女子)’들의 수다이다. 여기 40이 넘어서 비
로소 시인이 된 아줌마시인이 한 사람 있다. 즉, 40이 될 때까지 남자의 말이 자기 말
인 줄 알고, 그 말만 듣고 살다가, 40이 넘어서야 자기 말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게 된
편찮은 여자가 하나 있다는 말이다.

그자로 꺾어진 길을 돌아가자 문득 낮선 길이 열렸다 분명 가르쳐준대로 왔는데 어찌 된 일일
까 있다면 약국도 떡집도 기쁜소리사도 없고 비루먹은 미루나무가 지키고 있다는 작은골목도 없
다 한 커브를 덜 꺾은 것일까 다시 한 커브를 꺾어 돌아도 있다면 것들은 없다 미친 듯 질주하
는 차들에 싸여 더러운 바람이 일 뿐 점점 멀어져 가는 태양 호린 앞전구의 필라멘트처럼 꺼질 듯
꺼져 있는

곧 어두워지리라

나는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며 그자로 꺾어진 길을 돌아다

나는 그자를 그리고 그리며

마침내 나는 그자 속에 갇혀

— 이경림, 「그 혹은 그」, 『토씨 찾기』, 강조: 인용자



시인은
자신에게 말한다.
어둠 속에서 혼자 길을
찾아야 한다.
아무도 너를 □자 속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환상을 버려라.
이미 밤이다.

이 아줌마는 시키는 대로 했다. 밥해, 밥하고, 청소해, 청소하고, 애들 학교 보내, 애들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보약 지어 와, 시어머니 보약 지어 오고, 그녀는 '분명 가르쳐준 대로'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는 갑자기 삶이 '낯설어진다'. 시키는 대로, 그게 '□자', 즉 출구가 있는 삶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만 밤낮 그 안에서 뱅뱅 뱅이나 도는 '□자', 출구가 없는 갇힌 삶이라는 걸 알아버린 것이다. 삶의 풍경은 이미 스산해져 있다. 내가 꾸물거리는 사이에 세상은 빠른 차처럼 '질주' 하고, 시인의 삶은 그 차들이 일으키고 가는 '더러운 먼지' 나 흙뻘 뒤집어쓰고 있다. 젊음은 저물고, 날은 어두워진다. '곧 어두워지리라'는 문장을 이 시인이 행갈이하여 따로 처리한 것을 눈여겨보자. 그것은, 이 깨달음이 시인의 인식 안에 그만큼 절박한 내용으로 독립적으로 각인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이 아줌마는 어떤 '태양', 또는 태양의 대용물인 '알전구'도 믿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을, 세계에 대한 기존의 어떤 이해방식으로도 자신의 삶을 조명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에게 말한다. 어둠 속에서 혼자 길을 찾아야 한다. 아무도 너를 □자 속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환상을 버려라. 이미 밤이다.

어쩌면 이 시는 정말로 시인이 어느날 저녁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쓴 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경림의 탁월함은 이처럼 단순한 외적 상관물에 불과한 것을 자신의 심리적 사실에 절묘하게 합치시킬 줄 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징적 환유의 언어를 이경림만큼 잘 구사하고 있는 시인도 드물다. 그 자질은, 아마도 타고난 것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말을 찾아헤맸던 소외된 국외자로서의 절박함 덕택에 더욱 더 확실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부서진 집

이제 돌아가 머물 수 있는 집은 없다. 돌아가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말을 서둘러 번역이나 할 뿐이다. 상처를 숨기고, 행복한 체하며, 여자들의 모국어는, 아직, 없다.

우리의 핏명이 보이지 않는

행복한 번역체로,

그리운 그리운 제국주의의 번역체로,

다시 쓸까, 내 고백을 내 자서전을,

나의 성공한 실패들의 집적울.

내 무의미의 집대성의 神殿을,

아하, 그리하여 읊어볼까,

질도 배운 식민지적 어법으로,

미지의 신비의 불가해한 불가항력의

뿌리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최승자, 「삼십대의 자서전」, 「기억의 집」, 강조: 인용자

1980년대에 이미 우리는 한 명민한 여성시인을 통하여 여자가 자신의 자신됨을 남자의 말로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승자는 여자들이 '제국주의'에서 '식민지적 어법'으로 말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 말로 〈자서전〉을 쓴 다 한들, 그 자서전이 제대로 쓰여질 리 없다. 자서전은 '실패'했다. 그러나 식민지 언어를 쓰며 행복했던 여자들의 성공이 실패한 성공이라면, 최승자의 실패는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한 실패'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최승자는 한 가지 확실한 기여를 한 것이다. 그녀는 남자들의 말로 지은 집은 여자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했다.

그렇다면, 집을 허물자.

사방팔방으로 바람, 바람 소리,

바람 파도에 포위된 집,

누울 곳 없는 삼십칠 세,

없는 꿈과 있는 현실,

그 사이에서 바람—

바람소리가 날 흔들어댄다.

영원히 뿌리없는

허공의 방, 허방의 집,

허망하고 허망하여

이 집을 파괴합니다.

이 집을 복원하지 마십시오.

행여 이 위에 기념물을 세우지 마십시오.

명실공히, 이 집은 파괴의 집입니다.

—최승자, 「파괴의 집」, 「기억의 집」





집 나온 여자들 가슴엔 일단 적외가 썩는다. 그렇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나는 다만 나의 원리에 의하여 내가 되고 싶을 뿐인데,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싶을 뿐인데, 어째서 가부장들은 나에게 나쁜 여자, 시끄러운 여자라 하는가.

가슴에 칼을 품고 가출.

가출한 거리에 추적이는 비.

비를 맞으며 언덕에 올라 담배 열 아홉 개비 소비.

언덕을 내려오는데 아가씨 우리

어깨동무하고 브리발에나 갈까 취한의 습격을 받고

줄행랑. 큰길에서 두 대의 자동차로부터 흠탕물 세례 받음.

가슴의 칼을 꺼내어 삼라만상을 향해

힘껏, 그리고 욕설도 힘껏.

그 다음 하늘로부터 거룩한

거룩한 물 세례.

(...)

하나님, 비를 더 퍼부어

주세요. 더 큰 세례를 퍼부어주세요.

(...)

그러면 나는 벌떡 일어나 서서

뿌리부터 꼭지까지 찬란한 물꽃을

피우고 있을 테예요.

제발 우리를 물 속에 치바아주세요.

깊은 물 속에 한가지로 파묻혀

극락까지 흘러가며 입다물고 없어질 테예요.

— 김혜순, 「殉葬」 부분, 「아버지가 세운 허수아비」

집을 나왔지만, 집 밖에도 여전히 폭력은 있다. 시인은 아예 세상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신에게 회구한다. 아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집을,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시인은 자기존재를 담보로 싸운다. 나가지 물에 빠뜨릴 각오를 하고.

집에 안 갈래요

오랫동안 여자들은 인형으로 살았다. 살아 있으면서 죽은 여자들. 움직이는 방법조



차 잊어버리고.

바람이 흩날르네 창으로

없는 창으로

아마 한번쯤

살아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인형들의 가게

시간을 잘 먹어 주름도 잡힌 얼굴들

아주머니는 말하네

오랫동안 끼고 살아 팔고 싶지 않다고

음악소리가 들리네

없는 음악이

춤이 솟아오르네 지금은 굳어진 팔다리에서

없는 음악에 맞춰

보이지 않는 몸짓

오랫동안

잊어버린 몸짓들

엄마엄마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나는 조용히 걸려 있네 제일 높은 선반에

제일 높은 못에

제일 긴 드레스를 입고

제일 오래

— 노혜경, 「장난감 가게」, 「새웠던 것을 기억하는 세」

‘창’은 없다. 탈출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베테랑 인형들’, 이미 길 들어 ‘굳은’ 여자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한때 ‘살았던’ 기억이, 생생한 생의 열망이 살아 있다. 음악은, 회미하지만, 아직 울린다. 때로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언젠가 이 지친 인형들은 축제의 춤을 출까? 그럴 것이다. 어쨌든, 그녀들은 ‘엄마,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다음 시에서 그 인형, 옛날 여자와의 결별은 단호하게 이루어진다.





여성시인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간다.
90년대에 이르면,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여성시인은
아무도 없다.
여성시인들은 이미
자기를 알아달라고
애걸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한 편의
절창을 얻는다.

(...)

—어제는 무얼 했나?

—바람 속에 있었어요. 바람이 가시나무 가지를 통해 내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나는 거미처럼 대롱거리며 가시나무 가지를 잡았어요. 내 손바닥은 피로 붉은 노을이 되었어요.

—어제는 무얼 했나?

—하나뿐인 아가씨를 전송했어요. 바람이 불면 바위를 물어뜯는 파도의 울음소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좋을 곳으로, 멀면서 걸어가는 아가씨의 발 밑에, 무지개빛 비단천을 깔아주었어요.

—어제는 무얼 했나?

—모든 여자와 굴욕을 함께 했어요. 내 뜻밖의 이 요혈들을. 한 산이 어깨를 기울여 받아주었어요. 이제는 조용히 누워 산의 산이 되는 길. 아아, 그러나 흔들리는 붉은 흙들의 춤을, 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군요.

—이항지, 「어제는 무얼 했나」, 부분 인용

이 시가 '어제는 무얼 했나?' 라고 묻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 보자. 시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추해 본다. 어제의 삶을 규명해야 오늘의 삶을 짚을 수 있고, 오늘의 삶을 제대로 알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나는 '가시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내가 나이려고 하는 노력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안에서 쓰러진 고통을, '죄의식'이라는 가시를 여성의 삶에 박아넣는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죄의식을 자극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인은, 고통을 무릅쓰고 '가시나무'에 걸린 자신의 몸뚱이를 잘라낸다. 그리고 남성들의 착한 여자, '아가씨'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 안녕, 아가씨. 하나뿐인 아가씨는 이제 생을 '울음'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시인은 시인의 등뒤에서 늘 되풀이되었던 여성들의 '굴욕'의 역사를 파문는다. 그리고 대지와 하나가 된다.

대속(代贖)

이러한 추구의 과정을 통해서, 여성시인들은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간다. 90년대에 이르면,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장애라고 생각하는 여성시인은 아무도 없다. 남성들마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남성들이 내린 결정과는 상관 없이 여성시인들은 이미 자기를 알아달라고 애걸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한 편의 절창을 얻는다.

행복은

땅 밑에.

막다른 골목

고개가 한 바퀴 돌아가는 사이

사방은 온통 강이었다

막다른 골목은 이미 둥그렇게 구워지는

강이었다

젓가락 같은 노를 저으며 오는 배

등그머니 까만 재복의 수녀 한 사람

복룡이 빈 식기를 달그락거리게 했다

등굣길 아버지가 곡괭이로 강을 파고

있었다

엑스칼리버가 배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왔다

낡은 천막이 들린 배바닥을 막으며

엑스칼리버를 둘둘 감아버렸다

수녀는 수천 년의 괴로운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 불사신의 역겨움을 알고 있었다

깨달는 사이 배 안은 음식으로 가득찼다

그녀는 배를 버리고 치마를 한껏 치켜든 다음

물위를 걸었다

강은 점점 달게 달게 구워지고 있었다.

— 박서원, 「수녀의 배」, 『이 완벽한 세계』

우선 시인은 "행복은 땅밑에" 있다고 말한다. 행복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시인은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세계적 살기 방식으로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끝에 이른 것이다. 그러자 사방이 '강'으로 변한다. 익숙한, 규정된 남성적 기지(既知)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흔들리는, 여성적 미지(未知)의 삶의 형태. 그것은 지금 가난해

저 있다. 황폐해진 자궁, 젓가락처럼 뼈째 마른 노, 가난뱅이 살림살이, 텅빈 식기. 늙은 아버지, 낡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그 강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 강을 부수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배를 침범하는 팔루스. 그러나 시인은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 시인은 그것을 여자의 치마폭으로 둘둘 감아버린다. 팔루스의 공격성을 아예 무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증오는 증오만을 낳는다. 그것이 남성들이 지금까지 세계를 경영해 온 방식이었다. 시인은 증오의 고리를 끊는다. 남성들이 해온 방식으로 계속하지 않는 것이다. 시인은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을 代贖(대속)한다. 팔루스의 침입이 여성이 지구 위에서 겪어온 '수천 년의 괴로운 역사'라는 것을, 뉘우칠 줄 모르는 역겨운 남성들의 고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여성 역사의 문맥 안으로 확장시키자. 황폐했던 자궁에 음식이 가득찬다. 아, 이제 시인은 '물', 규정되지 않는 자신의 여성적 자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배조차 버리고 아예 물 위로 올라선다. 외출은 보다 본격적으로 감행된다. 이제 '강'이 구워진다. 보라, 물이 토기처럼 형태가 되는 것이다. 시인은 자신을 '수녀'라고 부른다. 즉, 남성 짝이 필요 없는 독립적인 여자라는 뜻이다.

단호한 외출

여성시인들의 외출은 이제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 된다. 그녀들은 아예 존재 바깥으로 나와버린다. 그녀들은 이제 남성의 형이상학의 인준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들은 자신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물 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간다. 그곳에서 새로운 형태를, 새로운 말을, 자신의 형이상학을 얻어오기 위해서.

바다

해가 졌다

저녁 내 흔들리는 모랫벌

대낮의 편안한, 규정된 부피를 부정하는

칼처럼 달이 뜨고

바람이 잔잔히 불기 시작했다

살이 저머지고 있다

아니, 오해 마시기를,

이건 부패가 아니다.

상상하고 생생한 선행이 똑똑 떨어지는
신선한 살의 이별
결따라 완벽하게 저며져 뼈를 떠나는 살

회디권 뼈 눈부시게 드러나고
바람과 바람의 결 사이에 촘촘히 박혀 있던
잊혀진, 강렬한 말들이
핏줄 위에서 날을 뛰기 시작한다

잔혹한 외출

최소한의 살로 버티던 여자 하나, 모랫벌을 달려가
시퍼런 바닷물 속으로 걸어들어간다

— 김정란, 「잔혹한 외출」, 『그 여자, 입구에서 가만히 뒤돌아보네』

여자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회적인 의미의 외출이건, 존재론적인 의미의 외출이건, 그녀들은 자신의 자신됨 안에서 이제 당당하다. 그녀들은 이제 결핍 감으로 울지 않는다. 집에서 나와도 이제 외롭지도 무섭지도 않다. 그녀들은 그녀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 안에 남성들이 들어와 살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한 가지, 미리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 집이 남성들이 지은 집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



김정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 외국어대학 불어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그르노블 III 대학원에서 이브, 본느르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에 김춘수 시인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시를 쓴다. 초기에는 관념적 아와아의 추구에 매달렸지만, 자신의 여성적 존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여성언어에 대한 추구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원주 상지대학교 인문사회대 부교수, 문학평론과 번역도 겸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 문화 평론 분야까지 작업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시집 『다시 시작하는 나비』, 『영국, 혹은 고향』, 『그 여자, 입구에서 뒤돌아보네』, 문학평론집 『비어 있는 중심—未完의 詩學』, 사회문화 평론집 『거울 아래로 깊이』, 번역서 『사랑의 이해』, 『람세스』, 『다시 만난 어린 왕자』 등이 있다.



특집 떠나는 여자들 민요 분석

“날놔도라 날놔도라 삼십안팎에 날놔주소”

민요 속의 집 떠나는 여자들

날 놔도라 날놔도라 삼십안팎에 날놔주소/ 임중기야 날놔주면 재복길이기도 좁은
길음/ 활장같이 굵은길에 탈탈털고 내가갑세...

임중기라는 자의 아내가 부른 노래다. 서른 이전에 날 놔준다면 좁고 굵은
길을 탈탈 털어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겠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창자는 “젊어
서 놔줘야지, 잡것이 안 놔줘서 못 갔어”라며 웃는다.

예나 지금이나 집을 떠나 자유롭게 어디론가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여자들의
공통적인 바람이었나 보다. 집 떠나는 내용을 담은 여성민요가 적지 않은 걸
보면 말이다. 여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집을 떠나고 싶어할까.

민요 속에서 여자가 집을 떠나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다. 첫째는 친정을 떠
나 시집가는 경우이고, 둘째는 시집살이와 배고픔 때문에 집을 떠나는 경우다.
물론 배고픔 하나만으로 집을 떠나는 내용의 노래는 없다. 배고픔에 시집살이
설움이 겹칠 경우에 여자는 가차없이 집을 쏜다.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고
자노래>라는 것에서 보이는데 남편이 고자인 경우 여자들은 중이 되어 집을 떠



난다.

물론 시집을 갈 때 여자들은 온갖 꿈에 부른다. 실제로 처녀들이 부르는 노래에는
“어서 나도 시집 보내달라”는 내용이 꽤 많다. 그러나 막상 경험하는 시집의 현실은 비
참하기 그지없다.

천정에서 시집으로

고초당초 텅다한들 시집같이 매울소나/ 명주치마 다홍치마 눈물젖기 다버렸다...

시집은지 사흘만에 부엌이라고 내려와서/ 가마뚜껑 열어보니 엉거미가 줄을치고/ 낮거미가
줄을치고

바늘끝무 노던손에 모죽잡기 땀발인가/ 붓자루가 노던손에 모죽잡기 땀발인가/ 은가락지 끼
던손에 호미자루 땀발인가

곱다곱던 다홍 명주치마가 매운 시집살이 때문에 흘린 눈물로 다 젖어가고. 가난에
찌든 시집의 가마솥에는 거미가 줄을 쳤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 은가락지를 끼며
호사하던 손에는 호미자루가 쥐어져 있다. 노동과 가난과 시집살이가 바로 결혼의 현
실이었던 것이다.

혼인후의 이런 불행은 어느 여자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서 그렇게 기세 좋던 시누이
도 시집간 뒤엔 영락없는 울케신세가 된다.

도리도리 삼간집에 딸하나를 고이길러/ 십리밖에 아들이워 시집간지 사흘만에/ 땀집땀집 쫓
겨왔네(...)/ 우리성님 내다보다 깃만남은 적삼에다/ 말만남은 치마에다 땀축없는 질세기에 안
땀축을 주는구나 니도간계/ 그러드나 나도온계 그러드라 너그어미/ 너킵세라 울어머니 나킵세
라 열이열이 같은세라

십리밖으로 시집을 간 시누이가 사흘만에 쫓겨왔다. 시집살이가 하도 자심해 다 달
아서 깃만 남은 저고리에, 끝단만 남은 치마를 입고 뒤통이 헤진 짚신을 신은 형님(울
케언니)이 몰래 숨어보다 이런 말을 한다. “너도 시집가니까 이제야 알겠냐. 내가 바
로 그렇게 당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귀하게 키웠듯 우리 친정어머니엔 나도 역시
귀한 자식이었다...”

또 발일을 하면서 점심을 기다리는 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서사민요가 있다.

사래질고 장찬밥을 매와같이 거친밥음/ 골호명이 손에 쥐고 삼배수건 목에 걸고/ 안반같이 넓

곱다곱던
다홍 명주치마가 매운
시집살이 때문에 흘린 눈물로
다 젖어가고.
가난에 찌든 시집의
가마솥에는 거미가
줄을 쳤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 은가락지를 끼며
호사하던 손에는
호미자루가 쥐어져 있다.
노동과 가난과 시집살이가
바로 결혼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은골에 서발장대 뽕은골에/ 한골매고 두골매네 한골매고 두골매고/ 삼사골을 매고나니 점심참이 되었구나/ 한골매고 돌아보고 두골매고 돌아봐도/ 이내잠심 아니온다...

아무리 아무리 일을 해도 며느리를 위한 점심은 나오지 않는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며느리가 '집이라고' 찾아들었지만 식구마다 "고만글 한 것도 일이라고 밥 먹으로 들어왔냐"고 한마디씩 한다. 배고픔과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시집식구들의 냉대를 참지 못한 며느리는 드디어 집 떠날 준비를 한다.

며느리가 중이 되어

농문을 열어치고 우리아배 떠온치마/ 우리어매 눈공치마 여덟쪽 명주치마/ 한쪽따여 고팔짓고 두쪽따여 행전짓고/ 세쪽따여 바랑짓고...

시집을 때 입고 온 여덟쪽 명주치마는 희망과 행복의 상징이었지만 이내 채념과 절망의 승복으로 탈바꿈한다. 노래 속에서 집을 떠난 여자들은 한결같이 중이 된다. 그들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나서지 않는다. 그 시대엔 감히 그런 행복을 꿈조차 꿀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결혼과 시집살이에 열중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라고 말하는 요즘 여자들처럼...

중이 되어 친정집 앞에서 탁발을 하다 식구들에게 들킨 여자는 친정식구들과 열싸 안고 한바탕 울음바다를 만든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애겐 이미 친정도 자신의 진정한 집이 아닌 것. 여자는 정신을 수습하고 시집으로 향한다.

여자가 시집을 찾아가 보니 이미 썩대밭이 되어 있고 시집식구는 모두 죽은 뒤였다. "시집식구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논에 사는 거머리 원수, 부엌에 사는 시누 원수, 안방에 사는 시어머니 원수를 당사실로 꿩꿩 묶어 호랑이 굴로 보내자"는 노래도 있으니 말이다. 시집식구들이 모두 죽었어도 몇힌 한이 남았는지 여자는 또 이렇게 노래한다.

중노릇을 십년하고 시가집을 찾아가니/ 썩대밭이 되었구나 시아버지요엔 호령꽃/ 시어머니요엔 양살꽃 시누이요엔 요랑꽃이 피었네...

...선비님(남편) 묘에가니 함박꽃이 피었구나/ 남의묘에 가고보니 밀동치가 떡갈라지미(그 묘에 뛰어들었고 함정이 그대 낚답니더. -구술)

물론 자신 역시 살아서는 행복하지 못한 게 그 당시 처절한 며느리의 삶이다. 결국



남편무덤이 갈라지면서 여자는 그 무덤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죽어서야 그녀가 바라는 온전한 집을 꾸리게 된 것이다.

고자남군을 참지 못하고 집을 떠나는 여자들의 노래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민요란 원래 통시대적인 집단요라고 할 수 있다. 세대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가 여러 여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 당시엔 유달리 고자가 많았던 걸까.

...고자남군 화병으로 죽었다고 편지왔네/ 신뎃어서 손에들고 보선뎃어 품에종고/ 머리풀어서 산발하고 씨엄씨(시어머니)네새를 들어서니(...) 예라요년 요망하다 네외장가 안갔으면/ 내외자식 이리될까 어무니아부지 내요말씀 들어보시오/ 당신자식 잘났으면 내신세가도 이리될까(...) / 가고없네 가고없네 고자남군 가고없네... / 이내나는 중의절로 돌아서요

고자남군을 둔 여자가 집을 떠나 중이 되었고 그 때문에 남편은 화병으로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시집으로 가자 시어머니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원망이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한다. "당신 자식이 고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중신세가 되었겠다."

노래 속의 고자남편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이부자리 피아놓고 암만 바래도 안와"

당시에는 여자건 남자건 공방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집을 지킨다는 것이다. 아내의 경우는 신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잠자리 색스가 무서워서 남편 혼자 빈방을 지키게 한 예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 다른 여자와 정분이 난 경우도 있겠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도 있다. 또 멧없는 방랑벽이나 그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은 아내와의 합방을 거부하고 아내는 빈방을 혼자 지킨다. 그리고 공방살이는 대부분 5년에서 20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날 밤 새색시를 외면한 채로 15년간 공방을 살게 했던 예가 있다. 남들은 18살 노총각이면 '첫날밤 색사와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었겠다'고 상상했지만 정작 이 할머니는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몰랐다. 신랑은 소변을 보기 위해 벌떡 일어나 색사의 가슴만 놀래키고는 다시 돌아누워 자버렸다는 것이다(성준식 구술, 『이부자리 피아놓고 암만 바래도 안와』). 그후로도 할머니는 "신랑을 보면 겁만 나고 무서워" 가까이 하질 못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을 돌아보지 않아 결혼한 지 5년만에야 "처녀를 꿈같

첫날 밤 새색시를 외면한 채로 15년간 공방을 살게 했던 예가 있다. 남들은 18살 노총각이면 '첫날밤 색사와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히 있었겠다'고 상상했지만 정작 이 할머니는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몰랐다. 신랑은 소변을 보기 위해 벌떡 일어나 색사의 가슴만 놀래키고는 다시 돌아누워 자버렸다는 것이다

이 면하고 그후로 또 남이 돼버렸다"고 회상한다. 그러고도 공방살이는 계속돼 할머니는 혼인한 지 15년이 지나야 첫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친정갈 땀 오동오동 시집갈 땀 느름느름

이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디며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음직도 하다. "애를 낳으며 기다리고 사느니 아예 죽이나 되어버리자." 남편이 자신을 멀리 하는 것도 또 지나치게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도 모두 여자 탓인 시대였다.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지 그렇지 않은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후손을 이어야 할 여자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시집식구의 눈초리는 고을 수만 없었을 것이다. 빈방에 홀로 앉은 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상상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쥐고 또 쥐었으리라.

이제 이런저런 고통을 경험한 여자들은 친정을 그리워 한다. 여자들은 친정을 향해 애끓는 노래를 부른다.

저기가는 저남자야 우리집 지나거든/ 우리엄마 보거들랑 댈발뻗고 살드라고/ 배고프게 살드라고 그말죽한 전해주소

달도밝고 별도밝고 청도밀양 가고지고/ 울어머니 보고지고(…)/ 친정으로 갈때에는 오동나무 꺾어쥐고/ 오동오동 가고지고 아이종아 발물이라/ 어른종아 소물이라 활장같이 굵은길로/ 설대 같이 가고지고 시집으로 올때에는/ 느름나무 꺾어쥐고 느름느름 오고지고…

시집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색시가 친정으로 신랑갈 때의 모습을 그린 노래다. 친정으로 갈 때는 '오동오동' 서둘러 가고 싶은데 시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느름느름' 천천히 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같은 심정도 그저 마음뿐. 친정도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다. 친정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달려간 집에서 율케와 오빠가 "이제 와서 뭘 보겠다는 거냐"고 타박하며 어머니의 죽은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고 동생을 찾아낸다는 노래를 들어본다면 말이다.

어디에도 집은 없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혼인을 하고도 오랜 기간 친정집에서 머무르거나 살 수 있었다. 사위는 처가의 땅을 농사지으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처가에서 아내와 함께 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여자가 자신의 친정을 버리고, 시집으로 들어가 시집식구가 되어야 하는 부계 가부장제도가 확고해지면서부터 여자들은 진정한 의

미의 집을 잃어버렸다. 실제로 친정에서는 시집의 귀신이 되라며 돌아오는 딸을 거부했고, 시집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언제라도 쫓아낼 수 있었다. 시집을 내 집처럼 알라는 주문이 며느리에게 주어졌지만 정작 시집에서는 며느리를 혈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여자는 언제라도 '방출'되었기 때문이다.

시집온지 삼년만에 친정예를 찾아가니/ 오라버님 반기더라 친정부모 하는말이/ 산이막혀 못왔으나 물이막혀 못왔느냐/ 친정온지 사흘만에 친정식구 하는말이/ 돌아가라 성화로다 눈물한숨 하직하고/ 시집마당 들어서니 시어머니 쫓아낸다…

그러니 여자들의 집은 어디인가.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머무를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자들은 예외였다. 여자들에게 집은 설움과 배고픔과 구속과 뿌리없음을 경험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서성인다.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데 하고 되뇌이며 말이다.

선녀에겐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었지만 이야기 밖에 존재하는 여자들에게는 그조차 없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은 지금껏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분단상황에 놓인 우리는 그리운 고향을 눈 앞에 두고도 못 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한다. 그러나 고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들이 바로 우리 여자들인데 말이다. **II**



박미라

본지 편집장.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을까. 여자들이 이제 살 안해졌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지금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까마득한 시절 여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접해도 그리 낯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을까.



특집  떠나는 여자들 여성작가의 집떠나기

한선녀(恨仙女)의 최후진술

한림화

1950년생.
제주도에서 글을 쓰며,
남자친구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제주 4·3항쟁을 다룬 소설 『한라산의 노을』,
소설집 『꽃향기가 숨겨놓고』,
자료집 『제주 바다 함수의 사계』,
『제주도』(공저)를 썼다.

나는 한선녀(恨仙女)입니다. 나의 이름을 보고 대개 짐작은 하셨을 줄 압니다만 원적을 하늘나라 온하강변에 둔 선녀였는데 본의아니게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본적을 하늘 아래 돌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인 지구촌 한 반도 한 구석에 자리잡은 험준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고도 남을 금강골에 두게 되었으며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나 주소는 이 법정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를 가정파괴범 그리고 효를 무너뜨린 사회질서파괴범 또 부모와 자식 간을 끊어놓은 천륜을 저버린 파렴치범으로 몰아 고소한 조벌목(朝伐木)씨는 사실 남편이 아니고 나를 강간하고 유린한 쾌륜아일 뿐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지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이 자리에 선녀탕의 위치를 조벌목씨에게 알려주어 나를 넘긴 대가로 생명을 부지한 간죽(姦毒)씨, 조벌목씨가 나를 강간할 때 방조한 공범, 다들 '사슴 한 마리'라고 부르더군요, 그를 불러주십시오. 그는 내 말이 진실임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와 나와 조벌목씨를 한 장소에서 공개대질하면 모든 건 명백히 밝혀질 터, 오늘은 제발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하게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하늘나라에서 일 년에 딱 한 번, 음력 칠월 보름날 달이 하늘 중간에 오르면 그 빛을 타고 다른 선녀들과 마찬가지로 금강을 선녀탕에 내려와 백중 물맛이를 하곤 했습니다.

그 폭포는 예로부터 선녀탕이라고 하여 한여름날 더위가 켜는 듯이 엄습하면 열기를 씻으러 금강산을 찾아드는 젊은 여성들만이 전용으로 물맛이를 하는 자타가 인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나라의 젊은 여성들, 즉 온하강변에 사는 선녀들이 그곳을 백중 물맛이터로 정했던 것입니다.

선녀탕에 물맛이하러 내려오는 날이 정해진 것은 어떤 제도나 법에 의해서

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그러한 자유를 구속하는 법 따위는 없습니다. 금강골의 선녀탕과 하늘나라 온하강변 사이를 오가는 길은 백중날 밤 드리우는 달빛이 유일한 통로여서 그날을 택하게 된 것뿐입니다. 백중날 밤 달빛이 선녀탕에 닿으면 그 달빛을 타고 지상으로 물맛이하러 가는 선녀들이 온하강변에 몰려들어 참으로 시끌벅적하답니다.

그날도 나는 언니 둘, 친구들 서너 명과 팔찌로 백중 달빛을 타고 선녀탕으로 물맛이차 내려와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그날의 마지막 물맛이 팀이었습니다. 한참 노느라니 간죽씨가 저만치 폭포낭떠러지에서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와 우리들은 선녀탕에서 통성명한 지 몇 해 되어 우린 누구나 다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간죽씨는 오랜만에 지상에 내려오는 우리에게 인간세상의 일들을 전해주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솜씨도 좋고 매너도 그럴 듯해 호감가는 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무엇인가 쫓기듯 불안해하면서 크고 검은 눈동자에 슬픔을 가득 담아 "하늘에 사는 그대들이 부럽군요. 그곳에는 적이란 없다면서요"라고 하여 우리의 연민을 자아냈습니다. 우리가 위로하면 그는, "우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냥꾼, 아니 인간남성들의 사냥감에 불과하죠"라고 하여 가슴이 미어지게 하곤 했습니다. 지상에서 사냥을 하는 인간은 남성이라고 일러준 것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간죽씨 때문에 인간남성들을 사람이면서 동시에 야수와 같은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몸소 체험한 바 그의 말은 사실이더군요.

나는 간죽씨에게, 그렇담 하늘에 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나 나는 숨바꼭질하면서 살만장 이곳이 좋습니다. 너무 안이하면 살맛이 나겠어요?"

그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어서 어떤 때는 뭐가 뭔지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애매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만나 말이나마 건네는 이는 오직 간죽씨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선녀들은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면서 거리를 두곤 했지만 저는 뭐 장·단점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이해하였고, 또 일년에 한 번 보는 정도여서 보면 친절하게 대해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간죽씨를 만나자 무척 반가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가 사냥꾼한테 잡히지 않고 잘 사는지 문득문득 궁금했으니까요.

"난 한선녀씨 날개옷이 제일 이쁘더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면 끝에 그가 느닷없이 내 날개옷 칭찬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칭찬 이면에 어떤 속셈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



백중날 밤
달빛이 선녀탕에 닿으면
그 달빛을 타고
지상으로
물맛이하러 가는
선녀들이 온하강변에
몰려들어
참으로
시끌벅적하답니다.



더했습니다.

"간혹씨도 참, 그야 내가 제일 막내니까 내 날개옷이 낡지 않아서 그렇죠."

"어디 봐 어디? 어느 게 한선녀씨 꺼지?"

하면서 그는 내 말을 확인하려 들었고 나는 그의 너스레에 말려들어 내 날개옷이 어느 것인지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음, 그거, 그게 내 날개옷이에요. 보세요, 내 말이 맞죠? 언니들 것보다 조금 새거란 거 말고 뭐 다른 특징이 없죠? 모든 날개옷은 똑같으니까요."

그가 내 날개옷을 들고 들여다보고 있던 바로 그때, 불쑥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그에게서 내 날개옷을 낚아채고는 간혹씨와 함께 삽시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우리는 주변을 살살이 뒤졌지만 내 날개옷은커녕 간혹씨도 찾질 못하고... 하늘나라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백중 보름달빛이 막 사워어졌습니다. 그 달빛을 타지 못하면 지상에서 꼬박 일 년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하늘나라 선녀들인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회의를 했습니다. 나만 지상에 남겨두고 하늘에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는 걸 내가 이의를 제기했죠. 나 혼자 남는 게 순리이다. 어떻게든 지상에서 일 년을 버틸 테니 이듬해 백중날 내 날개옷을 마련해 내려오라고 하니 안 된다고 울고불고하던 언니와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고는 마음을 수습하여 마지막 달빛줄기에 겨우 올라서서 하늘나라로 가고 나만 남았던 겁니다.

나는 사실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어렵פות 간혹씨가 어떤 연유로 나를 노렸구나 하는 정도의 짐작은 했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언니들이 하늘로 간 이후에도 나는 계속하여 간혹씨를 찾아 산속을 헤맸습니다. 달빛이 사워면서 저 먼 데서 희뿌옇게 동살이 잡혀오더군요.

그때 다시 불쑥 내 앞에 날개옷을 훔쳐간 남성이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조별목씨였습니다. 나는 혼비백산했죠.

그는 무척 여유있는 태도로 느물느물 내게 다가왔습니다. 얼핏 보니 그의 뒤에 조금 떨어져서 간혹씨가 이 풀밭 저 풀밭 사이를 건너뛰며 우리를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간혹씨, 내 날개옷 주세요, 간혹씨!"

나는 간혹씨를 향해 소리쳤고 그게 마치 신호라도 되는 양 조별목씨가 다짜고자 내게 달려들어 나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나를 타고 앉아 내 옷을 일부러 북북 찢어 나를 벌거숭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쳤지만 정말로 허사였습니다. 그는 맹수가 먹이를 잡아놓고 잠시 장난을 치듯이 능숙한 솜씨로 나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제

압하고는, 그 년 생각보다도 참 이쁘다라는 등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허죽허죽 웃기까지 하여 내 기를 단번에 꺾어냈습니다.

내가 몸을 뒤채며 심하게 반항하자 내 양손을 그의 두 무릎으로 짓누르고 주먹으로 내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나는 아득하게 절벽에서 떨어지는 환상 속으로 빨려들어가는가 싶더니 아무것도 의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몸에 가해지는 묵직한 통증을 느끼면서 차츰 정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애규, <날개 달린 여자>

아! 그는 나를 겁탈하고 있었습니다. 저만치 풀밭에 몸을 숨긴 간혹씨가 내가 겁탈당하는 걸 구경하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알았습니다. 조별목씨가 간혹씨 안내로 선녀탕에 와 내 날개옷을 훔친 거며 그 다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들이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워 진행시켰다는 것을요.

그 이후에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친 간혹씨가 말해 주 알게 된 겁니다만, 간혹씨는 어느날 사냥꾼한테 쫓겼다고 합니다. 마침 조별목씨가 나무를 한 점 가득하여 짊어지고 있던 찰나에 간혹씨가 뛰어들어 나무짐으로 자신을 은폐시켜 달라고, 사냥꾼한테 쫓기고 있다고 다급하게 부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별목씨는 얼결에 간혹씨를 숨겨줬고 사냥꾼들은 나무짐으로 은폐한 간혹씨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간혹씨는 목숨을 건졌구요. 혹시나 이 대목도 조별목씨가 계획한 각본에 의해 이뤄진 건 아닐까요?

목숨을 건진 간혹씨는 은혜를 갚겠다고 나섰고 조별목씨는 조건을 제시했죠. "너, 하늘나라 은하강변에 사는 선녀들이 여기 어디 내려오는 곳을 잘 안다면? 정말 니가 은혜갚을 맘이 있으면 그 년 하나 나한테 붙여. 나 장가 못 가서 이러고 늙어가는 거 너 알잖나 말야!"

간혹씨도 흥정을 했다는 겁니다. 선녀들은 백중날 내려온다. 알아서 날개옷 하나를 숨겨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신, 이후 자신의 목숨을 사냥꾼들로부터 보호해라구요.

조별목씨는 서슴참고 오케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조별목씨 입장에서는 밀질 게 하나도 없었죠. 알다시피 예나 이제나 가난한 데다 흠어머니까지 모신 농촌 노총각이다보니 혼인할 기회가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그 일대의 사냥꾼은 다, 그곳에서 태어

그는 나를 타고 앉아
내 옷을 일부러
북북 찢어
나를 벌거숭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쳤지만 정말로
허사였습니다.



“엄니 조금만
기다리세유. 내 쌍둥이루다
손주놈들 짹짹
앵거드릴 테니까유.
이제사 정말루 이놈이
엄니한테 효도하는갑네
히히히...”

나고 자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세세히 아는 그의 신세를 알게 모르게 지는 터, 그가 간혹씩을 건드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걸 들어주는 것쯤은 식은죽 먹기이고 그 대가로 노총각이 색시를 얻는다는데, 마다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간혹씩 입회하여 공개적으로 나를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만치 폭행을 가하면서 겁탈하고는 초주검이 되자 지게에 얹어 지고는 그의 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리 아들에게서 모든 계획을 듣고 있었던지 조별목씨가 나를 우물기에 내려놓는 걸 보고는 달려와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려 나를 씻긴 다음 아들에게 방으로 들여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초주검이 되어 내 한 몸 맘대로 가누지 못한 채 그들이 하는 대로 그저 내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마당에 초례청을 차리더군요.

산골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노총각이 드디어 소원을 풀게 되었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노총각이 저 ~ 기 먼 데서 어여쁜 색시를 얻었다는데, 내가 앉아 있는 방을 들여다 보고는 한탄의 말이, 저렇게 다소곳하고 예쁠 수가, 천생연분은 따로 있었던 거라고 혼수봉기를 잊지 않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는 조별목씨가 이제 제대로 자신에게 효도를 하게 되었다고, 늦은 복을 타고났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엄니 조금만 기다리세유. 내 쌍둥이루다 손주놈들 짹짹 앵거드릴 테니까유. 이제사 정말루 이놈이 엄니한테 효도하는갑네 히히히...”

조별목씨도 축하객들이 권하는 대로 술을 벌죽벌죽 받아마셔 시뻘개진 눈을 계승처럼 뜨고는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재롱 아닌 재롱을 떨지 뭐니까?

나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 손에 잡혀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그 집에 감금당한 채 조별목씨한테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했고 그와 그의 어머니의 감시를 받으면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열 달만에 여느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비록 강간당하여 낳은 아이지만 참으로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별목씨와 그의 어머니는 내가 아무짝에도 쓰잘 데 없는 ‘썩재기’를 낳았다면서 구박을 하였습니다.

몸조리가 다 뭐니까, 해산하는 그날로 자리를 견고 일어나 일을 했습니다. 대도 잊지 못하는 딸내미를 낳은 주제에 자리보전하여 몸조리하러 든다고 그의 어머니가 주리를 틀듯이 덤벼드는데 어떻게 누워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 집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듬해 백중날이 되자 조별목씨는 내 손발을 풍풍 묶고 밤새 감시하여 나는 하늘나

라로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절망했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낳은 구박덩이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 결심이 쉽사리 서지 않아 하루 이를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조별목씨는 내가 딸을 낳은 지 꼭 이레만에 다시 나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서 아들을 낳아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라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그에게는 나를 강간하는 것도 효도하는 길로 통하나 봅니다.

내 배는 다시 불러오고... 산당을 얼마 앞두고 그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나는 부른 배를 앞에 남산만하게 이고 그의 어머니를 간호해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리저 누우니 참으로 측은하였습니다. 때사에 쟁쟁거리며 잔소리하고 구박을 할 때는 내 거ier 저 늙은이 손에서 놓여나 자유를 찾으리라고 별렀지만 막상 병든 노인 앞에서 억하심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측은심만 커지더군요.

그즈음, 내가 사는 꼬락서니를 지켜보던 간혹씨가 보기에 안되었던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내게 말을 붙여오곤 했습니다.

나는 그와 다시는 안면을 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듣거나 말거나 지난 백중 때도 언니들이 선녀탕에 내려와 하염없이 나를 기다리다가 마지막 달빛을 타고 하늘나라로 되돌아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차츰 회복되어 스스로 대소변을 보게 되었고 나는 두 번째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조별목씨와 어머니는 나를 아이 낳는 기계 쯤으로 여기는지, 그 아들과 벗할 사내놈을 어서 낳으라는 겁니다! 그 구실로 조별목씨는 또 이레만에 나를 강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또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를 강간한 후 널부러져 잠이 들면 얼른 우물가로 나가 내 속에서 그의 정액을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두번째 아이를 낳은 후에 나는 나름대로 작전을 짰습니다. 그에게도 그의 어머니에게도 불임성있게 굴어 나에 대한 감시를 좀 소홀하게 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생지옥에서 탈출할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아니나다를까, 그들은 감시의 강도를 차츰 낮춰갔습니다. 내가 개울로 빨래를 가도 별로 말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조별목씨가 내게 내 날개옷을 돌려줬다구요? 내 날개옷을 감춘 게 늘 미안했다구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또 자신과 사는 게 행복해 보여 이제는 날개옷을 돌려줘도 하늘나라로 가지 않을 것 같았다구요? 천만의 말씀! 나는 조별목씨에게 강제로 잡힌



한애규, 〈한밤의 풍경〉

이후 단 한시도 내 고향 내 부모 내 형제를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행복한 적이 한 시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행복한 거 보셨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나를 잡아다 삼시에 노예로 만든 조벌목썸을 나는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효를 내세워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아이를 낳게 하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시중을 들게 한 걸 나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 이 년만에 돌아온 백중날, 다행히도 조벌목썸은 사냥꾼들이 벌이는 백중제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맘을 푼 놓았겠죠.

나는 보름달이 떠오르자마자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선녀탕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언니가 새로 장만해온 내 날개옷을 앞에 놓고 눈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더 이상 선녀탕에 풀맞이를 하러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널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구나!"

두 언니는 나를 보자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출할 일념에 그렇게 와준 언니들이 고맙습니다. 내 아기들을 본 두 언니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들은 조벌목썸이 올지도 모르니 우선 하늘나라로 돌아가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자면서 달빛에 올라타 순식간에 하늘나라 온하강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 내가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믿기지 않는다고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나와 두 아이들은 서서히 하늘나라 온하강변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 이듬해 백중날 한밤중,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무단침입자가 있다고 비상 사이렌이 온하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시민광장 자유회의에 호출되었습니다. 그 침입자는 다름아닌 지상에서 나를 찾아온 조벌목썸이라는 겁니다. 온하강변에서는 나의 사연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를 조아려 내게 용서를 빌면서 나와 아이들이 보고파 도저히 살 수 없어 선녀탕 물을 퍼올리는 두레박이 내려오자 그걸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왔으니 제발 함께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단연코 거절했습니다. 단, 하늘나라 온하강변에 살고 싶다면 살라.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라도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누구나 살기를 원하는 이에게 살 자리를 제공합니다. 그곳은 공평하고 평등한 곳이니깐요. 그 래도 그곳에도 지켜야 할 자율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안 됩니다. 남의 자유를 넘보거나 침해해서도 안되죠.



한애규, <거울 앞>

그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벌목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서처럼 하루는 나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너는 내꺼야! 라고 하면서 말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자율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당장 추방당하지요. 그는 그날로 지상으로 보내졌던 겁니다.

저의 진술은 전부 다 사실입니다. 내가 한 진술에 허위사실이 있다면 나는 지상의 법에 따라 마땅히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 동안 지상의 시간으로 수세기에 거쳐 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먼저 검찰에 출두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나는 사건의 당사자이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관해 공식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연로를 차단당해 왔습니다. 이 사회는 언제나 조벌목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나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군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놔 볼까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의 역사

나폴레옹, 징기스칸, 박정희, '큰 남자들' 다 비켜라.
여성의 역사가 달려온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여성의 역사』를 꼭 한번 목숨 걸고 읽어보기 바란다"(리베라시용)



3,000여년에 걸친 여성의 역사, 여성의 이야기를 3,000여페이지에 70여명의 일급 학자들(문학·미술·종교·패션·성생활·의학·법학·노동 등 사회 전분야)이 기록해 나간 20세기의 기념비적 저작. 프랑스의 여성운동가들은 이 책이 나오자마자 트럭을 몰고 방방곡곡을 돌고 다니며 팔 정도였고 프랑스 교육방송에서는 이 책을 대상으로 연 3일간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대권 고대의 여성으로부터 기독교 성인들까지 3월 출간 예정
중세권 중세의 정략(99년 3월 출간 예정)
근대권 근대 여성의 혁명·역설의 제단(98년 12월 출간 예정)
20세기권 제2차 세계 대전(프랑스권 상하 888쪽 각 20,000원)
20세기권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98년 12월 출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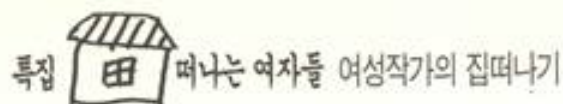
·총 5권 10책으로 발간되며 전집 구입에는 할인해 드립니다.
·고쳐보 사용하신 후나 5월 이상 단행 구입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인, 가족, 성, 사랑 등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내밀한 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한 촉수를 가진 기든스와 율리히 백의 일급 연구서!>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로) 성 사랑 에로티시즘』
앤소니 기든스, 『현대성(로) 자아 정체성』
율리히 백, 『기든스』 백, 『나폴레옹 박정희, 사랑은 지독한 존반』

새물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4-9 명수빌딩 204호
Tel: 3141-8696 Fax: 3141-1778



나는 더 이상 이혼을
꿈꾸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동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에게 하나의 양치기와 하나의 수컷이
 묶여서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 제도가 과연 생명의
 본성에 합당한 것인가. 어딘가 그 제도가 한층
 성(性)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과연 자연의 법칙에 맞는가.
 아마 내가 남성이라면 이런 의문을 가지지
 못했으리라. 의문은 여성 의문을 가지는 양치기들
 순치(馴치)시키기 위해 더 악랄하고 폭력적인
 장치들을 개발해내는 데 앞장설지도 모른다.
 학자들에게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학설을
 만들어 내고 종교를 통해 성차별을 교리화하고
 여성이 차별당한다거나 남성 우월주의가 억압적인
 것이라고 떠드는 여자는 인류의 지적으로 몰아
 수태의 권한을 박탈하고 제3의 성으로
 차별화해서 그런 굴지를 목에 걸고 다치게 하고
 그런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남자는
 3쪽을 맡히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여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나서 '인간의 평등'을 생각한다
 것부터 어쩌면 신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지 모르겠다.

그로부터 15년이 더 흘러 나는 이제 결혼생활 23년째를 사는 경력자가 되었다. 그 동안 별거도 못 해보았고 가솔이나 보따리를 싸본 적도 없다. 친정으로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스스로 선택한 결혼이건 부모님의 요구나 사회의 관행에 따라 한 결혼이건, 사는 건 마찬가지고 갈등도 비슷했다. 부부가 싸우다가 감정이 격

페미니스트저널 IF / 98 / 가을 97



아이 앞에서 피터지게
남편과 싸우기를
되풀이했다.
이렇게 싸우면 힘이 약한
나는 여기 저기
멍이 들게 맞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도 되는 남편은,
드세기만 해서
아내의 미덕을 가지지 못한
아내가 꿀 보기 싫다고
홀췌 나가서
기분이 풀어져야 돌아왔다.

해지면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치고 받고 싸우게 되는 데 늘 남편 쪽이 이기게 되는 것도 비슷해서 때맞는 아내가 많았다. 그것은 때맞을 짓을 하는 게 대체로 아내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내인 여자는 어려서부터 몸으로 싸우는 훈련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가 기본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결혼에 있어서는 여성의 위치, 바로 '출가외인'이라는 남성중심의 가족제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전문직을 가진 아내로선 늘 '억울'했다. 남편과 똑같이 일하면서 살림과 육아와 가정경영이라는 전업주부의 역할도 함께 떠안아야 했으며, 거기다 '일을 함으로써 가정에 충실치 못하다'는 죄도 뒤집어써야 했다. 이전 마치 '주홍글씨' 같은 것이었다. 이 불공평과 차별과 멸시에 대해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건 절반은 죽은 생명이며 근본적으로 자기 생에 비굴한 것이다.

내가 다른 아내들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분노했고 비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 생에 비굴한 것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삶은 어느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내 내부에 자리잡은 자기비하의 여러 가지들이 보였다.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이런 것이다.

1. 내가 나온 자식을 남편의 자식이라고 여기는 것.
2. 내가 번 돈보다 남편이 번 돈을 더 가치있게 여기는 것.
3. 내 시간, 내 감정, 내 취향을 모두 남편이나 시집식구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믿는 것.
4. 친정식구들에 대한 배려에 인색해지는 것.
5. 남편의 배반(외도)에 대한 끝없는 불안.

남편공부'를 시작하다

나는 내 내부의 이런 성향들에 스스로 절망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의 뿌리를 뒤져보았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었고 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었다. 나는 도대체 왜 나를 존중하지 못할까. 이쁘지 않아서, 늘씬하지 않아서, 일류대학을 다니지 못해서, 친정이 부자가 아니어서, 교향이 시골이라서.

물론 그런 것들도 열등감을 만드는 요인들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가혹한 게 있었다. 그건 내가 여자라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남자와 싸워보면 알게 된다.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 확연히 배울 수 있다. 남편은 궁극적으로 아내에게 패배하지 않는데 그 근거는 그가 '남자'라는 사실에 있다. 이 미신을 현실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남편이 팔로 메주를 쏠대도 맞다'고 하라는 아내치세술이다.

나는 아이에게 치명적으로 나쁜 환경을 만드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아이 앞에서 피터지게 남편과 싸우기를 되풀이하였다. 이렇게 싸우면 힘이 약한 나는 여기 저기 멍이 들게 맞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도 되는 남편은, 순종적이지 않고 드세기만 해서 아내의 미덕을 가지지 못한 아내가 꿀 보기 싫다고 홀췌 나가서 기분이 풀어져야 돌아왔다.

내겐 그런 남편이 기이하게 보였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할 터인데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신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 비밀이 궁금했다. 그가 믿는 게 무엇일까. 그에게 저런 신념을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미궁을 찾아들 듯, 달나라를 여행하듯, 그렇게 '남편공부'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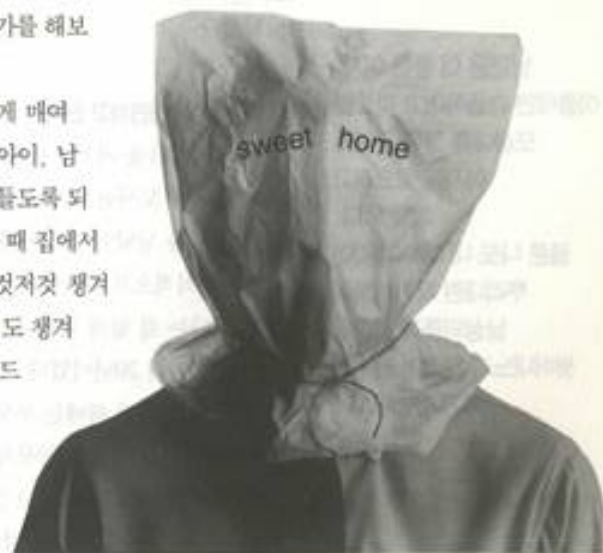
그의 신념의 뿌리... 그것은 가부장제의 남성우월주의와 남아선호와 남성중심의 가치체계에 있다는 걸 알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차별에 대한 분노 때문에 혁명을 꿈꾸었고 인식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분신(焚身)을 심각하게 고려해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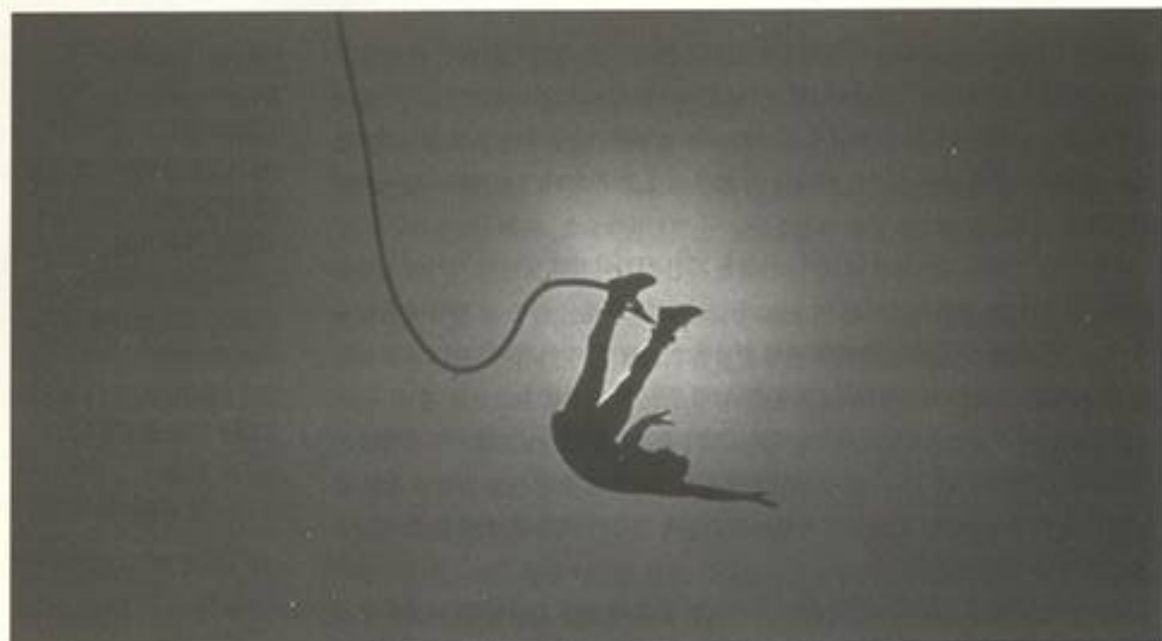
물론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억울하므로 이혼하고 혼자 살면 간단했다. 더군다나 나는 소설을 써서 충분히 먹고살며 아이도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제도, 잘못된 신념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건 아무래도 패배 같았다. 남편과 내가 싸우는 것은 서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가치에 의해 길들여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이므로, 우리는 서로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러나 이런 세월 내내 나는 '이혼을 꿈꾸었다'. 다른 남자와 사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걸 꿈꾸었다. 혼자인 상태. 그건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를 느끼고 자기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는 생활이었다.

그런데 여자의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24시간 다 남에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내가 가족(아이, 남편, 시부모 등)의 의식주는 물론 다른 잡다한 시중까지 들도록 되어 있는 풍습 때문이다. 아이들이나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집에서 마중하기, 아이와 남편이 학교와 직장으로 나갈 때 이것저것 챙겨주기, 식사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밥을 달라고 해도 챙겨먹이기 같은 것이 여자를 24시간 대기하는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이 현모양처로 미화되어 결국은 아내와 어머니를 만성피로와 자기상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가족들에게 설득시키고 생각과





남편은 더 좋은 여자,
이름테면 순종적이고 따뜻한
모성애를 듬뿍 쏟아줄
여자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나도 내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비하와
남성의존적 성향을
씻어내느라 털갈이 닦처럼
보기에도 딱하게
방황했다.

습관을 바꾸도록, 끊임없이 싸웠다. 이렇게 싸우는 동안 내 자식들과 우리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부재를 경험해서 너무 외롭게 자랐다고,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했다. 남편은 더 좋은 여자, 이름테면 순종적이고 따뜻한 모성애를 듬뿍 쏟아줄 여자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물론 나도 내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자기비하와 남성의존적 성향을 씻어내느라 털갈이 닦처럼 보기에도 딱하게 방황했다.

나는 나와 대면하고 산다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내가 얻은 것이 있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남성중심의 가족제도 속에 도사린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인 차별과 그것을 받치는 온갖 질서와 미덕들의 실체를 낱알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이런 것에 의식·무의식적으로 길들여져 살고 있으며 상호갈등의 뿌리엔 그런 것의 도도한 작용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세월이 20년이었다. 나는 그 동안 많은 상처를 입었다.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를 풀지 못해 해매는 무모한 삶은 끝장을 냈다. 후련하고 허전했으며, 가벼웠다.

나는 더 이상 이혼을 꿈꾸지 않는다. 결혼제도 자체에 회의를 느끼거나 남자와 사는 일에 멀미를 느껴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어떤 남자냐, 하는 건 결혼생활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고통받게 되는 큰 이유는, 개별

남성의 특성에 있지 않고 바로 남성우월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 나는 자유롭고 편하다. 때때로 남편이 미워서 얼굴을 찌푸릴 때도 있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내가 그를 미워할 때 그도 여자인 나를 미워할 것이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아침이면 집을 나와 소설 쓰는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는 것이다. 이곳에 오면 나는 나와 대면하고 산다. 나와 세계의 대면이다. 세계를 만나기 위해 남편이라는 문을 열고 나가야 하지 않고 아이라는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 물론 주부, 아내라는 문도 없다. 그저 나 자신과 세상이 장면으로 대면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특별한 작업공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일정한 시간을 '집을 떠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 방식의 집 떠나기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흔히 우스개 소리로 하는, 수십 년의 '피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얻은 것이다.

수십년의 '피바다'를 건너서

나의 경험은 사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솔직히 쓴 것은 내가 여자로서 제대로 살아냈다는 자부심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도 바깥까지 않았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았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으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

아직도 내가 이혼녀나 독신으로 보이는 것은, 남성중심의 가족제도에 순응하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믿는다. 결혼생활을 20년이 넘게 하고 만며느리 노릇을 충실히 살아내지만 여전히 나 자신인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이혼녀로 보이는 내 얼굴, 독신으로 보이는 내 얼굴이 자랑스럽다.

나는 집을 가졌으며 집을 떠났으므로. [7]



특집  떠나는 여자들 여성작가의 집떠나기

그녀의 삶을 향한 긴 여정

김연

63년생, 소설가.

유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기 전 스무 해를 남쪽의 '장주'란 이름의 도시에서 컸다. 딸 다섯과 막내로 아들을 둔 집안의 제1인자로 언니로 자라 지금은 여섯 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난 별로 자유롭지 못했는데 남들 앞에선 너무 자유스러운 척하는 것도 같고 난 정말 남들보다는 자유스러운데 죽었다고 염심을 부리는 것도 같다. 어느 것이 진짜 내 모습일까.

한 여자가 작은 아파트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 북어국이나 콩나물 무침 같은 것으로 가득찬 식단이 아니다. 당근에 마요네즈를 듬뿍 바르고 물결처럼 흐르는 음악과 함께 천천히 야채샐러드를 먹는다. 그녀는 아주 아주 행복해 보인다. 그녀도 한때는 남자들의 고상하고 우아한 식탁 밑으로 허리를 접고 기어들어가 아이가 떨어뜨린 반찬을 주워올리던 지극히 평범한 아내이자 부인이었다.

오래 전에 봤지만 그 여자의 식사장면이 지금까지도 인상적인 <안개기둥>이란 우리 영화다. 기막힌 행운으로 내가 잠시 점유하고 있는 '작업실'이라고 부르는 나의 공간은 흔자된 그 여자가 살던 아파트의 크기쯤 될 터이다. 난 이곳에서 글을 쓰고, 잠을 자고, 책을 읽는다. 그리고 혼자서 밥을 먹는다. 그럴 때 어김없이 그 멋진 영화장면이 떠오르며 나도 그 여자처럼 얼굴 가득 희열이 넘친다.

무명작가로 찾은 절집

나의 주거공간은 열집과 주먹 하나 사이로, 삼십 분을 걸어도 뽕 한 줄 볼 수 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매연을 들이마시면서도 용케 견디고 있는 가로수가 전부인 곳이다. 새벽마다 주차문제로 벌이는 이웃간의 악다구니로 잠을 깨야 하는 곳에서 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글 한 줄 나오지 않았다.

하다못해 생각해 낸 게 중고 노트북컴퓨터를 장만하고 글쓰는 사람들이 그 런던는 것처럼 절집을 찾아나서는 일이었다. 그렇게 처음 간 절이 안성의 초사였다. 어떤 연줄도 없이 언젠가 가 본 그 절이 아담하고 또 그 나름의 역사도 있는 절이라 난 나의 어찌할 수 없는 '무대보' 정신으로 주지스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다.

다행히 그저 글을 써보려고 한다는 무명작가를 스님은 거두어주었다. 그 때

가 초겨울이었는데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나는 그 며칠 그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머물러 있던 방 옆에 수련중인 한 스님이 있었는데, 내가 글이 막혀 경내를 산책하고 있으면 꼭 언제 나타났는지 내 옆에 바짝 붙어 자꾸 수작을 부리는 거였다. 난 글이고 뭐고간에 열방 스님의 들고남에만 바짝 신경이 쓰여 숨소리조차 못 내고 내 방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어느날은 공양을 마친 나에게 부탁이 있다며 따라오더니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란 게 거의 황설수설이었다. 난 너무 겁이 났지만 개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마을까지 내려가 전화를 걸어주어야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밤, 짐을 싸서 집으로 가버릴까, 아니다, 별 일 없을 거다. 신경쓰지 말고 글이나 쓰라며 내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데 밤새도록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 스님이 내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 같아 난 한숨도 못 자고 그렇다고 글도 쓰지 못한 채 그 밤을 보냈다. 날이 새자마자 밖을 나가보니 밤새도록 나의 신경을 긁었던 그 소리는 다름아닌 그 해의 첫눈이 커다란 감나무 가지 위로 소복이 내려앉던 소리였다는 걸 알고는 얼마나 우습고 내 자신이 초라해지든지.

난 중간에 짐을 싸지도 않고 계획한 날까지 그 절에서 작업을 했다.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며 다소 거친 인상의 주지스님이나 열방의 젊은 스님이 나의 신경을 늘 거슬렀지만 그곳에 가던 첫날, 밤에는 무서우니까 요강으로 쓰라고 바깥쓰를 내 손에 쥐어 주시던 공양간 노보살님의 따뜻한 배려가 날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내 열방의 스님복장을 한 남자는 정신에 약간 이상이 있는데 불평한 사람이라 절에서 그냥 거두어주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안 사실이었다.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난 초사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다른 곳을 알아 보아야 했다. 다음으로 내가 찾은 곳은 강화도의 비사였다. <돌로레스 클레이튼>이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차를 배에 싣고 들어가야 하는 섬에 있는 절이다.

이 땅에서의 고통

이 절은 우리나라 삼대 기도처 중의 한 곳으로 늘 기도인파와 관광객으로 북적대는 절인데 난 송구스럽게도 기도하는 상관 없이 글을 쓰기 위해 그 절집으로 기어들어갔다. 뱃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난 긴 계단을 천천히 올라 부처님 석상 앞에 삼배를 하고 서해 바다로 눈길을 돌렸다. 붉은 태양이 바닷속으로 빠져들 때까지 난 그것을 뚫어저쳐 지켜보며 많이도 울었다.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던 그 때, 어디든, 이 나라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았던 시절이었다. 일곱 군데서 퇴짜를 받던 나의 분신 같은 원고몽치. 출판도 되지 않은 채 일 년여를 묶어놓고 있던 출판사, 내가 쓴 소설로 드



뱃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난
긴 계단을 천천히 올라
부처님 석상 앞에 삼배를 하고
서해 바다로
눈길을 돌렸다.
붉은 태양이 바닷속으로 빠져들
때까지 난
그것을 뚫어저쳐 지켜보며
많이도 울었다.



라마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방송국의 높은 사람
이랑 가슴 떨리는 점전까지 했지만, 이렇다 저렇
다 전화 한 통 없이 무명작가를 우뚝하던 방송국
의 핑포. 내가 낮은포복으로 기어가고 있는 사
이, 약전에 약전을 거듭하는 이른바 문단의 63년
생 작가들. 내 글을 쓰면 된다고 아무리 스스로
를 달래고 위로하고 어떤 짓을 다 해봐도 난 그저
감정을 지닌 나약한 인간일 뿐인데. 거기다 결혼
한 여자가 한국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비굴함과
모욕들.

상처받은 영혼을 위무할 수 있다면

난 그 절에 들어가면 근 하루는 잠을 잤다. 학
원강사에서, 마누라에서, 엄마에서, 며느리에서
벗어나 나로, 글쓰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뱃속의 아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잤다. 그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난 내 소설 속 주인공들인 수
민이, 인실이 되어 있었다.

새벽녘 푸른 하늘에서 쏟아져내리던 그 별빛들
을 온몸에 고스란히 받으며 그곳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 석실로 들어선다. 그곳에 가면 감
실부처들이 있다. 절을 올리고 앉아 있으면 달고
달아 이제 그 혼적만으로 남아 있는 그 작은 불상
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냥저냥 살어! 염살
부리지 말고! 세상에 대해 가망없는 기대만 안 가
지면 돼!

그 불상들에게서 물러서면 경내의 유일한 공중
전화 부스가 있다. 난 그 새벽에 전화 걸 테도 없이 그 열을 하릴없이 서성거리다 아우
성치는 중년여자의 소리를 듣고 만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쳐도 못 참겠어
요! 그 여자를 만나 답판을 지어야지. 그러니 어머니도 제발 아버지한테 따끔하게 혼계
를 좀 하시라니깐요.

바람피는 남편이 그 부인의 기도의 가피를 입어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올까? 절에 기
도하러 오는 사람의 99퍼센트는 여자다. 남편이 바람피우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 사



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을 건강하고 무사히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작 자신
을 위해선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소망이 없기라도 한 걸까. 예불을 보는 사
람들은 왜 온통 여자들이어야 할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큰 야망을 가졌지만 부처
님 앞에 무릎 꿇고 빌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부인들이, 그 어머니들이, 그 딸들이
나서서 남자들의 바람막이를 해주고 있으니까.

나도 가끔 부처님 앞에 앉아 빌기도 했을 것이다. 내가 쓰는 이 소설이 상처받은 이
의 영혼을 위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며칠씩 그 절로 들어갈 때면 사람들에게 난 웃으
면서 말하곤 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내가 이번엔 어쩌다 눈 먼 당선이라도 된다면
그건 다 그 절의 영험한 기도했 때문일거라고.

웅모마감 두어 달을 앞두고 동생이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는 바람에 그 애가 살던 아
파트가 내 공간이 되었다. 나에게도 그 찬란한 작업실이란 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난 밤벌이하던 곳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하여 그 작업실에
서 웅모마감 시간과 싸우며 글을 손보고 또 손봤다.

원고를 보내놓고 난 근 한 달간 어린 딸과 여행을 했
다. 이 땅은 떠나보지도 못하고 그저 이 땅 구석구석만을
국도 번호 세 자리수 네 자리수를 찾아, 엄마가 글을 쓰
러 며칠씩 사라져 있는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거
쳐야 했던 불안한 딸의 심성도 달랠 겸.

나의 여행길에는 대개 화두가 하나씩 존재하게 마련인
데 이번에 당선이 안 돼도 글을 계속 쓸 것인가 말 것인
가가 그 긴 여행의 화두였다. 아니다. 살 것인가 말 것인
가가 화두였는지도 모르겠다. 자고 있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서 빨리 내가 마흔이 되고 원이 되어 저 아이한
테 엄마로서, 그리고 생으로서 내가 치러내야 할 이런 저
런 의무를 다 끝내고 휴가분해지길 너무도 간절히 소원
하곤 했으니까.

내 여행의 화두

한밤중 차 한 대 없는 고갯길을 뒤흔쳐 아이를 매달고 달릴 때면 경찰에 쫓기면서
달리고 또 달려 푸르스름하게 날이 새 무렵 그랜드캐니언으로 들어서던 델마와 루이스
의 호린 눈동자 위로 흐르던 마리안느 페이스풀의 <The Ballad of Lucy Jordan>이란 곡
이 내 마음 속에도 흐르고 그 가사에 나오는 서른일곱 살의 나이가 아직은 아니니깐 그
래도 희망은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다.





차와 여행에 지겨울 정도로 단련이 된 아이는 저것 좀 봐 멋있잖아. 하고 내가 아름다운 절경을 아무리 손으로 가리켜도 봤어! 하고 실드렁하게 대답하곤 한다. 그러던 엄마가 기분 언짢아하는 걸 보곤 눈치 빠른 아이는 멋있어. 엄마 최고야! 하며 반씩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린다. 나와 딸아이는 기쁨과 짜증 같은 감정적 기복마저도 함께 나누는 그야말로 길동무이다.

엄마의 집으로

여행 끝에 나는 남쪽 언저리 고향집으로 딸과 함께 숨어들어 갔었다. 열심히 싸우던 전사가 갑자기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항복이라고 소리치는 심정이었다. 난 이제 그만 세상에 백기를 만들어 흔들며 화해를 하고 싶었다.

난 머릿속을 텅 비우고 그곳에서 쉬었다. 소설이든, 내 앞에 닥친 현실이든 아무 것도 생각지 않기로 했다. 난 우리 엄마에게 밤새도록 내 불운한 팔자를 하소연하고 내 딸이 그러하듯 나도 우리 엄마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스무 살에 서울로 상경을 한 후로 처음 가져보는 평화였다. 난 놀이터에서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다가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입술을 깨물 정도였다.

내가 그곳에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또 그렇게 여행을 떠날라치면 엄마는 기쁨값이나 있나며 내 호주머니에 지폐를 쑤셔넣어 주었다. 내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그리고 얼마 후 꽤 큰 상금이 걸린 문학상 당선 소식 알렸을 때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번에 여기 왔을 때 내가 얼마나 편하던지 너를 보내놓고 마음이 심란해서 혼났다고. 난 떠나가기 전날 엄마한테 엄치없게도 돈을 좀 빌려달라고 손을 내밀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한다고 엄마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했던 참이었다.

딸아이는 차에 타면, 엄마, 선글라스 꺼야지. 하며 잠물통에서 그걸 꺼내준다. 그리고 어린이집 친구에게 여자는 운전하는 것 아니냐고 그 애 아빠가 그랬다면서 엄마, 여자도 운전하는 거지 하며 온근히 엄마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 난 딸애를 태우고 장롱거리는 록음악을 차가 흔들리도록 틀어놓고 세상의 남자들이 손가락질하는 맛이 간

여자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껌을 딱딱 씹으며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가며 길 위에 있을 때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 이런 순간이 아니면 내가 또 언제 세상으로부터 받은 온갖 모욕을 돌려줄 수 있단 말인가.

내년에 환갑인 나의 엄마는 애 여섯을 키우면서도 억척스럽게 교사생활을 하여 지금도 현직에 있다. 그리하여 나의 엄마는 지금 자기만의 방과 당신이 말년까지 자식들 도움 바라지 않고 사실 만한 경제적 자립을 일구셨다. 그런 우리 엄마의 딸인 나는 이제 소설이란 매개로 세상과 의사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 엄마는 평생 꿈꿔보지도 못한, 혼자서 차를 끌고 이 세상 곳곳을 기웃거리는 일을 하고 있다. 조수석에 앉아 엄마가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신호등을 지켜봐주고 엄마의 선글라스와 운전면허증을 챙기며 낯선 곳, 낯선 밤들에 익숙해지며 자라는 내 딸아이는 우리 엄마가 우리의 외할머니의 꿈을 실현하며 자신의 일을 가진 당당한 여자로 살아가듯, 내가 우리 엄마가 평생을 닦아온 자유의 기반 위에서 달리기를 시도하듯, 그녀는 외할머니보다는 이 엄마보다는 더욱 자유를 향해 비상하게 되리라. **11**



가족에 관한 몇가지 집담

이남희

소설가

91년부터 기술 주도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 그래서 지난 겨울 황비사에서 '플라스틱 섹스'라는 네 번째 소설집을 펴냈으며, 그후에도 계속 섹스와 젠더 문제를 탐구하는 중.

하 나

올 여름의 불꽃전 중 하나로 중년여자들의 허벅지 노출이 늘어난 것을 들기도 한다.

작년 여름만 해도 반바지인 비류다 팬츠는 허벅지가 가느다란 이십대의 처녀들만이 입었다. 그러나 올 여름에는 중년여자들이 더 많이 입는다. 박세리 때문이란. 이즈음 TV에 자주 나오는 박세리를 흉내낸 차림이 유행하다보니 골프복을 닮은 반바지를 너도나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때 TV 드라마(에인)이 인기를 끌자 황신혜패션이 거리를 휩쓸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제 소비는 개인의 내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TV는 외판설 민박집에도 구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예전에는 부모나 친족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제는 TV를 통해서 배운다. 아이들은 특히 또래집단의 유행에 민감하다. 그래서 사야 하는 물건도 많고 해야 할 일도 특히 더 많다. 소비의 기준이 개개인의 필요가 아닌 TV에 일률적으로 맞춰지다 보니 돈은 무한정 필요해진다. 유흥비 마련을 위한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다. 그런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는 간혹 이런 항변을 듣게 된다.

"제대로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낳기는 뭐하러 낳았어요?"

이제 부모의 할 일이란 자식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밖에 없는 듯하다.

둘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부부싸움을 할 때 무심코 내뱉는 말을 들어보면 그 집 부부의 성생활을 알 수 있다. 여자가 남편을 향해 "짐승, 짐승" 하고 싸우면 남편의 잠자리 능력을 관측하는데 돈을 벌어도 못하는 경우, "밥만 먹고는 못 살아" 하고 외치면

돈은 벌여오지만 잠자리가 부실한 경우, "그래, 너 잘 낳아" 하면 돈도 잠자리도 만족스러운 경우,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하고 따질 때는 돈도 못 벌여오고 잠자리도 부실한 경우라고 한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심각한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만 있던 어떤 이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돈은 못 벌여도 잠자리가 만족스러운 경우는 있음직하지 않다. 자신이 실직한 동안 경험한 일인데, 월급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자 성적 의욕도 따라서 점점 떨어지더라. 아마 그래서 실직한 남자들이 집을 나가게 되는 것 같다... 고개를 끄덕인다. 너도나도 거들어 같이 한탄한다. 사실 어떨 때 식구들을 머물리면 소름이 짝 돋는다. 요즘 애들이라는 게 정신적, 신체적으로는 독립하려고 해도 경제적 독립만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것들인데 죽을 때까지 이걸 다 거둬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숨이 꼭 막히려고 한다. 차라리 노숙자라면 속은 얼마나 편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말 요즘은 남자들이 불쌍하다...

셋

상식과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허약하고 상처입기 쉽다는 건 암암리에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어떤 학자는 신체구조부터가 그러해서 성기가 감춰지고 안전한 곳에 있는 여자와 달리, 남자의 성기는 돌출되어 상처입기 쉬운 모양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IMF 이후 주변을 둘러봐도 가정이 흔들리면 남자들은 주로 도피하려고하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여자들은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다. 어느 위치의 누구라고 지위를 타고나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그런 게 없이 살아온 탓인지 야전에 강하다. 무엇이든지 해낸다. 특히 한국의 중년여자들,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면서도 가정이라는 걸 지켜낸 한국의 아줌마들은 더욱 강해서, 세계최고의 러너 칼 루이스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칼 루이스와 한국 아줌마가 같이 전철을 타면 먼저 좌석을 차지하는 쪽이 아줌마라는 것이다.

여기서 좀더 발전하면 남자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여자들은 정말 독하다—이때는 강하다는 표현 대신 독하다고 한다—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기껏해야 이혼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여편네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남편을 아예 살해하려고 든다. 그게 보통이라. 남편이 해외 근무자로 중동에 나가 있는 동안 바람이 난 부인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에게 밀반찬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구운 김에다 몰래 청산가리를 발라서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더라. 이처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독하다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견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여자가 독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만큼 여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남자라면 혼인파트너를 바꿔치기하는 정도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여자에게는 목숨을 건 위험한 도



여자들은
야전에 강하다.
무엇이든지 해낸다. 특히
한국의 중년여자들,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면서도 가정이라는 걸
지켜낸 한국의 아줌마들은
더욱 강해서,
칼 루이스와 한국 아줌마가
같이 전철을 타면
먼저 좌석을
차지하는 쪽이 아줌마라는
것이다.



박을 요구하는 난제가 된다는 뜻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즈음 들어 여자들의 가슴이 남자 못지 않게 늘어난 세태를 보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 때가 있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적어도 '여자는 죽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파트너를 바꿀 수 없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말이다. 늘 대상으로 살아 오던 여자들이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까...

이즈음에 이혼한 어느 부인이 말했다. "저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거 있죠. 고질적이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게 이혼한 사유였다. 그런데 그녀더러 왜 아이를 말지 않느냐고 묻자 "개 아빠는 부모 아니래요? 개는 김씨고, 난 김씨라면—전 남편 성이다—정말 지긋지긋한 거 있죠"라고 대답하는 냉정한 모성을 만난 적이 있다. 모성이라고 영구불변은 아닌 모양이다.

넷

IMF 이후, 데스크에서는 실직한 가장, 가솔한 아내, 고아원에 넣든지 하여 버림받는 아이들이라는 모습으로 해체된 가족의 모습이 자주 나온다.

이제 가정은 소비의 단위로만 남은 것 같다. 어른은 돈을 벌어오는 주체, 아이는 소비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데스크이 담당한다. 부모를 대신해서 TV나 영화는 친절하게도 먹고 입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키스하고 성교하는 법까지 가르친다. 그러니 어른들이 돈을 벌어들이지 못할 때 그 소비단위가 부서지는 걸 당연하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언뜻 현재의 부부라는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알겠. 수컷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인 두 경제적인 주체의 결합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주도의 산업사회에서 인간은 돈을 벌고 소비하는 경제적인 주체일 뿐이다. 나머지는 과학의 발달에 의해 점점 더 모호하게 되고 경계선을 넘나든다. 과학의 목적이란 인간의 자연적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은 노동의 수고를 없앴고 이제 출산의 고통도 사라질 시점에 와 있다.

여자의 영역, 남자의 영역이 엄연히 따로 있다는 과거의 사고방식은 없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소하는 남자, 빨래하는 남자의 모습은 청소기나 세탁기의 발달 없이는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여성들의 사회 진출 역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으로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이즈음의 우리로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녀의 영역구분이 너무나 뚜렷하여 여자 없이 남자 혼자서는 밥을 해먹을 수 없고 옷을 꿰매 입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선악이나 호오의 가치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생활의 변화속도는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정도라면, 물질적 생활의 변화속도는 비행기가 나는 듯 변하고 있다. 아니, 로켓 정도의 속도는 되는 듯하다. 이즈음 남자와 여자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건 생식의 경우 뿐인데 그나마도 유전공학의 발달에 의해 곧 사라질 지경인 것이다. 머지않아 여자 없이 남자도 얼마든지 아이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는 가족이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지 전혀 짐작되지 않는다. 정신의 변화속도가 물질의 변화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남녀의 영역구분이 뚜렷했던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이미 자의식에 눈을 뜬 여자들 역시 그러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7]

JAZZ CLUB BLUE MOON



The Wonderful music with great foods
at the finest jazz club,
"Once In A Blue Moon"
Come and experience the fantastic mood

September Presents Of Blue Moon

- 양방 음모 1주년 기념 가품축제
9월1일 ~ 15일까지 양방·적대감을 드시는 모든 분께
양방 음모 5ml 미니양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 Club Friends 정기모임
9월19일 토요일 오후 6시
- 크리스찬 디오르 신제품 런칭 기념 행사
9월23일 수요일 오후 7시
특품 '여쁜노력' 반짝임
입스틱 '다오라' 블루스틱 '서인'

재즈평론가 김현준과 함께하는
재즈워킹샵 '재즈의 이해'

1998년 9월 ~ 12월 2,4번째 토요일 오후 2시30분
문의 및 접수 Tel. 549-5490/5497 Fax. 549-8776
입장료 : 무료

*4월25일이후 1500원 이상으로 신청한 1500원 한도까지 전자 공부를 하신 분께 345원 무인 배정합니다.

· Business hour 11:00 a.m to 12:00 p.m, 7days a week
· 85-1 Chungdam-Dong Kangnam-Gu Seoul Korea 135-100
Tel.549-5490 Fax.549-8776



특집  떠나는 여자들 여성작가의 집떠나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걸어가 보라

신현밀

시인

한반도 의왕 출생이다.
아주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상명대
디자인대학원에서 사진공부중이다.
습화에 첫째 딸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름'을
언저리와 둘째 딸 '세기말 블루스'를 독자들에게
시집보냈다. 최근 아삼작인 영상에서 '나의
아름다운 천'을 세상에 걸어두었다.
주에 세 번 초등학교 글짓기 교사로 일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머리 속에서 푸른 바다가 출렁거린다.

바다를 생각하니 뜨거운 갈색커피를 마시고 싶고, 습습한 바람과 바닷가 소나무 숲냄새가 그림다. 짙어진 삶의 일정과 답답한 도심에서 살다보면 쉽게 지친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 너무나 맑은 날이면 도시 밖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다.

특히나 바다에 대한 연인의 감정은 주체하기 힘든 순간이 많다. 바다 속에 폭 빠져들기 전의 뜨끈뜨끈한 해와 붉게 물든 구름을 안고 창호지처럼 흐르는 하늘, 그 모습을 보는 황홀감은 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일 것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고달픔을 일시에 날려버린다.

나는 건디다 못해 밀린 원고청탁과 일과 가족의 구속감으로부터 벗어나 후배와 함께 제주도도를 향해 달렸다. 한 달 전 주말에 갔다가 끝없이 밀린 차 때문에 집으로 되돌아온 제주도도를 향해 다시 돌진하였다.

"여자들이 집을 떠난다"

차창 밖을 보며 나는 얼마 전에 읽은 글을 떠올렸다. 그래, 다들 집을 떠나봐야 한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문 밖을 나서봐야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의 혼란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족의 소중함이나 가족으로부터의 완벽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리라.

우리는 자신의 영혼, 그 고요한 슬렁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고 살았다. 거짓말 같고, 기이한 영혼은 고립된 순간이 아니면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스스로 슬하고 맑고 안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잘 모르는 법이다. 나는 아주 고요한 바람 같고 연기 같은 영혼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 차창 밖의 풍경이 아주 빠르게 한장 한장 넘겨졌다.



오후 3시.

두 시간을 달려 제주도 앞바다에 섰다. 이 시간이면 바닷물이 빠져 제주도 가는 길이 보인다고 해서 왔는데, 군인들이 길을 막고 섰다. 나는 뜨거운 햇살에 부딪혀 유리 조각처럼 번쩍이는 바다를 보며 보초선 군인들에게 물었다.

"아저씨, 들어가도 됩니까?"

"죽고 싶으면 들어가소."

"3시에 물이 빠진다고 해서 왔는데요."

"밀물 썰물 교차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다 마음대로입니다."

바다 마음이라, 아무 것에도 얽매임이 없이 부드럽게 출렁이는 제주도 앞바다를 보니 빨리 바다를 건너고만 싶었다. 군인은 이어 말을 계속했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지는데, 오늘은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통행이 가능합니다."

저녁 8시면 집에 도착할 계획인데, 올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일정을 바꿔 8시가 될 때까지 제주도 옆의 섬 대부도를 돌면서 함께 사진을 찍기로 했다. 날씨는 뜨겁고 섬 주변 풍경은 무척 맑고 신선했다.

대부도 곳곳에 널린 포도밭 주변을 도니 불란서에 온 것 같다. 바닷물결을 보니 지중해 앞에 선 듯한 착각에 빠진다. 나는 불란서는 가봤지만 지중해는 못 가봤다. 그러나 장그르니에 얘기했고, 까뮈가 사랑한 지중해를 그들의 글을 통해 상상으로 알 뿐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길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본 경험 이 있다. 그 바람 이상으로 대부도의 바람은 부드럽고 복숭아맛처럼 상큼했다.

나는 지난 해 유럽 3개국을 돌았을 때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참 가치를 새삼 느꼈다. 우리 땅은 광활하지 않으나 강과 바다가 친구처럼 가까워서 우리만의 모습을 잘 지키고 가꾸면 굉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확실히 고향을 떠나봐야 고향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내 땅도 떠나봐야 내 땅의 향기와 매력이 진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로부터 떠나봐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이게 마련이리라.

"여자들이 집을 떠난다"

그동안 대부분의 여자들은 너무 방안에만 갇혀 살았다. 안방과 아이들방, 부엌과 욕실을 오가며 텔레비전과 냉장고 사이를 오가다 보면 치위야 할 저녁식탁 위로 하루의 해는 지고 만다.

자신이 누구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늙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뭔가를 시작해 볼 순간에 자신이 늙었음을 깨닫고 용기를 내지 못한 지난 날을 후회할지 모른다.

떠나야 한다. 떠나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세우게 될 것이다. 다

바다에 대한
연인의 감정은 주체하기
힘든 순간이 많다.
바다 속에 폭 빠져들기 전의
뜨끈뜨끈한 해와
붉게 물든 구름을 안고
창호지처럼 흐르는 하늘,
그 모습을 보는
황홀감은 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일 것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고달픔을 일시에
날려버린다.

시 돌아오는,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다. 여자가 떠난 집의 모습이 어떠할까 눈 앞에 선하게 그려진다.

여자가 떠난 집의 가족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세삼스레 아내와 어머니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것이다. 집에 남은 가족도 절망의 끝까지 가다보면 뭔가 보이리라 믿는다.

인생의 비극은 먼 훗날 행복의 배경일지 모른다. 그러리라 믿고 살아야만 비극을 넘어서는. 여기서 나는 집에 남아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한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입장에서 애달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부재가 곧 가족의 해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해체된 가족은 또 다른 형태로 가족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흘러 흘러진 가족은 다시 만나지리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파도라서 떠났다가 다시 오고야 한다. 오지 않으면 그녀는 없었다는 생각 속에서 잊는 수밖에 없다. 오지 않는 독한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므로.

마침 제부도 앞바다에 해가 지고 있다. 가까이 있는 풍경 속에서도 여자들이 집을 떠난다는 이 시대의 골치 아픈 문제가 다시 나의 생각을 점령해 갔다.

어둠이 내리고 해가 지고 해가 뜨면 갈에서 깨어난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어오고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물이 쏟아진다.

당연한 사실이 세삼스레 당연하지 않게 느껴진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여자는 곧바로 배부터 나온다. 봉분 같은 배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수평선처럼 고요해진다. 당연한 일이다. 거울에 눈이 내리고 여름엔 매미가 온다. 밤새 머리 위에 흰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머리칼이 변한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변화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다. 순간 이 사실들이 낯설게 다가온다. 이것은 그냥 느낌일 뿐이다.

세상은 당연하지 않는 일이 제도화되어 우리를 강요하는 당연한 것이 있다. 그것은 가부장제도에 의한 불평등한 관습들이다.

남성이 세상을 지배하고부터 여자는 남성의 종속물로 취급되었다. 아직도 이런 상태를 당연히 받아들이며 큰 의심없이 사는 여성들이 많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여자들은 관습에 묻어둔 자기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 동거가 늘고 이혼율이 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팽팽 언 관습의 호수가 부드럽게 녹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여자들이 집을 떠난다."

지금 IMF시대라서가 아니라 언젠가 꼭 거쳐야 할 일이었다. 경제위기가 하나의 물꼬트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자들의 변화하는 의식은 무서운

폭발력을 감추고 있었는지 모른다.

한 후배가 결혼해서 남자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자신은 밥하고 설거지할 때가 무척 화났다고 한다. 주변에서 보면 아내와 어머니이기 이전에 거의 식모 수준으로 사는 여자들이 많다. 물론 식모 수준일지언정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다면 할 말은 없다. 그리고 내가 식모 수준으로 사는 여자들이 있다 했을 때, 남자들은 자신이 머슴 수준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여자들이 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오래 전에 여자의 운명을 아주 깊이 공감있게 그린 책을 어제 다시 읽었다. 『관객모독』과 『원손잡이 여인』의 작가로 유명한 피터 한트게의 『소망없는 불행』이다. 한트게가 자살한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한 소설이다. 세번째 읽어도 전하게 가슴에 와닿는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이라든가 어떻게든 행복하다는 일은 드물었고, 대개는 별다른 소망도 없이 약간은 불행한 상태였던 어머니에 대한 아픈 추억을 그렸다.

아내를 자주 때리는 "말도 불일 수 없는 남편과 역시 말도 불일 수 없는 아이들이 고작이었고, 대상으로 말하면 거의 쓸모가 없는 허찮은 것들"인 그 불행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그녀는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깨달아갔다.

한트게의 어머니는 자신의 일생을 묘사할 양으로 책을 읽었으며,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 보였고, 또한 그것을 통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배워갔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책을 통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온갖 놓쳐버린 과거들을 아쉬워했다. 무엇이고 시작할 수가 없고 고독감만 가득했던 그녀가 떠날 곳은 죽음뿐이었을 것이다.

악물과공으로 배는 부풀었고, 남성적으로 변한 얼굴은 무척 쓸쓸했고,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머니의 시체를 묘사한 대목이 무척 마음 아팠다. 그의 자전적인 소설에서 보여준 여인은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녁 7시 반이었다.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 황혼의 제부도 앞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평일인데도 차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소망없는 불행』에서 휴가를 즐긴다든지 바다를 본다든지 하는 것은 어머니의 일생에서 처음이라는 구절이 생각났다.

휴가를 즐길만한 여유도 없이 산 이 땅의 많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저리고 안타깝다. 이제는 그런 어머니의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생존만을 위한 고달픈 삶의 시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휴가나 바다를 맘껏 즐길 만큼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조용한 밤이 되었다.

이제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물결처럼 지겨워서 떠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다. 



휴가를 즐길 만한
여유도 없이 산
이 땅의 많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저리고 안타깝다.
이제는
그런 어머니의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생존만을
위한 고달픈
삶의 시대가 되었다.



가출을 꿈꾸는 여자들의 몇가지 유형

이나미

현재 이나미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으로 있다. 정신과 의사로 하고 있으면서 몇 권의 책도 썼으니 나름대로는 성공한 듯 보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여성처럼 결혼 후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적은 없다. 사부오남 오시는 중갓집 할머니 역할에 지칠 때면 내 머리 속에는 온통 아프리카와 히말라야에 대한 환상만이 가득하다는 사실. 남편은 알고 있을까. 최근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를 펴냈다.

여자들이 왜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지 그 심리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신화와 민담이야기부터 해보겠다.

먼저 아폴론과 다프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리스 신화다.

다프네는 나무의 요정으로 남자보다는 사냥과 남시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아폴론이 보고 반하게 된다. 아폴론은 끊임없이 구애를 하였지만 다프네는 신인 아폴론과 관계를 맺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쳤다. 하지만 막다른 곳에 이르러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자 강의 신인 아버지 페네우스에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빈다. 다프네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살아 있는 월계수나무가 되고 만다.

신화와 민담 속의 여성원형들

두번째로는 바빌론의 신화다.

미남 청년 피라무스와 아름다운 처녀 티스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부모는 그 둘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도망치기로 하고 도시를 빠져나가 뽕나무 밑에서 만나기로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 무서운 암사자가 턱에서 피를 똑똑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티스페는 피라무스가 이미 죽은 줄 알고 겁에 질려 도망치다가 망토를 떨어뜨린다. 후에 나타난 피라무스는 망토를 보고는 티스페가 죽은 줄 착각하여 비수를 자신의 심장에 꽂는다. 심장에서 피가 솟구치며 뽕나무 열매들을 붉게 물들인다. 다시 나타난 티스페는 죽어가는 피라무스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신들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뽕나무 열매를 붉은색으로 남게 한다.

세번째, 인도의 신화다.

사비트리라는 공주는 결혼보다는 인간과 생사(生死)의 본질에 더 관심이 많았다. 왕은 사비트리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남편감 고르는 일을 맡고 말기인데, 그녀는 부유한 왕자가 아닌 성자들 가운데서 고르겠다고 말한다. 사비트

리는 사드후라는 고행자 차림을 하고 온 나라를 돌아다닌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지혜와 신앙심으로 온 나라 사람들을 감복시킨다. 사비트리는 마침내 궁전으로 돌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주면서 남편감으로 왕국을 잃은 눈먼 왕의 아들로 성스런 고행자 생활을 하는 사트야반트(진리탐구자)를 골랐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왕의 현자는 사트야반트가 결혼 후 1년만에 죽게 된다고 예언한다. 이에 개의치 않고 둘은 결혼을 하지만 일년 후, 예언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비트리는 남편을 따라 저승으로 쫓아가서 죽은 자들의 왕을 지혜로 감복시켜서 결국 남편의 생명을 되살리고 시아버지의 왕국도 되찾는다. 이들 부부는 고행자로서 소박한 삶을 꾸리며 숲속에서 살다 시아버지가 장수를 누리고 죽자 왕국을 맡아 평등하게 다스린다.

네번째로는 전남 고흥지방의 구전민담이다.

한 각시가 매일 돌피—가죽의 사료로 쓰이는 일년초—나 훔으며 끼니를 이어가지만, 남편은 멍석에 비에 떠내려가도 상관없이 책만 읽는다. 마침내 각시는 고생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가버린다. 그뒤 남편은 출세를 하는데 집을 나가서도 역시 돌피훔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여자가 재결합을 청하지만 남편은 깨진 그릇을 다시 붙여보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의 민담이다.

유정승이 딸 하나를 골래 키웠지만 청지기의 아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에 유정승은 딸을 배에 태워 멀리 내쫓아버리고 몰따라 흘러간 딸은 해남지방에 닿아 어느 가난한 집의 며느리가 된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에게 글공부를 시켜 장원급제하여 양주 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남편의 부임지로 같이 떠나던 딸은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시를 지어 자기가 양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딸 내외를 찾아온 아버지를 모시며 잘 산다.

자유로운 처녀의 영혼

우선 첫번째 유형은 자유로운 처녀의 영혼을 고집하면서 남자와의 관계맺기를 일체 거절하는 경우다. 독신주의를 주장하거나 혹 결혼을 했더라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얽매이기 싫어하는 유형이다. 이 때, 다프네가 좋아한 것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남자들의 일이었던 사냥과 남시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프네 같은 여성들은 결혼이라든가, 출산, 집안 살림같이 평범한 현실세계의 여성역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요즘 입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젊고 똑똑하며 자기주장이 강한 여성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것이다. 흔히 역마살이 끼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인데, 자기의 개성을 잘 승화시키면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누릴 수도 있다. 아마, 기자나 외교관, 여행가처럼 자유로운 개성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별로 문제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동양적인 가정주부 역할에 이들을 가두어두려고 하면 이들은 언제든 집을 뛰쳐나갈 꿈만 꿀 것이다. 한때 유행처럼 번지던 중산층 고학력주부들의 늦깎이 유학만 해도 적어도 길로는 어느정도 고상하게 가출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특별히 배운 바나 직업이



없고 자신들의 터져나오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지마 관평'이나 '주부 전화방매춘' 이 외는 특별한 출구를 찾지 못해 가정이 파탄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신화 속에서 다프네가 나무가 되어 땅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는 현실세계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다분히 상징적인 경고일 수도 있다.

사랑, 혹은 자유 추구형

두번째 유형은 사랑 혹은 자유를 얻기 위해 부모라고 표상되는 전통적인 관습으로부터 떠나고 싶어하는 경우다. 특히 딸을 언제까지나 품안에 두려고 하면서 부모 자신과의 정상적인 분리과정을 용납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지배하려는 부모 밑에 자라게 되면 이런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도망치는 수단으로 남자를 택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바네'로 상징되는 부모의 농간으로 성의 침탈에서 잠만 자는 불쌍한 공주인 여성들을 구해주는 남자들이 꼭 멋있고 가슴 따뜻한 왕자님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부모보다 훨씬 더 못한 억압자이자 독재자인 경우가 많다.

요령히 그 남자가 그렇게까지 악한 무뢰한이 아니더라도 준비없이 맞는 결혼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역경을 겪어야 한다. 피라무스와 티스베처럼 서로간의 오해나 주변의 고통들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수도 있다. 물론 이 때 죽음이란 꼭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 번째 유형은 누구누구의 억압이나 부자유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진리를 찾기 위한 떠남이다. 물론 아쉽게도 이런 구도의 장정은 흔히 주위에서 쉽게 만나지는 못한다. 사사로운 일에서 해방되어 우주와 역사를 논할 수 있는 남성들에 비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잘한 일상들을 끊임없이 해결해야 하는 여성들로서는 삶이니 죽음이니 영원이니 하는 추상적인 목표를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더더구나 집을 떠난다는 일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런 고민들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아니다. 교회나 사찰에 가면 대부분이 여성들인 점으로 보아 남성들에 비해 사후세계나 부활 혹은 해탈 같은 종교적인 면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에게 종교활동은 이렇게 추상적인 진리탐구이기보다는 식구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복신앙이거나 고통스런 현실에서 도망가기 위한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 중세시대 많은 여성들이 바깥세계에서의 억압과 고통을 피해 수녀원으로 도망쳤듯이,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많은 절망에 빠진 여성들이 종교를 일종의 해방구로 생각하기도 한다.

홀로서기 회피형

네번째 민담은 물론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여자가 집을 떠남은 그릇을 깨는 일과 마찬가지로 들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무능하지만 언젠가는 그 남편이 출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남편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그런 고루한 시각은 물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여성의 가출 역시 단순히 경제적인 곤란함과 남편의 무능



함만을 탓하는 반면, 자기 자신이 홀로 서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리 현명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단 집을 떠났으면 철저히 독립하여 보란듯이 성공할 것이지 남편이 잘 되었다고 해서 간사하게 다시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니! 충분히 고심하여 내린 신중한 결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피나는 노력이 없는 이상, 현실로부터 진정 떠날 수는 없다.

임상에서도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아이들이야 굶어죽건 말건, 비뚤어지건 말건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하며 대책없이 무조건 집을 뛰쳐나갔다가 막상, 바깥세상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자존심도 없이 남편에게 다시 합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막상 가정에 돌아오면 남편의 구박과 의심 때문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지니 자신의 가출과 귀가를 또 후회하게 된다.

기존 체계로부터 추방되는 여성들

다섯번째로는 자신이 꼭 떠남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어느 공간에서건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가치관과 생활방식 때문에 가족, 즉 규범을 지키는 사회체제로부터 추방당하는 경우다. 유정송의 딸은 양반집 규수이면서도 상민의 아들과 겁도 없이 혼외관계를 갖고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의해 집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새로이 만난 남편을 열심히 키워 마침내 출세시켜 친정아버지에게 보란듯이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낸다. 물론 이 때 남편을 통한 입신양명이란 한계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여성들의 공적 역할이 차단된 조선시대에 유일한 자기실현의 방법은 남편이나 자식을 통한 출세였다는 점에서 유정송의 딸은 그런대로 멋지게 복수한 셈이다. 현실에서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이혼이나 실연 후에도 공부를 계속하거나 사업등을 시작해 마침내 성공하여 전부한 사랑의 정취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이상 다섯 가지 유형 이외에도 여성들이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많다. 자유로운 영혼의 추구나 성취동기의 만족 같은 사치스런 소망이 아니라, 너무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여성들은 공상에서나마 끊임없이 가출과 방랑을 꿈꾼다. 하지만 떠남에 대한 이런 염원이 부질없는 잠념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된다면, 또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한다면 지금 현재 겪는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힘과 에너지를 주기도 할 것이다.

필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 역시, 언젠가는 자유로운 어디엔가로 정말 떠나고 싶다. 그런 미래에 대한 숨은 소망을 키우지 못했다면, 또 그때를 위해 현재를 참는 인내력이 없었다면 내 영혼은 아마 오래 전에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11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여자가 떠날 때 지고 가는 몇 가지 편견에 대하여

장경선(여성학 전공, 33세)

내 속의 편견

미국행을 결심하고도 몇 번의 망설임이 있었다.

서른 돌이던 적지 않은 나이에, 돌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도 한도 없는 짐들의 정리와 관계의 정리, 정리..., 이러한 정리과정의 번거로움에 지레 지쳐버린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타인과, 그것도 남자와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 구석에 개운치 않게 드리워져 있었다. 여성에게 불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결혼과 가족제도 속에서, 대체로 사적 영역에서 자아성숙도가 낮은 남자와의 동거는 그들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해 배려로 끝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치장

되어도 이러한 타인 위주의 삶이 여성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데에 대한 경험은, 비록 전형적인 주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치유되어야 할 깊은 상처처럼 그렇게 내 속에도 깊이 박혀 있었나 보다. 사실 나는 이 글을 쓰기 하루 전, 남편과의 이혼수속을 마쳤다. 그래서 한동안의 별거 끝에 그와 다시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했더라면, 굳이 헤어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미련은 전혀 없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참 이상해서 다시 시작해도 역시 상대방에 대해 게을러지고, 이기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나는 둘 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다. 둘 다 같은 일을 하니 서로 공유하는 게 말을 거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건 단순한 생각이었다. 둘 다 같은 일을 하니 오히려 여자인 나는 늘 양보해야 하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졌다. 남편을 빨리 위로 밀어올리기 위해 나는 돈을 벌어야 했고, 가사노동을 해야 했다. 그가 사회활동과 공부에 전념하는 동안 나는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돈 벌고 집안일 하는 데 쪼개 써야 했다. 그가 나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참아야 했다.

이런 불평등한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면 가족들은 나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부쳤다. 어릴 수 없는 상황에선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친정식구들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내 개인적인 성취 여부를 떠나 나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견딜 수 없었다. 이 이상한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은 밑거름이 되어 있다는 불합리를 나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것이 결혼이라면 왜 지속해야 하지?

나는 이렇게 남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그것도 남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꽤나 지쳐 있는 상태였다. 물론 유학을 가서 함께 살게 된 사람은 나의 남동생이었지만 그도 역시 남자 아닌가. 어학코스를 밟는 동안 남동생과 같이 지내면서 따뜻한 밥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나의 큰 몫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함께 유학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공부와 생활비 조달, 가사노동이라는 산중의 부담으로 결국 공부를 중도포기하거나 남편 뒷바라지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미 이런 경험을 치러낸 나로서는 남동생과의 생활이 유학선택의 기로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뜻밖에 남동생의 따뜻한 배려는 그러한 갈등을 끝나게 해주었다. 오랫동안 군대나 자위생활로 자신을 책임지다가도 그것이 싫어 결혼을 선택하고, 부인에게서 마치 과거를 보상받으려는듯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남자들의 일반적인 심리라지만, 동생은 내가 숙내를 비치기도 전에 먼저 그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 "혹시 나 밥해줄 거 걱정하는 건 아니겠지? 누나,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할 텐데 오히려 내가 밥해 줘야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누나가 남자한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한(恨)은, 땀만 바로 그 경험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남자로부터 배려를 받으면 나름대로 이후의 유학생활이 원만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다. 물론 개인과 개인의 공동생활에서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었지만, 남성 일반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으로 치달던 나의 사고에 한 박자 완화를 던져주는 기특한 내 동생.

여자들 사이의 우정은 별 볼일 없다?

이렇게 해서 나는 두 가지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 하나는 이혼이었고, 또 하나는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출근 생각했던 유학을 떠나는 일이었다.

실제로 이혼과 유학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모두 알 것이고, 유학을 떠나기 위한 경제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도 그랬다. 전세금으로 유학 경비를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나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더구나 출발을 얼마 앞무지 않은 6월말까지 포박 강사노릇을 하면서 기말시험과 성적표 정리 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다.



여권과 학교관련 서류, 비자, 짐 정리, 이사, 환송회... 매일매일 10여 건의 일을 처리하는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특히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커다란 감동과 연대랄까 든든함이 느껴졌다.

나의 유학결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남자와 여자가 달랐다. 남자들의 경우는 주로 나이가 많다는 데 대한 부담이나 경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주었다. 재미있게도 여자들은 선배나 친구, 후배고 할 것 없이 한결같이 "부럽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 많은 선배나 결혼한 여자들은 "우리는 아이나 남편에 매여 어떻게 할 수 없고 용기도 없는데 너는 너무 좋겠다. 그것도 혼자서. 부디 내 몫까지 잘하고 오라"는 당부들 잊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마우면서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여성들이 가족의 틀 안에서 개인으로서의 욕망과 의지를 좌절시켜 가는 자를 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그렇지만 지난 1년여 동안 때로는 따뜻한 저녁밥으로, 또 때로는 밤새워 끝없이 이어졌던 자기면면을 들어주고 격려해준,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는 나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준 미라언니와 혜련언니, 상화언니, 정애언니, 미라, 홍주, 리나, 기화, 고마까래의 식구들... 너무나 많은 나의 여성 동지들. 무조건 내편이 되어 자기존중감을 회복하게 해준 은경이, 그리고 늘 가까운 곳에서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어준 어진이, 혜경씨와 경화씨. 특히 엄마의 경우, 가장 큰 축복을 벌어주셨다. 아마도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실 터인데.

가장 힘들 때 많은 여성들의 위로를 통해 아마도 남자로부터, 가부장적 관습과 착취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미 많은 부분 치유된 것 같다. 누가 여성들 사이의 우정을 가볍다고 했는가. 누가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는가.

축복 속의 편견—새 출발하는 여자는 이전의 삶을 부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따뜻한 격려는 한편으로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꼭 성공해야 돼",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젠 행복해야지" 이러한 언급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특히 이혼의 경험은 여자에게는 풀이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라는 것이다.

모든 이혼이 그러하듯이 나의 경우도 분명 고통스럽고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생애에서 특정인과의 관계나 특정한 결혼생활에서 실패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미 지나간 관계와 경험 때문에 내 미래의 꿈과 가능성들이 규정되거나 억압당할 수는 없다.

노라가 대문을 박차고 나온 이래 여성의 집 밖으로의 이동이 '출가'보다는 '가출'의 의미로 여겨지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과 가정을 일치시키는 못된 관습 탓이라. 유감스럽게도 많은 드라마와 비극적인 영화가 이혼의 상처나 아픔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 여자를 그려왔지만 나는 그런 각본에 맞지 않았다.



물론 이혼과 유학에 대한 고민이 시기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기는 했지만, 나의 최우선적인 고민은 언제나 어떻게 살 것인가, 즉 나의 욕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욕망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맞추어져 있었다. 나는 이미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이혼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지도 깊지도 않았다. 그리고 유학이나 이혼 모두, 이렇게 나 개인의 욕망 추구의 연장선상에서 선택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어느덧 내 모습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여유있는 이혼녀의 상부적인 외국행이라는 통속적인 드라마를 닮아 있는 게 아닌가. 개인의 진로 선택에서조차 여성에선 남성과 다른 의미가 부여돼 젠더의 문제로 남는 게 못내 씁쓸하다.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면, 또 비록 방법은 다양하더라도 여성들이 가족과의 관계만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온전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여자의 선택에 집착되던 이러한 편견들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가슴이 저릴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할까?

정하진(주부, 32세)

여성들이 대거 출연하고 거기에 따는 상담 전문가인 듯한 정신과의사, 여성작가, 말 잘하는 개그맨, 그리고 변호사까지 빙 둘러앉아, 오늘의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침 프로그램을 오랜만에 보았다. 결혼초 마음의 갈라를 잡지 못하고 한숨이 나올 때마다 진정제 한 알 삼키듯이 열심히 보던 그 프로그램은 내가 결혼 6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거의 비슷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어디선가 일어날 것 같은 감정의 홍수들, 그리고 엇비슷한 처방전들. 나도 한때 그들이 내리는 처방전을 듣느라 TV 앞에서 꼼짝않던 때가 있었다.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만 한정지었던 시절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남편이 생각하는 나일 뿐이었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일 뿐이었다. 그다지 불행할 것이 없는데 아침이면 나와 같은 팔자를 타고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해야 했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해가면서.

생방송 프로그램에 얼굴을 가리고 나와 내내 제 소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끝지 않은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그 여행에 그녀도 함께 갔었다면, 가슴이 답답한 여자들끼리 어디 먼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녀의 저린 가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느끼고 탐험하기엔 너무 좁은 가정의 울타리

나는 보따리를 싣 경험에 많은 여자이다. 소문난 부부싸움 끝에 언제나 보따리를 싣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행동을 후회해 본 일은 없다. 누가 이유없이 떠남을 생각하며 보따리를 싸졌는가? 나는 내



가 당하는 부담함을 솔직히 이야기했을 뿐이다. 내가 세 번 보따리를 싸는 동안 남편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되어 갔다. 그러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웅덩이들. 지난해 6월 내가 네번째 보따리를 쌀 뻔한 일이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 남편을 뿔로 아나는 것이 남편의 폭행이었고, 나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가위를 들고 내 머리를 썩썩썩 잘라버렸다. 남편은 보따리를 쌀 때보다 훨씬 충격을 받은 듯했다. 세 번의 보따리로 표면적으로는 참 좋은 남편이 되어가나보다 하던 때였다.

“말로 하지” 하고 나를 달래던 남편에게 나는 말했다. “당신이 날 때릴 때 나는 참 세상이 무서워져. 죽고 싶어진다구. 당신 말처럼 세상의 많은 여자들처럼 참고 견디며 우울한 나날을 살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 우울해지기 싫고 정말 죽기도 싫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보따리를 쌀 마음도 없어. 세상의 하고많은 남자와 공존하며 어차피 부딪쳐야 할 고통이라면, 내가 느낀 고통의 증거를 당신에게 보여주며 살겠어. 이 머리가 자라는 동안 당신도 당신이 한 일을 느끼겠지. 그리고 나는 머리가 자라는 동안 고통을 잊어갈 수 있을꺼야”라고.

1cm도 안 되게 잡초처럼 잘려진 내 머리를 보면 나는 기분이 좋았다. 내겐 나의 목소리가 있는데 방어리가 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억울해서 물어야 할 순간에 울었울 뿐이고, 내 손에는 물 때에만 얻어먹을 수 있는 떡이 쥐어져 있었다. ‘교화(敎化)된 남편’이라는 떡.

머리를 자르고 나는 공지영의 소설 『착한여자』의 주인공 오정안을 만났다. 읽는 내내 누구에게나 모를 욕지기를 참으며 나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적어 〈한겨레신문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독후감 공모전에 보냈다. 도대체 자신조차도 사랑할 줄 모르는 착한 여자들에게 너무나 화가 났다. 책을 읽고 마음먹었다. 나는 무작정 착하게만 살지 말아야지, 내 말에게 남을 사랑하는 몇 배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라고 가르쳐야지 하고 말이다. 나는 독후감에 당선되어 20명의 당선자와 함께 하는 사이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나를 찾은 여행, 나는 참 괜찮은 여자였다.

공항에서 나는 사이판 여행에 초대된 스무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모두가 너무나 광범했다. 그러나 아무도 광범하지만은 않았다. 충충시하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서툰어엿 살의 언니도 떠날 때의 모습은 수학여행을 떠날 때의 여고생 표정이었다.

일행의 남편들도 역시 나의 남편처럼 자신의 보호 없이 떠나는 아내의 여행을 열려했다지만, 우리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자들이었다. 모두들 충분히 느끼고 싶어했고,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의 시간을 성실히 보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전히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을 망설이는 여자들이 있었다. 정글투어를 갈까 말까? 해양스포츠를 할까 말까? 그 언니—우리는 여행에서 언니라는 호칭을 썼다—에게 나는 말했다. “집에 가서 후회할 거면 가고 안 가고도 후회하지 않을 거면 가지 말고.” 나는 그 언니와 정글투어도 하고, 해양스포츠도 함께 했다. 행복해하던 그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여행

이 끝날 무렵 그녀가 내게 말했다. “정글투어가 기대만큼 재미있진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런 그녀의 여행후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땀이 났던 만남, 인상 깊었던 모습들, 티없이 맑아 보였던 일행들, 남태평양 푸른 바다 속에 빠져서 아득함과 함께 밀려들던 짜릿함, 바다의 품에서 죽어도 원이 없을 것 같았던 평화, 마나가하 섬에서 본 형형색색의 열대어들... 97년 여름은 찬연했고, 공유의 추억을 간직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음을 감사해요” 라고 말이다.

어디 그녀뿐이었을까. 그 언니는 두 달 전부터 가족신문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내게 다달이 가족신문을 보내주고 있다.

나도 난생 처음 제트스키라는 것을 타 보았다... 세상에 하늘과 땅 그리고 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은 흥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기계치라고 단정짓기 좋아하는 남편이 그 때 내 모습을 보았다면 말했을 것이다. “어 그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는 여자였구나. 너 그렇게 모든 걸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여자였구나” 하고 말이다.

내 발목을 붙들던 무거운 일상들을 깨끗이 씻어내주는 듯한 모든 풍경들, 그리고 그 풍경 속에는 더없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내가 있었다. 내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을 세상에서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금 물어보았다. 나도 그러고 보면 참 괜찮은 여자였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여자만이 자유로이 머물 수 있다.

여행, 나와 같은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여행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과의 부부싸움으로 보따리를 싸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며 “아이구 내 팔자야” 하지도 않는다. 하늘 아래 물도 없는 나만의 고유한 색깔을 나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손에 든 방패로 막아내려 애쓴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나는 페미니스트다. 나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할 것이다. 그래야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배웠다.

여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울타리 속에서 보는 자신은 희석된 자신의 일부일 뿐이다. 잠시 문을 열고 나와 울타리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라. 당신은 여전히 괜찮은 여자라는 걸 알 것이다.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어야만 진정 자유로이 머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부디 자신을 찾기 위해 어디로든 떠날 수 있길...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을.

그대가 손을 내민다면 나도 그대와 동행하고 싶다.

기록노트, 나의 가출쟁투기

곽지혜(회사원, 27세)

27살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글을 보면 이를 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법원의 통보를 받았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슬펐다. 그리고 지금은 분노한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빚잔치를 하는 집주인과 그것이 가능한 사회구조. 그러므로 내가 싸워야 할 이유는 다시 한 번 명백해진다. 인간적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탈출, 탈출, 탈출만이 유일한 해방구.

내가 마음먹고 집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부모님의 잦은 싸움이 지겨워서 이번에는 이 집을 꼭 나가리라.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막상 집을 등지고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두어 시간 동안 하탈없이 여기저기 가뚫거리다가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보니, 부모님은 서운하게도 내가 잠시 집을 나갔다는 것을 몰랐다.

내가 다시 집을 나가리라 베푼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였다. 취직이라는 그럴싸한 명분도 있었으니, 필사적으로 서울에서 취직을 해 당당하게 부산바다를 떠나려고 작정했다. 그래서 근무지가 서울인 회사만 골라서 넣은 입사원서가 50여 군데 정도였는데, 지방대 출신의 여자여서인지 서류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생각보다 일자리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졸업을 앞두고 합격통보를 받았다. 취직이 된 기쁨보다 집을 떠날 수 있게 돼서 더 기뻐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기쁨도 잠시, 회사 사정으로 두달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 그때의 참담하고 서글픈 심정이란...

졸업은 했으니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입사시즌이 끝난 터라 직장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다. 그러나 직장도 구하고 가출도 성공시킬 수 있는 서울에서의 취직은 엄두도 못낼 판이었다.

그러던 차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부산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었다. 6개월 정도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집에겐 엄청나게 시달렸다. 여전히 싸우는 부모님, 설거지를 할 때마다, 청소를 할 때마다, 빨래를 할 때마다, 결혼해서 잘 하려면 잘 배워야 한다. 시어머니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면 깔끔하게 잘 해야 한다. 집안일을 시키실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시집갈 돈은 미리미리 저축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려면 애인을 만들어야 되니 모양 좀 내고 다녀라. 등등 듣기 싫은 말들을 6개월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만 했다. 학생일 때만 해도 거의 듣지 못했던 말들이 직장인이 되자 나를 향해 한꺼번에 쏟아졌다. 늦기 전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엄마의 압박관념은 매순간 매초마다 쉬지않고 잔소리로 나를 고문했고 그때마다 벗어나야 한다, 이 자긋자긋한 집을 벗어나야 한다고 속으로 외쳤다.

그래서 서울에 입사원서를 또 넣기 시작했고, 통신회사의 구인란에 글도 올렸다. 부산에서의 6개월간의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가출'을 할 기회가 생겼다. 너무나 갈망하던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물론 부모님은 서울직장이 월급을 많이 준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에 속아 입사리 허락하셨다. 덕분에 무난하게 가출하게 되었다.

으랏차차,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다.

24세, 먼저 서울에 직장을 얻은 친구와 합류해서 경기

도 안양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 28평 아파트

의 방 한 칸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다. 부엌과 화장실

은 주인과 같이 사용하고 간단한 요리는 방에서 휴

대용 가스렌지로 만들어 먹었다. 한동안은 간섭으

로부터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해방감도 잠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한 마디로 괴로움이었다. 집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집을 떠난 나의 자

취생활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끼니해결에서 집안청소, 빨래, 설거지 등 모든 것이 나의 몫이 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기대어 살았는지 새삼 알게 되었다. 내가 집을 치우지 않으면 지저분한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 스스로 옷을 빨지 않으면 더러운 옷을 입어야 했고,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직접 해야만 했다. 그 동안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기대어 살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자취생활이 나름대로 자리가 잡힐 무렵,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 시동생이 취직이 되어 자기네 집에 오게 되었다고, 무려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한겨울에 방을 빼라는 것이다. 그지 막막했다. 추운 겨울에 어떻게 방을 구하랴고. 친구와 난 벼룩시장을 다 뒤져보고 복덕방을 돌아다니며 집을 구하려 돌아다녔다. 집을 보러 가는 날은 꼭 날씨가 무지 춥고 바람도 엄청 불었다. 겨울이라 집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우리가 구하려는 가격도 저렴해서 괜찮은 집을 구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한겨울에 회사가 끝난 후 저녁시간을 쪼개서 집을 구하려 다니다가, 2개월만에 전세 1,300만원의 방·부엌·화장실이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친구와 내가 반씩 부담을 하기로 했고 난 지금까지 모은 돈을 그 집을 얻는 데 모두 투자했다.

25세, 원룸으로 이사를 하던 날, 나의 공간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다. 친구는 주인 눈치 보지 않고 화장실을 가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요한 가전제품을 중고품으로 구입하고, 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TV도 들여놓지 않고 라디오를 벗삼아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한때, 방 한 칸일 때의 생활보다 유지비가 은근히 더 들어갔다. 고장난 보일러 수리부터 형광등 갈아끼우기, 전기세, 수도세, 유선방송비, 전화비, 포박포박 배달 지로용지, 비오는 날 물빼내기, 전기누전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손이 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지냈던 날이 새삼 부끄러웠다.





그러다가 같이 살던 친구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뒤, 12월에 나를 남겨두고 사귀던 남자와 결혼을 했다. 물론 전세금의 반을 내가 친구에게 내주어야 했다. 친구가 결혼하던 그날, 비로소 원룸은 나만의 공간이 된 것이다. 순수하게 나의 힘으로 온전한 나의 방을 가지게 된 날이었다.

자신을 스스로 챙길 줄 아는 자만이...

26세, 화려한 싱글로 데뷔했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한 나의 방에서의 생활은 삭막했다. 혼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결혼한 친구가 심심할 거라고 선물로 중고 텔레비전을 사주고 갔다. 친구와의 수다를 위해 거금을 들여 전화기도 설치했다. 혼자의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혼자 밥먹고, 혼자 영화보고, 혼자 걸어가고, 혼자 쇼핑하고 차츰 혼자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편해졌다.

혼자만의 생활 철칙을 잠깐 소개한다면, 우선, 나 자신을 스스로 챙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을 제대로 챙겨먹어야 한다. 어쩌다가 가끔 제대로 챙겨서 먹을 때는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외구심이 생길 만큼, 혼자서 끼니때우는 일이 번거롭기도 하다.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미래의 남편이 식사 챙겨달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그날은 전쟁 후의 식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제 외적인 독립주택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내가 자취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와이셔츠를 다리고 싶다고? 그러기 전에 먼저 혼자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때로 생활은 생각보다 그리 녹록하지 않으리니.

강원도에서 울었던 사흘 밤낮

김정이가(명, 주부, 35세)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왜 싸웠는지, 결혼 3년이 넘어가던 중이라 많이도 싸웠고 많이도 화해했을 것이다. 그 날의 싸움도 아이기르기에 지쳐 시작한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토탈토닥 싸우다 그칠 말싸움이었을 것이다. 한 마디 칼날 같은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말을 듣기 전의 상황은 기억 못 하고, 그 한 마디 말만이 가슴에 살얼음을 얹게 만들었다. 나는 조금 전까지 싸운 남편이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텔레비전에 눈을 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짜증나서 말했다. 좀 나갔다 오라고. 다른 집 남편은 싸우면 나가서 술도 먹고, 시간도 벌면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혼자 있는가운데 어쩌면 답답하게 같이 있느냐고, 집은 원룸이어서 어디 한군 데 머리 싸매고

누울 수조차 없었기에 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때, 문이라도 뚫고 들어갈 공간이 있었으면 그런 말은 필요없었을 것이다. 내가 들어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남편이 말했다. 아주 싸늘하게. 상처를 주겠다는 명백한 폭력의 기미를 띠고, '네가 나가라. 여긴 내 집이다. 내가 벌여 내가 장만한 집에 내가 있겠다는데 네가 뭘데 나가라 뭐라 하느냐'고.

그 말을 들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에 없다. 다만 머리 한 쪽이 뚱하고 크게 울렸던 느낌, 뭐라 대꾸할 변명도 강박도 부릴 수 없을 만큼, 시리고 아픈 상처가 가슴을 파고들었던 기억 외엔.

너는 나의 신탁이라더니, 이젠 아예 내 등을 떠미는구나

저녁이 됐다. 맞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이 집에 살기 위해 그와 결혼한 것 외에 아무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깨달음이 서서히 왔다. 몇 가지 허접쓰레기 같은 가재도구와, 배 아파하며 남아놓은 자식 하나밖에는 여기가 내 집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한 가지도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

가방을 썼다. 집 주인이 나가라는데 나가는 수밖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가혹하게 내뿜은 남편 옆에 어찌 단 하루라도 머무를 수가 있으랴. 로션병 몇 개, 갈아임을 티셔츠 몇 개, 어줍잖게 책 몇 권을 싸고 비상금으로 두었던 돈을 챙겨 들고 집을 나왔다. 나오기 전에 갖 돌이 넘은 딸의 얼굴을 한 번 보았던가, 말았던가.

공교롭게도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거라엔 휘황한 불빛들이 빛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힘줄리고 있었다. 무작정 터미널로 갔다. 여행을 많이 해서인지 그 곳은 익숙하게 나를 맞았다. 감동행 티켓을 끊고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마음이었다. 갈팡질팡하다가 어디인들 집보다 편하지 않으리 하는 오기가 생겼다. 발차는 오래오래 어둠 속을 달려갔다. 제목도 알 수 없는 비디오테이프가 웅웅거리며 버스 앞에서 돌아가는데, 창가에 비친 허름한 내 얼굴이 비쳐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결혼을 했었나, 너는 나의 신탁이라더니, 이젠 아예 내 등을 떠미는구나. 생각하지 않으려해도 떠오르는 그와의 좋았던 한 시절이 끝도 없이 떠올라 불꺼진 버스 안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다.

강릉 경포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는 그 때 그곳을 택했을까. 스무 살 청춘도 아닌 터에 여행을 떠난 것도 아니면서 그곳을 가슴의 첫 도착지로 삼은 그 무모함이 우스워 혼자 실소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보내기 위한 젊은 연인들로 방들은 그득그득 차버렸고, 한참 동안 발품을 팔고 나서야 웃돈을 얻어주고 파도소리가 들리는 방을 하나 얻어 들어갈 수 있었다.

달달 하나뿐인 가방을 내려놓고 할일도 없고 서글프기도 해서 슈퍼로 가서 맥주를 샀다. 누군가와 같이 있는 척하려고 대여섯 병을 챙겨 들고 스내 한 봉지를 사가지고 들어온 여관방의 을씨년스런 풍경. 앞에서인 듯 들려오는 파도소리, 맥주를 혼자 다 마셔버리고 짙짙한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새벽녘에야 눈을 붙인 그날 밤, 혼자서 되뇌인 한 마디 말은, 절대 그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그것이

었다.

다음날, 쓰린 속을 해장국으로 달래고 잠이 한때 돌아다녔던 바닷가로 다시 떠났다. 생각해 보면 그 때도 치기가 남아 있었던 듯, 제법 비관적인 표정을 하고 사연있는 여자처럼 황량하게 비어버린 성탄절 바닷가를 거닐었다. 해안가에서 보초서는 병사와 담배도 한 대 나눠 피우면서 육계, 망상, 그 어룡의 바닷가를 하루종일 걸었다.

그리곤 생각했다. 안 돌아가면 무얼 해 먹고살아가야 하나, 버스 타고 오는 길에 보았던 스키장으로 가야 하나, 아르바이트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뭘 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친정으로 갈 수는 없는데... 머리 속이 난마처럼 얽혀들었다. 시내버스를 탔다. 지리에 앉은 내 앞으로 아기를 업은 한 아줌마가 짐 보따리를 들고 올라왔다. 업힌 아이는 깊이 잠들어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한 갈래로 머리를 짊은 푸른 아이엄마에게 지리를 내어주고 하염없이 그 모자를 바라보았다. 내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아직은 엄마 없는 걸 모르겠지. 무지막지한 말을 쏟아놓고, 마누라는 집을 나가버렸는데, 남편은 무얼 하고 있을까.

나 돌아가서 따져야지, 왜 그집이 자기만의 집이라고 했는지

그는 꼴았을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묻기 싫어하는 말이 '나가라'라는 것을. 늘 편히 할 공간 하나만을 욕이 매게 그리워했음을. 내가 늘 남의 땅에서 물던 날, 가장 가지고 싶어했던 것이 하나의 방이었음을... 나쁜 사람, 차라리 폭력을 휘둘렀으면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가장 치명적인 한 마디 말로 발발하고 살던 땅에서 그토록 쉽게 나를 내뱉어버리다니. 3년 동안 난 정말 함께 살던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주장할 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걸까. 아니다. 난 열심히 일했다. 단지 그 일들이 내게 돈을 가져다주지 않았을 뿐. 내가 집에서 한 만큼만 남의 집에서 일했어도 남편이 버는 돈만큼은 벌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억울하지. 난 왜 그가 내 집이니 나가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달아버리고 말았을까. 이 바보 같은 여자...

또 쓰잘데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나 돌아가서 따져야지. 그 동안 일한 것, 파출부 월급으로라도 환산해서 받아내고 다시 나와야지. 지금 이 마음 다 말해 주고 다시 나와야지. 흔들리는 시내 버스에서 이를 악물었지만 그 날도 난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엄청난 배반감과 바보 같은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몸을 휘감아서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다. 육계, 그 푸른 바닷가의 허름한 민박집에서 저녁을 시켜먹고 다시 누웠을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온 밤을 뒤척였지만 술도 먹지 않았다. 어쨌든 이런 밤들이 내게 많은 날들을 다르게 살 수 있게 하리라 예감만이 어렴풋이 왔다.

다시 다음날, 나는 대학생 때 해봤던 뮤직박스 디제이 일도 파울리며 음악다방에도 가고 무슨 영화인가 한 편 보기도 했다. 혼자 라면을 먹기도 하면서 저녁을 맞았다. 미혼일 때, 그토록 좋아하던 해질녘의 푸름 속을 걸으면서 그냥, 돌아가자고 마음먹었다. 돌아가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 내 집이 아니라고 싸늘하게 내뱉었던 그에게 물어보자. 왜, 함께 일해 일구어놓은 그 집이 자기만의 집이라고 말했는지. 그 속의 또아리친 생각들을 듣자. 분명 내 몫도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시 나올 때는 이렇게 배낭하나 메고 도망치듯, 나오지는 말자...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조용해진 터미널에서 서울행 티켓을 끊으면서는 나을 때처럼 서럽진 않았다. 눈물 대신에 눈이 엄청나게 쏟아졌다. 버스는 기며 기며 더디게 서울을 향해 움직였다. 근 몇 시간을 지겹게 움직이던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두 시쯤. 나는 집을 나온 지 3일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전화를 했다. 기다렸던가. 뱀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잠기운이라곤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남편이 전화를 받았다.

"거기 어디냐? 내가 나갈까, 어서 들어와" 하고 그가 말했다.

집에 다시 들어온 새벽, 수영이 송송 난 얼굴로 나를 맞은 그가 식탁 위에 송송 한 그릇을 놓아 주었다. 밥이 반인, 죽 같은 파스한 송송이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감기에 걸렸는지, 콧물과 눈물이 말라붙은 채 잠든 아이를 바라보고 송송을 먹으면서 난 내가 어딜 다녀왔는지는 말하지 않고 다만 낮은 목소리로 그 동안의 나의 마음자리가 어땠는지는 말해 주었다.

절대, 다시는 그런 말을 말라는 것, 내 이름으로 된 저급통장은 없더라도 나는 이 집의 수입을 위해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집에서 나를 나가라는 말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는 것 등...

남편은 그때 알지 않았을까

그 날로부터 많은 날들이 흘렀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는 실질적인 수입은 없었지만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재산이 모이고 여기저기서 도움을 얻어 몇 년 후 우리는 네 식구가 살 만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때 나는 결국 한 가지 재안을 하고야 말았다. 집을 공동명의로 하지 않겠느냐고, 처음 사는 우리 집에 나의 이름을 명확하게 넣어주지 않겠느냐고, 단호하게 나의 집이라고 마음은 먹었었지만 웬지 주장하기는 뽀뽀치 않았었는데, 남편은 별말없이 공동의 이름으로 집을 샀다. 이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똑같은 금액이 각자의 이름 밑에 쓰여 있었다.

우습지만, 사는 게 별 것도 아닌데, 그까짓 하나밖에 없는 집에 공동명의를 하지는 것이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우습지만,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다.

이제 그는 내게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나가라 해도 내가 나가기 싫은 이상, 나는 나가자 않을 것이고, 만약 내가 스스로 이 집을 나가고 싶을 때는 단단히 이 집의 반 몫을 떼어 나갈 것임은 분

명하다. 그런데도 가끔은 또 그게 우습다. 난 왜 이렇게 당당한지. 아마도 그 몇년 전, 혼자 집을 나가 울며 잠들었던 그 밤들이, 나를 딱없이 당당하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남편은 그때 알지 않았을까. 나가라는 한 마디에 그냥 나가버린 만우라가 돌아오는 날, 아주 무서운 게 없는 여자로 변해서 왔다는 걸.

별난 여자의 자아찾기

임정희(티티킴 대표, 42세)

남편의 직장이 있는 부산에 남편을 남겨놓은 채 서울로 옮겨와 주말부부로 생활한 지 벌써 만 4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주말부부로 내몰린 것이 아니고 우리부부, 아니 더 솔직히 인정하건대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말부부 생활이라는 모험을 100% 선택한 케이스이다. 실제로 내가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고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으나 서울행을 결행했다. 내가 욕심을 버렸다면 분명 부산에서 그러저럭 여유있게 생활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사회생활도 가질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모험의 시작, 주말부부

대부분의 주말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감행되거나 확실한 경제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좇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우리 경우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익을 좇아서도 아니었고, 더더구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부담없이 아이를 교육문제로 두 집생활을 선택하는 정신적인 사치를 즐길 만한 상황도 결코 아니었다. 대학강사 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던 내가, 막연하지만 좀더 내 개성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내린 결단이기엔 분명 모험이었다. 물론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딸아이의 서울유학 요청이 집안 어른들의 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긴 했어도 진정한 동기를 포장하는 표면적인 동기였을 뿐이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나와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씨름에서 만난 친구로 고3 예비고사 직후부터 연애감정이 싹터(사실은 남편을 처음 본 순간 반했었다). 만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지어는 학교 가기 전에 만나고 오후에 다시 만나는 열정을 과시하다가 결혼했다. 남편은 정신적으로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기에 나의 말발 기질과 모성본능으로 남편을 감싸는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결혼 후 나와 남편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큰 딸아이 낳고 석사 마친 후 딸아이가 2살 3개월이 되었

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남편의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로 1,000불이 나왔지만 워낙 물가가 비싼 곳이라서 부족분의 일부를 시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일부는 내가 베이비시팅(탁아모노트)을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5년 했다. 시부모님께 조금 더 도움을 청하고 베이비시팅을 그만두라는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충당도 있지만 내 학자금과 내가 공부하는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면서 들게 될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남편 학위 끝날 즈음 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아닌 어쩔 수 없는 묵인하에 공부를 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석사가 끝날 즈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기로에 서게 되고, 갈등 속에 1년을 보내면서 우선은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 그때가 우리 가족이 이미 두집살림을 심각하게 고려한 첫번째 경험이었다.

“어디, 두고 보자”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박사학위를 마저 하려 할 기회를 두 번 만들었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발이 떨어지지 않아 포기하여 두집살림 위기(?)를 넘겼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한국생활과 학교에 적응이 덜된 아이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나는 가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시달리는 여자’라는 오해를 살 정도로 가정과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아이를 낳았으면 기본적으로 아내와 엄마로서 최소한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은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위를 마치는 것은 당분간 보류한 상태에서 전문대학의 전임이 될 기회가 있었으나 남편의 교묘한 방해에—남편은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 일반적인 한국남성들에 비해 꽤 진보적인 의식을 가졌으며 기본적으로 나의 사회활동에도 반대는 하지 않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든 일이든 하려 들면 이상하게도 방해를 한다—나도 ‘이번에는 양보하지만 두고 보자, 두고두고 원망할 거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상한 오기가 발동하여 부산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기회를 노려왔다. 그후 가능하면 부산에서 안정된 일을 찾아 가족이 함께 살도록 노력했으나 기회 자체가 없었다. 그뒤 서울에 거의 취업할 만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으나 무산되었다.

그후 1년 뒤 딸아이를 발미(?)로 채워지지 않는 자기성취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험을 감행하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이 한 지붕 밑에 살지 않으면서도 기능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리라고는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결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것으로 인한 욕구불만은 극복하기 힘든 것이어서 나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그런 나를 보면서 남편 또한 힘들어했다. 유난히도 나에게 의존적인 남편이 고압계도 대단한 결단을 내려 "올라가라"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서울에서 지립할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막상 서울로 가려고 결정을 내리자 부산에서도 꽤 괜찮은 제안들이 나왔으나 5년의 갈등을 거쳐 마음의 결정을 내린 뒤라, 때를 놓칠세라 못 이기는 척 일론 서울에 또 하나의 통지를 붙였다. 하면 된다는 무모한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무기로...

무리한 모험이었기에 아직도 힘들 때가 많다. 두집살림을 하다보니 경비가 많이 들고 주중에 혼자 아이들을 전사하는 일도 쉽지는 않고,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주말에 오는 남편이 손님대접 받으러 하는 일도 굉장한 스트레스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점은, 표면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이 생활을 선택하긴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묵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 원치 않는 희생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가정이 남편중심으로 구성되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아내에 의해 그 질서가 흐트러지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그로 인해 표출되는 열로당토않은 심술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기에 가끔 문제가 되곤 했다.

이런 문제는 주말부부 상황이 아내가 아닌 남편이나 아이들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순전히 경제적 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남편 입장에서 '별난 여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감추고 자기 성취욕구를 누르며 양보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나 자신보다는 아이들과 남편 위주로 생활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을 찾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으며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찾는 과정도 주말부부라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도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나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주말부부라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남편이 겪고 있는 약간의 불이익과 희생적인 측면, 불편함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결코 후회는 없다. 모든 부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는 각자의 협상과 타협, 양보와 희생이 따르게 마련 아닌가?

어느 부부라도 갈등은 있다

나는 나름대로 지금부터 6년 이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 현재의 일과 생활에 만족해 하고 있다. 평소에는 남편에게 아끼는 말이지만 지면을 빌려 나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노력하고 있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남편은 직업의 특성상 은퇴할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목표가 달성되면 내가 가능한 한 고생한 남편을 위해 남편이 덜 불편하도록 내 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주말부부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되면서 남편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지금의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없이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일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도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안정된 상태가 아니고 주말부부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진 않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상쇄시킬 정도로 가치가 있으며 나와 남편이 발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에는 발전만이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떠나본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다

이선희(동화작가, 37세)

『달하는 암막』 쓰는 창작동화를 '이프'지에 연재하다 IMF시대를 맞아 직장(문화일보)을 떠나게 돼 연재를 중단하고 아이들과 함께 변산공동체에 내려왔다. 그러다 2개월만에 타워의 자연으로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생활을 쓰게 되니 감회가 무량하다. 비록 실패했지만 집을 떠나 있는 동안은 행복한 기간이었고 앞으로의 생애도 자신감을 얻은 게 큰 소득이다.

절실함의 정도도 실천할 용기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을 떠나면 날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모든 이, 특히 결혼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었을 법한 일이다. 나도 한때 절실하게 그 생각에 매달렸던 때가 있다.

석달 전, 가족들, 전 직장동료, 선배, 친구 등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내가 변산행을 택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IMF를 등에 업고 마찰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를, 내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박차고 나온 내게 집은 회사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블랙홀이었다. 까다롭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집안일에 대한 지극지극한 전소리, 안식구에 대해서는 거의 출대에 가까운 남편의 무관심, 모든 일에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직 어린아이들...

적절한 시기를 타서 마음먹었던 대로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도대체 집안구석에 처박혀서는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생각 같아서는 이 모두를 다 벗어버리고 훨훨 날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애업마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나는 가장 무리없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좀 무겁기는 하지만 정신적인 면에서 나를 가장 덜 괴롭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 날아보기로 한 것이다. 정래동화 나무꾼과 선녀를 보면 세 아이를 안고도 선녀는 잘만 날아오르지 않았던가.

운구병씨(전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정작해 일론 변산공동체 학교를 알게 된 것은 그런 점에서 내게 행운이었다. 거기서라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아이도 제대로 키우고 글을 쓰고 싶다는 내 목표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서울 토박이로 지라 글을 쓸 때 자연묘사에 한계를 느끼곤 하던 내게 농사를 짓고 살아보는 삶 또한 의미있는 경험이 되리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낯선 이들이 나와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일궈 한 식구처럼 살아가는 생활은 또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곳을 직접 방문해 보고 나서 내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곳은 너무나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곳에서의 삶에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또 최근 중등과정을 개교해 학생 5명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덩으로 내가 할 일까지 찾게 될 전망이다.

윤교수는 그곳을 오갈 데 없이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삶터로 가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식구가 되

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11명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정도쯤이야 내가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갈 데 없는 처지야 물론 아니지만 절박성 면에서는 나도 다른 사람들 못지 않게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사회생활 13년을 해오는 동안 무리없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다.

드디어 간단한 이삿짐을 꾸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변산공동체가 관리하고 있는 부안 김씨 재실(시제동의 행사를 거행하는 곳)문간방에 새 보금자리를 꾸렸다. 집을 떠나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주는 엄청난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하지만 공동체 생활은 일정한 물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일원이 되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규약이 있으며, 그것을 지킬 때만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나는 간파하고 있었다.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농사일을 한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줄도 모르고 있었다. 사전지식과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내 생활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예를 들면, 공동목욕탕의 문을 두드리고 열었다가 남자누드(그곳에서는 풀이 켜져 있으면 누가 있구나 생각하고 절대 목욕탕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와 맞부딪힌다든가, 살업급여를 타기 위해 서울에 가야 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 불편을 생각 못하고 시어머니를 오시게 해 나 대신 아이를 돌보게 한다든가, 서울 갔다 올 때 그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불량식품(인스턴트 식품이나 과자류)을 잔뜩 사와 어렸은 처 처해야 하니까 먹게 만든다든가, 그곳 사람들이 한 달치 식량으로 여기는 식용유 한 통을 아이 감자 튀김을 해 먹이느라 한꺼번에 반 남짓 비워버린다든가... 서울에서 하던 생활방식을 바꾸지 못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길아다녀도 될 만한 거리를 택시를 타고 다녀 싶은 소리를 듣기도 했다. 모두가 참석하는 울력이나 회의에서도 아이를 재워야 한다는 이유로 담당하게 빠져나와 눈총을 받기도 했다.

농번기라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곳 식구들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나는 그곳 사람들과는 달리 아이 돌을 돌보느라 그 생활에 나를 맞출 수가 없었다. 아이 돌 맡긴 엄마가 무슨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도대체가 환상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려면 아이를 방치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다. 물론 힘들어도 시어머니의 잔소리에서 벗어나면 정신적인 여백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글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오산이었다. 정신적인 여백이라니! 농촌생활, 특히 처음하는 농사일에 그것만 사치였다. 글을 쓸 시간이나 생각할 시간, 심지어 잠시 쉬 시간도 주여지지 않았다. 아이가 잘 때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발을 깨고 끊임없이 다른 할 일이 생겨났다. 내 편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남들에 비해 제대로 한 사람 몫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고, 내가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비애스러웠다. 최소한 집에 있을 때는 아이 돌 때문에 어머니나 다른 식구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집을 떠나 자유로워지기 위해 찾아온 곳에서도 역시 파랑새는 없구나, 가쪽은 생각보다 소중한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이 어렵잖이 든 것은 그나마 큰 소득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포루도 거침하게 집을 떠났지만 겨우 두 달 남짓만에 나는 공동체 생활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 체중은 전보다 5kg나 줄어 있었고 풀을 매고 조그려앉아 해야 하는 일이 많은 시골생활 때 문인지 전에 없던 관절염 증세가 생겨 현재 악을 먹고 있다.

물론 집으로 돌아온 지금도 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하고 남편의 태도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전보다 많은 자유와 행복을 느낀다. 집을 떠나 경험했던 공동체생활 두달만에 내 스스로가 변화한 것이다.

가끔, 미련처럼 아이 물까지 때어 버리고 변산공동체를 찾아들었다면 좀더 잘 적응하고 내가 원하던 글과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빨리 집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두 아이가 눈에 밟히고 보고 싶어서.

그 애들은 내게 집보다 더 큰 보물이기 때문에... **II**

일러스트 난나



라인헤어컬렉션

Line Hair Collection

아늑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주소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3-20 화랑빌딩 5F
 예약 및 문의 : TEL (02)544-1991 FAX (02)545-9366
 영업시간 : AM 9시30분~PM 8시 (일요일 정상 영업)



나는 이럴 때 떠나고 싶다

햇살 쏟아지는 창밖의 세상으로

신예운(학생, 22세)

내가 집을 떠나던 2년 전 여름 내내 내 머릿속에는 조금은 냉소적이고 지나친 듯싶기도 한, 도표 하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기혼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른 행동양식 변화'에 대한 도표였다. 머릿속에서 세상의 기혼여성들을 한 줄로 세우고 각각의 칸에 배치시켜서 구분지어 분류하곤 했다.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지간히 힘겨웠던지라, 분류결과는 황당함에 가까웠다. 그때 당시에는 세상여자들이 막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믿었다.

집을 떠나고 싶은 여자, 집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여자, 그리고 집을 떠난 여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나는 분명히 집을 떠난 여자에 속한다.

이제는 그간의 아픔도 조금은 누그러들었고 시간이라는 이름의 치료약도 꾸준히 복용한 뒤라서 예전 같은 극단적인 분류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 기준이 전혀 근거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여자들은 대다수의 경우, 가끔 혹은 자주, 혹은 시도 때도 없이 집을 떠나고 싶어한다. 내 얘기를 잠깐 하자면 난 늘 떠나기를 원하던, 그래서 늘 마음 속으로 준비를 하던 여자였다.

한때 나의 남편이었던 사람은 늘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집안에서 나를, 내 집을 밝혀줘!"

그는 늘 내게 환한 웃음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었다. 자기 자신은 캄캄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서 나에게만 밝아지라고, 더 환하게 비추라고 끊임없이 되풀이하곤 했다. 난 그럴 때마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했다. '이곳에서 내 몸

을 녹여가며 그의 어두운 집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햇살 쏟아지는 창 밖의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물론 난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소나기와 눈보라에 놀라 어깨를 움크리고서 어두웠던 그의 집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늘은 흐린 날보다 갠 날이 훨씬 더 많다.

햇살 속을 걷는 기쁨에 취해 있던 어느날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친구는 커다란 두 눈을 깜빡이면서 내게 물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그 선택?"

난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생각이 영원하리라 믿는다. 어들던 그의 집에서 한없이 커보이던 대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디디던 그때의 내 모습은 지금도 내 가슴 한 구석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 내 자화상은 약간은 겁먹은 듯한 표정을 하고서 내게 말한다. "이제는 너의 집을 밝혀야 해!" 잊혀질 만하면 다시 생생하게 차오르는 그 가슴 철렁한 목소리가 있기에, 난 오늘도 내 방 한가득 웃음을 밝히고 있다.

익명의 섬에서 만난 또 다른 나

김영지(가명, 33세)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날 수도 없기에 좋은 사람. 그래서 편안하고 더욱 용기가 생기는 걸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 속에 파묻힌 용어리들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고, 터질듯한 분노를 식일 수 있는 통출구가 되어준다면 전 그걸로 족하니까요, 좋은 통신친구가 되어달라고요? 그러죠, 그럼 다음 세

팅 때 만나요."

지난 여름, 컴퓨터통신을 하면서 처음으로 대화방이라는 곳에 들어가봤고, 내게 접속했던 한 남자의 메일을 전해받은 후, 난 겁도 없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던 것이다.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이 강했던 나로선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나들이 지경으로 몰고간 남편의 배신이 더 화가 났던 탓일까?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친구들로부터 "애, 맑은물엔 고기가 모이지 않는 법이다. 너 그렇게 고상하게 살다가 남편이 바람나면 어쩔래?" 하는 편견을 듣기 일쑤였던 난, 뒷배란다는 있는 복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어느 여자로부터 온 남편의 편지를 그냥 예상대로 넘겨질 뻔했던 것이다. 쇼핑백에 담아둔 여러 장의 현란한 편지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펼치는 순간, "당신을 사랑해도 되나요?"라는 글귀에 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일들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너무나 기가 막혔고 분노가 치밀었다. 오로지 관심사가 아이와 남편을 위한 것으로만 일관하며 살아온 나로선 용서하기 힘든 일이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온 방을 서성거리다가 이런저런 생각 끝에 문득, 누군가와 이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지극히 가정적이고 성실했던 남편의 태도로 봐서는 정말 모를 일이었고, 이런 일에 남편을 다그치기보다는 오히려 관대하게 해결하고 싶었다. 그래서 두드린 게 바로 통신이었는데...

신원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마구 쏟아놓기 시작했다. 가끔씩 지금의 심장을 시로 적어 메일로 보낼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답장을 보내왔고 첨부파일을 부치면서까지 성의를 보여주었다. 이토록 카운슬러 역할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에게 난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천 오빠와도 같은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지만 그 이상 그를 알리고 노력하

지는 않았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통해 남편의 편지 또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저절로 된 일임을 확인한 다음, 대수롭지 않게 마무리되었다.

그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날, 스스로도 예기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컴퓨터를 켜지 않고는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것이었다. 나의 생활은 온통 그의 생각으로 가득했고, 메일을 통해 전해져오는 그의 명민함에 난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지독하리만큼 현실적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는 것이 웬지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하면서도 이럴 때, 결혼이 이유가 되어 위함을 느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들, 아무리 큰 부부싸움을 벌인들, 그런 건 내게 집을 떠나고 싶다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을 때, 난 집을 과감히 등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집이란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이었기에...

하지만 결혼한 여자가 외간남자를 만나며 사랑한다는 것은 불륜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었던지라, 그로 인해 소중한 가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가정 파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다. 난 스스로에게 말했다.

"중요한 현실을 망각해선 안돼. 가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너에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 너의 이기적인 행동은 네 주위 사람들에게 적잖은 피해와 고통을 남길 것이고, 이런 감정은 설령 그를 만난다 해도 누군가로 인해 또다시 느낄 수도 있는 거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유할 수는 없어. 이것이 한 순간의 무모한 감정일 수도 있고... 남편 또한 '편지사건' 이후로 가정에 더욱 충실해진 것처럼, 너도 좋은 경험으로 마음을 돌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이렇게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이성 존재했기에 절제

할 수 있었던 난. 그후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수없이 반기며, 그 맑은 눈동자를 지켜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미치면서 겨우 마음을 추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며,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할 교제는 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데 천사와도 같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내겐 지난 3개월이 정말 행복했고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젠 그 아름다운 시간을 가슴 속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날개옷을 찢는 여자

박미연(가명, 여성운동, 35세)

나는 이럴 때 집을 떠나고 싶다. 하나, 결혼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의 짐을 떠맡은 어머니가 매일매일 신경질과 히스테리성 발작으로 집안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엄격했고, 더 많이 우리를 통제했다. ‘애비없는 후레자식’들이 반역이라도 할까봐 어머니는 늘 노심초사였다. 나는 대학교 때까지 친구 집에서 잠자는 걸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며, 수학여행 이외의 여행은 당연히 불가능했다.

가족이라는 지긋지긋한 인연이 싫었다.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결혼 전까지 나는 수없이 죽음과 집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꿨다. 나는 가족은 전생애 악연이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 어머니가 암으로 1년간 투병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 아픈 기간에 어머니는 놀라게 달라졌다. 정상이었을 때는 그토록 극성하던 어머니가, 간호하던 내게 혹은 집이라도 팔까봐 아프단 소리도 잘 안했다. 그 사실을 미루어 짐작한 나는 그래서 더욱 어머니가 가여웠고, 고맙스러웠다.

임종 2개월 전쯤이던가, 추석 때쯤이었다. 유난히도 하

늘이 파랗던 날. 어머니 병원 창문 너머 파란 하늘을 물고 리미 쳐다보다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미연아, 이제 내가 병 다 나으면 너 어디든지 다니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녀라. 이젠 네 맘대로 살게 해줄게.”

어썸, 저릴 수 있을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인연의 끈이 다 달아빠지고 나서야 그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다니... 정이 깊은, 원수지간이든 가족은 정말 악연이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는 일은 아직 젊디젊은 내겐 너무 힘겹고 끔찍한 일이었다. 나는 그때 타임머신을 타든가, 아니면 잠시 냉동인간이라도 되어 그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셋, 절대로 내 선택에 의해 가족이라는 인연을 만들지는 않겠다고 맹세했던 나는, 어리석게도 그 맹세를 잊은 채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 낳았다. 남편은 야근이다. 술자리다 해서 연일 자정을 넘겼다. 아이를 재우고 혹은 등 에 업고 어르며, 나는 나무꾼에게 선뜻 날개옷을 쥐버린 내 자신이 머리를 짓궂고 싶을 만큼 미워서 울었다.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아이가 내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없는 한심한 선녀였다. 하긴 여자에게 하늘나라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나는 배란다에서 서성이며, 이만 아프도록 악다물었다.

넷, 직장을 가졌다. 아이돌보기와 집안일 등으로 나는 언제나 직장에서 전력투구하지 못한다. 나도 내 에너지를 한 번 신나게 일에 쏟아붓고 싶다. 그러나 마음뿐. 엄마노릇도 직장인으로서는 어설피기 그지없다. 나도 남자들처럼, 내 남편처럼 밤낮없이 직장에 몰두하고 싶다. 나란 인간은 얼마큼의 능력을 지녔을까. 결국은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늘어버리는 건 아닐까 안타깝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에너지를 뺏아가는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다섯, 두번째 아이를 낳다. 차츰 여유가 생긴다. 나는 내 자신에게서 힘을 발견한다. 아이 둘을 키우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물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상당한 감금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내 양팔은 더욱 강해졌고, 머리는 지혜로워진다. 이젠 남편이 날개옷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들어 입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심호흡을 크게 한다.

대책없이 떠나고 싶었던 시간들

이영섭(주부, 40세)

꽃 다발을 품에 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첫발을 내딛는 희망으로 부풀어 싱그럽게 미소를 짓고 있는 친구들 속에, 세상근심을 다 끌어안은 듯한 슬픈 미소로 이방인처럼 서 있는 여고졸업식 때의 빛바랜 한 장의 사진을 보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선명한 컬러사진처럼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이었던 내 어머니는 6개월이라는 시한부인생을 사시며 내 졸업식날 아침에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람 앞에 흔들리고 계셨었다. 20여년 전 그때는 암이란 단어는 없었는데 어머니는 자궁의 혹을 떼어내기 위해 수술을 시도했지만, 그대로 절개한 자리를 꿰뚫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고, 형식적인 방사선치료를 받은 것을 보면 암이었던 것 같다.

수술 후에도 뱃속에서 누런 고름을 받아냈고, 성한 다리의 두 배 정도로 부은 다리의 붓종, 욕창... 병문안을 오는 사람을 붙들고 절규하시던 내 어머니의 병간호를 맡아하던 나는 많은 불면의 밤들을 어머니와 함께 울며 보냈다.

6개월 시한부 삶이었지만 2년을 넘지도 못하고, 잠을 이루시지도 못하면서도 다가오는 죽음 앞에 안절부절 못 하시던 내 어머니, 신음소리 가득했던 집, 어머니의 한스런 뉘우리의 눈물, 어느날부터 난 그 집을 떠나고 싶었다. 아니,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싶었다. 어머니에게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었고, 나는 어머니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다.

우리에 그늘이 되어주셨고 지친 날개를 접고 쉴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었던 어머니는 마지막에는 가족 모두에게

내려놓고 싶은 짐이 되었다.

“나, 살 수 있는지, 죽을지 용하다는 종각점쟁이집에 갔다 오너라” 하시며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셨다. 시집가는 색시처럼 단장을 하고 여자한복을 입은 여자목소리의 종각점쟁이는 내 어머니의 미래를 모두 환히 꿰뚫어보는 듯한 얼굴로 내 이야기의 서두도 꺼내기 전 짐을 질 때 쓰는 엽전을 방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당신 어머니는 죽어! 못 살아!” 하면서 한마디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날은 하염없이 허적허적 거리를 헤매었다. 점쟁이가 자신의 삶을 연장이라도 해주듯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릴 어머니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무런 대책없이 어머니의 신음소리 가득한 집을 떠나고 싶었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뽀족구두도 신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싶었고 음악다방에 앉아 멋진 DJ에게 났을 때 애정기도도 싶었다.

그후 어머니는 2년을 더 살고 모두를 치치게 하시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평생 세상을 떠나셨다. 그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나는 길고 긴 여행길에서 이제는 집에 돌아온 듯한,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한 평화를 느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머니의 신음소리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떠나고 싶었던 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면 죄스러움에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리곤 했다.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외아들 며느리로 내가 받아들여야 할 모든 것들 속에서 얼마나 자주 내가 여자임에 절망했고, 대책없이 떠나는 여행연습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곤 했는지—감정이 시키는대로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한번도 떠나지 못했던 나의 울타리—그러나 이제는 안다.

죄와 슬픔에 머물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는 흉흉한 바다 같은 세상을 향해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언젠가 마지막에 다다른 항구에서 돛을 내린 배에서 인간은 원하던, 원하지 않은 내 어머니처럼 떠나야 한다는 것을... [1]



지정 사인화 4월 12일(토) 오후 3시 (교보문고 매장)

새우와 고래가 함께 숨어는 바다 창해

일본여성은 자궁으로, 한국여성은 정신으로 승부한다!

일본(日本)의 힘, 일본여성들의 자궁으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여자를 통해 두 얼굴의 일본, 그 실체를 벗긴다.
로프작가 유재순이 8여 년간 일본에 살면서
그들과 호흡하며 소중하게 간직했던
일본·일본인·일본여성에 대한 그 충격적 현장보고서!

왜
남성들에게
더 인기인가?

일본여자를 말한다

■ 주요 내용

- 일본의 힘은 여성으로부터 나온다
- 일본여자에게 태극기 꽃잎?
- 가모노는 원래 노년?
- 자극의 동물적인, 그래서 색스 천국으로
- 산후조리원 원조
- 혹한이러면 면사 오케이
- 실적률 중후군
- 나리타 이혼과 정년 이혼
- 일본여성은 한국여성을 싫어한다?
- 일본여성은 한국남성을 좋아한다?
- 이혼율 33만 원을 받는 일본 양자
- 이제는 한국여성이 승부할 때다!

유재순 지음 / 신국판 / 344쪽 / 값 7,500원 * 편의점에도 있습니다.

▶ 작가 유재순(柳在純)은 1961년 (신동아) 논픽션 당선으로 데뷔하여 1987년 동해의 여성상을 수상했으며, 1987년 잡지 특파원 겸 일본 문학평론가였다. 그동안 일본의 나가노현 수상, 다케사다 노보루 수상, 무노 수상을 안착했으며 특히 일본의 도미 다카코 일본 사립 대학원장과의 연애라는 한국 기자로서는 최초였다. 저서로는 로프집 (서울서 실리는 여자들) 열기(첫은 여자들) (서울(7호)의 일본인), 장미소설 (여왕님) (난지도 사람들) 등이 있다.



‘천년의거울을건너온여자’ 박서원

류숙렬(문화일보 기자, 본지 편집위원)

그녀는 불모의 자궁에서 피를 흘리며
말을 탄생시키는 시인이 되어 스스로 그 거울을 건너왔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쓸모있는 물건을 건져 재활용하듯 여자의 고통과 상처를
모조리 게워내서 새로운 생명체로 재창조한 것이다.

『천년의거울을건너온여자』, 동아일보사에서 최근 펴낸 한 여성시인의 자서전
제목이다. 『난간 위의 고양이』 시인 박서원의 서른아홉 자전예세이'라는 부

제가 달려 있다. 이제 39년째 살고 있는 여자가 천년을 살았다고? 더구나 그 천년의 세월
이 거울이었다니? 소설가 양귀자는 『천년의 사랑』이라는 환상적인 소설을 썼다. 이 시인
도 소설가가 이야기책 꾸미듯 낭만적인 사랑의 환상으로 자신의 삶을 채색한 건 아닐까?

우리는 선정적인 상업주의에 물들고 사랑과 성공의 신화 일색인 잘난 여자들의 자서전
에 신물이 나 있다. 삶의 무서운 진실에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끝까지 정직하지도 못한
채 결국은 유치한 자기자랑을 넘지 못하는 여자들의 자기고백. 기존의 여성잡지들에 넘쳐
나는 이야기가 다 그런 것들이다. 더 이상 그런 고백에 눈길 주기 싫다. 그녀들의 아픔다
통한 무지개빛 이야기는 나의 존재를, 여자들의 삶을, 더욱 퇴색시키며 추축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누군들 자기는 공주가 되고, 여왕이 되면서 다른 여자는 부업대기로, 하녀로 전락시키
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랴? 그것이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소견머리 좁은 여자의 질투
라고 해도 할 수 없다. 다 똑같은 여잔데 기죽기 싫다. 그것이 아직까지 나온 여성자서전
에 대한 여성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니 『천년의 거울을 건너왔다』고 주장하는 박서
원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가는 여자

그러나 박서원의 이야기는 여성자서전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무참하게 배반한다. 인터
뷰 약속이 있기 전 그녀의 책을 이틀에 걸쳐 두 번 읽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의 자기
고백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던 나를 울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고백은 오히려 여
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안겨주었다. 『천년의 거울을 건너온 여자』는 고
통스러운 육체와 영혼을 지닌, 그러나 짓밟힌 상처로부터 전주를 풀어내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하늘이 풀린 것처럼 쏟아붓는 빗속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런데 천
둥과 번개를 뚫고 나타난 그녀는 전혀 비극의 주인공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이
부시게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아니 이 여자는 어째서 이렇게 모든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것일까? 어찌자고 이렇게 세상의 질서—그것은 사실 더럽고 치사스러운 질
서다—를 거꾸로만 가는 것일까?

그녀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가난과 불행 속에서 자랐고 그 덕분에 (상업)고등학교도 중
퇴해야 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폐결핵을 시발로 어릴 때부터 질병에 시달려온 그녀
였지만 끝내는 성폭행의 후유증으로 기면발작증이라는 희귀한 질병마저 얻는다. 시도 때
도 없이 아무 데서나 발작을 일으키고 온몸이 마비가 되며 잠에 빠지는 이 병은 그녀에게



문자 그대로 지옥의 삶을 선사했다. 게다가 그녀는 가족의 부양이라는 짐까지 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인이 됐다.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건강도 없는 그녀가 "여자들에게 입을 달아주겠다"며 시인이 된 것이다. 물론 시는 돈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녀의 과거부터 살펴보자. 폐결핵을 앓던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젊은 엄마는 돈 한푼 없이 울망출망한 세 아이들과 함께 남겨졌다. 군대시절 중단한 시인이기도 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해병대 5기생 최연소 장교로 19살에 소위를 달고 소령으로 재대했다. 부동액 연구로 발명특허를 받고 자신이 만든 부동액이 전국으로 납품될 때 폐결핵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족들은 큰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지만 식모방에 짐을 풀고 다섯 명이 복닥거리며 하인취급을 받고 살았다. 결국 장녀인 그녀가 외할머니 집으로 쫓겨가다시피 가야 했는데 할머니는 밤마다 "죽어서 죽겠다"며 그녀를 발길질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지 아버지 잡아먹은 똥수년"이라며 무서운 매질을 했다.

"딸의 새출발을 막는 새끼인 나는 '애물단지' 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난 아들도 아니고 딸이었다. 외할머니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던가."

그녀의 외가쪽은 3대째 남작없이 집안을 꾸려온 서글픈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지금처럼 여성에게 허용된 직업이 많지도 않던 시절, 외증조모, 외할머니, 어머니까지 여인 3대가 모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몸과 마음을 세상에 내던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그녀가 여성사적인 맥락에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한 것은 훨씬 뒤였고 그 시절엔 "절대 엄마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를 되뇌이며 자신의 생을 남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독신으로 살리라고 맹세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가 학교에 오면 반 친구들은 영화배우 왔다고 수군거렸다. 나는 싸구려 한복을 입어도 곱기만 한 엄마가 싫었다. 어머니가 배추장사나 생선장수처럼 몸매를 입고 비린내가 나는 더러운 알치마를 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방마담의 자식이라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죽기보다 싫었다. 돈 한 푼 없는 데다 어린 자식이 셋이나 딸린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자를 상대하는 것뿐일까 하는 점이 그 시절 나의 궁금중이었다."

그녀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와 할머니 등 그녀의 집안여자들이 겪어온 불행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어려서부터 남편이 없는 집안의 내력을 의식한 그녀는 "남성가문의 원리가 여성의 육체를 빼앗는 데 있다"고 생각해 수녀가 되어서 글을 쓰면서 순결하게 일생을 살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진정한 고백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안겨주었다. '천년의
겨울을 건너온 여자'는
고통스러운
육체와 영혼을 지닌,
그러나 짓밟힌
상처로부터 진주를
품어내는 그런
여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가 꿈을 키워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신문팔이, 구두닦이, 신문사 사환 등을 거치며 돈을 벌던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ROTC생도가 강간범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녀가 스무 살도 채 안 됐을 때였다.

성폭행 경험으로 불모의 여자가 되어

"제 이야기를 쓰면서도 성폭행의 경험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제 삶을 뿌리째 뽑으려 했던 사건이었지요. 다시 떠올리조차 끔찍한 사건을 글끝내 감춰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당할 뻔했다' 정도로 썼어요. 저를 치료하시던 한양대병원 김광일 박사님께 상의드렸더니 '고발'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용기가 없느냐'고 물으시더군요. 몇 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원고를 다시 썼어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꼭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기라고 깨달은 거지요."

그녀는 이 성폭행의 충격으로 기면발작증(Narcolepsy)이라는 희귀한 질병을 얻는다. 어느 순간 작동을 멈추는 기계처럼 아무 데서나 경련을 일으키다 전신마비와 함께 정신을 잃곤 하는 병이었다. 눈은 반쯤 실명상태였고 온몸이 굳어 음식물도 넘기지 못하고 침도 삼키지 못해 정박아처럼 침을 질질 흘렸다. 그러나 소리에는 너무도 예민해 티슈 한 장이 떨어지는 소리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놀상 약물과 환상, 고통과 마비에 시달렸고 치료를 위한 약물 부작용으로 10년 동안 생리가 끊기는 불모의 여자가 되었다.

그녀가 책임질 수 없는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상처와 고통과 질병으로 훼손된 육체만을 선사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옛날의 그녀가 아니다. 오늘의 시인 박서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만남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 첫번째는 한 남자의 사랑이다. 22세 연상의 대학교수. 시를 썼던 아버지와 외형체를 맺은 후배였다.

"남자들은 여자를 고기덩어리나 성의 대상으로만 보기 쉬운데 그는 병 때문에 식구들에게마저 버림받은 나를,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 대접해 주었고 그리고 나에게 문학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를 사랑하면서 나는 여자가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불륜관계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그녀는 9년 동안 계속된 이 사랑으로 인해 병마에 시달리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다.

두번째 만남은 그녀의 작품을 알아본 여자들과의 만남이었는데 열음사 『외국문학』 편집장 노혜경씨와 김수경 사장, 그리고 시인 김정란 교수 등이 그들이다. 연줄에 의해 작용되는 문단풍토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그녀를 순수하게 작품만으로 평가해 시인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그녀는 90년 『아무도 없어요』(열음사), 95년 『난간 위의 고양이』(세계사), 97년 『이 완벽한 세계』(세계사) 등 세 권의 시집을 발표한다. 박서원을 뚜렷하게 페미니스트 시인으로 자리잡게 만든 시집 『난간 위의 고양이』에 얹힌 김정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류숙영씨



박서원의 시들을 처음 보았을 때, 내 가슴을 후벼내던 그 아픔을 나는 잊지 못한다. 박서원의 작품을 꼼꼼하게 읽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여전히 어떤 계급적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 열음사 『외국문학』 편집장이었던 노혜경씨가 확신을 갖고 추천하는 그녀의 시원고를 한 무더기 받아놓고도 나는 한 달이 넘도록 원고를 펼쳐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전에 발표되는 그녀의 시들을 보았을 때 뛰어나지만 무언가 불편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녀의 시들이 나의 어떤 계급적 허위의식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병과 친구되어 살아가기

그녀를 만나기 전에 나는 늘 지성적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말로는 페미니스트인 척하면서 남성들에게 귀타나 받아서 문단 한 귀퉁이에 앉아 갈난 척하는 걸로 만족하는 명예 남성이었는지도 모른다. 달포나 지나서 나는 꾸물꾸물 그녀의 시 뭉치를 펼쳐보았고 완전히 경악했다. 너무나 뛰어났던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시와도 달랐다.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순결하면서도 관능적인, 주저없이 사물의 심장에 가서 막 바로 꽃히는, 고양이처럼 날렵하고 우아한, 무의식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위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나는 무려 원고지 140매에 달하는 꼼꼼한 해설을 썼고, 박서원의 원고는 곧 『난간 위의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사에서 시집으로 출판되어 나왔다. 문단의 반응은 뜨거웠다. 완전한 성공이었다."

박서원은 자신이 다른 여자들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지금과 같은 시를 쓰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의 투병생활을 통해서 병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통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병을 통해서 인간 무의식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인간 내면의 메두사 같은 괴물을 보고 거기에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적이라고 한탄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하고 친구삼아 놀자고 했어요. 병하고 노는 것이 저의 시작업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직도 그녀는 완전한 건강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작품을 쓸 때는 불면증과 거식증, 호흡장애, 위경련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질병과 평화공존(?)하며 함께 노는 법을 터득한 그녀는 이제 병에 대한 공포없이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그녀는 병보다 더 무서운 여자다.

그녀는 『난간 위의 고양이』 출판과 함께 또 다른 기적과도 같은 체험을 한다. 기면발작 증 치료와 관련한 약물중독 후유증으로 끊었던 생리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10년 동안 불모성에 갇혀 있던 그녀의 자궁에서 피가 나온 것이다.

"스물세 살 때부터 생리가 없어졌는데 『난간 위의 고양이』가 출판되자마자 기적처럼 생

생리불순

달력 앞에서 날짜를 센다

(당신은 임신할 수 없어)

물론 그럴지도 몰라. 난 허약하고

장기간 약물복용까지 했으니까

불모지임에 틀림없을 거야. 그런데

난 아이를 원하고 여자이고 싶거든.

언제부턴가 어긋나버린 생애처럼

웅고되어 버린 생리.

그래, 난 인정해. 그러나 인간은 늘 갱신하게

마련이고 나는 지금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

잠시 쉬는 딸. 지구가 생성되기 전의 카오스

같은 상태라고 할까

그래, 내 자궁은 비 오길 기다리는 흙통이고

침잠하는 내일의 용설란이야. 밀려갔다 밀려오고

밀려오는 꽃대. 얼었다가도 녹아내리는 코드룸이야.

아이스크림이 되는 중유석이야. 베마른 승걸 뒤에

풀잎을 적시는 미풍이야. 불타는 언덕.

새롭게 삶을 밝히려는 절정의 깨끗한

정거장...

누군가 내게 또 속삭인다. 당신은 임신할 수 없어.

천만에!

나는 내 자궁에다 더 깊이 속삭인다. 천만에!

이제 난 급류처럼 범람하는 내 속의 양수를 굽어본다.

물살을 가르며 번창하는 아이들

그래, 난 언제나 완벽한 여자였던 거야.

리가 나오는 거예요. 서른두 살이었죠. 남들은 한창 꽃다운 나이로 여성성의 절정을 경험하는 10년간을 저는 불타는 사막 속에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피가 나오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여성의 자궁이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건진 여자의 말과 함께 생리가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그 때의 기쁨이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몸이란 것이 참 웃겨요. 요즘 제가 어떤지 아세요. 그 동안 못나온 피가 똥똥 나오려는 건지 한 달에 두번 세번 생리를 한답니다. 그러니 요즘은 늘 피를 흘리고 있는 셈이죠. 남들은 성가시다고 하지만 난 여자인 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시(詩)와 함께 피(血)를 찾다

세 번째 만남은 조카 치민이와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전의 어떤 만남과도 다른 모습이었다. 동생의 아들인 조카 치민이는 부모의 이혼으로 자폐증과 비슷한 증상의 반응성 애착장애를 나타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했고 어떠한 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나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아이마저 거길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사랑을 쏟아보고 아이를 고쳐보자고 맘 먹었지요."

그리고 눈물겨운 사랑과 보살핌, 헌신 속에서 아이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곱 살까지 고모의 젖을 만지며 잠들었던 치민이도 이제는 초등학교 2학년생으로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사고를 치는 개구쟁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조카 키워줘야 소용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아이가 나를 키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방황하던 나에게 치민이는 남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천년의 겨울 속에 있지 않다. 그녀는 이제 겨울이 편으로 건너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겨울을 깨운 사람은 입맞춤으로 공주의 잠을 깨운 왕자가 아니다. 그녀는 불모의 자궁에서 피를 흘리며 말을 탄생시키는 시인이 되어 스스로 그 겨울을 건너왔다.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쓸모있는 물건을 건져 재활용하듯 여자의 고통과 상처를 모조리 깨워내서 새로운 생명체로 재창조한 것이다. ■

사진 조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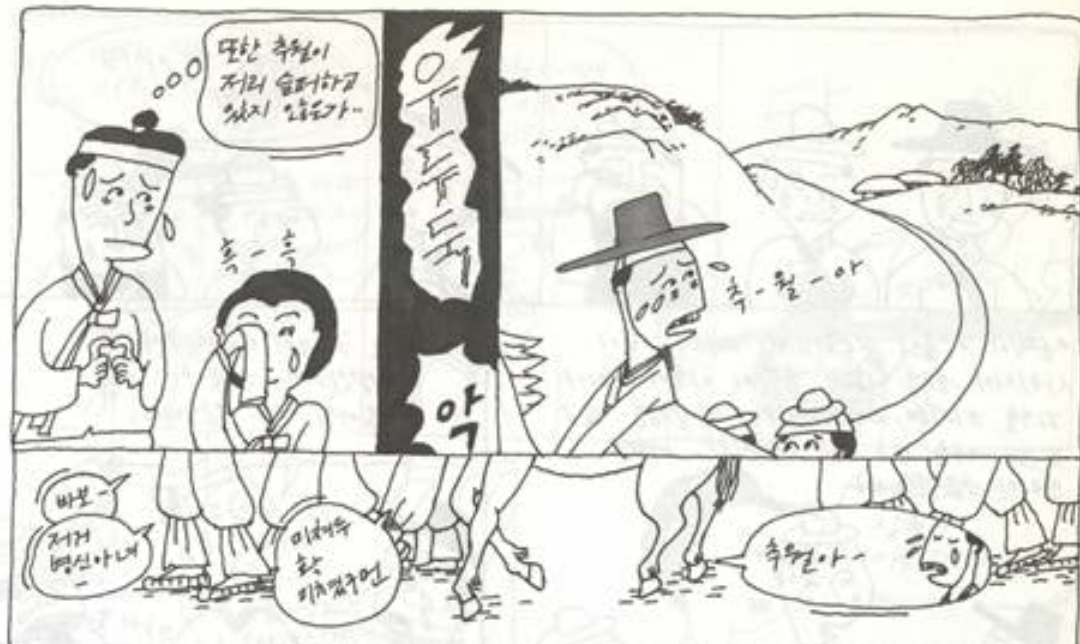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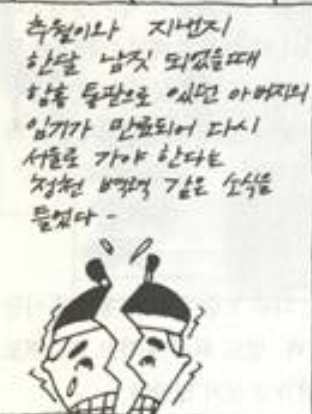
색녀열전傳



骨 樂 打

콜 렉 터

장현실 그림





〈여고괴담〉이 진짜 공포스러운 몇가지 이유



최 근 한국영화 한 편이 파란을 불러일으키며 흥행가를 주도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여고괴담〉이 그 주인공이다. 매스컴에 증폭된 〈여고괴담〉의 파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총이 주도하는 〈여고괴담〉의 반교육적 가치에 대한 시비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부 차관이 불을 지른 스크린쿼터제 폐지 발언으로 인한 파란이다. 흥미로운 것은 교총은 이 영화를 매우 위험천만한 것, 즉 시장에서 잘 먹혀들어 학생관객에게 악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상부 관리의 발언은 〈여고괴담〉이 국내시장에서 보호받는 단일한 한국영화의 표본으로, 〈아마겔론〉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이 두 의견은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 편의 영화란 절대로 영화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화는 늘 무엇인가와의 상관관계 속에서(이런 걸 가리켜 식자들은 컨텍스트라고 외래어로 표현하기를 즐긴다) 의미를 갖는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영화의 의미는 그 사회의 어떤 집단무의식 내지 의식적인, 그리고 지배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주변적인 경향과 관련해서 만들어진다.

영화의 재미는 사회가 만든다

바로 그런 점에서 나는 오랜만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누를 정도의 흥행성을 보인 한국 오락영화 〈여고괴담〉이 관객(물론 주로 여학생 관객이다)에게 어필하는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화의 힘과 매력은 영화 텍스트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사회 여러 집단의 다른 반응들로 인한 갈등상황에서 더욱 생산적으로 나타난다는 나 자신의 '영화·사회강령'이 더욱 그런 흥미를 부채질한다.

우선 매스컴에 소개된 교총측의 비난을 정리해 보자. (여)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를 학생귀신이 잔혹하게 연쇄살인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일 테다. 비교육적 발상이라는 항변이 제기되었다. TV에서 그런 항변을 하는 사람은 모두 남교사들이었는데, 자신은 아니라는 양심 선언인지, 그런 동료와 자신을 혼동하지 말라는 변명인지 들을수록 혼동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했다. 영화에선 본명 남은여우라는 B사관 콤플렉스를 지닌 여교사도 잔인한 살인대상이 되는데, 정작 여교사는 한 명도 이런 항변의 얼굴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여고괴담〉의 한국적 정체성

그리고 남교사들은 영화에서 묘사하는 여학생 성희롱을 꼭 집어서 그런 용어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학교폭력 문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얼버무리며 언급한다. 교사나 교총 간부가 매스컴에 등장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성'자가 들어간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음운 일탈이다—학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며 자기검열을 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일부 교사들이나 교총에서는 〈여고괴담〉은 지나치게 과장된 비교육적인 영화라고 판단하며 시비를 쏜다.

반면 (여)학생들은 이 영화가 마치 자기 학교 이야기 같다는 노골적인 공감을 서슴치 않고 표현했다. 성적이 평범수인 학교에 9년간 다녔어도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그런 역명의 존재가 자신의 모습이며, 자기 학교에도 있는 폭력적이며 성희롱을 취미삼아 하는 악질교사를 처치하는 데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의견을 증폭하는 듯하지만 실은 오히려 그 대화의 통로를 차단하는 입장은 영화와 현실을 구분한다. "영화는 (현실이 아니라) 영화이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이런 입장은 주로 자신의 영화로 파란을 일으킨 영화인들이 어느쪽 편도 들지 않으면서도 영화흥행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구사하는 단골 수사학이다.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도 비스 자살이나 승려집단 혹은 반공·용공이 테올로기 문제에 치일 때마다 영화를 현실과 구분해서 영화로만 봐달라는 이야기는 언제나 들은 소리이다. 〈여고괴담〉의 근심있는 제작자 이춘연씨 역시 교총측의 비난에 대해 "이런 영화이니 영화로 봐달라"는 이야기를 어김없이 했다.

스크린쿼터 폐지발언을 앞뒤 개보지 않고 음란 통상부 차관이 불, 현실한 한국영화의 상징적 대표 〈여고괴담〉은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여고괴담〉은 비록 카메라를 비롯한 특수효과등 제반 테크놀로지에서 할리우드보다 못하지만 본명이 우리의 정서와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한국영



《여고괴담》은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캐리커처적 풍자. 특히 여학교라는 성적 구분을 의미심장하게 드러내는 텍스트이다.

화라는 것이 그에 대한 해석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 영화는 영화 자체로서만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영화는 애초부터 현실과 관계 맺으면서 현실의 여러 구조들(사회, 경제, 문화적 구조와 의식)과의 상관관계에서 만들어졌고 보여진다. 실제로 어떤 영화가 대중에게 열광적 지지를 받는 것은, 미학적 완성도나 뛰어난 테크놀로지 같은 측면보다는 현실에 대한 도피이든 현실에 대한 꼬집음이든 현실적 삶과의 상관관계에서이다. 그런 면에서 영화는 한 사회의 집단정서를 읽어내는 흥미로운 텍스트이며, 그 사회의 문제와 메커니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복합적인 매체이다.

따라서 《여고괴담》은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캐리커처적 풍자, 특히 남학교가 아닌 여학교라는 섹슈얼리티 구분을 의미심장하게 드러내는 텍스트이다.

극장에서 여학생관객들과 《여고괴담》을 본 이들은 알 것이다. 스크린에 뜨는 장면과 그걸 보는 스크린 밖의 관객이 거의 동시적으로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열띤 분위기가 다른 영화들에 비해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이 영화를 동숭씨네마텍에서 좌석을 대부분 차지한 여학생들과 봤는데, 비명소리(아악!)와 야유의 함성(으-, 말도 안 돼!)을 연속 터뜨리는 관객의 열기는 철 들고 본 한국영화 중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관객이 그때그때 알아서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스크린 속의 특수효과를 압도할 정도였다.

《여고괴담》은 한국 공포영화의 원형인 머리 톳고 소복입은 여자귀신을 현재 한국사회의 여학교 속으로 불러내어 교복입은 여학생귀신으로 변형시킨다. 학교에 원한서린 학생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은 누구나 들어보았음직한 친근한 것이며, 또한 이 영화의 기본적인 발상이기도 하다.

이제 여학생귀신이 일을 벌인다. 학생귀신은 악독한 선생들(늙은여우와 미친개)을 연쇄살인하고, 거기에 귀신여학생의 옛 친구가 교사로 부임해 와 9년 전의 원한서린 매듭을 풀려고 한다. 공포분위기의 미스터리 이야기구조를 만들며, 이런 핵심적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단순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귀신(진주)의 존재를 눈치챈 늙은여우의 죽음으로 시작된 공포는 과연 “누가 늙은여우를 죽였을까?” 즉 “몇몇 의심스런 여학생들 중 귀신이 누구일까?”라는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지속된다. 연출자는 짐짓 피바르게 (꼼꼼히 장면을 보

면 편하긴 하지만) 몇 개의 함정을 설치한 채 관객과 내기를 한다. 전교 2등 콤플렉스에 빠진 표독스런 눈빛의 정숙이 이른 아침 빈 교실에 앉아 있는 모습은 심상치 않다. 늙은여우의 죽은 모습을 끔찍하게 그려낸 미술학도 재이도 의심 켜고, 전교 1등 하는 오만한 소영이 한적한 도서관을 배회하며 야릇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의심해볼 만하다. 반면에 정작 귀신인 진주의 변신 지오는 가장 무서움을 타는 수줍은 인물로 연출돼 덜 의심스럽게 보이지만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럽기도 하다.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현실

여기에 끼어드는 하은영 선생(이미연)은 과거의 원한을 푸는 실마리적 캐릭터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정쩡하게 연출되어 있다. 그녀가 교사로 부임했지만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지 구체적인 직업적 정보도 없는 데다, 그녀가 하는 일이라곤 늘 한발 늦게 사건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물론 마지막 부분만 빼고, 이미연의 연기도 보잘 것 없다. 연기라고 해봤자 글썽글썽한 눈물어린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빌려주는’ 정도이다.

이 영화에서 공포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한 특수효과도 미천한 수준이다. 특히 진주가 도망가는 미친개를 추적하면서 등장하는 긴박한 편집효과는 매우 유치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관객은 자지리지게 반응한다. 그에 비해 공포의 현장과 그걸 목격하는 학생의 반응을 연결하는 편집이나 끔찍한 살인현장에서 평온한 일상으로 넘어오는 편집 정도가 상대적으로 긴장감을 준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정도야 웬만한 공포영화에선 다 갖추고 있는 당연한 기법이다.

그러나 꼼꼼히 따져볼수록 미흡하게 여겨지는 이 영화의 영화미학적 측면이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이 영화의 매력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영화는 한국의 반인간적이고 폭력적인 학교제도 속에서—특히 여학교의 경우—심심풀이 성희롱을 훈육용으로 위장해서 거리낌없이 자행하는 남교사의 존재야말로, 정통 공포영화보다 더 공포스런 현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는 관객을 자극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나처럼 20여년 전—벌써 그렇게 오래되었다니!—에 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과연 누가 늙은여우를 죽였을까?”





학생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다가온 것은 이 영화의 핵심적 발상인 학생귀신이 아니라 남교사의 성희롱 장면과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학교현실이다.

가장 절절하게 다가온 것은 이 영화의 핵심적 발상인 학생귀신이 아니라 남교사의 성희롱 장면과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학교현실이다. 그건 모든 관객에게 끔찍했던 학교시설이나 현재 진행중인 학교생활을 <여고괴담>에 오버랩해서 보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솔직히 말 못할 이유가 없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도 성희롱 교사가 있었다. 고전선생이었는데, 숙제로 내준 고전문장을 외우지 못하면 하복 반팔소매 속으로 그 장그런 손을 넣어 꼬집던 중년의 교사였다. 우린 순진하게도—차라리 바보처럼—그의 늙은 손에 꼬집히는 게 싫으면서도 노골적으로 싫다고 표현한 적이 없었다. 수학여행 갔을 때, 밤늦게 이불에 발을 넣고 물러앉아 이야기하던 우리들 사이에 한 남자 선생님이 끼어들어 유독 한 아이에게 웅크린 눈짓을 보내며 접근해도 모른 척해주던 기억도 있다. 우린 왜 그때 성희롱이란 개념조차 몰랐던 것일까? 심지어 그걸 관으로 여겨 질투하던 애조차 있었으니 더 말할 해봤자 속상하기만 하다.

<여고괴담>은 이렇게 나 같은 이들에겐 과거 학창시절의 씁쓸한 기억으로 가는 타임머신이 되고, 또 현재의 학생들에겐 자기 학교생활의 문제를 끌어주는 계기가 된다. 그리하여 <여고괴담>은 그저 공포영화라기보다는 여학교시절의 상처로 수용되고 해석되는 사회적인 텍스트로 확장된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모두 한마디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듯하다. “우리 학교에는...”으로 시작되는 말은 악질교사, 특히 성희롱을 ‘즐거이시’는 교사에 대한 상처 어린 추억담 내지 현재진행담으로 구구절절 이어진다. 뒤에서 브래지어 끈을 당기던 남선생부터 지휘봉으로 가슴을 비웃해서 여학생 몸을 꺾궂던 영화 속의 미친개 같은 영화 밖의 남선생들...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것이 성희롱인 줄 몰랐던 선세대의 추억담이자 성희롱이 뭔 줄 알아야 당연한 신세대의 현재진행담으로 연결된다는 영화 밖 현실이 영화보다 공포스럽다.

항간에서 사회문제로 삼는 전화방을 통한 중년남성과 여학생의 원조교제 사건, 성폭행 세계 3위에서 2위로 상승한 수치스런 통계, 가출여학생이 티켓다방에 팔려나가는 현실, 대학에서 벌어지는 남자교수와 여학생 혹은 여조교 간의 성희롱 공방전... 이 모든 문제 이전에 이미 미성년자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그러나 문제상황으로 제대로 인식조차 되지 않은—남교사의 성희롱을 통해 어떤 식으로건 내성을 확보하게 된다.

<남고괴담>이 아닌 이유

이런 현실의 질서에 대항해서 여성들은 괴담, 공포담의 주체가 되고 그것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서양과 달리 심지어 가까운 일본과 달리 유난히 한국사회에 여자귀신이 창궐하는 이유는 단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더욱 원한에 서린 존재가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여성의 공포담론을 통한 남성중심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자 경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릿발이 내린다”는 서릿발 서린 옛 말은 의미심장하다. 현실적 질서에서 현실적 존재로 남성중심 시스템에 대응할 통로가 차단된 여성은, 그리하여 비현실적인 공포담론을 창조했다. 그나마 여자 가슴에 못을 박으면, 여자를 억울하게 만들면 앞날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남성에 대한 위협은 일단 여성들에게 카타르시스 에너지를 제공했음직하다.

그러나 그런 공포담론이 현대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서글프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오는 공포담론으로서의 영화는 <남고괴담>이 아니라 <여고괴담>일 수밖에 없다. **11**



유채지나

동국대 영화과 교수, 영화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박화야의 목욕하는 여자들 엿보기



사진사들은
방금 도착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다.
범죄적 학살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사진사는 마치
여느 거리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여인에게 눈길을 돌리듯,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다.

카메라의 시선, 그것의 남성성

체코 출신의 독일인 사진작가 겸 영화인인 하룬 파로키는 <세계의 이미지와 전쟁의 기록>(1989)이라는 자신의 필름에서 2차 대전시 나치 친위대가 아우슈비츠를 찍은 여러 사진 가운데 한 장을 놓고, '카메라의 시선'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한 바 있다. 본래 아우슈비츠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수용소의 여러 상황을 기록하는 일을 위해 몇몇의 친위 대원은 카메라를 들게 되어 있다. 그들은 유대인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일에서부터 소각과정과 시체처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과정을 찍었다. 그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모든 범죄가 이미지 속에 포착되었다. 수많은 이미지가 산더미 같은 파일과 함께 늘어났다.

그 많은 사진 가운데 하룬 파로키는 하나의 이미지를 뽑아들었다. 그 사진은 이제 막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사람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찍은 것이다. 사진의 뒤쪽으로 남자들이 일렬로 서 있고, 그 줄 앞에는 독일군이 도착한 사람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한 여인이 있다. 이 사진에서 중심은 이 여인인데, 카메라는 그녀가 걸으면서 살짝 뒤돌아보는 모습을 포착했다. 사진사들은 방금 도착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있다. 범죄적 학살이 자행되는 현장에서 사진사는 마치 여느 거리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여인에게 눈길을 돌리듯,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카메라의 시선만이 아니라 이 여성의 시선에도 카메라의 실체가 명백히 있다는 사실이다. 여인은 즉각 카메라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받으면서 어떻게 표정관리를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도 알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음을 실제로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우슈비츠라는 장소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와 상관없이 그녀는 한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장소, 이를테면 평화로운 도시의 거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나치 친위대가 관리하는 그 수용소는 그녀를 파괴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녀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려는 사진사의 욕망과 소유욕, 즉 카메라의 시선이 한 여인을 대상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여성 역시도 죽음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카메라의 시선에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굴복한다.

이같은 독법은 또 한 번 프랑스의 사진작가이자 다큐멘터리필름 감독으로 유명한 크리스 마커의 필름에서도 발견된다. 히로시마 원폭투하 후, 일본의 오끼나와섬에서 패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곳 주민들이 미군의 전입 직전 바다로 뛰어들어 집단자살을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크리스 마커는 이 역사

적 사실을 놓고 여러 자료들과 함께 <레벨 5>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었다. 이 영화는 지난해, 파리의 개봉전에서 상영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 영화에서 그는 미군이 당시의 상황을 찍은 자료필름의 한 컷에 주목한다. 당시 이 섬으로 진입하던 미군은 헬리콥터에 카메라맨을 태우고 이 섬의 갖가지 모습을 기록하였다. 그런 가운데 카메라맨은 우연히 바닷가 절벽을 따라 뛰어가는 일본인 여성을 카메라에 담게 된다. 그 여인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바다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는 금방 카메라를 알아채고, 그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돌린다. 크리스 마커는 여인이 몸을 돌려 카메라를 응시하는 순간에 멈춰 화면을 가득 채운다. 그는, 미군이 던지는 카메라의 시선은 자신이 발견한 한 여인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그



에게 집단자살이라는 급박한 상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카메라가 포착한 것은 그 여인이 처한 집단자살의 현실, 그리고 한 상황의 역사정보라는 한 동양여인의 이국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일본여인의 카메라 시선으로의 무의식적인 응시에서 그는 '죽음'을 읽는다. 죽음의 순간에 카메라를 의식해 몸을 돌려 시선을 맞추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더 이상 그 끔찍한 현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진 찍힘과 동시에 그녀의 현실상황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카메라는 남근의 형태로, 혹은 총구로 은유되기도 한다. 이 상징적인 비유는 우리를 무의식에 잠재하는 여러 통념들과 관계있다. 우리가 카메라에 필름을 '넣는다' 라든가, 목표물을 향하여 '조준한다' 라든가 또는 사진을 '찍는다' 라고 말할 때 이미 꽤 분명한 형태로 그 비유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 다시 말해 세상 밖으로 나 있는 작은 구멍(뷰 파인더)을 통해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 훑어본다(peeping)' 는 의미로 본다는 행위를 일치시키기도 한다. 사진을 찍는 행위 속에는 무언가 악랄적인 공격성의 측면이 있다. 사진을 찍는 일의 환상은 실제로 한 사람을, 사물을 상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주어진다. 뭔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은 또 다시 한 사람이나 사물을 본래의 사회적, 문화적 컨텍스트로부터 떼어내어 그 자체를 (미적으로) 대상화하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카메라의 시선이 남성성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리고 남성적인 시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권력과 공격성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목욕탕 공동체와 여탕 엿보기

박화야의 사진집 『목욕하는 여자』에 흥미와 관심이 끌리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대 때문이다. 우선 목욕탕이라는 장소성이 유발하는 호기심이 있다. 누구라도, 적어도 60년대와 70년대의 대중목욕탕 문화를 누려본 경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목욕탕에 대한 기억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린 시절 우리 가족에게 목욕탕 가는 일은 재사를 치르는 것과도 같은 매우 정교적이고 엄격한 일이었으며,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가족의 '몸씻기'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일이기보다는 목욕탕 안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하는 집단행위였다. 대개 목욕탕에는 혼자 가는 사람이 드물었다. 많은 경우 누구와 목욕하러 가곤 했는데, 그것은 목욕하는 일이 혼자 하는 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혼자 오는 사람이라도 누군가와 짝을 지어 서로를 닦아주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 그만큼 목욕탕은 혼자일 수 없는 공간이

흔히 카메라는 남근의 형태로, 혹은 총구로 은유되기도 한다. 이 상징적인 비유는 우리를 무의식에 잠재하는 여러 통념들과 관계있다. 우리가 카메라에 필름을 '넣는다' 라든가, 목표물을 향하여 '조준한다' 라든가 또는 사진을 '찍는다' 라고 말할 때 이미 꽤 분명한 형태로 그 비유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탕은 그 자체로
호기심의 대상이다.
나무판으로 벽을 만든 여탕을
남탕의 남자들이 나무벽 틈새로
훑쳐보는 장면을
아주 해학적으로 그려낸
도미에의 삽화가 있지만,
여탕은 근본적으로
'훑쳐보기', '엿보기'를 자극하는
공간이다.

다. 동반한 사람간의 유대가 두터워짐은 물론이고, 편안함과 휴식이 이런 유대
관계 속에서도 제공되는, 일종의 공동체적인 기능을 다하는 곳이었다.

다른 한편 어린 시절, 내게 목욕탕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하
게 된 현장이기도 했다. 목욕탕은 아기(성구별 없이)에서부터 초등학교 때
와 청소년기의 여자아이, 성년여성, 중년여성 그리고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나
이를 통틀어 여성이 벌거벗고 모이는 곳이다. 나는 그 곳에서 어린 아이와 우
리 어머니를 포함한 중년여성과 할머니를 성이 없는 중성으로 보았고, 단지 몸
매가 완성된 여성만을 여성으로 간주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막연하지
만, 지금 생각하면 아마 나는 신체에서 '시간'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온통 주글주글해진 할머니의 육체가 있다.
그 할머니의 육신 위로 각인된 시간을 본다는 것은 사실 충격에 가까운 것이기
도 했다. 그것은 육신의 미를 있는 그 자체로 바라보면서 이해하기보다는 일정
하게 정해진 미의 법칙에 따라 생각해 온, 혹은 길들여져 온 나 자신에 대한 반
성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는 이 장소성을 보는 시선을 포함해 여자 목욕탕의 인물들을 작가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여탕은 그 자체로 호기심의 대상이다. 나무판으로 벽을 만든 여
탕을 남탕의 남자들이 나무벽 틈새로 훑쳐보는 장면을 아주 해학적으로 그려
낸 프랑스 19세기 리얼리즘의 거장 도미에의 삽화가 있지만, 여탕은 근본적으
로 '훑쳐보기', '엿보기'를 자극하는 공간이다.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는 바
로 그런 본능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엿보기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현실 속의 살아 있는 여성이 아니라, 선녀
같은 미녀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것을 일단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성을 미적으로 대상화
해서 바라보는 것에 우리들이 익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그런 공간
을 사진찍는 일은 재미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그것은 실제로 엿보기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여성 사진작가가 여
탕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카메라를 들이댄 사람이 엿본다
는 시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대상이 되는 여탕의
여성들은 카메라의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도 카메라의 시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박화야의 사진집을 이야기하면서 하룬 파로키
와 크리스 마커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대상에 대한 미학적 거리 유지

박화야의 사진집은 마치 앙그르의 <터키탕>의 욕녀를 연상시키는 듯한 뒷모
습을 한 두 명의 나무를 표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집의 첫 페이지에는 또
다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필렌도르프의 비너스에 비견할 만한 두툼한 하
반신 누드가 있다. 이어서 목욕탕 탈의실 바닥에 누워 있는 젊은 여인, 그리고
바닥에 전열되어 있는 각종 목욕도구가 담긴 바구니들, 탈의실에 모여 앉아 담
배를 피거나 담소를 나누는 역시 젊은 여성들, 혹은 탈의실 바닥에 음식을 놓
고 식사중인 또 비슷한 연령층의 여성들, 그 연령층 여성의 신체의 부분들, 그
리고 목욕탕 안에서의 누드, 물을 붓거나 비누거품을 내며 목욕하는 장면들이
순서대로 나온다.

전반적으로 사진의 흐름은 큰 일탈 없는 정상궤도를 안전하게 유지한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다를 바 없이 비슷비
슷하다는 느낌으로 진전된다. 매우 기이하게도 박화야의 목욕탕에는 육체의
나고 피고 지는 생명의 질서를 비추어내는, 그리고 그 흐름의 시간을 비추어내
는 거울과도 같은 공간으로서의 목욕탕을 말해줄 만한 모델들이 없다. 대체로
젊음에 가까운 누드—간혹 중년층 여성이 있을지라도—그리고 아이도 있지
만, 그 연령층의 몸에는 큰 변화가 없는 누드로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그 모
델들은 거의 예외없이 카메라의 시선에 잡혀 있다. 고개를 살짝 돌리며 등의
선을 만들거나, 탕 안에서 다리를 모으거나 몸매를 만드는 모습,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포즈, 탈의실 풍경에서의 자세 등 많은 부분 미를 의식하면서 지
어내는 기호화된 표정과 자세가 보여지는 것이다.



변명

전2권
정길연 장편소설

같은 맥락에서 박화야가 찍은 신체부분에 대한 이미지도 대단히 미학적이다. 박화야 자신의 말처럼 살이 찌고 주름이 젖어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 그들의 모습이 미스코리아나 수퍼모델보다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육체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과 현실적인 시선이 병행하지 않고는 그 본래의 의도를 살리기는 어려운 법이다. 실제로 카메라라는 것은 어떠한 불균형의 육체라도 미스코리아의 육신보다 더 육감적으로 미화할 수 있게 마련이다. 오히려 미스코리아의 공인된 미보다 그것이 더 외설스러울 수도 있다. 문제는 정해진 미의 편견이나 기존관념보다는 카메라를 통해 미의 개념을 얼마나 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낼 수 있는냐에 있다.

매우 아쉬운 이야기지만, 박화야의 목욕탕에서는 목욕탕이라는 장소성에 대한 철저하고도 현실적인 접근보다는 작가와 목욕하는 사람들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나 밀착도에 감동하는, 조금은 인정주의적이고 낭만적인 시각이 더 우선 하며, 목욕하는 여자들을 통해 인간과 육체에 대한 이해를 한국 사회의 문화 풍속적인 측면에서 이루어내는 '외미 만들기'의 의지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누드와 그 이미지가 더 앞섰다고 보아야 하겠다.

사진의 관음증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카메라를 대상에게 더 철저하게 들이대고, 그래서 대상이 되는 모델도 그 시선에 자신을 순응하기보다는 장면으로 맞서도록 하면서 누구든 자신의 초상화에 풍부한 의미층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나는 미국의 여성 사진작가 낸 콜딘을 떠올렸다. 모델로 하여금 차라리 포즈를 적극적으로 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육체를 한 사회의 정치적 지도로, 삶의 모순과 갈등이 의미의 도표로 그려지도록 하는 그 명쾌한 리얼리즘의 시선을 되새겨 보았다. 11



박신의

미술원론가

98년 이후 민중미술, 페이퍼리즘 관련 글과 전시회 조직을 했으며, 시각문화와 미술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비디오 및 영상문화와 미술의 관련성에 집중하면서 동시대적인 미술개념을 얻어내는 입장에서 글과 전시회를 조직해 왔다. 93년 가을에서 98년 2월까지 파리에 머무르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주요 전시회 및 미술기관을 소개하는 글을 써왔고, 최근 귀국해 한국에서의 활동을 재검토했다. 현재 파리 루브르(소르본) 미술사학과 한국파리장소에 있으며 미술사와 사진, 영상예술에 대한 강의와 글쓰기를 하고 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옛사랑
남은 불박이 장롱 같은 존재, 아내

* 소설부문 종로 2위, 교보 3위, 영풍 5위 *

저민 사랑의 기억이 없는 관계는 모래기둥으로 세운 집.
그는 옛사랑으로 돌아갔다. 이제 나는 혼자 남았다.
그의 선택은 온당했다.



전화 324-2347 팩스 324-2348

이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정하 산문집

* 비소설부문 종로 2위, 교보 3위, 영풍 6위 *

출/발/항/과/외/로/움/에/익/숙/해/지/는/연/습

내가 무슨 죄입니까,
사랑이 죄지.

걷다 보니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지 않기로 수없이 다짐해 놓고
 오늘 또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난처한 얼굴로 돌아서지만
 내가 무슨 죄입니까, 사랑이 죄지.

자음과모음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최재의 신간

▶ 김지통 지음 / 신국판 / 288쪽 / 값 8,000원

독자
소문
소문
소문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 사이
전세계를 장악한
일본 문화의 파워와 현주소를 모르고
개방 여부를 논할 수 없다!

나는 일본 문화가 재미있다

김지통(金智通)은 1964년에 태어났으며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평소엔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대중 문화의 총체적 마니아였던 그는 일본의 대중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덕분에 어느덧 비평가의 안목을 갖추었다.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일보)에 '김지통의 일본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일본 대중 문화에 대한 종합 평론을 시작했으며 일본 문화 전반에 걸친 생생한 정보와 독특한 관점이 드러난 그의 글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책은 기존의 일본 문화 소개 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주체적, 공격적으로 일본 문화를 접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진취성을 독자에게 전달하려 한다.

일본대중문화비평가 김지통의 일본 문화 제대로 읽기



명진출판 전화/ 02)312-5364
팩스/ 02)393-5214

● if의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정결세대 - 옥시

정결세대, 정결한 가족, 정결한 우리 공간을 지켜주세요!
정결세대 옥시, 정결한 정결세대입니다.

Oxy

가격이 저렴하니까
IMF시대에 안성맞춤입니다

팅커벨 네센스



스티커를 떼어내면
향이 솔솔~

공기청향제 하나라도 IMF 시대엔 부담없게!
넓은 공간을 위한 공기청향제 「팅커벨 네센스」

요즘같은 때 공기청향제 하나도 부담되지요? 저렴한 「팅커벨 네센스」가 새로 나왔어요. 스티커 탈착식의 간편한 용기와 3가지 타입의 유려한 향기가 오래 오래~ 이제 저렴한 「팅커벨 네센스」로 실내 곳곳을 향기로 가득 채우세요.



팅커벨 네센스는 3가지 타입: ROSE GARDEN(산뜻한 정미향), POWDERY(부드러운 파우더리향), EXOTIC FRUITS(시원하고 상쾌한 열대의 정열이 느껴지는 향)

좋은날에 더욱 돋보이는 우리옷



옷에도 격이 있습니다
우아한 우리옷



“국수맛은 국물맛!”

“후루룩~ 역시 국수 국물은 시원해야지!”

“꿀~쩍! 엄마, 국물 좀 더 주세요!”

이제, 맛있는 국수요리엔
샘표 국시장국입니다

국수맛의 비결은 국물맛 -
하지만 제대로 된 국물맛 내기가
쉽지않죠? 장맛 전문가, 샘표가
만든 새롭고 깔끔한 국물맛을
만나보세요.
육수국물처럼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국물맛, 샘표 국시장국 -
이제, 국물맛은 샘표에게 맡기고
국수만 준비하세요.



샘표 국시장국으로 맛있는 국수 요리들 즐기세요!
• 많이 드실 경우에는 국수장국 물의 비율을 1:1로 맞추십시오.
• 조금 드실 경우에는 국수장국 물의 비율을 1:4로 맞추십시오.
• 국수요리 오일, 무침, 생선조림, 김치장 등도 요리에도 제 맛을 냅니다.
• 냉면 국물에도 깔끔한 맛을 냅니다.

나라마다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포천중문 의과대학교’가 있습니다



• 21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상징,
VERITAS는 라틴어로 '진리'를 의미하며,
학문의 진리·삶의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열망을 형상화 한 것이다.



• 설립정신인 C.H.A.를 형상화 한
포천중문 의과대학의 상징,
C는 기독교적 이웃사랑의 정신(Christianity),
H는 조화와 화합의 정신(Harmony),
A는 연구와 탐구의 정신(Academic)을 의미한다.

세계속의 한국의학, 한국속의 세계의학을 자랑하는 치병원의 업적과 명성으로 설립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국내 최초 나팔관 인공수정 아기 탄생,
세계 최초 미성숙난자 체외배양에 의한 임신과 출산 성공,
불임 생식의학 분야에 200여 편의 연구논문 발표 등
기초·생식·유전학 분야에서 그 독보적인 연구성과로
미국 TIME지에 세차례나 소개된 바 있는 종합병원 그룹 '차병원' -
그 38년간의 명성을 바탕으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가 탄생했습니다.
제2의 허준, 제2의 하프크리프스를 꿈꾸는
21세기 노벨의학상 후보들을 위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
국내 최고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명문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설립 2년만에 국내 최고수준의 신용 명문 의과대학으로 부상한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신입생 6년간 등록금 면제(의예과), 기숙사 시설 제공(의예과·간호학과),
전원 컴퓨터 지급, 1인 1석 창단도서관, 2개 외국어 의무교육,
매년 1회 이상 해외 의료봉사 실시, 미국·호주 등 세계 유수의
의과대학과 교환학생 제도를 통한 세계 의학교육의 현장 체험 등
전세계 어떤 의과대학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최고의 엘리트들을 위한 최고의 특전 -
연간 150여원에 이르는 차병원 재단의 과감한 투자와
간호학과 신설을 통한 '건강과학 종합대학'의 토대 마련이
의과대학 역사상 최단기, 최고성장의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고의 의학을 배우는 가장 빠른 길!
포천중문 의과대학교로 오십시오.

의학교육의 새로운 명문 -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통교리 198-1 우편번호 487-800
Tel : (0357)543-2111, Fax : (0357)543-2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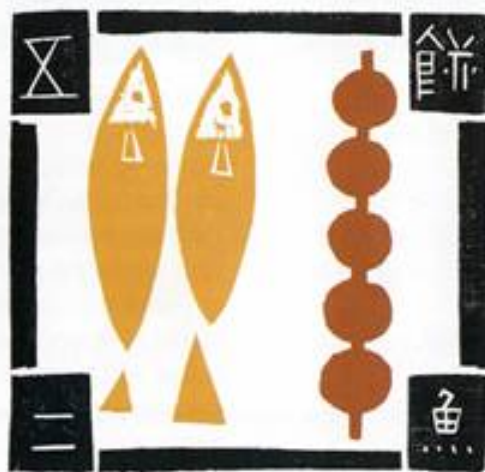
6년간 등록금
면제(의예과),
기숙사 시설 제공
(의예과·간호학과)





둘로 나눌 수 없는 생명

사랑의장기기증은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나눔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비영리법인으로, 장기를 이식받으면 살 수 있는 환우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1991년 1월 22일 창립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건강사회,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64번지 충정타워 6층 ●대표전화 (02)706-0101 (24시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산하에는 사랑의각막은행, 사랑의장기은행, 사랑의골수은행, 사랑의백은행, 신장병어린이후원회가 있습니다.

10
창간 10주년

대한민국, 다시 태어나자
여성이 이끌어 가자



여성신문



김태원(고려대 명예기자 · 경영학부 96학번)

김형신(이화여대 명예기자 · 영문과 96학번)

지성의 오작교

익숙하지만,
늘 새로운 만남입니다.
대학 · 대학인 · 사회가 만나는
매주 목요일,
캠퍼스라이프는
독자들에게 기쁨을 나눠드리는
오작교가 될것입니다.

믿음직합니다

캠퍼스라이프를 발행하는 중앙전자 · 출판(주)는 3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중앙그룹 산하 회사로 중앙정보처리학원, 중앙컴퓨터아트스쿨, 중앙정보처리(주) 등의 계열사와 함께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방학중에 발행하지 않는 다른 대학신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1년 48주 연중무휴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합니다

92년 9월 17일 창간, 10만부 발행, 대학생 선호도 1위 신문... 확실한 광고효과를 입증하는 캠퍼스라이프만의 자랑입니다.

디지털 캠퍼스라이프

온라인을 주도합니다(www.campuslife.co.kr). 매일매일 수시로 네티즌과 대화하는 새로운 방식, 아르바이트 정보 · 오늘의 네티즌 · 캠퍼스 핫 폴 등 신선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1992. 9. 17 창간

대학신문

캠퍼스라이프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67-11 중앙사옥

TEL : (02)312-5901(교)200

FAX : (02)312-6321

REVIEW

THEATER

동거, '별명의 사랑인가', '적과의 동침'인가
(월동)과 (엄마, 안녕...)이 보여주는 같이 살기

MOVIE

고개속인 남자, 고개 든 여자
(생과부위자료원구소송)과 (시티 오브 엔젤)

EXHIBITION

여성의 일상에 관한 경배
사진전 (부엌)과 미술전시회 (나에게 간다)

CARTOON

여자들이 보여주는 맛깔스런 우정과 사랑
유시진 (꽃)과 천계영의 (오디션)

바로 이 책

비디오도 힘이 된다

BOOK

김홍희의 『페미니즘 · 비디오 · 미술』
11가 뽑은 가을의 책 / 주목받는 책 두 권

동거, '불멸의 사랑인가, '적과의 동침' 인가?

〈원룸〉과 〈엄마, 안녕...〉이 보여주는 같이 살기



아숙인

올해 초 소설 『학교는 다들 나를 사랑한다』를 펴낸 작가. 이번 글은 원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편의 무대를 독자들에게 충실히 전달하고자 써보았다. 지상 연극원룸의 기분으로 읽어주세요.

만약 같이 사는 사람이 어느 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과연 잘 하고 있는 걸까? 난 상처가 두려워. 혹은...

—이젠 지쳤어. 난 쉬고 싶어.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게다가...

—난 이제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치고 싶어. 안녕... 나 오늘 밤 죽을 거야.

그러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될까?

부모의 통제와 간섭이 싫어 섣불리 결혼 생활에 뛰어들 친구가 '후라이팬에서 튀어 올랐더니 화덕에 쑤셔박힌 꿀'이라 탄식하는 소릴 들었다. 이제 그런 탄식이나 후회 대신 실업이든 계약이든 따로 또 같이의 형태이든 함께 산다는 것의 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 사는 걸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여기 두 편의 연극이 있다. 선택에 의한 동거 이야기 〈원룸〉. 그리고 가족이라는 우연으로 만나 얹힌 모녀 이야기 〈엄마, 안녕...〉.

지난 7월 막을 내린 극단 〈에우〉의 〈원룸〉에는 두 쌍의 동거커플이 등장한다.

두 개의 침대, 두 대의 전화와 컴퓨터가 놓인 무대에 밝고 노란 조명이 화사하다. 20대 대학생 커플 연정과 승대는 함께 있고 살고 생활비도 아끼고 학교 앞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한 사이. 매사 딱 부러지는 연정은 '남들에게 동거 사실 알리지 않

기, 사생활 간섭받기, 가사일 분담, 생활비 할 같이 분담, 섹스는 화수 주 수요일에만 하기. 단 이 조항은 쌍방 합의하에 가변적임' 등의 동거수칙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사람 좋은 승대를 앞뒤로 물어붙이지만, 때로 자신의 삶의 방식에 회의와 불안을 느끼는 디자이너 지방생.

그 주위를 기타 하나 둘러매고 넥살롱게 정중거리는 승대, 유복한 집안 출신 경영학도지만 가업을 잇는 대신 록커가 꿈인지라, 앞날은 다소 불확실한 편.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면 객석까지 새롭달콤



30대 중반의 부부 연정과 주연의 앞날을 음미하다



〈원룸〉의 대학생 동거커플

행로를 부인하고 '결혼 하지 않기, 아기 안 갖기,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등을 조건으로 원룸에 거주한 지 7년을 맞는 짝. 지방대학 전임자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은진의 일 때문에 둘은 주말커플이 되었고 주연은 이런저런 삶의 궤적 끝에 지금은 자동차를 팔고 있으나 그나마 간헐간 멍한 지경. 그의 곤한 눈빛은 여성의 전화 상담원까지 겹쳐 바빠 돌아가는 은진의 나날을 무겁게 응시한다.

'젊은 여성작가 초대시리즈'라는 기획 아래 이난영이 쓰고 윤우영이 연출한 〈원룸〉에는 이처럼 빛깔이 다른 두 커플이 교차로 등장하면서 이 시대 동거커플의 모양과 속내를 마치 TV드라마처럼 경쾌하고 매끄럽게 그려냈다.

극단 〈산울림〉이 개관 13주년을 맞아 지

한 레몬향이 번진다.

반면 어둡고 푸른 조명이 지난 시절의 잃어버린 꿈을 말해 주는 듯 30대 중반 커플 은진과 주연의 일상은 우울하다. 둘은 각자의 꿈과 일을 위해 일반적인 결혼의

난 7월까지 무대에 올린 작품은 〈엄마, 안녕...〉이다. 미국의 여성작가 마샤 노만이 쓰고 윤여정이 번역했으며 임영웅이 연출했다.

막이 오르면 전형적인 미국 남부농가의 내부가 나온다. 거실 가운데 벽에 걸린 시계는 연극의 공연시간과 일치되는데 이는 마치 '조용한 폭발'과 같은 극의 흐름에 관객을 효과적으로 몰입시킨다. 어느 한가로운 토요일 저녁, 두 모녀가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딸은 엄마에게 메니큐어를 발라준다고 하고 엄마는 손 씻을 준비를 한다. 엄마는 어느 때처럼 덩 덩하게 딸과 이야기를 나누며 의자에 편히 앉는다. 그때 던지는 딸의 물음들이 바로 자살용 소품을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었음에도, 다락 속 아버지의 권총을 낚은 구두 상자에서 찾아 손질하며 딸은 엄마에게 불쑥 이렇게 말한다.

—엄마, 나 오늘밤에 죽으려고 해요.

홀로 남겨질 엄마를 위해 새 케이크를 주문하고 냉장고를 정리하는 딸. 그런 딸에게 엄마는 죽으려는 이유를 계속해서 캐묻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엔 결코 맞닿을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자살을 말리는 엄마의 설득이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들(어릴 적부터 시작된 간질발작,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저지른 외도, 하나뿐인 아들의 비



손숙과 정경순이 일어난 (엄마, 안녕...)

행,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을 헤집는 과정이 되고 딸의 대우는 소소한 일상(낮잠, 수다, 간식 등)에 몰

려 딸에게 무심했던 엄마를 후려치는 채찍이 될 뿐. 그들의 거리는, 서로에게 가했던 침묵 속의 기만은, 양탄자 밑으로 자꾸 밀어넣었던 티끌과 먼지가 되어 꾸역꾸역 피어오르고 있다.

너흰 왜 함께 사니?라고 했을 때 '사랑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 <원룸>에서 연정과 승대의 답이라면, '이상과 목표를 위한 의기투합'이 온진과 주엽의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핑가에 의해 조금씩 흔들리며 원룸 안을 서성대기 시작한다.

애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년의 상태인 연정과 승대, 그들은 부모로 상징되는 사회의 통념과 권력 앞에 동거 사실을 숨기기 급급하다.

—나는 언제나 착한 딸이었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징징대는 연정을 두고 주섬주섬 짐을 꾸려 잠시 원룸을 떠나는 승대, 그 뒷모습이 몹시도 경송하고 맥이 없어 보인다. 잠시 후 재회를 기뻐하기도 전에, 사랑에 실패한 친구의 자살기도를 듣고 다시 불안에 휩싸이는 연정, 둘은 결국 자립도나 장래

성이 불확실할 때 동거라는 삶의 형태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그 한시성을 드러내고 만다. 한편,

—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비참한 여자들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수많은 상담사례들, 온진은 결혼을 '새장'으로 여기는 반면 주엽에게 결혼은 아늑한 '둥지'다.

—친구들이 집들이 안 하나요 다그치면 할 말이 없어. 부모님께 손주 안겨드리는데 효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고... 내 바람이 지나친 거야?

둘 사이의 간극은 깊어질밖에. 그런 어느 날, 온진은 원하지 않던 임신에 하게 된다.

영리하고 야심만만한 여자는 왜 여전히 딱정벌레에다 알파하게 그려지는지, 페미니스트는 왜 상처의 반복을 두려워하기만할 뿐 상황을 깨닫거나 정면돌파하지는 못하는지 감압함을 누르는 사이 아무튼 <원룸>은 끝을 향해 나아간다. 연정과 승대의 동거는 100일을 맞아 선물과 파티라는 감동의 물결을 연출하는 것으로 슬쩍 위기를 모면하는 반면, 온진은 주엽에게 끝까지 임신사실을 숨긴 채 그를 보내고 주저앉아 호느끼는 것으로 말이다.

<엄마, 안녕...>에서 모녀관계 역시 과묵으로 치달는다.

—엄마 잘 몰라. 엄마 죽어도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

—살면서 알고 겪는 것은 반도 되지 않아. 그저 당하는 거지...

—아버질 모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난 아버지 사랑했어.

—사랑이 뭘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니?

—뭘 달라지게 하나요? 그게 중요한가요? 사랑은 그저 핑가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 하지만 그게 다예요.

—제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줄곧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가 그토록 외로웠다는 걸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니? 제시, 내 아가 날 용서해다오. 날 용서해다오. 난 니가 내 전 줄 알았다...

그리고 한 밤의 총성이, 고막을 찢을 만큼 몹시 크게 울린다.

'과거에 저당잡히지 말기, 불투명한 미래에 휘둘리지 말기'. 이는 그나마 20대 커플이 원룸에서 계속 살게 되는 이즈음 '동거의 수칙'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서로에게 솔직하기'까지 보탠다면 온진 역시 주엽을 보내 놓고 홀로 호느끼지는 않았으리라. 하지만 무엇보다 <엄마, 안녕...>에서 딸 제시의 독백은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이 다른 누군가와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격조건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래요, 엄마. 난 나를 잃어버린 거에

요. 살면서 한 번도 기다리던 날 만날 수 없었어요... 내가 찾고 싶고 언젠가 만나게 되리라 믿던 내 자신, 그 모습을 이전 영영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엄마에게 그나마 좋은 상대도 되지 못해요... 엄마, 안녕...

만약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그에게는 그런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될까. 여기 함께 살던 아내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내면의 동굴로 들어가버린 어느 무용가의 독백이 있다.

"나의 아내는 많이 생각하지만 거의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호느끼기 시작했다. 내 목구멍은 눈물로 꽉 차 올라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호느껴 울었다." (박명옥 지음/『너무 밝은 시대에 너무 절제 이 세상에 오다』 중 '니진스키' 편)

물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관계를 갈아먹는 것의 본명한 정체이리라. 인간의 얼굴을 나날이 메마르게 하는 숨겨진 덧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덩이줄기 식물처럼 여럿이 한 데 풍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간단히 뽑아낼 수 없는 모양을 지녔을 게다. 그 줄기의 단초를 던지지 귀뱀에 주는 좋은 연극을 오늘도 관객은 기다린다. ■

고개숙인 남자, 고개 든 여자

〈생과부위자료청구소송〉과 〈시티 오브 엔젤〉



목해정

60년생
이대 사학과 졸업.
인간사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과한 욕심으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
그 때의 역사를 바라보던 눈과
열정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
그러나 나이의 무게는
살이 큰 덩어리만큼
이해되는 것은 아님을 느끼게
한다.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영화라는 장이 그래서 좋아졌다.
현재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동국대 대학원 영화과에서
만학중이다.

여름이면 쏟아지는 불독버스터의
홍수 속에서 기상천외한 무기와
무수한 죽음에 질식하게 된다. 그 가운데
서 인간의 육체, 감각에의 흥미가 잃혀지
는 두 작품이 눈에 띈다.

문학과 영화에서 슬하게 보이던 전쟁으
로 인한 성적 능력의 상실과 그에 대한 여
성의 욕망 속의 대응이 이제는 고전에서나
찾아지는 것. 21세기를 앞둔 한국에서는

남자의 성적 능력 저하는 그놈의 대기업
때문이고 잘난 마누라에 대한 위축감 때문
이다. 최소한 영화 〈생과부위자료청구소
송〉에서는 그러하다. 채털리부인처럼 주
체할 수 없는 성욕을 불륜으로 풀지도 않
고 영화 〈화이트〉에서처럼 남편을 목사발
로 만들어버리는 소송으로 가지도 않는다.
아주 건전한(?),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소송을 거치면서 갑자기 두 쌍의 부부는

〈생과부위자료청구소송〉, 남성의 삶내음이 그림자는 한국의 이경자(황신혜)와 그의 남편 추형도(문성근).



"여성들이여, 육체의 욕구에 충실하고 담당하라."

화해를 한다. 그런대로 한 부부에게는 소
송과정에서 추억어린 편지를 통해 잊혀진
사랑을 확인한다는 논리성을 개입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 부부의 경우, 아내의 송소
라는 결과에 발기부전증까지 보이던 남
편은 느닷없이 아내에게 다가간다.

평소 "영화는 즐거워야 한다"라는 주장
을 하는 강우석 감독. 그는 이번 영화를 나
름대로 진지한 시각에서 다루었다고 한 인
터뷰에서 밝혔다. 그래서인지 영화의 시작
은 삶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 시장통과 서
울의 빌딩숲을 길게 훑어주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극적 맥락으로 보아 불필요한 부도
난 친구의 자살소동까지 보여준다. 그 동
안 반메미니스트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
던 것을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 영화는
소송 당사자인 이경자(황신혜)와 변호사
이기자(심해진)의 강한 연대를 보여준다.
땀에 보이던 이경자는 법정에서 이기자의
남편이자 대기업측의 변호사인 명성기(안
성기)를 매순간 당황하게 만드는 발언을
한다. 그녀의 남편 추형도(문성근)는 아내
가 아닌 대기업의 편에 서 있다.

"남편은 적이에요." 어느 날 이기자는
이경자에게 전화를 한다. 그뿐인가. "아,
쫓판아"로 시작하는 엘리베이터 속에서의

이기자의 욕설은 욕설의 대가 명계남(대
기업 이사 역)의 코를 납작하게 한다.

이처럼 영화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전선
을 사이에 두고 외관상 여성의 승리로 끝
나지만 대기업 대 가정이라는 또 다른 축
의 전선에서는 IMF를 맞이하여 고개 숙
인 남자에 대한 한없는 동정으로 관객을
유도해 간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추형도는
자살하려는 친구에게 "새끼는 어찌라
고... 자식 기죽지 않게 키워야 되잖아"라
고 외칠 줄도 알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
하고, 공항에서 아내와 자식 생각에 비행
기표를 찢어버릴 줄도 아는 생활인이다.
그런데 아내 이경자가 성적 권리를 찾는
실생활에서의 모습은 어떤가? 황당한 나이
트쇼와 또 다른 의미의 고개 숙인 여자(가
슴을 보여주기 위해)의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는, 생활이 없는 여인으로만 등장한
다. 이렇게 과잉 회화된 여성의 성은 "여
성들이여, 육체의 욕구에 충실하고 담당하
라"는 영화의 메시지를 퇴색시킨다.

한국에서 드물게 법정을 무대로 해서 나
름대로 메시지와 대중성을 결합시키려 했
다는 것, 어느 정도 변화된 여성상을 보여
준 점 등 박수를 쳐줄 부분이 없는 것도 아
니다. 그런데 돌연 발견하는 이 영화의 광
고카피, 태극기 아래 쓰여진 문구, "남자
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비야그
라가 필요 없는 남편, 강철 남편." 고개 숙

남자천사의 역할은 언제나 보호자. 해결사다.

재미있는 것은 백인남자로만 등장하던 천사는 이 영화에서 다양한 피부색을 하고 나온다. 그렇다면 여자천사가 보호자가 되는 새로운 천사이야기의 버전업은 언제쯤이나 기대할 수 있을까?

인 남자를 강조하다 보니 영화가 전 복되어 읽히면 이런 결론으로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광고문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구조조정기에 고생하는 삼십대 남성들이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남성기자의 영화평. 이 영화를 보면 소설 『아버지』가 떠오를 뿐이라는 한 친구의 관람평은 이 영화가 이끄는 결론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남성의 살내음이 그림다는 한국의 이경자. 이제 거꾸로 여성의 살내음이 그리워 천사의 위치를 버리는 미국의 천사 세스의 이야기.

"백 라이언은 주름은 자글거려도 여전히 귀엽다." "니콜라스 케이지의 표정연기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는 따라갈 수 없어도 그런대로 점수를 받을 만하다." <시티 오브 엔젤>을 보고 나오는 여대생들의 대화내용이다. 배우로 승부를 보겠다는 듯이 영화는 관객에게 다른 것은 다 삭제시키고 두 명의 내로라 하는 배우만을 남긴다.

빔 벤더스의 <베를린 천사의 시>를 리메이크했다는 이 영화. 천사의 휘날리는 검은 외투자락의 복장과 도서관에서 상주, 육체의 감각은 아

름다울 수 있는 것이며 천사는 추락하여 인간이 되기도 한다는 설정은 그대로 빌려왔다. 그러나 현실의 인간들의 속마음이 천사의 귀에 들릴 때 속삭이는 듯한 음성과 음악이 주는 소리의 매력, 각종 인간들의 고민, 그 철학적 진지함은 고스란히 <베를린 천사의 시>에 남겨둔 채 영화는 리메이크되었다. 그 자리에는 '운명적'이라는 정체 모를 사랑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

여의사 메기(백 라이언)는 수술과 정에서 한 환자의 죽음의 운명을 되

돌리지 못한 아픔을 겪는다. 이런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천사 세스(니콜라스 케이지)는 늘 그녀의 주변을 떠돈다.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세스는 추락하여 인간이 되기로 한다. 추락 장면이 편집과 음악으로 효과가 극대화된 후, 세스는 자신의 피를 만지며 현실의 인간으로 살아 있음을 기뻐한다. "단 한번이라도 미리내움을 맡으면 어떤 천국도 버릴 거야"라고 되뇌이던 세스는 여러 가지의 감각을 즐긴다. 드디어 메기를 만난 세스는 인간으로서 감각의 최대

백라이언과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시티 오브 엔젤>



사랑하지 않을 땐 거절할 줄도 아는 메기

치를 느끼면서 하룻밤을 보낸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기에는 너무 상부적이었는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메기는 두 손 놓고 자전거타기를 하며 오다가 차에 치어서 죽음에 이른다. 그리고 나오는 "That's life"라는 대사. 추락한 천사가 현실의 감각의 즐거움, 사랑뿐만 아니라 "That's life"라는 허무함까지 깨닫는다는 듯이...

남자천사의 등장은 할리우드 영화사에서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년대 고전인 <어느날 밤에 생긴 일>에서부터 최근의 <보거스>까지. 남자천사의 역할은 언제나 보호자, 해결사다. 재미있는 것은 백인남자로만 등장하던 천사는 이 영화에서 다양한 피부색을 하고 나온다. 천사의 군상을 카메라가 쓸듯이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LA에 사는 인종의 수만큼 다양한 피부색의 천사가 등장한다—물

론 상업적 배려로서 백인은 물론 흑인도 동양계도 보인다. 그리고 예상치 않게 한 여자천사도 예의 그 점은

이 영화 속의 세스에게는 전통적인 남자천사의 역할에 낭만적 사랑이 첨가된다. "천상에서 배운 지혜를 현실에서 펼치고 싶어"라는 것이 추락 동기가 된 <베를린 천사의 시> 속의 천사와 달리 세스는 오로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추락한다. 할리우드의 액션에 지친 관객들은 이런 사랑이야기의 향기가 그리워서 <시티 오브 엔젤>을 찾는다. 여기에 <잉글리쉬 페이션트>의 촬영, 음악 팀이 가세해서 낭만을 고양시킨다. 천사의 눈높이와 인간의 눈높이에서 골고루 비쳐지는 영상은 그런 대로 흥미할 만하다. 그런 사랑이야기에 젖어보는 것도 다 인간의 욕구의 하나일진대 뭐 나쁜 일이겠는가.

그러나 그런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전문직 여성인 데다 사랑하지 않을 땐 거절할 줄도 아는 메기는 달라진 여성의 모습을 반영한 포장일 뿐, 결국 사랑은 보호본능을 자아내는 백 라이언의 전형적인 캐릭터에 의해 짝든 것이다. 약한 척, 귀여운 척 그러지 않으면 사랑은 다가오지 않을 것만 같다는 것을 암암리에 주입하는 캐릭터는 이제 외면당할 때도 됐지 않았을까? 수많은 여성이 극장문을 나서면 허해지는 것은 천사와의 사랑이라는 설정이 허무해서가 아니라 백 라이언 같은 여성상의 허무함 때문은 아닐는지. [11]



여성의 일상에 관한 경배

홍미선 사진전 〈부엌〉과 이진경 전시회 〈나에게 간다〉



오해주

나도 홍미선이나 이진경처럼 예술을 하고 싶어할 때가 많다. 특히 사진기를 들고 나의 주변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아마도 많은 여성들이, 기존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 싶어할 것이다. 요즘들어 사진기와 같은 데 여성들이 많이 몰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여,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대로 표현하라. 분노이든 화살이든 오기이든 희망이든. 당신들이 느끼는 것에 확신을 가져라.

부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물론 부엌은 음식을 해먹는 공간이다. 아니, 하고 먹고 치우는 곳이다. 더 나아가 수다와 사교의 공간이요 휴식의 공간이요 음악감상, 독서, 글쓰기, 사색의 공간이다. 그곳은 부엌가를 생산하는 공간이며 누군가를 배려하는 공간이며 개방된 공간이다. 홍미선(39)의 전시를 알리는 엄서에 쓰인 글귀를 인용해 보면 "식탁의 쾌락은 모든 연령과 모든 조건,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날들에 공통된 것이다. 식탁의 쾌락은 모든 쾌락과 결합될 수 있고, 모든 쾌락을 상실한 뒤에 우리를 위안하기 위해 남아 있는 마지막 쾌락이다—브리아 사바랭."

홍미선의 부엌

부엌 사진을 찍은 전시(7.1~7.30/ 서남미술전시관)가 있었다. 전시를 알리는 엄서를 집에서 받아보고는 보러 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다. 그 엄서는 마치 유명회사의 싱크대를 선전하는 듯한 예쁘고 행복하게 꾸며진 부엌이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런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나?" 하는 의문 뒤에는 사실 약간의 분노가 묻어 있기도 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일 거야" 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익히 들어온 작가의 이력은 "원

가 있을 거야" 하는 거대를 하계를 했고, 전시장을 찾은 나는 그 엄서사진이 그 중 가장 예쁘고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그만 공간이지만 상당히 알찬 전시를 해온. 그리고 주로 사진전시를 해온 전시장은 조그만 카페였다. 거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의 '부엌' 사진은 너무 관치해서 나의 성급한 판단을 반성하게 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은 작가는 그의 외할머니, 올케언니, 동생, 친구와 부엌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부엌은 세대에 따라, 가족형태에 따라 개념면이나 기능면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제사를 치러야 하는 할머니의 부엌, 한강식백반으로 그득한 어머니의 부엌, 김치를 담그기 위해 여러 양념과 함지박이 필요한 부엌, 아이들을 위해 혹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랑스러운 부엌, 인스턴트나 간단한 음식을 선호하는 신세대의 부엌 등등. 각

홍미선, 〈Kitchen〉, 사진, 1988



홍미선, 〈Kitchen〉, 사진, 1988

각의 부엌은 7~8장의 사진으로 한 세트를 이루고 있었고 그것은 옛날 조각보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모든 부엌을 관통하는 것은 차분하

고 긍정적인 작가의 시선이다. 사진들은 깔끔하고 풍요로운 부엌의 모습을 담아낸다. 물론 여성지에 나오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부엌광고와는 다르다. 작가는 공부하는 학생처럼 진지하고 조심스럽다. 천천히, 차분히, 성급한 결론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 것 같다. 그의 부엌은 바쁘고 지저분한 모습, 땀 냄새와 쓰레기 냄새보다는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때로 쓸쓸한 주부의 모습도 포착되지만—구수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하다. 작가는 말한다. "부엌은 나에게 있어 생명의 힘을 주는 장소이다. 여러 부엌을 돌아보며 부엌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자 하였다. 이번 전시는 음

식에 관한 나의 관심의 시작이다." 밥을 나누어 먹으면 장이 커진다고 했던가.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런 밥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인류의 '원초적 본능'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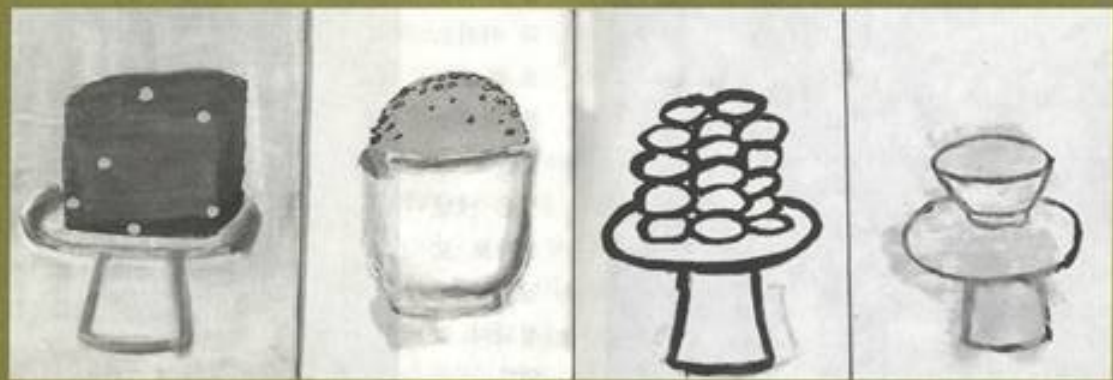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이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떠나 온전히 그 본질을 유지하기란 힘들다. 이 따뜻한 공동체와 공간인 부엌이 '가부장적' 공동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엌은 더 이상 부엌가 생산해내는 활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부엌에 대한 그라운드 상수로 가득한 작가는, 부엌에서 일어나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회사와 살림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 답답함을 느껴본 여성이라면 그런 사진에 만족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홍미선의 사진은 너무도 건강하고 솔직하며 담백하다. 부엌이나 음식이라는 주제를 택한 것도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무궁무진한 세계, 얼마나 많은 해가들이 숨어 있는가. 작가가 조곤한 더 다른 맥락들에 신경을 쓴다면 아주 감동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이진경의 텃밭이 무너

여기 홍미선이나 이진경이 또 한사람 있다. 이진경(32)의 〈나에게 간다〉(7.15~7.26/ 금호미술관) 전시장은 귀가(電氣)

'자기도취'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약간 들기도 하지만, 아주 자유롭게 느긋하게 자기 작업을 즐기는 이진경의 태도는 매우 독특했다. 세상에 큰 걱정거리가 따로 없는 듯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튼 것 같은 태도, 아주 작은 것에서 우주를 발견하려는 듯한 그의 이러한 태도에는 확실히 종교적인 구석이 있었다.



이진경, 〈떡·밥·경단·술〉, 천 위에 아크릴릭, 1997.

어린 무척(符籍)으로 가득했다. 뽕뽕이 무늬와 파란색이 뽕어내는 기운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국밥', '뽕뽕', '바다맛집' 등의 글자를 쓴 일종의 문자도(文字圖)와 뽕뽕이 무늬, 떡·밥·경단·술 등의 제사음식, 어린 뽕뽕이 해보았던 좋아인형 그리기와 옷 갈아입리기, 간단한 회와 폭포와 여자원굴, 바다가의 방파제 등, 그가 그린 그림들은 부처처럼 신비하나 아주 친숙하게 다가왔다. 그 친숙함은 그가 택한 소재가 친숙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소재에 다가가는 방법이 친숙하기 때문인 것 같았다. 즉, 아주 작은 것,

일상적인 것을 눈여겨 보는 습관, 기본적으로 서정적인 감수성, 과잉되지 않은 어떤 겸손함 같은 요소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하였다.

한편으로 약간 '자기도취'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도 하지만, 아주 자유롭게 느긋하게 자기 작업을 즐기는 그의 태도는 매우 독특했다. 세상에 큰 걱정거리가 따로 없는 듯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튼 것 같은 태도, 아주 작은 것에서 우주를 발견하려는 듯한 그의 이러한 태도에는 확실히 종교적인 구석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엄숙한 느낌보다는 친숙한 것이었는데, 바로 '무당'의 스

김이었다. 아니, 좀 심하게 말하자면 어릴 때 동네어귀를 돌아다니던 '무숙자(無宿者)'의 느낌이다. 자기충족적이고 억압이 없고 바깥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들의 느낌이 전시장을 떠돌고 있었다.

무당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큰 지점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아주 거대하고 추상도 높은 진리를 이끌어낸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이진경을 그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그의 '뽕뽕이' 무늬나 '국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의 '뽕뽕이'를 보고 느끼는 감정의 파장은 어디까지 뽕어나갈 수



이진경, 〈뽕〉, 천 위에 아크릴릭, 1997.

있는가?

물론 아직 어린(?) 작가에게 무당의 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진경의 작업이 내게 주었던 힘은, 일상적이거나 주변적인 것들에 대한 깊고도 신비로운 사색의

가능성이었다. 그것의 표현이 곧 부적이 될 수 있었고, 그 부적은 여성들의 경험과 일상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여자들이 보여주는 맛깔스런 우정과 사랑

유시진 <쿨햇>과 천계영의 <오디션>



오은하

1969년에 태어났고, 학교 재학 당시 신문 학생기자를 거쳐 졸업후엔 번역, 출판편집, 자유기고, 신문기자, 잡지기자 등 '글'을 가지고 보통사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섭렵(?)한 끝에 요즘은 만화에 대해 글을 쓰는 데에 이르렀다. 왜 나는 남이 편가를 해놓은 후에야 그것에 대해 쓸데있어 따르는 일밖에 할 줄 모를까 불평할 때도 있지만, 지면을 통해 많은 아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특권에 대해 싶은 것이 감사하고 있다.

유시진과 천계영.

요즘 여성만화계에 뚜렷한 주제를 그리고 있는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이들이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 그리고 문하생 생활을 거치지 않은 작가경력의 등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뛰어난 스토리 구성력과 생생한 캐릭터 묘사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공통된 덕이다. 요즘 이들이 만화잡지 '핑크'에 연재하고 있는 <쿨햇>(유시진)과 <오디션>(천계영)은 각각 학원물과 음악만화로 발췌는 다르지만, 치밀한 구성력과 스피드감 있는 연출, 다양한 캐릭터들의 맛깔난 장으로 인해 막상 막하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 만화는 또한, 여성들끼리의 관계와 우정 묘사에서도 섬세하고 독특한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실, 이 두 만화는 여성끼리의 우정에만 초점을 맞춘 작품들은 아니다. <오디션>은 음악에 천부적인 소질을 갖춘 네 명의 소년들이 모여 그룹을 만드는 이야기며, <쿨햇>은 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어린저런 남녀학생들의 실존적 고민과 사랑, 인간관계와 여러가지 무녀를 그리는 작품. 하지만 유시진과 천계영, 이 섬세한 두 작가는 특유의 감수성으로 여자들끼리의 우정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명을 비추고 있다.

먼저, <오디션>을 보자.

글자와 음악계별 송송그림의 후계자 송

명자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네 명의 천재소년을 찾아나선다. 천부적 음감을 지닌 장달봉, 천사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황보래용, 탁월한 리듬감의 소유자 류미끼, 음악의 세계를 폭넓게 섭렵한 국철 등 네 소년을 우여곡절 끝에 추적해내 결국 그룹을 결성한다. 이들은 전국규모의 오디션에 출전, 우승을 통한 데뷔를 꿈꾸며 맹연습을 한다. 이들 넷이 모여 하나의 음악물이 루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져 있으며, 작가의 만만찮은 음악지식과 자료조사로 <오디션>은 보는 재미가 가득한 만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 주요 줄거리와는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하면서도 간파할 수 없는 캐릭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송명자를 도와 이들을 찾아내고 그룹결성을 돕는 '자칭 탐정' 박부옥이다. 탐정은 모름지기 바바리를 입어야 제멋이라고 믿고 있



<오디션>, 라이벌지간인 송명자와 박부옥.



<오디션>에서 개성있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재활용 밴드'의 멤버

는 박부옥은 송명자를 조수로 부리며 패감을 맛본다. 이유인즉슨, 송명자와 박부옥은 고교시절 라이벌지간이었다는 것. 둘 다 흰철한 큰 키에 보이쉬한 스타일로 고등학교 재학시절 동료 여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어떤 일인지 송명자의 인기가 언제나 한 수 위였다. 박부옥은 이 점을 상당히 골렘했던 데다가, 결국 자신의 팬들을 송명자에게 고스란히 빼

앗겨버린 경험이 있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얄미운 송명자가 자신에게 사건을 의뢰하러 와 간곡히 부탁하는 데다가 현재로서는 유산도 한 톨 못 물려받은 알지지 신세가 아닌가(네 소년을 찾아내 오디션에 합격시켜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상속녀다). 박부옥은 이제야 말로 송명자를 마구 부릴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기쁨에 젖어 심하게 굴린다. 밖에서는 조수, 안에서는 식모, 이것이 박부옥이 송명자에게 부여한 위치다. 그래서 자기는 간자장 먹을 때 송명자에게엔 보통자장을 시켜주고("어떻게 탐정이 조수와 같은 레벨의 음식을 먹나") 저녁식사후 자기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송명자에게엔 설거지와 다음날 취사준비를 지시한다. 천방지축에 다혈질인 자신이 미처 생각 못했던 단서를 송명자가 먼저 찾아내면 깎아내고 면박주기 바쁘다.

하지만 둘이 동고동락하며 온 나라 전구석을 뒤지고 다니는 동안, 둘 사이엔 변화가 일어난다.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못 미더우면서도 박부옥을 찾아온 송명자, 송명자라면 눈물날 정도로 얄미운 박부옥, 이 둘 사이에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박부옥은 송명자의 냉정해 보이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혼자서는 많이 울고 있겠지" 하며 마음 속을 헤아려줄 수 있게 되고, 송명자는 언젠가 돈 많이 벌면 부옥



여자들 사이의 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쿨햇>의 표지

이에게 시원한 여름용 캐기바바리를 사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박부옥은 탐정 의상은 곧 바바리라고 믿어 삼복더위에 바바리를 끼입고 비지땀을 흘린다). 둘의 미묘한 감정변화와 우정. 그리고 연대는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찾아내 결성해낸 '재활용밴드'의 성장과 활약상을 돋보이게 해주는 잔잔하고도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내며 <오디션>의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

유시진의 <쿨햇>은 작품에서 여자들 사이의 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디션>의 경우보다 좀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자에

같은 여자에 루다. 남자라면 아무런 관심 없는 루다. 실은 누구에게도 별 관심이 없는 루다. 그러나 어느날 루다에게도 사랑이 찾아온다. 같은 반 아이 동경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비록 동성끼리지만 사랑이라고 이름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고 무한하며 바닥을 모르는 우정이다. 하지만 동경이는 불우한 가정환경 탓으로 주위 누구에게도 신뢰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차가운 아이. 자기의 성이 건고한 까닭에 누구의 접근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무시한다. 이런 동경이의 얼음장 같은 가슴을 미묘하게나마 동요하게 만드는 루다의 접근을 보노라면 정말 애처로울 정도다. 하지만 루다는 타고난 굳건함으로 결국 동경이에게 다가가고, 동경이도 유보적인 태도긴 하지만 마음문을 연다. 이 과정에서 둘은 각자 변화를 겪는다. 루다는 사랑이란 존중이며 이해임을 배우게 되고, 동경 역시 아무도 없는 어둠 속보다는 가능성이거나 우정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훨씬 따뜻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동경이지만 자신 쪽에서 먼저 끌리는 상대도 있다. 동경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 영전은 선배라는 위치만이 아니라, 타고난 너그러움과 이해심. 그리고 지적인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자신의 실존적 고민을 이겨나가는 학생이다. 영전은 동경을 사람들의 바다로 이끌어내주려고 하지

<쿨햇>은 사람들의 성격과 위치만큼이나 다양한 만남과 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설득력있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만, 동경은 자신의 건고한 성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낸다. 동경은 그러는 사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뭔가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나간다. 이렇듯 <쿨햇>은 사람들의 성격과 위치만큼이나 다양한 만남과 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설득력있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디션>과 <쿨햇>. 두 작품의 종류는 다르지만 여성끼리의 맛깔스런 우정에 작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여성작가들의 인간관에 있을지 모른다. 결국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소재가 축이 되든간에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 인간들 중 절반은 여자이기 때문이다. 성인만화 독자층이 적어 둘 다 여학생지에 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작품들에서 펼쳐지는 세계는 작가들 또래 많은 여자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며 결국 우리 자신의 우정이야기인 것이다. ■



비디오도 힘이 된다

본격 페미니즘 미술서, 『페미니즘·비디오·미술』



전미란

이 책으로 여름 휴가를 냈다. 사대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 탓으로 해마다 휴가 때면 사대에서 보내게 되는데, '술고 뒤고 먹이고 차우고'를 돌림노래처럼 되반복하는 시험부 시집살이 동안, 이 책 읽기는 마치 전방에서 오는 위문편지 같았다. (부모님을 오시고 있는 동서 얼굴이 자꾸 걸리는 대서 자만...) 사막에서 샘으로 가는 길 하나를 안듯 이 책에서 발견한 것 같은데, 나도 언젠가는 비디오를 몰라보고 그 길을 뛰어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페미니즘 미술에 관심을 두고, 공부할 시작하려는 이들은 이내 난관에 부딪힌다. 페미니즘 미술에 관한 논의는 무성한 듯 보이지만 관련 책자나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번역된 너댓 권의 번역서를 훑고 난 뒤, 새로운 책을 기다리는 일은 지루한 갈증이다. 더구나 거친 번역서의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은 변변히 독자들을 오리무중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한 문단을 이해하기 위해(오역하기 위해?) 한나절을 바쳐야 하는 비천한 영어실력으로라도 아쉬운 쪽에서 자료를 찾아 더듬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다 보면 싱싱하던 초발심은 이내 노쇠해지는 것이다.

우리 미술계의 파워우변 김홍희씨가 최근 출간한 『페미니즘·비디오·미술』(재원출판사)은 이러한 갈증에 대한 후련한 응답이고, 소중한 성과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로 쓰여진 본격적이고 충실한 자료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더없이 반가운 이유는, 아직도 언어와 인식구조의 지역적, 생리적 차이가 학문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는, 덜 매력은 코스모폴리탄이어서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학문이란 이름의 가치중립적 글쓰기와 구별되는 살아 있는 논리가 흐르고 있어서 신선하다. 원본이 작가의 홍익대 서양미술사학과 1호 박사논문이란 점은 다소 의외여서, 보수적인 미술사학과에서 페미니즘 미술이론을 최초의 박사는

문으로 삼은 것은 그 이미지 색인에 기여 하리라 생각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페미니즘 비디오미술이 지니는 해방적인 힘과 가능성을 논의의 골자로 삼고 있지만, 제목 사이의 방점에 주목하여 페미니즘, 비디오, 그리고 미술을 각각 떼어내 읽는다 해도 무리가 없다. 페미니즘 입문서로도, 페미니즘 미술 개론서로도 동시에 충실하다는 얘기다.

그럼 왜 비디오인가?

IMF 이후 늘어난 실업자들을 위무하며 동네에 골목마다 대낮부터 성업중인 것이 비디오 가게들이고, 그렇게 비디오는 우리 생활을 속속들이 잠식하고 있지만, 기실 그것은 영화장르의 영악한 변신이다. 미술에서 얘기되는 비디오란, 백남준을 우선으로 연상시키는 국제적이고 첨단적인 무엇



발리 엑스포, 〈임신한 마몬나〉, 페르민스 1976.

으로, 대단한 듯하나 이해하기 힘든 다소 억압적인 매체로서, 내가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대세에는 하등 위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비디오인가?

이 책은 여성들이 여성 자신과 여성현실을 성찰해 가는 적극적인 도구로서, 비디오를 새롭게 '발견'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페미니즘 비디오아트, 형식중심의 모더니즘이라는 퇴행적인 회귀를 방해하고 간섭하면서, 어떻게 포스트모던을 몸으로 실천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비디오 아트의 탄생과 전개의 파노라마

를 보자.

백에 따르면 백남준에 의해 시작된 비디오아트는 65년 이후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중 비디오와 모금으로 널리 확산됐다. 이 시기 비디오미술은 예술성이냐, 정치성이냐의 구분없이, 일방적인 TV의 소통방식에 대항하는 '쌍방향' 소통방식으로서, 그 자체가 진보의 실천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예술가들의 미학적 관심이 점차 중대하면서 대안적 TV로서의 이념보다는 미학을 내세우는 모더니즘 비디오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비디오아트는 제도화, 형식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생애적으론 포스트모던한 비디오가 형식주의 모더니즘에 편승하면서 '장다리 장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남성들의 담론을 거스르며 나는 출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선언하는 여성들의 등장과 함께, 비디오미술은 페미니즘과 접목되기 시작했다.

"비디오는 자궁의 보복"이라고 말한 구보다 시케로는 아기를 업고 다니듯 카메라를 메고 여행하면서 비디오 전자인기를 찍는다(그녀의 남편이 백남준). 나비호인 디언들의 삶, 특히 원주민 여성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그녀는 '남성적 힘의 구조'에 집착하지 않은 여성의 윤리를 발견하는 페미니즘 인기를 켜다. 나는 최근에 비디



린다 벵글리슨, '일도'를 부착한 자신의 공격적 이미지를 포스터로 제작하고 '아브모름'지에 광고로 게재했다.

오테이프 만피트를 출혈했다"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비디오작업은 한가한 미학논의가 아니라, 여성적 삶의 내용성을 치열하게 담보해 내는 것이다.

비디오는 기계라서 다루기 어렵다고 생

각되지만,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매체였다. 누천년 미술사의 성과(?)인 여성소외의 역사를 아직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여성들의 경험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서술적인' 매체여서, 고정적이고 단일하고 분명한 남성적 감성보다는, 흐르고 비교정적이며 애매모호하고 즉각적인 여성적 감수성에 더욱 부합한다고 말한다. 비디오가 힘이 되는 것이다.

책의 상당 부분은 페미니즘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사실 비디오라는 동영상 매체를 찍어내는 정적인 매체로 담아내는 쉽지 않은 일인데—동영상을 스틸로 잡아서 입자가 거친 사진들이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한계이긴 하지만—작가는 정확하되 풍부한 언어로 작품내용과 의미고리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때문에 논문은 재미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손을 놓기 힘든 논문읽기라는 기이한 체험으로 유도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소하는 것이었지. 그러나 그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빵을 축내는 땀벌레라고 불렀어." 할머니와 손녀, 세대가 다른 여성들 간의 소통을 다류적으로 담은 카라 드 비토의 <언제나 네 남편을 사랑하여라>, 남성들의 미술작품 속에 침입하여,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미지를 수정하고 남성미술사

를 뒤집는 허먼 프리드의 <아트 히스토리>, 여성의 빛은 몸을 키와 가슴둘레뿐 아니라 머리카락, 유방, 성기 크기까지 측정하고 이를 표준사이즈와 비교하는 퍼포먼스, 마사 로슬러의 <인체측정>, 피물은 탐폰이 변기 속 물에 변지면서 그려내는 붉은 선 묘를 담담하게 따라가는 마코 이데미츠키의 <여성이 만든 것> 등은 1세대 비디오작가들의 작품이다.

반면 2세대들은 '정치와 미학, 재미와 공포, 꿈과 현실, 쾌와 불쾌, 미와 추를 화해 공존시킨 해체적 방식'을 차용한다. 남성들의 영역인 야구장에 침입하여 선수들을 관능적 시선으로 대상화시켜 찍은 바날린 그린의 <야구장의 스파이>, '페미니스트 동화'를 통해 재래적 여성관을 해체하고, 여성의 전복적인 성욕과 폭력성을 그로테스크하고 낯선 방식으로 보여주는 시舍利아 켄덜의 <미시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디오를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찾는 도구로 사용했던 '비디오계의 마돈나' 새디 페닝의 레즈비언 비디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작가는 1세대적 특성을 나르시즘으로, 2세대적 특성을 그로테스크로 설명하는데, 특히 90년대의 신체담론과 결합된 그로테스크 미학을 설명하는 대목은 이 글의 백미라고 할 만큼 해방적이다.

먹고 배설하고 교미하고 생산하고 통교



마사 로슬러, <인체측정>, 사진.

하는 그로테스크한 신체는 '비천함'을 역설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오욕을 정화시킨다고 말한다. 가장 낮은 비천함을 끌어안고 뒹굴며(침과 피와 끈끈한 분비물과 배설물로 뒤범벅된 신체를 상상하라, 어미애이러언이나 피범벅의 캐리 등) 오히려 남성적 담론을 '위반하고 전복'하는 것이 그로테스크 미학이라 할 것이며, 페미니스트 비디오 미술가들은 이 그로테스크 전략을 통해서, 홀대받던 여성의 언어를 의미의 영역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외된 채, '변방의 변방'으로 존재해 왔다는 페미니즘 비디오미술의 가능성을 충격적으로 재발견하도록 한다. 그러나 개인이 만든 비디오가 상영되고 유통될 수 있는 조건들이 전제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풍토에서는 아직 요원의 빛일 뿐이라니...

if 가 뵈은 가을의 책

우리가 성에 관해 알고 싶은 것, 그러나 하이틴 로맨스에도, 포르노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김성애, 이지연 지음 · 또 하나의 문화 펴냄



이 책은 포르노, 로맨스, 자위, 키스, 섹스, 임신, 낙태 등등을 침대들의 솔직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언어와 감수성에 맞게 펼쳐놓았다. 침대를 위한 일종의 '섹스북'인데 무엇보다 주체적인 성적 결정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혹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다 해도 이겨내고자 하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 나이는 좀 들었어도 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황금요정 이야기

바바라 G. 위커 지음 · 박해란 옮김 · 트인들 펴냄

『혹설공주 이야기』의 작가 바바라 G. 위커가 이번엔 남성위주의 신화와 전설을 창작에 가깝게 개작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었던 로우키라는 어린 신의 장난으



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남신들의 지위는 격하되고 그 자리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여성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 '신들은 왜 최후를 맞게 되었나?'를 비롯해 중세 기사들이 목숨 걸고 찾아다녔던 '거룩한 가마술'—생명과 죽음의 끝없는 순환을 관장하는—은 다음아닌 여성(의 자궁)이라는 내용의 '바이버 경과 거룩한 가마술' 등이 실려 있다.

자린고비의 죽음을 예도함

윤영수 지음 · 장작과 비경 펴냄



「은혜받은 까치」, 「토끼와 거북이」, 「혹부리영감」 등 전래민담 11편을 독특한 윤영수식 문체로 패러디했다. 표제작 「자린고비의 죽음」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소비'를 하면서 살아간 인간으로 새롭게 정의

된 자린고비의 삶을 통해 인류가 계속 생존해갈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나무꾼과 선녀」를 사슴의 시점으로 재구성한 「하늘 여자」는 이프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아름다운 기억 1·겨울

한림화 지음 · 중앙 펴냄



봄·여름·가을·겨울 전 4권 중 첫번째 겨울이야기다. 책장을 넘기면 가난했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유년의 추억들이 펼쳐진다. 검정타이어 고무신과 동동구리무, 겨울철 고기잡이를 나가신 아버지 등 1950년대 중반, 다섯 살 여자아이의 눈에 비친 제주섬의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잔하게 그려져 있다.

헝가 게버트의 페미니즘 동화

헝가 게버트 지음 · 이영희 옮김 · 샘터 펴냄

여자를 '성녀 아니면 악녀'라는 이



분법으로 규정하는 역사는 참 오래됐다. 그러나 전세계 민중들에 의해 구전되던 전래동화에는 성녀와 악녀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등장한다. 아주 다양한 모습의 인간적인, 그러면서도 씩씩한 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전래동화 모음집.

학교는 다다

이숙인 지음 · 실천문학사 펴냄



폭력적이고 막힌 학교구조 속에서 날개가 꺾여버린 교사와 내몰려지는 학생, 바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과 꿈을 버리지 않고 바다로 가고자 한 바람,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심각한 교육문제를 여교사와 남학생의 만남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10대들의 화법을 담은 작가의 문체와 감각이 독특하고 신선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리소설적 기법으로 교육문제를 식상하지 않게 짚어내고 있다.



태양의 여왕

크리스티안 자크 지음 · 홍은주 옮김 · 문학동네 펴냄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사랑하는 남자의 운명까지도 빚으려 했던 여자, 불과 열아홉의 나이에 스스로 '태양의 여왕'의 자리에 오른 아케자의 생애를 복원한 소설. 『람세스』의 작가가 만들어낸 여성판 『람세스』.

살아남기—여성, 생태학, 개발

만다나 사비 지음 · 강수영 옮김 · 숲 펴냄



인도의 철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만다나 사비는 여성 환경운동가다. 왜 개발 프로그램이 보편적 진보를 낳지 않고 부의 편중과 또 다른 빈곤의 가속화, 여성의 종속화를 낳는가를 구체적 사례로 분석하고 있어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세계와 여성성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먹고 싶다, 그러나 마르고 싶다

김준기 지음 · 푸른숲 펴냄



이 책은 다이어트 방법론을 담은 책이 아니다. 어떻게 여자들이 다이어트 노이로제에 걸리고 있는지를 심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진단한 책이다. 날로 늘어나는 거식증·폭식증 환자들의 임상사례를 토대로, 현대여성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분열을 심도있게 파헤치고, 다이어트 노이로제에서 벗어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자가 인생을 망치는 열가지 방법

로라 슬레장어 지음 · 형신호 옮김 · 황금가지 펴냄



어리석은 얌매임, 어리석은 구애, 어리석은 헌신, 어리석은 열정, 어리석은 동거, 어리석은 기대, 어리석은 임신, 어리석은 복종, 어리석은 투정, 어리석은 용서...

나이가 어리건 많건간에 사랑이라

는 이름으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미리 알고 피하면 지혜로운 여성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하는 책.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인생을 망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라.

여성과 사회 제9호

한국여성연구회 편·창작과 비평사 펴냄



'1990년대, 성평등의 신화와 불평등의 현실'이 이번 호 특징이다. 1990년대 여성은 과연 살 만해졌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책은 한국 여성이 처한 현재 위치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짚어봤다. 90년대에 제정, 개정된 여성관련 입법에 대한 평가, 사랑과 결혼을 둘러싼 담론의 분석 등이 그것.

사랑을 느낄 때 먼저야 할 질문들

양말순 지음·정년사 펴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지, 성숙한 사랑을 방해하는 생각들은 무엇인지, 사랑의 상실에서 벗

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세세하게 알려준다. 사랑은 변하는 감정 중의 하나이고, 또 서로가 완벽하지 못함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점검해 보면 좋은 말들이 실려 있다.

슈퍼우먼 죽다

정미경 지음·실천문학사 펴냄



슬픈 우리 30대 여성들의 자리잡지 못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을 통해 진정한 가족과 결혼의 의미를 묻는 소설. 30대 여성들이여, 슈퍼우먼을 꿈꾸던 착각의 보퉁이를 내 속에서 끄집어내 쓰레기통 속에 던져버려라!

바닷가 마지막 집

전경란 지음·생각의 나무 펴냄



사춘기시절을 온통 점령했던 강요된 여성성에 대한 「평범한 물방울무늬 원피스에 관한 이야기」, 가출하는 엄마를 이해해 가는 12살 소녀의 이

야기 「밤의 나선형 계단」 등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슬픈 것들을 드러내고 묶은 것을 푸는 것이 나의 글쓰기"라는 작가의 말처럼 고통스럽지만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인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언니

정경희 지음·중앙M&B 펴냄



같은 외모의 육체 안에 전혀 다른 영혼이 존재하는 쌍둥이 자매, 늘 비교의 대상이고 영원한 라이벌이기도 한 자매의 이야기다. 모든 면에서 극적이고 당당한 언니와 그 언니로 인해 상처받으며 성장하는 동생의 삶은 수많은 자매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집짓는 여자

이덕화 지음·박이정 펴냄



편안하고 안락한 집, 아름다운 '아내'의 정형을 요구하는 남편, 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설계를 통해 찾고 싶어한 옴미는 적극적인 노력과 결단

으로 꿈을 이루어나간다. 여자들의 주체성 찾기는 가정의 파괴가 아닌, 정말 새롭게 집을 짓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닐까.

엘리베이터

송경아 지음·문학동네 펴냄



엘리베이터라는 폐쇄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욕망의 다양한 모습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만난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추락하고 있다!

있을 법하지만 쉽사리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 사건을 날카롭게 포착하고 극도로 확장된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송경아의 소설집.

심야통신

배수아 지음·해냄 펴냄



아버지의 손바닥으로 맞아 눈동자가 돌아간 소녀 (4번 버스를 타고 떠나다), 성장이 늦되어 무관심과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나의 첫 개』),

아버지의 강요로 매춘을 해야하는 소녀 (『구애』) 등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밖에 현대인의 고독과 그리움이 음울하게 그려져 있는 「전전한 부르조아의 도시」, 「여점원 아디니아의 짧은 생애」 등의 단편이 실려 있다.

달팽이

김재현 지음·물비 펴냄



결혼 10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운, 자신을 버리고 간 첫사랑의 남자와 자신을 짝사랑했던 친구 남동생의 출현, 그리고 남편의 외도... 좀 뻘뻘 레퍼터리지만 그녀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첫길

김백려 지음·열린책들 펴냄

각자의 배우자와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리 나쁘지 않은 일상에 과몰입해 살아가던 서른일곱 살의 소설가 김이주와 조각가인 서지형의 운명 같은 사랑,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다.

숨 막히도록 절절하고 지독한 사랑,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에게 헌신해 온 자신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덜 주는 것이 이혼보다는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동반자살을 선택하는데... 일부일처제 가족제도 안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하여 당사자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소설.

육조 속의 세 사람

비바라 포스티, 마이클 포스티, 레다 레다디 지음·한재일 옮김·세종서적 펴냄



오이디푸스에서 니체, 우디 앨런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영혼들의 삼각 사랑 이야기. 오로지 단일한 성, 단일한 배우자, 단일한 가족을 상대로 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고는 이제 더 이상 보편적 가치가 아니다. 이 책은 또 다른 사랑의 형태로서의 삼각연애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삼각연애를 시도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역사에 남긴 업적에 대한 기록으로 이 책의 저자 세 명은 십년이 넘게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삼각연애에 대한

문자들이다

카밀 처칠 화곡집

카밀 처칠 지음 · 이자훈 옮김 · 평민사 펴냄



페미니즘 드라마작가로서 명성을 굳혀가고 있는 카밀 처칠의 대표작 「비네가 탐」과 「클라우드 나인」이 수록돼 있다. 「비네가 탐」은 17세기 유럽에서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 죽은 여성들을 상징하는데, 이같은 여성혐오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클라우드 나인」은 오르가즘을 나타내는 은어로 성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과천미인

안일순 지음 · 초당 펴냄



연립주택 단지의 수돗물 싸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일상의 모습들이 그려진 「을이네」, 역사의 아픔이며 상처인 장기수 할아버지를 뿐 아니라 병들어 버려진 개 한 마리도 정성을 다해 거두었

던 실존인물을 다룬 「과천미인」 등 생생한 리얼리즘이 살아 있는 안일순의 단편소설집.

변명

정길언 지음 · 이문 펴냄



당신의 남편이 첫사랑의 여자와 새롭게 사랑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조건없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면? 십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의 사랑할 권리를 인정해 주고 혼자 남은 '나'는, 그러나 인습과 제도에 얽매인 관계가 더 이상 진실이 될 수 없음을 차분하게 역설한다. 그렇다면 이제 결혼은 더 이상 영원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안전지대일 수 없는가.

그의 여자

영아남 배론하임 지음 · 이원희 옮김 · 작가정신 펴냄

유부남이라고 자신을 밝힌 토마스에게 강하게 끌려 그와의 혼전



각설방, 콘돔봉지 등—을 모으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부인과 아이들을 상상하며 '몰래 하는 사랑'의 은밀한 쾌락을 즐기는 클레르. 그런데 토마스가 미혼이었음이 밝혀지고 그녀와의 결혼을 원하게 되자 클레르는 그와의 혼전들을 미련없이 없애버린다. 여성들의 일탈 욕망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작가의 또 다른 소설 「금요일 저녁」도 나와 있다.

단독비행

제롬M. 앤더슨, 수전 스몰우드 지음 · 양영태 옮김 · 또 하나의 문화 펴냄

미국에서 가족 치료가로 일하는 두 사람의 독신 여성이 파넌, 심리학적인 현상 분석이자 개인의 적응을 돕는 교양서이다. 이 책 전체에 나타나는



수많은 독신 여성들은 성공적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 준다. 이들은 열한번째 계명이라도 되는 양 엄숙하게 명령하는 "서론이 넘었으면 독신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현사회의 지배적인 견해를 거슬러 사는 법을 익힌 여성들이다. □

글 윤숙경

주목받는 책

여성의 역사 4권 상 · 하

조르주 페르, 미셸 페로 지음 · 원가은 장나원 옮김 · 새물결 펴냄



프랑스의 일간지 「리베라시옹」지는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여성의 역사」를 꼭 한 번 목숨 걸고 읽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조르주 페르, 미셸 페로 등 유럽 6개국 70여 명의 일급 학자들이 수년 동안 공동으로 작업한 끝에 출간한 이 책은 총 5권 10책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와 풍부한 내용을 자랑한다. 게다가 다채롭고 풍성한 시각적 자료를 담고 있어 세계 주요 역사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책임을 서구에서는 이미 인정한 바 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읽어볼 만한 책. 게다가 "지난 30년 동안의 여성운동이 아니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페로의 말처럼 이 책은 단순히 이론적 선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담론의 시대'가 종언을 구했다고 하고, 「제3의 물결」을 내놓은 미래의 전도사 토글러는 '거대주의'의 종말을 예고하지만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진시황, 나폴레옹, 박정희 등 온갖 거대한 남성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다. 하지만 이 책 4권 마지막 논문의 제목처럼 "이제는 이제야 비로소 새롭게 탄생한 반면 아담들은 늙을 대로 늙을 지도 모른다."

새물결출판사가 첫번째 발간한 「여성의 역사」 4권 19세기판—계몽의 시대, 여성에게 이성은 없다—에 담긴 내용은 그 시대배경 설명으로부터 시작해 여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미지와 현실의 세계를 꼼꼼하게 짚어보고 있다.

또 막 시작된 페미니즘의 역사와 그 당시 여성들의 글쓰기도 첨부하고 있어 그야말로 타임머신을 타고 19세기 서구에 가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그 시대에 역사의 표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지식인들을 바라보는 남성지식인들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남성중심의 지성사를 이해할 수 있다. 까이유 클로델의 비극적 운명과 니체와 릴케, 프로이트의 연인이자 동료였던 루 살로메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남성들은 근친상간에 대한 두려움과 감성적인 것에 대한 공포나 혐오 등의 형태로 끊임없이 여성(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영국의 소설가 로렌스는 여성적인 것을 모성으로 환원시키려는 '페미니즘 운동'을 지원하며, 소설 속에서 이상의 세계를 구축한 남성적인 세계의 거대한 몰락과 여성에 대한 외경심을 동시에 형상화했다. 니체는 실제로 그의 삶이 그렇듯이 여성적인 것에 대한 혐오감과 동경을 복잡다단하게 표현했다. 이처럼 문학, 철학, 법, 프랑스 혁명, 위험한 성, 여성노동자, 가톨릭과 유대교를 비롯한 종교 안에서의 여성적인 것의 동향, 여성 이미지 등 온갖 분야를 아우르며 19세기 내내 여성과 여성적인 것이 겪어온 역사를 탐구하는 이 책은 여성이라는 타자의 삶이 얼마나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거품 아래로 깊이

김정환 지음 · 생각의 나무 펴냄



깊이있는 글쓰기로 주목받은 시인 김정환씨가 여러 곳에 발표했던 자신의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문학평

론, 시사칼럼, 그리고 생활수필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그가 출판한 첫번째 예세이집이다.

그의 「거품 아래로 깊이」를 읽으면 갑자기 진지해진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미학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진지'라니, 따분하다고 하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진지함'은 어떤지 따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의 글이 진지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유는 뭘까?

우선 그의 생각은 교과서적이지 않다. 이 책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그는 세상살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것, 성공한 것, 주류에 끼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묻는다. 너 정말 그러냐? 그런 다음에 아주 꼬장꼬장하게 문제들을 짚어내고 가져와 이 비판해낸다.

그 비판은 신랄하지만 변하지 않고, 단호하지만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그는 남산골 생남처럼 못맞춰지만 고루하지 않다. 게다가 그의 글은 읽는이에게 신뢰감을 주는데 그건 그가 아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문열의 「선배」와 우리 사회 보수화에 대한 비판과 진단은 아주 탁월하다.

그의 글이 가차없는 비판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책은 세상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하다. 그는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 그 상태에 못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상태로 몸을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피해해가는 세상살이를 보듬고 살리는 데 관심이 많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찰을 주제로 한 1부를 지나 여성문제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있는 2부와 필자 개인의 삶을 풀어낸 3부에서는, 그의 여성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일까. 그의 비판에 귀기울이고 있으면 갑갑한 것이 아니라 후련해진다.

난나의 if 세상

선녀와 나무꾼 그 후 2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 그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연 2회(봄·가을)모집 : 일년과정
고졸 및 고3재학생 남녀·주부반 특별모집(주, 아)

- 국가기술자격증 전원 취득.
- 입학 후 아르바이트 제공
- 수료 후 취업 100%
- 간호전문대·보건대 특별전형 진학
- 기숙사 시설 완비
- 해외 진출과 외국유학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간호 조무사의 대우

- 국내취업: 처음 취직시 월 보수 75만원 내외
병원경력 1년 이상시 80만원 내외
※ 보너스 300~400%
- 해외파견: 병원근무: 1,400~1,500불(수당 별도)
= 4년제 간호대학졸업자·8급 공무원 대우
※ 1년제 간호조무사 졸업자·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



사회교육의 길잡이 —
이화간호학원
EHWA NURSE SCHOOL

138-19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8-7번지 (롯데월드 석촌호수앞)
TEL : (02)425-0907(대) FAX : (02)425-0950

요즘 길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즉석 스티커사진기이다. 일본에서 먼저 유행했다는 스티커사진은 저렴한 가격과 신속한 서비스로 행인들의 가벼운 노출을 자극한다.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스티커들과의 합성사진까지 연출할 수 있다. 순간의 충동으로 번쩍이는 즐거움을 추억으로 남길 만도 하겠다. 언제부터인지 놓칠 수 없는 순간을 알맞은 톤으로 구워내주는 카메라가 앞장을 지키는 관찰자이자 기록자로서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를 보증하는 '증명사진'의 경우, '실재의 나'가 '증명사진'속의 나를 얼마나 닮았는지 되려 시험하게도 만든다.

스티커가 이미지만을 공부한다는 어떤 이론부터 사진의 등장은 예수님의 등장만큼이나 혁명적인 '사건'이라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진 이전(B.P)과 사진 이후(A.P)를 기준으로 세상을 훑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법 그럴싸한 얘기로 고개를 끄덕인 일이 있는데, 카메라의 서터소리는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범한 일상의 사건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감초다.

남과 다르고 싶은 욕구, 그러나 남과 닮고 싶은 욕구

때때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의차량의 맨앞에 검은리본으로 X자가 그려진 영정을 보노라면 음산해진다. 저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나기는구나. 가는 것도 서러울 텐데 왜 하필 검은리본으로 얼굴을 그어놓았을까? 저 얼굴은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보는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겠지...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들 한다. 한번은 물리적인 죽음, 또 한번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의 죽음. 하지만 카메라의 등장 이후, 어떤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무른다. 오래 전에 죽은 무용가 최승희가 오늘날 TV에 나와 춤을 추고 사진 김수영은 자신의 시집 안에서 고독에 찬 표정으로 여전히 턱을 괴고 있으며 이미 몇 번의 제철상을 받으신 아버지도 언니의 결혼식 비디오 테이프에서 가끔씩 걸어나온다.

사람은 두 번 산다고들 한다.

사람뿐 아니라 사자되지 않는, 불들었으나 불들리지 않는 수많은 추억의 부표들은 짧은 순간의 '노출'을 통해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것이다. 그 노출의 기회가 잦을수록 한 사람의 족적은 잘 짚힌다. 그래서인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그가 속했던 계보학적 구성원의 가족수첩에는 '생존' 기억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생존' 기념을 기억시켜 주는 의례적인 사진들이 몇 장씩 꽂혀 있다. 기억할 만한 순간보다는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속옷 사업으로 성공한 모 연예인이 몇 년 전 일간지에 자신의 나체광고 연작을 내보이면서, 마지막 광고는 정면누드로 승부를 보겠다고 큰소리 쳐놓고선 아랫도리를 드러낸 둘사신을 대체하는 걸로 슬쩍 넘어간 적이 있다. 만일, 여자아이의 발가벗은 사진이 없다면—그렇게 밟아서 찍은 여자아이 사진을 본 적도 없지만—과다노출로 검열시바라도 걸렸을지 모를 일이다. 사나이의 성기노출(?)이 무슨 훈장처럼 어겨져온 너그러운 사진 덕에 속옷을 꽤나 팔았다는

토론토를 남긴 다소 유치한 광고였지만, 변변찮은 백일기념이나 돌잔치마저 거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재간이기도 했다.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 세상에 공식적인 데뷔를 하는 순간

대개는 백일이나 돌로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아빠, 그 두 사람의 생활반경 안에 닿아 있는 이들에게 정식으로 자신의 등장을 알리면서 대소사(大小事)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모든 노출이 허용되었던 만큼이나 모든 욕구에 대한 색깔도 다양했던 배냇저고리 시절, 건강하고 우렁찬 아기의 백일사진이나 돌사진 속의 부모님 표정들은 당사자인 아기 보다 사뭇 긴장되어 보이기도 한다.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런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하는 표정으로 말이다.

과거, 줄줄이 사랑으로 딸린 영재들 때문에 그 혼한 어린시절 사진 한 장도 건네받지 못했던 반만한 추억의 세대들이 부모가 된 후, 자신들의 2세에 대한 유난한 애정으로 '우리 아이만은 다르다'라든지 '우리 아이도 빠질 수 없다'라는 '차이화'와 '동일화'에 대한 욕구에 부대끼며 베이비포토나 키즈포토 등의 사세확장을 촉진시키거나 아이들의 탤런트화를 유도한 면이 없지 않다.

남과 다르고 싶은 욕구와 남과 닮고 싶은 욕구 그리고 흔적에 대한 소유강박증이 모두들 거쳐가는 통과 의례의 무조건적인 동침을 강요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피사체가 되어 하나의 물화(物畵) 대상이 되었을 때, 진정한 자연적 본성은 사라지고 박재된 표정만이 기억의 사건화에 충실할 뿐이다.

추억이 만들어낸, 혹은 추억을 만든 사진...

우이동 근처의 한적한 주택가에 그린첼트가 풀린 모양인지 거대한 결혼식장 건물이 서너 개가 들어서서 하나의 용대하고 장엄한 성(城)을 연상시켰다. 결혼식장이 들어서자 주변에 마용살이 들어섰고 스투디



거짓말, 거짓말, '진짜' 거짓말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행복했다. 거짓말처럼.”

드라마는 끝났다.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그들에게 마지막 위안처럼 한 마디를 남겨 두고 지난 7월 11일, 역삼역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 드라마 <거짓말>(KBS 2TV)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천라안 소모임 거짓말 방의 사람들이다. 드라마 초기부터 작가 노희경의 거짓말처럼 뻗어난 대사에 영혼을 뺏기기 시작하여 등장인물의 사랑의 방식에 울고 웃던, 그래서 온통 통신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열혈 시청자들. 그들이 드디어 사이버공간에서의 대화를 위한 현실공간으로 끌어내며 말이다 대신 '얼굴'로 만나게 된 것이다.

중앙에 주인공 성우, 준희, 은수의 얼굴이 새겨진 커다란 걸개를 걸고, 가슴에 등장인물의 사진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줄줄이 그들의 대사를 외우면서 만남은 무르익어 갔다. 수줍은 소년의 표정을 가진 연출자 표민수 씨와 허스키한 목소리, 자그만 체구의 노희경씨와 아직 울먹이는 성우의 얼굴을 가진 배종옥씨가 이미 끝나버린 '거짓말'이라는 하나의 코드로 시청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 한 사람의 가슴에 남겨지더라도 시청물로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불륜의 사랑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이란 것이 용서와 희생과 신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 표민수

분명 '사랑'은 있다

근 열 달을 거짓말에 빠져 살았다. '사랑은 없다'고 포기해 버린 사람들에게 분명 '사랑은 있다'라는 거짓말같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유부남인 준희와 미혼인 성우가 헤어지는 것이 방송의 한계 때문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다. 사랑의 기억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니까.” — 노희경



슬픈 주인공 성우(배종옥). 이전에 했던 사랑은 늘 불구의 사랑이며, 뒤늦게 얻은 사랑 준희도 유부남이다.

오가 합세해서 이롭다고 환상적인 커플들의 결혼사진들을 내걸어놓고 사랑에 눈먼 속타는 젊은이들을 고르고 있다.

일상에 단 한 번뿐인—두세 번 하는 능력있는 사람도 있다지만—결혼식을 위해 두 사람의 결혼 자체의 의미는 보류된다. 두드러진 메이크업 사진과 판박이 배치, 편하게 잡혀있는 키스사진이 들어있는 결혼앨범이 없으면 그 결혼이 무효라고 되듯, 걷기도 숨쉬기도 불편하게 카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하는 연인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도깨비처럼 분장에서 나온 결혼사진의 낯설음이 어색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양코로 결혼식을 산채에서 읽어버려(?) 행복찾기를 시도한 후 엉엉 우는 늙은 아주머니 부들도 있다. 무엇이, 다 늙은 아줌마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수줍은 포즈들을 끌어내는가? 추억에 대한 되새김질, 기억에 대한 피드백을 도와줄 증거수집이 필요한 걸까?

당신들 앞에 나도 당신만큼 행복하고 즐겁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열망, 다 가진 행복을 나만 놓치고 있다는 열매감, 물론 그것만이라고 단정짓기엔 사려져가는 순간에 대한 아쉬움의 뭉치 더욱 클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의 기억할 만한 추억과 남길 만한 순간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기억보관장' 같은 기념사진으로 도배되는 것은 연출자 자신들의 삶을 오히려 초라하게 만든다.

당신과는 다른 나만의 삶, 나만의 흔적들이 저마다 고유의 빛깔과 목소리들을 지니려면 각자의 눈 속에 있는 최상의 셔터를 자주 닦아줘야 할 것이다.

가까운 친구가 감정의 젖바퀴를 건다 못해 애써 부은 적금을 털어서 영국 여행을 다녀왔다. 그가 내민 사진 속에는 온한 일파벳 한 자 찍히지 않고 검푸른 바다를 건너가 붉은 노을이든가 붉은 농부들의 모습뿐이었다. 사진의 배경인물들이 외국인만 아니라면 외국인인지 분간도 가지 않을 사진을 보면서 물건너 갔다는 흔적이라도 건져오지 않구 했더니, 가 있는 동안 내내 행복했고 즐거웠다면 그 순간 자신에게 다가왔던 풍경들이 자신에게는 가장 멋있어서 그런 사진을 담았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던 그 순간들은 흐려질 것이다. 단지, 남아 있는 건 그 풍경 속을 거닐면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 그 자체일 것이다.

이제 자신이 거울을 보고 자신을 마주보며 똑·바·로 찍어볼 일이다.

추억이 자신을 만드는지, 자신이 추억을 만들어내는지 똑·바·로 물어볼 일이다. ■

김정복



언제쯤 '의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순간,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가 피곤할 때가 있다. 좀더 무심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뭔가를 항상 '의식'하는 것과 '의도'하는 것은 분명 다른 거지만, 지나친 자의식 과잉으로 늘 행방하게 긴장되어 있는 신경들이 안쓰럽다. 어쩌다 크게 클로즈업 되어 들어오는 나의 옆모습, 뒷모습이 혹시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해서 늘 말머리를 킁킁 거는 기분상대이다. 나 자신을 굳이 설명하려 들지 말 것. 내지는 변명하려 들지 말 것.이라는 의도마저 의도대로 일어난다. 지리한 비가 개인 후, 땀에 비치는 거울빛을 아래 골방내 나는 신경세포를 넣어두고 싶다.



아내의 교통사고로 손을 다쳐 완화를 못하게 된 준희(이성재)

“정말 너무 올랐다. 그토록 사랑하면서 왜 헤어지느냐고? 헤어질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약 같이 잤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은 길이었을 것이다. 성우는 자신의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배종옥

“성우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너무 이른 사랑만 경험한다. 준희마저 성우를 두고 온수에게 돌아가버리면 그 사랑은 배신 아닌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잠깐의 바람이었단 말인가.” —소모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허투름도 같이 잘 수 없었는가. 같이 지기라도 하면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훼손되는가. 게다가 그들은 30대 전후의 성인이지 않은가. 몸을 통한 사랑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아닌가.” —소모임

사청물로 보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그러나 ‘컬트 드라마’라고까지 명명되었던 드라마 <거짓말>, 소모임상 사람들은 드라마의 재방송을 건의하고, 소설집으로 다시 파는 일, 삽입음악을 컴팩트 디스크로 만드는 일을 차차 해나가기로 합의하고 모임을 닫았다.

아무도 가슴에 주홍글씨를 달지 않았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진부한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다. 얼마 전에 막을 내린 <애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배우자에게 애정이 식어버린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 절절히 사랑하지만 굳어진 공식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주인공 중의 한 여자나 한 남자가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그 사랑은 헤어짐을 택한다. 헤어지면서 그들은 말이 많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변명 중의 하나, “당신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되뇌면서, 애초에 잘못된 사랑이었다고 중얼거리면서.

같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경구는 불륜의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거짓말>에서도 주인공 공 성우(배종옥)와 준희(이성재)의 사랑을 바라보는 아숙이라는 선배의 간곡한 충고, “그는 결혼한 사람이야. 같이 아니면 가지를 마” 그 같이 어떤 길일까. 누가 사랑을 말하면서 정해진 길로만 가는가. 드라마 <거짓말>에서 말하는 ‘길’의 의미는 뭘까.

<거짓말>에는 정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거의 없다. 주요 등장인물들은 한두 가지씩의 결핍상태에 놓여 있다. 성우 엄마 영화운여정은 과부, 남편과 사별했다. 그 남편은 살아 생전 다른 여인을 사랑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영화는 그가 다른 여인에게 생의 마지막 편지를 남긴 것을 알아낸다. 성우의 새아버지가 되는 현철(주현), 영화가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이다. 그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산다. 온수(유호정)를 사랑했던 동진(김상중)은 성 불구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온수와 그의 사랑을 포기하고 — 우정이라는 다른 코드로 만난다 — 거리의 부랑아 세미(추상미)에게서 사랑을 느낀다. 동진을 사랑하는 세미, 양

공주의 딸이다. 모진 그리움 끝에 찾아낸 엄마는 세미를 보자마자 자살한다. 세미를 늘 따라다니는 장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병을 앓고 있다. 온수의 남편이자 성우를 사랑하게 된 준희, 온수 때문에 교통사고로 손을 다치고 목숨 같은 완화를 못 하게 된다. 준희의 아내 온수, 먼 외국에 언니 하나밖에 없는 고아. 자궁에 육종이 생겨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남편보다 자신이 더 남편을 사랑한다는 갈증과, 그 남편을 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슬픈 주인공 성우, 이전에 했던 사랑은 늘 불구의 사랑이다. 유부남이거나, 주체성이 없는 미미보이어서 상처만 남기고 사랑은 끝내버렸다. 거듭된 사랑의 실패로 세상에 ‘사랑은 없다’고 단정한다. 하지만 뒤늦게 얻은 사랑 준희도 유부남이다. 이 남자가 세상에 ‘사랑은 있다’는 신뢰를 남기고 떠난다.

이 결핍된 사람들이 가고 싶고, 가이만 할 사랑의 길이란 물론 그 결핍을 채울 정상책이라고 사회가 말해주는 길이어야 한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사회가 규정한 정상적인 길로 진입하는 방법밖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거짓말>은 이상치받은 영혼들이 같이 아닌 길 을 들어섰다가 비로 갈 로 돌아서가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일 뿐이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만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상처투성이의 사랑을 얻기 위해 투쟁할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결론은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다. 혼자된 영화와 현철은 재혼한다. 누구도 그들의 사랑을 비난하지 않는다. 동진도 세미와 사랑을 이룬다. 물론 부모에게는 세미의 출신 성분을 감추고 중국으로 떠난다. 세미의 출신이 밝혀질 경우, 절대로 용납 받을 수 없고, 이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이기 위해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적당히 가려질 필요가 있다. 준희는 성우를 포기하고 아내 곁에 남는다. 그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의 불임의 고통을 그냥 두고 매몰차게 떠날 수 없었다. 성우도 마지막엔 선을 본다. 처음 만난 남자에게서 준희와 비슷한 섬세한 구석을 느껴면서 마음 문을 연다. 둘 다 미혼이므로 이 사랑을 방해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기서 소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등장인물들이 떠나도록 지킨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꿈을 지키는 일이다. 온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남편에게 바란 것은 애오라지 한 가지, “그 여자와 자지는 마”였다. 다 좋다는 것이다. 사랑해도 좋고 자기에게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얻어도 좋다. 그러나 절대 자지는 마를 외친다. 그런 모습은 <애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여졌는데 유동근과 황신혜의 혼외정사가 불발로 끝나는 장면에 서 시청자들은 주인공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다음 생에서 만나자는 말 말고

이런 방송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변연이 살아있는 한계암에 틀림없다. 결국 준희가 온수 곁으로 돌아가 웃을 수 있는 것도, 다시 돌아온 준희를 자기 남자로 받아들이



남편보다 자신이 더 남편을 사랑한다는 갈증과, 그 남편을 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온수(유호정)



21세기식 사랑법과 비아그라

서 기 2071년 11월 어느 날, 아후씨는 오늘 오전에 진료한 남자환자의 증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 환자는 22세기를 코앞에 둔 현대인으로서 어울리지 않게 사이버섹스에 대한 기

파증을 가지고 있다. 일단 시피 현대에는 누구나 소마(Soma)를 곁들인 사이버섹스로 자신의 성욕을 해결한다. 20세기식으로 말하자면 습관성과 부작용이 없는 일종의 최음제인 소마는 중앙감성위원회에서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공급한다. 소마의 지급량에 차별을 두는 제도는 20년 전쯤 폐지되었다. 별집을 모델로 제작된 개개인의 거주공간에는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하나씩 보급되어 있으며, 가동 프로그램 중에 사이버섹스 프로그램은 필수다. 누구와 만나는지 안만나는지, 더 좋아하느니 덜 좋아하느니, 마음이 변했느니 등등의 감정적인 밀고 당기기를 하며 태운 일도 없다. 남녀의 만남에 필요한 거래이동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감정적 에너지 소모량을 합산한 결과, 인류에게는 20세기까지 엄청난 양의 에너지의 낭비, 그로 인한 비용의 손실이 있어왔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21세기 중반부터 교통에너지국에서도 사이버섹스를 적극 권장한 것은 자국이 타당한 일이었다.

부작용과 번거로움 없는 사이버섹스

사이버섹스의 원리는 간단하다. 소마를 한 알 복용한 후 멀티미디어 컴퓨터에 연결된 모자를 쓰고 역시 컴퓨터와 연결된 창대를 원하는 대로 세팅한 후 그 위에 눕는다. 사이버섹스 프로그램 선택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종류의 여성 혹은 남성의 피부감촉, 체취, 온도, 색깔, 소리 등등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날그날 상상하고 싶은 여성, 혹은 남성을 마음 속으로 부르지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동성을 부르건 여성을 부르건 상관없다. 다만 지나친 섹스-매저키즘은 어느 정도 규제하지만, 그런 특수 프로그램들은 암시장에서 몰래 밀거래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다. 어쨌든 21세기 인간은 이런 식으로 부작용과 번거로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오르가즘을 보장받는 것이다.

사이버섹스로 인해 소위 20세기식 피임, 임신 등등의 걱정도 사라진 것은 물론이다. 이제 섹스는 하나의 일상이자 오락이다. 중앙감성위원회가 정신과의사 아후씨에게 보내준 이 남자환자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약 3년 전부터 그는 사이버섹스 프로그램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다. 또 그는 생산 컴파트먼트 소속

온수도, 새로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성우에게도 '몸은 깨끗하다'는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절대로 그들은 가슴에 '간음'이라는 주홍글씨를 달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 역시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아내린다.

그렇다면 선을 넘어서 불륜의 사랑은 어떻게 끝맺는가. 이전의 가정은 박살이 난다. 일본 소설 '실락원'에서처럼, 몸으로 만나게 된 후로는 이전의 가정으로 돌아갈 자라는 없다. 같이 아닌 길을 간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들만의 세계, 곧 죽음뿐이다.

그런 불륜의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사랑했다'는 아주 안아하고 행복한 결론, 이기적인 끝을 준비해 놓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나누어 갖고, 절대 목숨 같은 것은 내놓지 않고, '몸은 깨끗하다'는 당연한 이유를 달고 원래의 자란들 자리로, 물론 이혼하고 슬픈 사랑애에는 틀림없지만, 드라마는 무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어찌 보면 <거짓말>의 대단원이 옳을 수도 있다. 더 이상 파괴되지 않으려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아픔에서 헤어지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사랑한 기억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아니 모두 행복했다면 굳이 결혼이라는 도식적인 끝맺음은 오히려 더 구차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든다. 세상 어딘가엔 뒤늦게 진정한 사랑을 만나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아픔다울 수 있는 순간까지만 진행하다가 '여기서 그만' 하고 헤어지기보다는 사랑의 많은 단계들, 설렘, 두근거림, 연민, 아예, 실중, 미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파스한 아예에 이르기까지 겪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다. 옆자리를 비워두고 백 년 후에 만나자는 그런 말 말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라도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진짜 거짓말 같지 않을까. '남산골 산님 역적 바라듯' 누구나 쉽게 거쳐갈 수 없는 길을 혹시 드라마에서라도 건너가주길 바라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말하면 이것도 거짓말일까. ■

권혁란

이젠 모를 게 없다고 도둑 얼굴을 할 때이다. 생의 틈새에 새롭게 주어지는 과자들이 있다. 나이 탓인가, 집어드는 해마다. 온통 결감의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들 이야기뿐이었고, 비밀이야, 비밀, 이래서 속삭이는 친구들이다 또 그렇고 그런 사랑이야기를 들려주고, 보는 드라마나 영화이다. 뒤늦게 찾은 사랑에 울고 헤어지는 이야기들뿐이었다. 이것도 생애 한 번씩은 건너야 하는 통과시험인가. 재밌게 보고 듣고 읽었지만, 역간은 지겨웠다. 속살거리며 실을 살짝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에 면지를 걸어보고 싶었다. 목숨걸 필요는 없지만, 정말 아무 것도 걸지는 않는 '죽어' 문인 불륜의 사랑이 뭐가 그리 아름다운가.



권혁란

이었는데 남들이 힘들고 불결하다 해서 기피하는 환경 캠퍼트먼트로의 이동을 상심했고,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 연구를 택했다. 그리고 그는 연구소에서 만난 알타(Alta)라는 여성과 소위 말해서 '20세기식 섹스'를 시도했다. 그는 오늘 아침 아후씨의 면담에서 그것은 섹스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사어(死語)다. 물론 21세기 총중앙위원회에서는 '사랑'을 통제하거나 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구시대적 감성표출은 가능한 한 억제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보다 진보된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의 자료로 삼기 위해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하고 있을 뿐이다.

아후씨는 인터넷을 통해 모은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인류의 역사상 '사랑-섹스'의 역명이 몇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자료를 자신의 노트에 일기형식으로 적어나갔다. 이 젊은 정신과의사의 노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 있었다.

비아그라가 가져온 성의 혁명

첫 번째 '사랑-섹스'의 혁명은 1900년경에 시작된 하나의 움직임으로 그것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 Freud)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물들을 보면서 21세기 초반까지도 그의 이론이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곤 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현대 정신과의사 교육 과정에서 그의 정신분석학은 이미 하나의 역사적 유물로 취급된다. 그는 사랑을 일종의 심리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으로부터 분리해 냈다. 어린아이에게도 성욕이 있으며, 부모와의 사랑이 결국 그 인간의 평생 사랑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임상 사례를 통해 입증해 보인 것이다.

성욕의 본질을,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가 남아도는 일종의 긴장상태로 보고, 적절한 해소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 프로이트의 학설은 현대 정신과학적 관점에서 봐도 대단히 탁월한 견해임에 틀림없다. 사실 그로부터 17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우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섹스는 근본적으로 이런 프로이트의 이론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이버섹스 프로그램이 정착된 덕분에 불필요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지고, 21세기가 자랑하는 '영구한 안정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탁월한 비전도 현대의 사이버섹스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지는 못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랑과 섹스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전부인 양 설명되고 있으나, 현대의 사이버섹스는 정교하고 원만한 사회구조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할 뿐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정서가 중요시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섹스는 스포츠를 관람하고 3차원 영상비디오를 주문해 보듯이 하나의 일상이고 오락이다.

물론 2000년 경에 대량생산되어 시판되기 시작한 작은 알약으로 인한 대대적 성문화의 혁명이다. 그 알약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남성용 소마의 주성분 중 하나로 생산 캠퍼트먼트에서 다량 합성되고 있는 비아그라(Viagra)다. 남성들이 사이버섹스를 통해 오르가즘을 얻기 위해서는 발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발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분으로 비아그라를 소마에 함유시킨다. 당시 2000년 경에는 이 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용도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엄격히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나의 할아버지의 진료일지를 통해 비아그라가 합성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발기촉진용 주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할아버지의 진료일지를 잠시 읽어보자.

"...카버렉트를 사용했다. 환자는 5년 이상 한 번도 발기를 온전히 이룬 적이 없는 47세 남성이다. 평소에는 그의 아내에게나 다른 여성들에게 유독 자신의 남성다움을 자랑하는 스타일의 남성이다. 그러는 한편 상당히 강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는 어느날 은밀히 나를 찾아왔다. 남성다움을 과장하는 그의 성격으로 봐서 발기문제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온다는 것은,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말쑥한 끝에 정식 진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밀히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내가 내린 진단은 '심인성 발기부전'이다.

나는 그에게 발기촉진 주사의 작용과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의 늘어진 성기의 해면체에 45도 각도로 카버렉트 2.5마이크로그램을 주사했다. 10분 정도를 기다리라는 내 지시에 따라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는 엉거주춤 대기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자신의 바지 속에 한 손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놀란 표정을 짓고 서 있던, 그때 그 남자의 표정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나에게 사례를 하고는 황급히 어디론가 뛰어났다. 사실 5년만의 발기이니 급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렇게 주사를 통해 발기시키는 치료법은 사라질 것이다. 이미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에서는 작년에 비아그라라는 약의 임상실험을 끝내고 올해에는 시판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도 그 약이 도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의 성문화에 하나의 큰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처 준비되지 않은 성문화적 충격파를 사람들이 잘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바로 나와 같은 정신과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

* 심인성 발기부전: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정신의학, 성의학적 진단명.

돈만 있으면 오르가즘에 오를 수 있다

이 일지는 그 당시 의사들이 사용하는 푸른색의 차트용지에 검정잉크로 기록된 것으로, 1997년 9월 21일자로 되어 있고 끝에는 눈에 익은 조부의 사인이 되어 있다.

나는 그 당시 비아그라의 탄생과 그 이후 20여 년 동안의 대량보급은 바로 현대 21세기의 사이버섹스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같은 사건이었다고 본다. 그 이전 시대에는 섹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적 소통, 더 나아가 인격적 교류였다고 여겨진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기록에서 본 바와 같이 심인성 발기부전과 같은 까다로운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아그라의 탄생으로 말마암아 극단적으로 말해서 돈을 주고 비아그라를 살 수만 있으면 누구나 발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좌책감도, 불신도, 미움도, 애정의 결핍도, 발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저 비아그라 한 알이면 거짓말처럼 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섹스는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교류가 아니라 오르가즘을 얻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 된 것이다.



또한 성상대를 구하는 방법도 발달된 통신망을 통해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2000년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이미 일간신문에까지 온밀히, 그러나 버젓이 남녀의 성적 만남을 주선하는 광고가 실리기 시작했던 것 같다. 마치 북덕방에서 집과 그 집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시키듯이 일종의 음성적 섹스북덕방이 생긴 것이다. 그런 변화는 2015년 경부터 심화됐으며, 2024년에는 성상대 알선과 대역, 구매를 더 이상 음성적인 불법행위로 남겨둘 수만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제도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성상대를 구매하였다더라도 가끔은 구매한 성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사랑, 질투'와 같은 감정들이 생기기도 했던 모양이다. 그런 감정적 불안정 상태는 분쟁을 낳고 비능률과 에너지의 낭비를 낳는다.

어쨌든 2020~2040년 경까지도 지구상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종류의 섹스가 있게 되었던 모양이다. 하나는 고전적 의미의 섹스, 즉 이룰테면 에라리 프롬식 사랑과 섹스이다. 그런가 하면 보다 진일보한 섹스, 즉 바이그라의 구매에 의한 발기와 섹스와 오르가즘이란 좀더 비특이적이고 오락화되었으며 평화적이고 능률적인 섹스가 혼재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는 오늘날과 같은 완벽한 사이버섹스 제도를 갖추기까지 30, 40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가을햇살에 묻어나는 바삭바삭한 느낌일까?

야후씨는 이제 하던 일을 접어두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완벽한 휴식과 오락의 공간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오늘 만났던 남자환자를 다시 만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웬지 그 환자의 구시대적 감수성이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일까? 야후씨는 자신이 외롭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그 환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알타라는 여성과 20세기식 사랑법에 대해 너무 감이 생각이다 보니,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 건물을 나서니 칙찰한 가을 저녁의 한기가 제법 느껴진다. 100년 전에도 이 땅에는 오늘과 똑같이 가을햇살이 내려쬰고 있었을 것이다. 야후씨는 자신의 이런 이상한 외로움과 같은 마음이 가을햇살에 묻어나는 바삭바삭한 느낌 때문일 것이라고 자위해 본다.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그 남자 환자의 감정이 이런 것일 수 있었다는 느낌이, 한 순간 그를 엄습한다. 야후씨는 아무래도 어서 거주공간에 들어가 정신정화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들어간 후 잠을 청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11**

배종훈

연대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과 전문의로 있다. 천리안<여성정신의학상담실(go.wps)> 대표이고, 『내 눈앞의 섹스』 그리고 영화를 출간한 바 있다.



배종훈

순결, 그 오랜 집단광기!

출장으로 이른 퇴근을 한 다음 날 학교엘 가니 책상 위에 흰 책갈피와 사탕이 놓여 있다. 뭔가 심어보니 청소년순결본부라는 곳에서 발하는 순결운동이다. 그런데 책갈피가 색다르다. 온장도 모양이다. <어고 과담>에도 안 나오는 흰 온장도?

유감, 18세기식 청소년 순결운동

"어제 책갈피랑 사탕 나눠줬어요. 순결운동이려나요?"

반에 들어가 물으니 아이들이 그러다.

"그럼요? 그거 받으니까 어쨌어?"

"한 마디로 웃겨요."

"사랑이나 더 주지?"

"순결운동 남자들한테나 시키라 그래요. 우리 모두 순결 그 자체니까... 이보다 더 순결할 수 어렵잖아. 아이들은 재가기 한 마디씩 한다."

"뭐가 웃겨?"

"지금이 뭐 조선시대가요? 유치하게 온장도가 뭐예요?"

"순결에 대해 별 생각도 없다구요."

"과연 그래? 너희들 전반에 순결에 대한 토론도 벌였잖아."

"순결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순결을 지키든 말든 그건 각자 알아서 할 거지 누가 지키라 말라 할 게 아니라고요. 중말, 짜증나!"

"그래, 나도 기억에 너희들 순결의 개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지?"

"그럼요 순결 따지는 거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것도 여자를 무슨 돼지새끼나 물건처럼 새 거, 한 거 따지는 거 아니냐고요. 한 마디로 웃긴다고요~."

"하지만 순결을 안 지켰을 때 손해는 여자가 보는 가라는 현실론도 민만했잖아?"

"그러니 왕파종이죠. 그런데 흰 순결운동이냐구요. 왜 맨날 여자들만 족치는 거냐구요. 남자들 좀 순결 하라고 그래요!"



“와, 너 것팔 난다.”

아이들 말대로 뜨악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책갈피에 나온 대로 전화를 해서 이 운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니 강연내용을 보내왔다. 강연안의 요지는 이러하다.

인생의 목적은 사회와 국가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인격과 사랑의 완성에 있다. 그러한 완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것은 가정의 붕괴에 있다. 가정은 사랑, 희망, 평화의 출발지다. 인간의 출발점은 부부인 두 남녀에게 있고 이 둘은 가정의 행복과 기쁨, 영원한 생명의 근원지이다. 그런데 부부행복의 첫 출발인 결혼선물로 가장 중요한 게 서로의 순결이다. 첫순결, 첫사랑을 서로에게 줘야 한다. 그런데 요즘 주위 환경이 청소년을 유혹하는데 청소년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순결한 사랑을 청소년기부터 지켜야 한다.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는 전형적 논리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의심할 사람은 없을 테고 가정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어디 가정의 붕괴가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붕괴시키는가? 거꾸로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와 경제, 사회, 윤리적 붕괴가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부부행복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순결이라는 대목도 몹시 고개가 갸웃거려지지만, 유해환경이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순결을 지키라는 대목에 와서는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 도대체 싸할머리가 먹이지 않는 소리를 다 하는구나 싶다. 유혹하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고 유혹에 넘어가는 청소년이 문제인가? 밀고리 잡는 식의 말이라고 한다면 양보하자. 그러나 가정의 붕괴가 순결을 지키지 않아서라면 이미 예전에 우리의 가정은 붕괴될 대로 붕괴된 거 아니던가? 어디 남자들이 순결 지키는 경우 있었던가 말이다.

어른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순결이라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맥락은 여자를 남자의 성적 대상, 소유물로 보기, 여자의 몸이 '새건가, 헌건가' 차원의 옷가지도 않은 의미일진대, 순결에 대한 그 오랜 집단평가에 대해 아무런 비판 없는 순결운동이란 백번 잘 봐줘도 '여자 족쇄 더 강화하기' 식의 논리 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자들이 순결하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가? 계다가, 온장도라니 온장도는 상대를 해치기 위한 도구 아니라, 목숨보다 귀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해치려는 도구 아닌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꿈픽하고 귀기서린 18세기 여성수난사를 반복하자는 얘기인가?

아이들은 이런 가짜 말에 식상할 대로 식상에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이중적이고 속임수가 뻔한 말에 속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어른들에게 실망할 대로 실망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실망과 왕따증을 선사할 뿐...

이런 종류의 운동에 대해 왕따증 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을 모르는구나' 아니,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구나.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읽고, 무엇에 열광하는지 안다면 이따위 운동을 하고 있지는 못할 텐데...' 하는 그들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 자아도취적 발상을 확인하면 서다.

“꿈? 우스워요!”

“얘들아, 이시 좋지?”

...썰렁.

‘플리타너스가 하늘을 향해 꿈에 젖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웬지 우리 가슴에 창랑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

왕썰렁... 여기저기서 킁킁.

“...내 말이 우스워?”

“네에-!”

아이들은 단호하게 대답한다. 난 당황한다.

“뭐가 우습다는 거야?”

“꿈이요.”

“왜? 꿈이 왜 우스워? 너희들도 다 꿈이 있잖아.”

“그런 거 없어요.”

한 녀석이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한 사람, 자기 꿈을 말해 봐.”

그 녀석은 아예 편창을 부리고 다른 아이가 받는다.

“언제 우리에게 꿈꿀 시간 됐나요? 늘 공부만 하라고 했지, 언제 꿈꾸게 했나구요. 그래놓고 꿈이 뭐냐구요? 그런 걸 왜 물어요?”

아이들은 달라졌다.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이들의 변화는 엄청나서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아이들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면서 매일 그 아이들과 만나는 일은 글자 그대로 고역이다.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과거의 아이들이 눈망울을 굴리며 듣던 이야기에 이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떠돌고, 몇은 졸고, 몇몇은 스타의 사진 돌려 보고 또 몇은 쪽지 쓰고 있다. 일년이다 지나가도 같은 반 아이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도 수도룩하다. 반에서 누가 떠돌든 말든,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말든 서로 관심이 없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 공부하고, 노는 아이들은 알아서 논다.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이들은 줄거나 떠돌며 청춘을 보내고 있다. 과거의 아이들을 묶어주고 끌어주던 가치관 그런 게 있었다면은 무너졌다. 그 무너진 자라엔 어지러운 소비주의, 상업주의



만이 무성하다. 어떤 의미나 가치에도 아이들은 냉소적이다.

그러나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이들은 끝없이 좌절하고 있다. 그리고 외롭다. 아주 절박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 자신들을 끌어줄 그 무엇, 가파 아난 거, 말로만 그럴 듯한 게 아닌 거, 진짜 인가에 아이들은 굶주려 있다. 아이들의 굶주림과 외로움, 그 사이에 이성친구가 있고 스타가 있다. 아이들은 외롭고 목말라서 이성친구를 사귀고 스타에 열광한다. 그러나 이성친구는 쉽게 상처를 주고 받고, 스타는 너무 멀다.

무한경쟁, 무한물신...

아이들은 뭔가 자기답게 살아가고 싶어 목말라 하지만 자기다운 게 뭔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가...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사춘기를, 꿈을, 자신을 알아가고 있다. 학교도 가정도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기다운 공간이 되지 못한다. 집이나 학교나, 강조하는 건 공부, 무한 공부, 무한경쟁, 무한물신(無限物神)...

아이들이 잃은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이 진짜였다면 사라졌을까? 우리들이 추구했던 가치라는 게 말만 그럴듯하고 뒤돌아서서는 늘 탄성을 부리는 허울뿐인 가치 아니었던가? 아이들은 영리하게 그런 파에 더 이상 속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 가치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냉소인가?

가치의 부재, 정신적 패아에서 마음 둘 곳 없이 황량한 청춘을 헤매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이들의 냉소와 좌절은 어른들의 책임 아닌가? 어른들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 자신조차 사랑할 줄 모르는 미숙함,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집단적인 광기...

아이들이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어른들이 깨쳐야 한다. 순결운동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고인 없는 운동을 발하거나, 선불리 뭘 하겠다고 설치하는 대신 자신을 조용히 바라봐야 한다. 자기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다름아닌 아이들이라는 걸 조금까지 자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의 전환,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가져야 할 게다. 더 늦기 전에

김혜련

문학과 여성학을 전공으로 했다. 현재 문문어고 국어교사를 하며 아이들과 잘 만나기 위해, 아이들과 내가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산다. 여성신문에 「교실에서는 지금」이라는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제도권 학교, 생각없는 어른들, 생각만 하면 열이 났다. 왜 내아가 들어갈수록 화나는 일이 더 많은 것일까?



‘목숨건’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방송에서 잡지에서 남편과 애교있는 싸움을 벌인 주부들의 행복찾기식 부부싸움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그 때문일까. ‘목숨을 건’ 부부싸움은 늘 가벼운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되고, 해결되지 않은 남편과의 관계는 가슴 속에서 치유되지 않는 명물로 남아 여성들을 한스럽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부부싸움을 목격한 딸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호 부부싸움의 원고창타이 그래서 가장 어려웠다. 그 괴로운 얘기는 기억하고 싶지도, 공개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유년시절에 목격한 부모의 부부싸움을 훑쳐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거만히 뒤돌아보자.



대물린 푸념, “이상이 안 맞아서...”

11년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왠지 우울한 집안 분위기가 각인되어 있다. 주된 원인은 부모님의 불화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신혼초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혼해 집을 떠나기까지 무던히도 싸우셨다. 이복이 고향이신 다혈질의 아버지와 충청도 양반가(?)의 딸인 어머니는 성격차이인지 성차이인지 알 길은 없지만, 지치지도 않고 그야말로 끈기있게 싸우고 또 싸우셨다.

싸움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고 그야말로 화끈한 끝을 맺었는데, 어머니의 까작까작 긁는 잔소리 시작된 바가지가 그 시발점이었다. 그러다가, 그 도가 점차 심해지고 참다못한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 급기야는 살림을 들러오는 것으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기 일쑤였다. 어떤 때는 와장창 밥상이 날아가고 세수대야가 쟁강댕강 찌그러지고 바가지가 박살나고... 마음이 약하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대신 집안의 기물들을 그렇게 내동댕이쳤던 것이다. 한바탕의 소동이 지나가고 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셨다. 말하자면, 묵비권과 단식으로 아버지의 폭력에 말없이 대항하는 일종의 연장전을 벌이시는 것이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우리들의 심장도 따라서 조마조마해지다가 아버지의 고향과 자제력을 잃은 행위에 이르러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곤 했다.

그 후유증으로 언니는 지금까지 양말을 신고 자는 버릇이 생겼거나(밤중에도 여자하면 뒤통이), 지금은 짹짹대며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우리들엔 살이 마르는 공포였다. 그렇게 아버지의 큰소리와 과격함이 무섭고 싫었다. 자리펴고 누운 어머니의 길고 냉랭한 연장전 또한 살얼음판처럼 평평히 긴장된 분위기로 우리를 숨막히게 했다.

그런 어머니에게 늘 먼저 항복하는 건 성격 급하고 뒤끝 없는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화해에 처음에는 완강히 버티다가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신 어머니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완전한 종결을 보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휴전상태도 잠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또 심상치 않은 기류에 가슴 졸이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야비한 방법이지만, 어머니는 싸움 후에 언제나 우리 4남매를 자기편으로 철저히 세뇌시켰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적군으로, 외로운 패잔병으로 고립되었다. 후에 우리가 커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때까지는, 나중에는 두 분 모두에게 진저리가 났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싸워왔으면 이제는 서로에게 좀 포기할 때도 되었으련만 저토록 끈질기게 싸우시다니, 장성한 자식 앞에서까지 지칠 줄 모르는 부모님의 집요한 전투에 차라리 이젠 자식들이 두 손을 들 지경이었다.

옛날 어른에 비하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애정을 표현하실 줄 아는 다정다감한 분이셨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께 대해 무수히 불평이 많으셨고 그래서 늘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었다. 부엌에 선반 하나가 없어서 불편해 죽겠다고 밥상머리에서 못마땅해 하셨으며, 굴뚝이 시원치 않아 불을 댈 때마다 연기가 치솟아 눈을 뜰 수가 없다고 불평이셨고, 찬찬치 못한 아버지의 옷매무새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잔소리하셨다. 심지어는 작은집에서 살림을 하나 장만해도 그건 곧바로 무능한 아버지께 대한 화살로 비약되곤 했으니까, 사소한 일부터 무거운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싸움이 되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자상하지 못하고 현실감각 없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었지만, 그건 어쩔 어머니의 만족스럽

지 않았던 삶 전체에 대한 향기가 아니었는지... 지나친 비약일까? 언제부턴지 모르게 그토록 지긋지긋하던 부모님의 싸움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여유가 생긴 걸 보면, 아무래도 내가 나이를 먹어가나 보다.

올해 68세이신 나의 어머니는 충청도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들을 기대하던 부모님들은 언저루 딸이 태어나자 얹어버리고 싶었다고 한다. 어머니 보수적이고 완고한 나의 외할아버지에 의해 중학교 진학의 꿈을 저지당하셨다. 그 당시만 해도 해방 직후라 일본사람들이 다니던 학교가 남아돌아 여학교 가기가 수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할아버지의 지론은 “여자는 그저 보통학교 정도면 된다. 그 이상 공부하면 목이 곧아져서 남편 우습게 보게 되니 못 쓴다”는 것이 단호한 반대이유였다(밀로 태어난 외삼촌들은 모두 명문대를 나오셨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통학교’만 졸업한 딸은 남편을 결코 존경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그 사실을 아셨다면 일찍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아마도 저승에서 자신의 오판을 통탄할 일이다.

혼기찬 어머니는 신앙감인 아버지가 못내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한다. 외모도 그렇고 홀출단신 월남해,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살림도 그랬고, 어느것 하나 흠족한 게 없으셨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혼인을 하고 아이 낳고 살았던 것은, 어른들이 전해준 연인이면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운명처럼 받아들인 남편이 시작부터 못마땅했으니 결혼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되뇌던 것은 “이상”이란 말이었다. “느이 아버지와는 이상이 안 맞아 못살겠다”, “애저녁에 끝냈어야 하는데, 느이를 때문에 여지껏 헤어지지 못하고... 자식이 똥수다, 똥수”라는 신세타령을 부부싸움 끝에 빠짐없이 되풀이하시던 어머니. 그놈의 “이상”!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나의 어머니께서 그토록 갈망하던 이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보니 내게 어느 틈엔가 ‘이상’에 맞지 않는 남편 = 불행한 결혼의 지름길’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말았나 보다. 나는 어머니보다 한 세대 늦게 태어나 이상이 맞을 것 같은 남자를 내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도 우리는 부부싸움을 한다. 물론 부모님과는 다른 좀더 고상(?)한 방법으로 티격태격하며 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부싸움 끝에 번번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어이구 내 참, 이상이 안 맞아서...”였다! 아아, 그대를 물린 푸념이라니...! 인생은 돌고 도나보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어머니께 전화로 투정을 한다. “엄마! 그 사람하고 도대체 이상이 안 맞아서 못살겠어.” 뭔가 어머니의 감감했던 심정을 알 것 같다는 위로, 그리고 내 심정을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어머니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애, 세상에 이상이 딱 맞아서 사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니? 참고 살다 보면 그저 나중엔 미운정 고운정으로 살게 되는 거란다.”

침실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토록 싸우시던 어머니는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젊은 딸에게 체념의 미학을 얘기하신다. 요즘 부모님은 우리 4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은퇴하신 뒤 조용한 시골에다 집을 짓고 사신다. 이제는 텃밭도 일구고 아침저녁으로 산책도 함께 하고 이따금 배드



면련도 같이 치신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고 하신다. 얼마 전에는 급습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소녀처럼 상기된 얼굴이었다. 그렇게도 바라던 부모님의 사이를 보며 한편 쓸쓸해지는 것은 어인 일인가...?

아아, 무섭게 싸우시던 젊은 시절의 부모님의 애증은 곧 삶을 향한 에너지였음을! 그리고 열정이었음을!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두 분의 주름진 모습에서 지는 노을 같은 아쉬움이 묻어난다.

김혜란(주부, 37세)

부부싸움! 끝이 있을까?

우리 부부처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예도 드물 것이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것은 대부분 성격차이 때문이다. 남편의 경우, 성격이 급하기가 부싯돌 같고,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어도 잘못을 분명히 가려야만 직성이 풀린다. 반면, 아내인 나는 말쑥조차 구렁이 담뱃듯 느리고, 필요에 따라 거울이나 소파 등을 이리저리 바꾸는 편이다.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경우가 아니면 대강 넘어가는 타입이다.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인 둘이 살다보니 심할 때는 하루에 네 번 이상 다투는 날도 있었다. 다툼의 내용이라는 게 “왜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지 않느냐?” “설거지를 왜 제때에 안 하느냐?” “세탁물을 왜 모아두느냐?” 같은 사소한 일이다.

되도록 그런 사소한 일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주의를 하건만 그럼에도 미워졌다가 한꺼번에 벼락 치기로 일하는 습성이 나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꼭 찢칠지 못하다는 편견과 함께 여러 가지 감정 상하는 평을 듣게 되고 목청을 높여 서로를 공격하고 만다. 한때 까다로운 남편의 성격을 고쳐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이 화를 내는 것의 부당함을 고집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편두통이 하도 심해 신경정신과에 갔던 적이 있다. 두통은 한 번 시작하면 길게는 나흘밤낮 동안 계속되었고, 송곳에 찔리는 듯한 예리한 통증까지 일어났다.

굳이 의사로부터 ‘신경과민’이란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성격차이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의 강박관념의 결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뜻밖의 손님이라도 와서 설거지를 못 하거나 하면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이 맴돌고 불안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머리가 왜 아프냐고 묻는 남편에게 “당신이 너무 까다롭게 구니까 긴장돼서요” 했더니 “그럼 잘못된 걸 보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냐?” 나는 그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못 참는다는 거 몰라? 하면서 내가 두통을 앓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무였다.

“그럼 계속해서 당신의 분노를 터뜨려요. 당신이 그걸 참느라 심장이 터지는 것보다 내 머리 아픈 게 낫죠.”

남편의 성격을 바꿔야겠다는 것이 무모한 짓임을 알게 된 뒤로, 마치 달리 방법이 없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 계기가 생겼다.

어느 날, 이전에 싸웠던 그런 사소한 이유로 아침까지 언성을 높였다. 남편은 나에게 잘못을 시인하라고

요구했고, 나는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느라 밤새도록 싸웠던 것이다. 그런데 늘 한 방에서 자던 여덟 살, 다섯 살의 두 딸이 싸우는 우리를 남겨두고 슬그머니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본 순간 남편과 내 눈이 동시에 마주쳤다. 남편도 나처럼 유년시절의 아픈 기억 속으로 들어간 듯 멍해 보였다.

아이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 따라나갔지만, 애들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학교에 가는 딸을 배웅하고 돌아와보니 거실 벽에 두 장의 그림이 붙여져 있었다. 나와 남편을 그리고 말풍선을 만들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하는 사과말을 써넣은 것이다. 딸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남편도 말을 잃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세.” 남편이 먼저 제의해왔다. “사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싸우는 것이 제일 무서웠어요.” 우리는 싸우던 것을 멈추고 손가락까지 걸어 굳게 약속을 했다. 그 후로 남편은 솟구쳐오르는 분노를 잘 참는 것처럼 보인다. 아아, 나처럼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을 할 것이다. 애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이 없을 때는 여전히 자주 싸운다. 누가 그랬다. “부부란 서로에게 아이가 될 차례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어떤 어른이 아이와 싸울 수 있겠는가.

홍영수(주부, 31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

이제 아이가 커가는 것을 느끼며 유전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흔히 일반화된 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니 요즘은 빗은 상속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돈이 되는 것은 서로가 지려고 싸워서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만.

당시의 부모님에게 꿈과 가치관 같은 것은 인생의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때부터 자들의 율동농원과도 같은 것이었고, 단지 하루 세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다. 그렇기에 어린 내 눈에 비쳐진 부모님의 갈등은 항상 돈과 결부된 것이었다.

식구가 한 방에 모여사는 우리가족 중에서 나는 둘째로 태어났고, 생계를 위한 부모님의 맞벌이 속에서 난 자연스럽게 언니를 나의 부모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떤 때는 일을 찾아 떠나서 며칠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오는 적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가 까무룩 잠들었다가 깨서 눈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어렸는지, 늦도록 돈에기로, 한숨소리로, 한 번 갚 잠을 억지로 자려하는, 아니 자는 척하려 하는 나를 어지럽게 휘감았다. 그것은 분명 가슴아픈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으며, 마음 한 구석에서 두려움과 아울러 중요감을 유발시키는 이유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나를 껴안아 귀여워 주셨다. 당신의 말을 빌리면 그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그나마 조금 나아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또한 전형적인 다혈질의 성격으로 화가 날 때에는 가재도구가 많이 날아다녔지만 부드러운 때에는 누구보다도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가부장적인 제도를

중시하였고, 한학과 전통의 영향으로 유교중심적인 사상을 아직까지도 지키려는 즉, 저녁 한 끼를 걱정하면서도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선비정신을 지니신 분이였다.

그런 아버지를 난 맹목적으로 존경해야만 했다. 물론 부모님의 갈등으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낼 때마다 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했으나, 재정적인 무력함까지 증오할 수는 없었다. 내가 어른이 되면 결코 그것을 답답하지 않으리라는 몇 번의 결심과 함께...

나의 결혼생활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우리 부모님과 비슷한 내용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기도 했고, 자녀문제로 속이 타기도 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는 소리를 지르다가도 남편의 부드러운 한마디에 눈 녹듯이 사그라드는 감정의 변화에, 내 아버지의 모습을 나를 통해 보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결심했지만, 난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피가 내 몸 속에 흘러들어 왔음을 느낀다. 내 자식도 이 피를 가졌겠지.

여하튼 사람이 세파를 겪으면서 그 사고는 점차 무뎌졌지만 나는 검증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위험한 생각을 아직도 버리고 싶지 않다.

첫째, 구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야 한다. 그것의 굴레가 되는 것이 부모이거나 형제, 자매인 경우가 가장 많다. 가정은 많은 것을 덮어주고 용서가 가능한 테두리이기 때문에 쉽게 개개인이 감정을 표출하기 쉬운 공간이 된다. 내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인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용서해주는 오류를 얼마나 계속해야 하는가?

둘째, 경제에 대한 것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사다리를 오를 수 없듯이 실천하지 않는 이론적 학문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원래 한국인들은 정착민족으로 가정이라는 것과 대를 잇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자녀사랑은 어느 민족보다 더욱 뜨거워, 그 희생정신과 무조건적 사랑은 비길 곳이 없다. 그래서 한국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생기면 쉽게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 꿈을 자녀에게서 이루려고 하는 악순환의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내가 잘 되어야 자녀가 잘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여유를 가짐으로써, 부부싸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확률을 낮추고 자녀는 그 테두리에서 부담감 없이 이 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김형진(가명, 대우캐리어 컨설턴트, 33세)

미운정 고운정

중 매결혼을 한 나는 결혼 초 성격차이로, 자라온 환경의 차이로 남편과 자주 다투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 뱃속에 '히니몬 베이비'만 있었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도 냉정한 친정엄마한테는 내색도 못하고 "엄마, 나 엄마가 부러워, 아버지와 전혀 갈등 없이 지내시는 게, 차라리 나도 오래 산 부부처럼 덤덤히 지내고 싶어" 하며 한숨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놨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복에 겨워서 그런다. 지금 얼마나 재미있게 지낼 텐데 그런 소리를 하니?" 하며 딸의 마음은 알고도 하지 않으셨다.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부부싸움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는 경제를 책임지고, 또한 가장으로서의 모든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는 역할, 그러기에 엄마의 부부싸움이란, 사소한 일들을 투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풀 같은 화로 집안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끝을 내는 것이었다.

어렸을 적 회한 기억으로는 아버지의 기분이 풀리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퇴근시간 무렵이 되면 자는 척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 형제들은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를 포함한 우리집 식구 모두는 퇴근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기분을 알아낼 수 있는 법을 배우며 성장했던 것 같다.

엄마가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한 것은 그 옛날 가부장제의 영향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가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에 있었다. 요즘들어 엄마세대보다 이혼률이 높은 것도 여자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능력을 갖춘 여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 한다.

물론 결혼한 지 십년이 지날 즈음에는 서로의 성격을 얼마쯤 알 수 있어서, 참을 것은 참고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서 부부싸움의 횟수가 부쩍 줄어들기도 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사십 전까지 불뿔기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건강에 자신도 없고 절지 않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해도 그냥 무조건 참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우물쭈물했다. 그런데 남편은 한 술 더 떠서 "당신이 지금 나가면 뭐 할 수 있을거 같아, 파출부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러니 바가지 금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며 아내의 자존심을 마구 구겨버린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엄마의 부부싸움 상대는 안 되셨지만, 엄마의 영원한 기둥은 되주셨던 것 같다. 가정에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집안살림도 누군가가 해야 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기에, 엄마가 집안에서 살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셨던 것 같다. 아버지의 보호에 익숙해진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방패없이 세상의 바람을 맞느라 오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닦아내셨다.

살면서 부부는 미운정 고운정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서로의 정을 나누는 것일까?

엄정애(주부, 38세)

삼폭지세월(三暴之歲月)이라...

쿵 쿵쿵...

어릴 적 잠에서 깨어나 들던 심란한 소리가 있었다. 여자의 악다구니와 쿵쿵쿵 벽에 뽕가 부딪는 소리. 한 번은 그 쿵쿵소리가 하도 궁금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본 적이 있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60

년대 개발사무소로 쓰였던 곳이라 넓고 길어 안방과 거실이 매우 넓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쿵쿵 찌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악을 쓰며 대들고 있었다. 갑자기 그 기억을 떠올리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니, 어쩌면 꿈의 한 장면인지도 모르겠다. 조금 커서 봤다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이 꿈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아니, 사실일 게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와 어머니 꽤나 애정표현도 잘하는 사이였지만 또 그만큼 싸움도 격렬하게 하셨다. 평소 화가 많았던 어머니. 힘으로는 아버지에게 졌지만 결코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진 않으셨다. 내가 오빠하고 싸울 때 그런 것처럼. 난 오빠들에게 맞으면서도 결코 폭력에 굴복한 적이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눈에 불꽃이 뛰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성격이라—남들은 그걸 드세다고 하는데—악착같이 대드는 아이였다. “예라. 까짓거, 죽고 말지” 하면서. 아마도 그 기질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게 아닐까.

어쨌든 내 기억 속의 어머니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만 사시는 분은 아니었다는 기억이 있고 그래서인지 엄마의 그 당시의 모습이 비극적으로 비추어지진 않았다. 그 악착같이 대드는 성격은 결국 폭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오빠들도 날 건드렸다가는 더러운 물 보고 만다는 생각에서였는지 어느 순간부터 주먹으로 날 다스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다.

하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아무리 여자 기가 세봤자 입으로 하는 거지만 남자는 싸움이 격해지면 주먹이 날아간다. 남자는 때리고, 여자가 악을 쓰는 풍경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리라. 가정의 폭력이 체질화된, 그래서 여자는 썩 소리도 못하는 집이 아니라면...

그래서일까? 나는 부부싸움 하면 폭력이 먼저 떠오른다. 내가 알기로 우리 어머니 세대는 참 많이 맞고 살던 세대였다. 어려선 부모에게 맞고, 결혼해선 남편에게 맞는다. 삼종지도가 아니라 삼복지세월(三福之世月)이다... 지금도 한 번 정도 맞지 않은 기혼여성이 별로 없을 터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을까.

김미숙(가명, 회사원, 36세)

생계를 책임진 여자의 분노

부모님의 부부싸움에 대한 내 어릴 적 경험과 현재의 해석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어릴 때 나의 부모님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서로 동시에 소리를 높이거나 욕박전까지 가는 싸움은 아니었다. 외형적으로 보면 내 부모님의 싸움은 엄마의 고향소리로 시작하여 그 소리가 멈출 때면 부모님의 싸움은 끝난 것이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엄마의 고향소리였다. 그것에는 나름의 상황적인 것이 있었는데, 엄마는 60, 70년대를 세 자녀와 공부하는 남편을 둔 중학교 교사로 보내졌기에 자신의 고단함을 폭발시키는 심리적 현상이었던 것 같다.

두 분만 계실 때는 어떤 식으로 갈등이나 분노를 해결하셨는지 어린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소리높여 우리 앞에서 당신의 분노나 갈등을 나타내지는 않으셨다. 단지 어린 내 눈에 비친 부모의 싸

움은 엄마에 의한 일방적인 시작과 끝남이었다. 그 결과 나의 뇌리에 비친 엄마는 이해하기 힘들고, 긴장을 몰고오는 대상이었고, 불만의 존재였다.

나의 어린시절은 엄마가 집에 오는 시간이 긴장의 시작이었다. 갑자기 화내고 소리지르는 엄마의 화냄은 가족 모두에 대한 자신의 분노의 표시였으며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종종 그것은 이유 없이(엄마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었으리라)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린 시절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능력도 없었으며 상황 예측도 어려웠다. 나는 그로 인하여 아주 혼란된 감정과 불안심리기전이 발달했으며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기 시작했던 것 같다.

지금에 와서는 나의 엄마가 그렇게 많은 짐을 지지 않고 우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도움을 요청하는 엄마였다면 내가 그토록 불안하고 눈치 보며 나 자신을 천덕꾸러기로 여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 바라고 된다.

내 부모의 싸움의 또 다른 형태는 말싸움인데 그 원인은 종종 식구 앞에서 서로를 헐뜯으면서 생기는 갈등이었다. 두 분 서로에 대한 불만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지혜를 보였더라면 하고 바라지만 늘 그렇게 되진 않았다.

그런 습관은 가족 내로 퍼져 우리의 식사시간은 서로의 성토장이 되곤 하였다. 그래서 나는 같이 식사하기를 즐기지 않았다. 종종 모두 앞에서 비난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경우의 싸움은 엄마와 아빠의 의견 좁히기 거부로 인한 싸움이었다. 특히 가족나들이에서 그런 경험은 나에게 아픈 기억을 남겼다. 타협하지 않는 두 분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안의 극치였다. 만약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아시리라. 어릴 때 나는 책 속으로 도망가서 동화 속에 그려진 엄마와 만나며 현실에서의 엄마를 슬퍼했다.

결국 지금 내가 이해하기에는 엄마의 부부싸움은 자신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 데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어린 우리로부터 이해받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일 틈도 없이 당신의 무거운 짐들이 당신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터지는 결과였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나도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자리에 서면서 더 이상 비난만 하던 입장이 아닌, 이 모든 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엄마와 같은 한 여성의 입장이 어느덧 되었기에... 이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나에게 큰 숙제이다. 김명진(그래픽디자이너, 33세)

7호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주제는 ‘어머니의 부업’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역사를 복원해 내고, 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기 위해 마련된 이 난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참! 보내실 때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령을 꼭 써주세요. 



놀맛 나는 세상을 꿈꾸며



최초의 기억.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바닷가에 살았던 적이 있다. (좀더 정확히는 온천과 바닷가를 왔다갔다 했는데, 동래온천과 부산 속정 바닷가였다. 나는 어렸을 때 경미했지만 소아마비를 앓았었고 동래에 미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소아마비 치료센터가 있었다.)

그 바닷가에서 나는 참 무료했던 것 같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소나무가 많은 언덕을 오르며, 솔냄새를 맡으며 아침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떠오르는 해, 그것과 어우러진 바다. 하늘이 너무도 아름다워 나는 내가 공중분해되거나 용해가 되어서 그것과 하나가 되고 싶었다. 그것도 죽음에 대한 아름답고도 강렬한 갈망이었는데 사는 것이 괴롭거나 염세적 느낌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완벽한 아름다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그 느낌이 나의 삶의 최초의 욕망, 바람—그러니까 꿈이라 할 수 있을까—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해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내년에 일릴 (여성미술제)의 (서울여성영화제)의
준비로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게다가 극장 (마네)를 동승동으로 이전하면서
획기적으로 변신할 생각에
일로 마음까지 분주하다.
하지만 여자들이 산나기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어떡하.

초등학교 시절

그 바닷가 시절, 나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외로웠던 것 같다. 다시 가족이 있는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는 부산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그것이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듯이 아이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나는 그제 좋아서 일부러 아이들을 더 웃기고 재미있게 해줄 궁리만 했다. 그러면 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 나는 내 나이보다 일찍 학교에 들어갔다. 동네에서 나와 같이 놀던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집은 바로 학교 맞은 편에 있었다. 나는 친구들이 입학식하는 모습을 혼자서 방 안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엉엉 울었다. 그날 친할미

니가 우리집을 방문하셨고 할머니는 나를 동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그 능력! 지금도 감탄스럽다. 나는 할머니를 여러 가지 이유로 존경하는데 그 사건도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나 사실 나는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 형제들이 다 학교에 가고 집에는 나만 남는다. 커다랗게 틀어놓은 행진곡에 맞추어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나는 집에서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는다. 담임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사이렌소리가 날 때 비로소 나는 미친 듯이 학교를 향해 돌진한다. 학교가기가 두렵고 싫었지만 일단 가기만 하면 나는 인기가 좋다. 늘 놀 궁리만 하고 일을 꾸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놀이를 꾸미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애들은 잘 모를 거다. 그 시절은 나의 생활도 놀이였고, 나의 꿈도 놀이였던 셈이다.

4학년 때 선생님이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자기의 꿈을 적어내라고 했다. 아이들은 다들 쪽지에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적어냈다. '선생님', '간호원' 등. 헌데 나는 아주 길게 아주 진지하고 성실하게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어냈다. 대충 그 내용은 이렇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선 의사가 되겠다. 아픈 사람도 많이 고쳐주고 큰 병원을 짓고 돈도 많이 벌겠다. 그리고 알프스로 간다. 그곳에서 세계의 고아 어린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역시 꿈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어른이 되는 것이 참 싫었다. 그래서 피터팬처럼 하늘을 날아다니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모험을 하는 상상을 즐겨했다. 선생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물으니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고, 사실은 어른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늘 모험하며 자유롭게 노는 것이 꿈이었던 것이다. 내가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은 처음에는 전무적으로 현실과 화합하고 어울리기 위해 시작했지만 현실도피적인 성격도 강했다.

우리 동네는 효창동이고 굴다리만 지나가면 용문동, 그곳에서 산쪽으로 가면 도원동이다. 효창동은 일본식 적산가옥들로 매우 큼직큼직하고 담도 측백나무로 가지런히 꾸며져 있고 동네분위기는 차분하고 한가하며 아름답다. 그러나 굴다리만 넘어가면 용문동은 시장으로 늘 사람들이 바글바글, 시끌벅적.



남자애들은
힘이 세보였고 나는 개네들이
무서웠다. 그런 사실이
화가 났다. 여자애들은 점점 조용하고
암전하게 지내고 반면
남자애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도
못했다.

싸움도 잦다. 더구나 도원동까지 가면 산 속에 가마니, 거적때기로 문을 삼은
방공호집도 있고, 6·25 때 폭격 맞아 군데군데 파이고 금이 가고 유리창도 깨
진 더러운 모자원도 있고, 집도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곳에 가면 똥 냄새, 설
거지물 냄새, 시궁창 냄새 등 냄새도 가지가지였다. 사람들은 큰소리로 싸우고
표정도 사납고 지쳐 보였으며 두렵기만 한 무당굿도 잦았다. 학교에서도 공부
못 하는 애, 잘하는 애, 부잣집 애, 가난한 애, 옷 잘입는 애, 못 입는 애, 선생
님이 예뻐하는 애, 안 예뻐하는 애, 항상 기가 죽어 있는 애, 너무나 잘난 척하
는 애, 나는 그런 '차이'가 싫었다. 그리고 아득바득 싸우는 어른들의 세계가
싫었다.

그러나 애들하고 놀 때는 달랐다. 그런 현실적인 질서와는 다른 질서, 다른
세계에서 놀 수 있었다. 나는 주로 연극을 하며 놀았고 상상하는 바는 곧 현실
이었다. 노는 곳도 화장실, 집마당, 학교, 교회, 차 안, 공원, 효창동을 넘어
서울 시내 전역으로 탐험을 했고 노는 방식도 가지가지였고 거칠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시절 나는 놀이의 세계에서만 살았고, 아이의 세계에 고착되어 놀
기만 하는 것이 나의 진짜 꿈이었던 셈이다. 한 마디로 그 시절은 파라다이스
였다.

중·고등학교시절

나는 중·고등학교시절을 내 인생의 중세시대, 즉 암흑시대라 부른다. 친구
들과 좋아하는 것이 점점 달라져갔다. 나는 점점 소설이나 시, 문학의 세계에
몰두해갔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학교생활은 지루했고, 가끔 조퇴하
고 경춘선이나 중앙선 기차를 타기도 했다. 그러면 남자애들이 다가와 집적거
리기도 했고 나의 세계를 방해했다. 개네들은 힘이 세보였고 나는 개네들이 무
서웠다. 그런 사실이 화가 났다. 여자애들은 점점 조용하고 암전하게 지내고
반면 남자애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도 못했다. 나는
남자애들 냄새가 싫어서 학교갈 때도 버스를 안 타고 걸어다녔다.

고등학교 때 명동 국립극장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본 후, 내가 어렸을 때
그토록 매일 하고 놀았던 연극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

했다. 그래서 희곡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책들을 읽어대
면서 예술을 신화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만
이, 즉 예술적 재능을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것도 어려워졌다.

대학시절

나는 사회사업과에 들어갔다. 그것이 가장 내 적성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이
라 믿었다. 그러나, 내가 배우는 것은 우리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
고 나는 점점 과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1학년 때부터 다시 연극에 빠져들었다.
문리대 연극반에 들어갔고 내 삶은 다시 활기를 얻었다. 동시에 사회과학, 인
문과학 등 다양하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세계는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세
상에 대해 눈이 뜨이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 내 자신이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
장하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 시절 나는 여자, 여자,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에서 나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이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
한 열망, 문화예술에 민중들에 대한 진지하고 멋있는 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여성을 우습게 보고 남성중심적이며 비민주적이며 엘리트주의적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실과 유관한 문화예술운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여성문화예술운
동이였다. 그들의 뒤꿈치만 쫓아다니며 그들의 말, 생각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주체적인 문화예술운동을 나는 대학교 3학년 때부
로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

여성문화예술운동은 나의 평생의 꿈이며 현실이다. 그것을 중심으로 늘 생
각하고 노력했지만 그 과정은 많은 우회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현실도피적으로 놀지 않으며 현실을 보면서, 현실과 함께, 현실에 구속되
어 살고 있다. 매일 걱정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나의 일,

나의 놀이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사람이나 사물, 그 존재와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배워가고 있다.

사람들 속에서 다른 것도 보이고 나도 보인다. 또 무수히 많은 나를 만난다. 내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현실은 아직도 어렵고 고달프지만 자유로움이 느껴진다. 어렵고 고달픈 가운데 느끼는 자유로움. 이제 나는 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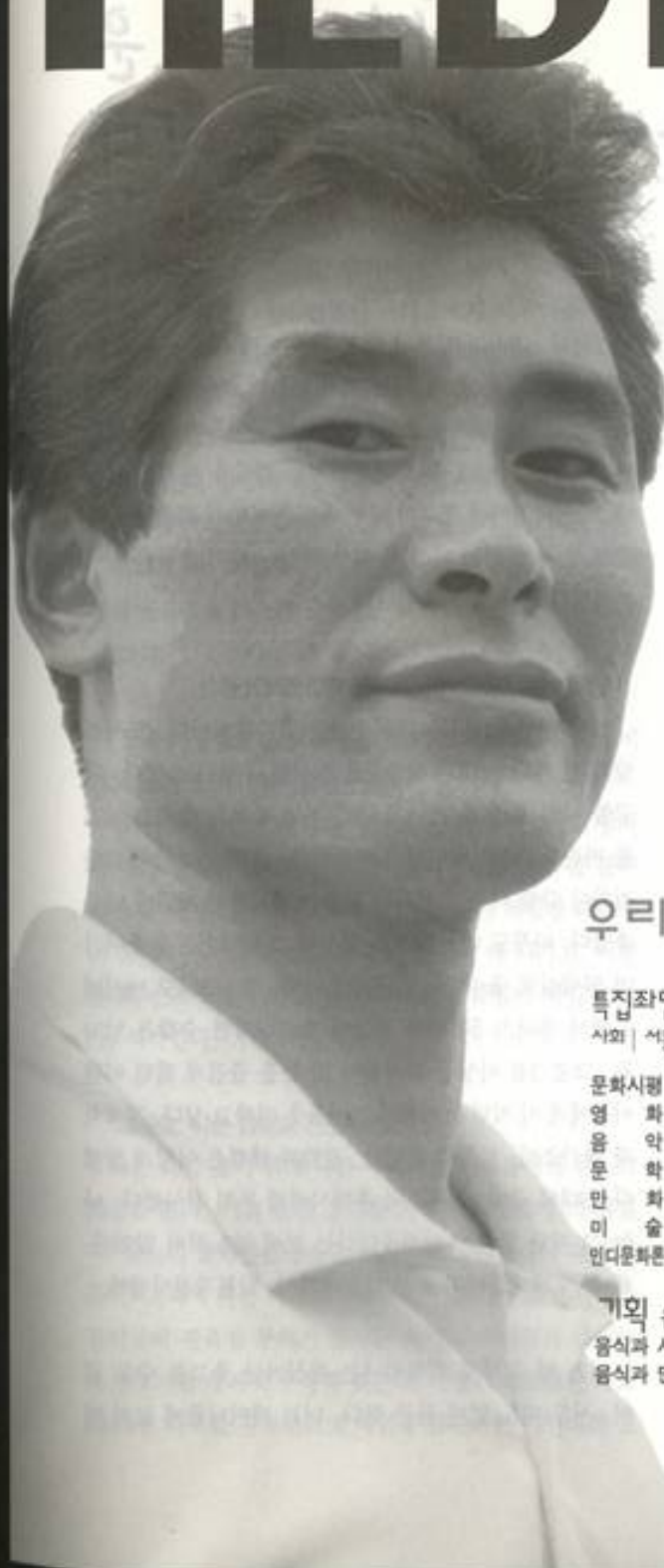
이 IMF의 시대, 미친 듯이 물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 무더운 여름, 남성적 지배, 착취에 자연도 지치고 화가 나서 미쳐버린 모양이다. 이 시대에 진정한 노아는 누구일까? 진정한 방주는 무엇일까?

나는 아직도 큰 꿈을 꾸다. 여성주의 세계관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세상. 재능, 지식, 돈이나 권력이 남을 '지배하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힘'이 되는 세상. 감성과 이성, 감각과 직관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예술과 문화가 풍요롭게 꽃피는 세상을 말이다. 그런 세상을 준비하는 힘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갖추어지기도 전에 여성과 문화가 중요하다는 말이 유언비어처럼 떠돌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마구 장사를 하려들고, 정치를 하려들고 많은 낭비와 혼돈이 여성주의 문화예술의 이름으로 자행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주체, 진정한 여성주의 문화예술을 꿈꾸는 사람들과 진정한, 거대한 욕망을 꾸민다. ■

REVIEW

대중문화계간지 REVIEW 1998 AUTUMN

16



강준만

한국 언론의 등에, 강준만과의 인터뷰/김종업

최정화

탈선의 미학/김현도

CRITICISM

페미니즘 | 비가시성과 가시성의 변증법/고갑희

영화 | 영화읽기, 또는 나는 어떻게 싸우는가/정성일

REPORT

영화 | 영화관을 둘러싼 모험/홍성녕

공연 | 부러움, 태아론, 생나는, 반드시 우리도 가져야만 할,

일종의 자유/현선율

뉴욕 | <미스 사이공>과 아시아계 미국인들/김호경

만화 | 새 술을 담는 '현 부대'가 문제다/손상익

우리시대의 언더그라운드 문화

특집좌담 90년대 젊은 작가들의 에스프리

서화 | 서동진 참석 | 김도섭 김정구 김종희 김진만 송경아 신일섭 안이영노 여유미

문화시평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대하여/김병익

영화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두 가지 선택/이명인

음악 인디 음악계의 오늘과 내일/성기완

문학 낯선 소설들의 행진/백지연

만화 한국 인디 만화, 다음호에 계속될니까?/이명석

미술 오래고 낡은 신화/강홍구

인디영화론 빠져나와라/김종희

기획 음식과 문화

음식과 시간/송도영 음식과 영화/이동진 음식과 권력/조경진

음식과 만화/이재현 음식과 이미지/서현정

주인우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00-3 흥남빌딩 3층 계간지부
TEL (02)333-7887 FAX (02)333-7885



나는 더러운 성차별주의자로서이다

남자 라는 관념에 대한 나의 적의는 실로 대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실재하는 '남자'를 혐오하는 일관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나도 알고보면 부드러운 사람이거든. 그러나 나는 또한, 인과응보 정신에 불타는 복수의 여신으로 곧잘 변하곤 하지.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더러운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게 된 것이다. 내가 결코 남성성기를 차별의 근거로 삼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나도 네가 예뻐서 그랬어

어느날 오후, 동기들이 한바탕 이야기판을 벌이고 있던 파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였다. 모두 이야기에 빠져 있어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유독 한 남자동기가 나를 반겼다. 그런데 그 친구의 시선이 내 얼굴이 아니라, 물룩한 가슴쪽에 와 꽂히는 것이었다. 그것도 내 눈치를 살피가면서 계면쩍은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말이다. 심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워낙 여럿이 모여 있던 자리인지라 잠시 참았다가 그 친구를 따로 불렀다. 기분 나빴다는 내 말에 그는 얼렁뚱땅 은근슬쩍 발뺌을 하는 것이었다. 그냥 내가 예뻐서 그랬다는 것이다. 한참 말없이 그의 얼굴을 쳐다본 나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그의 중간부분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당황한 그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나도 네가 이쁘서 그랬어."

비싼 좌석버스에 지친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무거운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던지라 아무 느낌

없었는데, 내리려고 보니 뽀 손이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었다. 내 손 두 개는 여기 있는데 누구 손이지?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듯, 그의 손등살을 집어들어 그의 벌려진 두 다리 사이에 툭 떨어뜨리고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빠져나가기에 통로가 너무 좁은 척하면서 뽀족한 구두 발로 한 무개 하는 나의 온 체중을 실어 그의 발등을 짓이겨버렸다. "어머, 죄송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새로운 페어플레이 정신

앞서 말했듯, 나는 더러운 성차별주의자이다. 도서관 앞의 긴 계단은 내가 성희롱을 일삼던 주된 장소였다. 지금쯤 나의 후배 중 하나가 내가 하던 유희를 즐기고 있기를 바란다. 아주 재미있기 때문이다. 예쁜 엉덩이에 대한 집착이 강한 나는 도서관의 길고 꼬불꼬불한 계단이 너무 좋았다. 아무도 내가 그토록 열심히 그 엉덩이들을 훑어가며 열람실로 올라가는줄 몰랐으니까. 참,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5점까지 물방에 오르내리던 수많은 남자들, 그중 3점 이상을 차지하며 내 눈을 즐겁게 했던 이쁜이들에게 이 지면을 이용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경제학과 빨간조끼, 토목과 흰얼굴, 철학과 해결은 이렇게 말했다. S대의 금띠, 건축과의 후까시에게 특히 감사한다. 나는 그 계단 앞에서 성희롱당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았다. 왜냐구? 페어플레이 정신 때문이었지. 맞불작전이랄까.

너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는 진심어린 충고를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들곤 한다. 너는 페미니즘에 눈이 멀

어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아름다운 거라고, 남자의 시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의 불손함, 나의 편협한 이태올로지 페미니즘, 그래서 나는 날이면 날마다 나의 천박함을 떠벌이곤 한다.

"야, 페미니즘, 그거 솔직히 열등감의 소산 아니니?"

"응,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사실 3.1운동은 식민지 주민인 우리 민족이 식민종주국인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 일으킨 거잖아. 그리고 노동자운동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 취월도 가진 게 없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게지랄하는 거지 뭐. 안 그래?"

"오죽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니? 그래도 그 여자 안 버리고 결혼했으니까 책임진 거잖아. 안 그래?"

"맞아. 어찌됐건 책임만 지면 되는 거지 뭐. 너도 알지만 내가 굉장히 폭력적인 인간이잖아. 가끔 이걸 좀 풀어줘야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좀 맞아줘야겠다. 그리고 갈비 한두어 대 나가고, 이빨 좀 빠져도 치료비 얼마 안 나와. 내가 확실히 책임질게. 자, 시작한다." (릭, 릭, 릭)

"그래요, 나는 암컷고 전도사예요"

나는 죽지 않기 위해 나를 죽이려는 자객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쏜다. 가슴 속에 불길을 가두면 화병밖에 더 되겠어? 분노의 불화살은 좇같은 세상으로 날려보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버스좌석에 붙은 비닐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정육점 분위기 풍기는 비키니 수영복의 다이어트 광고지를 경쾌하게 북북 찢는다. 어울리지도 않는 채소나 과일 따위를 홍보하려고 미인을 뽑는다는 미인대회 포

스터와 현수막을 들키지 않으면서 재빨리 칼질한다. 한국적 페미니즘이니 페미니즘에 대한 성찰이니 해가면서 짐짓 훈계하고 싶어하는 반페미니즘 인사들의 저명한 책들을 '실수로' 심하게 구겨놓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급증에 시달리는 나를 어떻게 하지?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외로운거야. 나는 독기오른 한 마리 암코양이에 지니지 않는단 말인가? 그럴리가 없지.

"모여봐, 나처럼 생각하는 자매들아여, 얼굴을 내밀어봐."

비로소 만난 쌍둥이처럼 닮은 우리들은 별건 대낮에 도로에서 짙짙하며 웃곤 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여자 웃음소리는 담벼락을 넘어선 안 되고, 여자 팔자 뒤편 팔자고, 여자와 접시는 내돌리면 깨지고... 세상 모든 죄악의 기준은 '여자'라고 가르친 아버지, 아버지, 근데 어떡하죠? 난 당신 딸이 아닌가 봐. 통쾌하고 호탕하게 웃는 엄마의 딸 김자경은 오늘도 남성 불가침의 공중화장실에 앉아 자매들에게 타전을 보낸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 여성"이라고.

이러한 까닭에 나는 더러운 성차별주의자라는 딱지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그래요, 나는 암컷고 전도사예요." **II**

김자경

이브 Maria, 74년 경주산 호랑이. 대학 졸업후 빈번한 직장도 없이 학원을 전전하다 논술비밀 약에 지금도 기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살아서 하고 싶은 일은 페미니즘 전도사로서, 계절라 운동가로 우리사회의 가부장제와 획일주의, 권위주의에 대항을 하는 일이다. 죽어서는 삼신할머니가 되어 영향력있는 주요 인사들에게 재능있고 총명한, 잘래 위대한 여성운동가가 될 말을 들켜 점지해 주고 싶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으로 지금은 동거인과 해쓰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나를 포함한 갈급증에 시달리는 젊은 페미니스트를 위한 책이 될 것이다.



상대적이고도 적대적인 페미니스트 백과사전

난영 지음

‘고무장갑’이란?

손 끝에 물 한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문명의 산물.

남자들이 구혼할 때 하는 “손 끝에 물 한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마도 고무장갑을 선물하겠다는 암시인 듯.

협병: 기업이나 조직간에 짝짓기. 그러나 혼사가 그러하듯, ‘어른’의 어락이 없이는 성사가 어렵다.

해국식: 일종의 집단치면. 이런 감정은 특이 운동경기와 관련이 많은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활약상을 중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달력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애국심이란 경제적인 고려를 무시한 감성임을 알 수 있다.

구타: 손이나 발 혹은 용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러나 혹은 낭만적인 구타도 가능한데, 주로 여자가 남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톡톡히 구타하며 “자기, 몰카몰타” 하는 경우를 이른다. 최근, 구타당하는 남자가 늘어나는 보도는 사안의 낭만성을 무시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애무: 손이나 발 혹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사용해서 타인의 신체에 쾌감을 주는 행위. 그러나 혹은 불쾌한 애무도 가능한데, 주로 남자가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주물주물 애무하며 “자기, 좋아? 좋아?” 하는 경우를 이른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노느니만 못한 비생산적이며, 비위생적인 에너지 소모라 아니할 수 없다.

외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 당당하게 월급봉투를 접수하기 위해 혹은 부질없는 아첨상을 마추기 위해 치르는 섹스도 이 범주에 속한다.

가부장: 자신의 승리는 우리 국민, 혹은 강원도 혹은 부산 등 조선 팔도 전체의 승리라고 믿는 약간의 광오함이 요구되는 위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당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신의 가부장적 신념을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인물을 이르는 말.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법률을 만들기 전에 가정폭력을 방조하는 사회 분위기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비아그라: 시도 때도 없이 성기를 곳곳하게 세워준다는 세기의 신약. 가끔 부작용으로 죽기도 한다지만 여자를 ‘죽여주는’ 재미에 없어서 못 먹는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불행위 상태를 죽여주려는 살신성인의 정신이 여실이 구현된 연상.

권력: 시도 없이 고개를 곳곳하게 세워준다는 최고의 명약. 가끔 부작용으로 육살이를 하기도 한다지만, 잘난 척하는 재미에 없어서 안타깝다. 목숨을 걸고 명리를 추구해 상대를 죽여주는 우안무치의 정신이 여실이 구현되는 연상.

과학: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므로 침대 위에서 수행하는 모든 행위 또한 과학이라는 패터다임을 벗어나 논할 수 없다.

수염: 동물의 표지를 뚫고 나오는 털. 그중에서도 주로 얼굴 부위에 자란 굵은 털을 말한다. 여자들은 거의 수염이 없다. 남자들은 이에 여자들은 얼굴이 두꺼워 털도 뚫고 나오기 때문

이라고 해석한다. 그렇다. 남자들은 위낙 압박에서 그 연약한 털도 제 마음대로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바캉스: 뜨거운 도시를 떠나 산으로 바다로 놀러가는 행위. 그러나 일부 남자들은 더 뜨거워지기 위해 비키니를 찾아바다로 가기도 한다.

가축: 야생동물과 달리 주인이 밥을 챙겨 먹여주는 동물. 스스로 밥을 챙겨먹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그러나 밥 먹여준 은혜를 알고 주인을 따른다.

남편: 여자들과는 달리 부인이 밥을 챙겨 먹여주는 인간. 스스로 밥을 챙겨먹지 못하므로 부인이 밥을 챙겨주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 그러나 밥 먹여준 은혜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밥 투정에 빠진다.

외도: 가지 못했던 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프루스트는 이런 기본으로 외도를 노략했다.

대상화: 남자들이 여자를 구멍으로 보거나 여자들이 남자를 X대거리로 보는 연상.

철학 혹은 현학: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말을 어렵게 앵글리 길게 늘어 말할 수 있는 재주. 이런 재주를 익힌 사람들—사실상



그간 남자들의 독무대였지만 —을 철학자 혹은 지성인이라고 부른다. 98년 if 여름호(p71~73)를 보시라. 여성성을 비하하지 않고는 스스로 남성으로서의 정체감을 갖지 못하는 자신의 어약함을 감추기 위해 동원되는 그 웃기는 수사들!

고무장갑: 손 끝에 물 한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문명의 산물. 남자들이 구혼할 때 하는 “손 끝에 물 한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마도 고무장갑을 선물하겠다는 암시인 듯. 특히 콘돔이 필요할 때 잘마 사용할 수도 있다.

카섹스: 차에서 하는 성행위. 요가의 기본자세를 배우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행위인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카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달력가 창문을 두드린 다음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멀리서 봤을 때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데도 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덩그러니 있다면 카섹스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지: 태위명분을 위장한 권력욕구로 인해 수많은 사나들이 이리저리 편을 갈라 벌이는 조직적인 패싸움을 가장 스펙터클하게 그려낸 명작. 수많은 세대를 격하여 아직도 남자들이 이에서 처세의 기본교재로 사랑받고 있다. [11]

결혼생활 3개월, 결혼 후 내가 좋아하게 된 것들. BY DDAK 98.8

그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서 TV를 보다가 스르르 잠에 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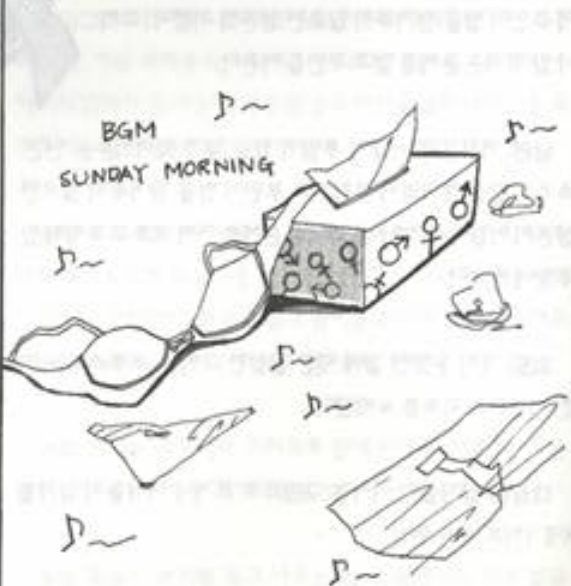
더운 날 샤워를 하거나 맥주 한병 마시고 마른얼리 안주삼아 대략하기



그와 함께 정보와 비디오 가게에서 다들하게(?) 성인 비디오 빌려돌아오는 것.



일요일 아침, 늦잠 자고 난 뒤 자리에 누워서 나누는 사사로운 수다



수다는 touch로 touch by touch로 이어진 일요일 늦은 오후의 SEX.

그러나
신혼의 달콤함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갑자기 생활은 부부중심에서
아이중심에 된다.



임신이군요.



태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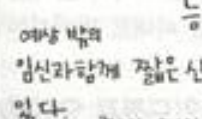
에로영화도 안돼.



공포영화도 안돼



술도 안돼.



등등등.

여상 밖의
임신과 함께 짙은 신혼이 저물고
있다. 개이 개이.

자녀 계획은
미리미리 수립하여
당황할 일
만들지 말자.

- 어느 워너비 베이비 엄마의 충고 -

DDAK

타고난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이에게 전하는 김정일 박사의 조언

성격대로 살아가기



사람은 자기다울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성격상 안 되는 것에 집착하면 노이로제가 된다.

단점도 뒤집으면 개성이 된다.

외향적인 사람은 인생 전반에, 내성적인 사람은 후반에 유리하다.

내성적인 배우자는 참으며 복수를 기다린다. 외향적인 사람은 조심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로 내성적인 성격. 현실감이 필요하다.

●정신과 의사 김정일 에세이 / 값 8,000원 ▶신간

전화: 364-7871~3 **북문출판**

지상에서 사라져가는 사람들



두 부자를 한꺼번에 남편으로 거느리는 티베트족.
여자와 아이 목베기를 영광으로 삼는 헤드 헌터 나가족.
13세 딸에게 성교 허락의 표시로 예복치마를 입히는 리수족.
홀로 된 장모를 아내로 맞이하는 가로족...

**티베트에서 인도까지 오지에서 만난
소수민족들의 성과 결혼 삶과 죽음에 관한 기록**

●김병호 외 지음/양장본/값 8,000원 ▶신간

if 번개토론 비아그라 괴담

“웃겨, 고추에 목숨거는 남자들”

비아그라가 전세계 남성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발기불능의 시대. 남성들의 기를 살려줄 남성성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듯 세계는 비아그라에 대해 떠들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의 생각은 어떤가. if는 비아그라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번개토론을 마련했다.

일시: 1998년 8월 말/참가자: 기혼여성 5명, 미혼여성 1명

박선: 이제 비아그라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봐요. 비아그라가 왜 그렇게 인기인가. 남자들의 성. 무엇이 문제인가.
여령: 비아그라 수입하기 전에도 비밀리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은 다 먹는데. 여섯 시간 동안 안 죽어가지고 있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그 다음날 그걸 묶어가지고 허리띠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박선: 허리띠에다가 고추를?

여령: 붙여야 되는데 파스를 붙이면 뭘 때 아플 거 아니야.

박선: 야. 정말 고추괴담이다. 우리로서는 정말 괴담이다.

김영: 정말 무섭다.

박선: 근데 왜 그렇게 비아그라를 좋아하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유경: 죽기도 하잖아. 그거 먹고.

유주: 강한 남자에 대한 신화가 있잖아.

박선: 근데 나는 남자들이 과연 떠도는 이데올로기만으로 성적으로 강해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기들이 살면서 정력 센 게 좋다고 검증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요.

선명: 그건 여자를 죽이라고 예뻐지고 싶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박선: 여자를 이쁜 거는 보상이 즉각 즉각 주어지잖아요.

선명: 아니 이쁘지려고 하는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신감 있으려고 한다고 그러거든. 남자들도 똑같거

든. 내가 서 있다고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유주: 남자들한테 '퍼포먼스 앵커'가 있다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또 괜히 소리치려고 좋아하는 척하잖아. 그게 남자들한테 강박관념으로 존재하는 거야.

여령: 근데 죽어나오는 여자 봤어?

유주: 한동안 신문들이 난리 떨었잖아. 남자 정자가 죽는다고. 남자를 이렇게 죽여야 되겠냐는 거지.

박선: 그렇지. 남자 정자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많아. 위자료 청구소송 내야 돼. 누가 남자 정자를 죽였나 이거야. 환경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야.

선명: 남자들이 자기 정자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박선: 나도 할 말 많아. 우리 새끼들 살 미래 생각하면 캄캄해 죽겠는데...

유주: 근데 남자들을 살리고 여자들이 더 약화돼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

니까 문제지.

김영: 옛날에 (추적 60분)에 나왔는데 남자구실을 잃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지금 직장 잃었을 때보다 더 비참하다 그러구 비뇨기과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그라가 들어오면 먹겠냐고 하니깐 당연히

유주: 그러니까 그게

김영: 외국사람도 인터뷰를 했는데 외국사람들은 웃으면서 좋지 않

박선: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나를 죽여줘서 좋아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깐 남자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거 아니야. 아유, 아파 죽겠어. 해봐. 그러면 남자들이 덜할 것 같은데.

여령: 그러면 더 좋아해. 아파 죽겠어. 이 짐승, 이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이잖아. 니가 인간이야. 짐승.

박선: 그러니까 노우가 노우로 통하

지 않는 세상인 거야.

유주: 근데 정력 센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

"침대는 과학"

박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력 센 남편을 뒀다면 세상이 부러워하니깐 개인



비아그라가 들어오면 먹겠냐고 하니깐 당연히. 당연히 먹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니고 하니깐 성불능 되면 남자생명 다한 거 아니냐고 그래요.

적으론 좋지 않아도 자부심을 느끼는 여자들도 많잖아요.

여령: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들 불쌍해. 되도 않는 걸 세워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고, 고추에 목숨 걸고 그러는 거 불쌍해.

유주: 맞아. 고추에 목숨 걸고. 애야. 뭐 거기에 목숨 거냐. 다양하게 걸지.

박선: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평

장히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데 정력이 센 거야. 그리고 다른 남자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재밌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정력이 약한 거야. 근데 남자한테 정력과 따뜻함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많은 여자들이 따뜻한 남자를 택할 거야. 사실 이 두 남자의 부인들도 모두 따뜻한 그 남편을 좋아해.

선명: 맞아. 나도 그래. 여령: 고추에 목숨 거는 것도 무식해서 그래요. 침대는 과학이잖아. 아 니, 손도 있고 발도 있는데... 성기만 휘둘러서 즐기 힘드네.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유경: 근데 고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잖아. 아침에 밥상에 반찬이 잘 오르는 것도 고추로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

박선: 물론 어젯밤 남자가 힘써서 고기반찬 오를 수 있어. 근데 그게 이 남자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니깐 화대 겸 밥상 잘 차려주자는 게 아니라, 내 기쁨과 상관없이 이 남자 고생했구나 하면서 잘 차려줄 수 있어. 여자 자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편이 힘들겠구나 염려하는 마음에서일 수도 있잖아.

모두: 그렇지...

박선: 우리나라 여자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쾌락을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어. 사실, 여자들이 남편 보약 해주면, 아, 이 여자가 밝히는구나 그러는데 사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시달리는 남편 건강이 걱정돼서 해주는 거거든.

유주: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의 신화야. 그리고 또 여자들이 실상을 말하지 않고.

박선: 그렇지. 여자들이 실상을 말하지 않는 게 문제야. 그리고 그게 남편기를 살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오늘 진짜 죽어줬어요. 그거. 사실은 안 죽어줬는데. 하면서...

여령: 시퍼렇게 살았는데...

박선: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혼자 마스터베이션해야겠다. 이럴지라도.

유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항상 페이크 오르가즘(fake orgasm) 얘기가 나오는데. 편하려고 그냥 소리질러 주는 거야. 빨리 끝내려고. 그럼 남자들은 그게 정말로 그러는 줄 알고 다시 또 고추에다 생명 걸고...

박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끊어야 돼. 이 악순환을?

여령: 진실을 말해 줘야지.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야지 남자도 목숨 안 걸고.

유주: 아유. 자기 해결사야.

박선: 어떻게 진실을?

여령: ... 수고하시네. (모두 웃음)

김영: 고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네.

유경: 침대는 과학이라네.

박선: 아, 그리고 오늘 밤, '썸' 좋았다.

여령: 좋았는데 니가 고칠 점은 이거야. 다음에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해봐.

유주: 그런데 그럼 남자들은 더욱 더 발기가 안 된단니까. 더 위축된단니까. 여령: 아니요. 발기가 안 되는 놈하고 살면 안 되지. 웬만큼 되는 놈하고 살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고추라는 것은 섹스의 일부분일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살아야지.

유주: 야, 이거 명언이다. 이거. 적어놔야지.

선명: 근데 남자들이 발기되는 조건은 자기가 항상 지배자의 위치에 있을 때만 발기가 되나? 남자들이 그렇게 합리화시키잖아요.

남자도 강간당하나

박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매저키스트들도 있잖아요. 학대 딱 풀려준다며? 윤락여성한테...

선명: 매저키스트 말고.

유주: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는냐?

선명: 응, 응. 그 말하고도 연관이 되지요.

박선: 강간할 수 있다고 봐.

여령: 나도 그렇다고 봐.

유주: 아니, 그러면 강간하고 화간하

고 분리가 안 되잖아. 남자는 흥분하면 사정을 하니까.

박선: 여자도 강간당할 때 흥분할 수 있어요.

유주: 좋을 수가 있나.

박선: 몸은 좋지만 정신은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남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령: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강의갔을 때 한 남학생이 삼선교에서 방위로 있었는데 한 날 남자가 올며붙어 왔다. 강간당했다고. 그 부근 산에서 여자 강패들 서너명이 잡고 묶어놓고 벗기고 고추를 타타타...

유주: 탁탁탁탁이 뭐야.

선명: 그렇게 해서도 발기를 했다고? 그럼 남자도 강간할 수 있다고?

여령: 예, 하체는 독립이야. 독립.

유주: 근데 남자는 훨씬 더 애매모호하지. 일단 사정을 하면 뭔가 느낄 거 아니야. 좋은 절정은 아니더라도.

박선: 여자들도 강간당하면서도 흥분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거 같아요. 혼한 예는 아니지만.

선명: 그게 플레이보이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하면 그건 너희 남자들의 환상이야. 그러지.

여령: '하이트 보고서' 같은 거 봐도 여자들이 가진 환상도 있어요. 강간에 대한.

유주: 왜냐하면 여자들은 공격적인

"어느 게 강간이고 어느 게 합의된 성관계예요? 좀 더 심한 거? 그래서 우리 사회의 성관계가 강간하고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길러졌기 때문에...

여령: 그렇지요, 여자들도 그런 환상은 갖지요.

유주: 그런데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 여자가 만약 강간을 꿈꾼다면 여자들은 수동적으로 섹스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어떤 사람을 공격해 가지고 섹스를 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공격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얼마만큼의 합의가 이루어진 성관계지.

박선: 그런데?

유주: 우리가 얘기하는 강간은 그런 게 아닌거지.

박선: 그 경계선이 어땠어요. 어느 게 강간이고 어느 게 합의된 성관계예요? 좀 더 심한 거? 그래서 우리 사회의 성관계가 강간하고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여자와 적극적인 남자가 하는 거.

여령: 그리고 한창 성적으로 왕성한 시기에 당하면 흥분할 수도 있어요. 마치 10대 남자애들 아무 때나 발기하는 것처럼.

유주: 그냥 완전히 생리작용만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여령: 파블로프 반사반응.

박선: 강간을 해도 아주 극악한 강간 상태가 아니면 여자에 따라선 흥분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고 났어도 기분은 더러운 거지. 그건 정확히 해야지.

강간과 정상성의 경계선은?

여령: 기왕에 했으면 그냥 기분도 좋고 말면 좋잖아.

박선: 그건 강간이 없는 사회에서나 가능하지.

유주: 그런 정신상태면 강간당해도 금방 극복할 수가 있겠지.

박선: 그러니까 여령이 늘 하는 얘기가 강간범이 와서 강간했는데 총각 한 번만 더해줘 하면 강간이야. 아니야?

여령: 이지 공짜지. 하면서, 계속 공짜지? 돈 달라 그러면 안돼.

유주: 근데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여자들도 원하지 할 거란 말이야. 강간당하면 쾌감보다는 불쾌감이 훨씬 더 심할 텐데, 그 쾌감 때문에 강간당하고 싶은 여자들은 없을 거야.

여령: 그건 아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나에게 와서 나의 심신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까짓 거 차라라...

유주: 그러니까 목숨을 주기보다는

차라라... 그럴 수 있지.

여령: 차라리 기왕 주는 거 목숨까지 구해준 고마운 색센데 그걸로 고통받느니...

박선: 그냥 발상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나는 강간 당한 몸이다. 더럽혀진 몸이다. 이러면서 고통받느니...

유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쌍방이 강간이 다 가능하잖아?

여령: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더니 강의 들던 남자애들이 어느 산이냐고 정확한 위치를 말해 달라고...

유주: 여자들도 그렇게 나오면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강간할 때 느끼는 쾌락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지.

박선: 유럽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남녀 성관계는 지겨워서 강간을 한다면서요. 남자들이?

여령: 사실 강간도 권력욕구라면서요? 상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근데 뭐 마음대로 하나마나 이 놈아 좀더 잘해 봐. 니 문제는 말이야...

박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봐. 완전히 쌍코피 흘리고 가지.

선명: 그러면 정말 여자를 죽일지도 몰라. 폭력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지.

박선: 아니, 조금만 더는 괜찮아. 고거밖에 못해 하면 죽여도.

김영: 이 밤의 끝을 잡고, 난 널 위해 그러면?

박선: 여자들 건드렸다 하면 쌍코피 다 해봐. 안 건드리지.

김영: 여자들이 무서워. 그러잖아. 설설 피하고.

유주: 그럼 자꾸 발기불능자들이 늘어나는거지.

여령: 괜찮아요. 씨스터후드가 왜 있어. (모두 웃음)

유주: 나는 내 남자가 비아그라 먹는다고 그러면 삶을 거 같애.

박선: 나는 이혼이야.

유경: 왜.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 발기부전일 때는 먹어줘야지 어떻게?

박선: 그것도 밖에 나가서 바람피우려고 먹는 거라면 모르는데 부부관계 밖에 안 갖는 남자라면 부인하고 상의하고 먹어야지.

유주: 같이 먹어야 된다고?

박선: 그게 아니라 성관계라는 것도 마누라하고 하는 거잖아요. 6시간 동안 뻗어 있어봐. 난 못 살아. 난 이혼이야.

선명: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나.

여령: 있다 해도 어찌겠어요. 붙들어매고 나갈 수도 없고.

유주: 아니, 워낙 노인이거나 성불능이거나 아니면 부인이 좋아한다면 같이 상의해서 먹을 수 있지만 나라면 삶을 거 같은데 오히려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남성문화의 거품도 있고...

유경: 여성용 비아그라도 있다는데 그건 어떤 거야.

박선: 똑같은 거야. 일종의 흥분제겠지. 뭐, 여자도 오래 안 해주면 살인난다고 봐야지.

선명: 여자도 비아그라가 필요한가.

여령: 아유.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길 가다가 반바지 입은 젊은 남자들 보면 미쳐. 미쳐. 죽이고 싶어. 핸들이 그쪽으로 확 꺾여요.

선명: 여자도 비아그라가 필요한가.

여령: 아유.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길 가다가 반바지 입은 젊은 남자들 보면 미쳐. 미쳐. 죽이고 싶어. 핸들이 그쪽으로 확 꺾여요.

선명: 여자도 비아그라가 필요한가.

젊은 남자를 보면...

박선: 핸들 확 꺾이면 원래 죽어. (모두 웃음)

유주: 어떤 애가 어린 친구네 그러더라고. 어떤 때는 길을 지나갈 때도 남자를 지퍼만 보인데.

선명: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선: 하고 싶다 이거지.

선명: 아. 그러니까 여령씨가 죽이고 싶다는 게 성욕이 느껴진다고? 자극이 왜났고? 나는 볼보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지.

김영: 잘 빠진 애들이 샌들 신고, 반바지 입으면 얼마나 예쁜데요?

선명: 글썽, 잘 빠지면 그렇지 모르지만 나는 한국애들이 반바지 입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박선: 요즘애들은 달라요. 30대 이상 아저씨들이 반바지 입으면 어지러운



"어떤 애가 어린 친구네 그러더라고 어떤 때는 길을 지나갈 때도 남자를 지퍼만 보인데."

데 젊은애들은 정말 이쁘요.

유주: 나는 젊은애들 보면 예쁘다는 생각은 드는데 성욕이 느껴진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

박선: 비아그라 드셔야겠네. 선생님 하나 드셔.

유주: 아니, 어떤 걸 성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유경: 왜 만지고 싶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김영: 송승헌 같은 애 보면 섹시하고...

유주: 아니! 나는 차라리 신현준. 하지만 그게 성욕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 아니, 성욕을 느끼는 때는 있는데 실제 인물을 보고 성욕을 느낀다는 게 이해가 안되더라구.

김영: 왜 박진영 같은 애 보면...

박선: 엄마야.
 여령: 여자들도 흥분하면 수시로 질이 수축을 하는데 성적인 흥분으로 해석을 안 하고, 남자들은 성기가 밖에서 발기되는 게 느껴지니까 성적인 흥분을 하는구나 바로 아는 거죠.
 유주: 그래,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아, 그 차이겠다. 성기의 구조의 차이로 인한...

여령: 내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 봤거든요. 성욕을 느낄 때가 언젠가.

박선: 어딜 들여다 봐?

여령: 내 속을.

유주: 어떻게? 거울 가지고?

여령: 에이, 성기를 본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본다고요. 남자를 보고 끌리면 왜 끌리나, 성욕 때문인가, 아니면 호감 때문인가. 우리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남자들은 구분 잘 하잖아. 근데 성욕을 느낄 때가 배란기 때, 그 때 누구를 만나면 평소에는 흥, 하다가도 배란기에는...

유주: 흥아흥아해?

박선: 어떤 여자는 배란기 때보다 생리 끝나고 더 느끼기도 해. 사람마다 다양해.

여령: 그리고 봄가을에 더 강하고...

박선: 아, 그래서 봄가을에 보약을 해줘야 되는구나.

여령: 아니, 봄가을이 원래 동물을 발정기에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박선: 봄 다 갔지?

여령: 다 갔어요. 지금 여름이니까 남

편들 다 데리고 와도 돼.

박주: 알았어. 그때 보내야 되겠다.

배란기도 좀 적어주세요.

유주: 버리고 싶어서?

여령: 근데 버리려는 사람이 과학적이예요? 응, 과학을 아는 남자라면 뭐.

과학적으로 해야 돼. 무식하게 고추에 다 목숨 걸고 그러면 안 돼. 말로도 갈 수 있고, 눈짓으로도 갈 수 있고.

박선: 근데 과학적인데 왜 보내? 과학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박주: 과학적이지 않지. 전혀.

여령: 그럼 됐어. 보내지 마. (모두 웃음)

유주: 과학적이려면 가르쳐야지...

여령: 그리고 보면 여잔 유리해. 배울 게 별로 없어. 여자들은 남자들 구박만 안 하면 돼. 오늘은 3초였니? 이런 소리만 안하면...

박선: 아니 어느새 시간이 3초 지났네, 이런 소리?

여령: 너무나 오랜 3초.

박선: 아이고, 그만합시다. 오늘 술직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

한국판 바이그라 복분자(覆盆子) 이야기



옛날 중국에 노부부가 늦게 아들을 얻었는데 하도 몸이 약해서 걱정하던 차에 지나가던 노인이 산딸기를 다려 먹이라고 일러주었다. 매일 열심히 산딸기를 다려 먹었더니 커서는 오줌을 누면 하도 힘이 세서 요강을 얹어버려 이름을 복분자(覆盆子)라 하였다. 복분자는 야생 산딸기로 피로회복과 눈을 밝게 해주고 임신을 돕고 야노증을 다스린다. 또한 신장의 기능이 강해지므로 남자들의 정력을 강하게 한다.

내년이면 미국산 바이그라가 우리나라에 상륙할 예정이다. IMF시대에 달러가 새나가는 것은 볼을 보듯 뻔한 일!

정액이 좋다고 하면 돈도 체면도 생각 없이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과력을 갖고 있는 한국 남성들. 그러나 뽕, 용담, 녹용 등등은 고가의 약재라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니 우리 선인들은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무병장수하는 비결을 삼았는데 그 대표적인 약재가 복분자다.

차로 다려서 마시거나 술을 담궈 복용하면 좋다.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복분자. 부작용 없는 한국의 바이그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세계에 수출하는 여건까지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공: 한약을 사랑하는 모임
 하우스 청
 서울 동대문구 제212동 882-128
 전화: 966-6836

CROSS OVER

여자의 여행 나이 욕심에 떠난 유럽 배낭여행

세계의 여성들 '잘 나가는' 여배우의 동상에 고향/스타 편집장 티나 브라운, 또 한 번의 변신/
 고전문학을 보는 눈, 남녀 따로 노소 따로/ 독일 거물 정치인들과 여성정치 선언/
 터키의 가족법 개정안과 순결검사





나이 육십에 떠난 유럽 배낭여행②

엄마에게 뒤늦게나마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파리근교 신도시 라데팡스. 맨 앞의 사각형 연못 안에는 미로의 작품이 서 있다.



나의 딸아, 나이 육십에 떠났던 이 엄마의 여행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자.

비엔나에서 처음 간 곳은 베르사이유궁전의 축소판인 쉐브렌궁전. 영화에서 보던 대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어. 왕비가 식사하던 식당, 차 마시던 거실, 화장실 등등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멋지더라! 오히려 나중에 찾아간 베르사이유궁전보다 더 좋았어. 왕의 침대가 예상 외로 자그마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신발을 벗고 정원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으니,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 학생들은 여전히 궁전 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정원에만 머무르다 가고... 다음으로 찾아간 멜베데르궁전의 정원은 쉐브렌궁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없어 나의 정원, 나의 궁전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

했어. 비엔나에서의 마지막 날엔 미술사박물관 관람후 근처 한국식당을 찾아가 봤어. 음식은 맛있었지만, 유럽 한 가운데 비엔나라는 도시에 있는 음식점이라기보다 서울근교의 싸구려 여관 같은 느낌을 풍기는 이곳에 의외로 많은 한국학생들이 숙박을 하고 있더라. 숙박료가 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럽여행에 드는 전체비용 중 숙박비는 정말 적게 드는 건데도 말이야.

섬 전체가 비엔날레 전시장

나중에 그곳에 묵었던 여대생들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숙박 인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좁은 평수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자꾸 밀어넣은 바람에 찌는 여름밤을 보내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

더라. 왜 항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곧 떠날 텐데 실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았더라. 나는 그들에게 다음에 이곳에 묵을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고국에 돌아가서라도 언론을 통해 알리라고 강경하게 말했는데, 그렇게 했을까?

악성들이 묻힌 국립묘지에 버스를 타고 찾아갔더니, 관리인이 관람시간이 지났다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 내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은 아니잖나? 멀리 한국에서 왔으니 10분만이라도 둘러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관리인은 막무가내였어. 포기하려는 찰나에 다른 사람이 교대해 또 부탁해 봤더니 이 사람은 아주 선선히 허락을 하더라. 그래서 같이 갔던 여대생 두 명과 잘 둘러보고 왔단다.

저녁엔 18세기풍 정장차림의 대표원에게서 표를 구입해 비엔나 필하모닉의 본거지인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갔는데, 대리석과 빨간 카펫이 깔려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이었어. 요한 슈트라우스의 <푸르고 아름다운 도나우강>이 울려 퍼질 땐 객석을 박차고 일어나 드넓은 대리석 홀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

유럽여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나가면서 베니스가 빠지면 섭섭하다고 생각했다. 수중도시의 환상적인 풍경을 꼭 접하고 싶었어. 곤도라도 타고 카메오와 레이스 제품을 파는 상점들이 가득 들어찬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아이쇼핑도 해보고...

더구나 홀수해에 열린다는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직접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의 기분이 어땠겠니? 외딴섬 하나 전체가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장이었고, 각 나라마다 자국의 전시관을 갖고 있었어. 하루종일 현대작품들을 감상하며 그곳에 유유자적 머무를 수 있었던 게 정말 즐거운 일이었어.

한국관은 바다로 면해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아담한 건물이었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전수천, 강익중의 작품을 보고 난 후 방명록에 직접 사인을 하며 잠시 뿌듯했단다. 그런데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음악이 연주될 것이라고 상

상했던 산마르코 광장은 성당 수리 관계로 사람만 붐비고 노상카페엔 의자만 가득해 기대에 어긋났다.

문화적 향취 없는 스위스

로마에서의 내 호텔방은 18세기 가구로 채워진 무대 세트 같았단다. 생각보다 로마는 웅대하지도, 장엄하지도 않았어. 그러나 베드로성당의 이모저모는 과연 인간의 숨겨질까 하는 경외심이 들 정도로 대단하더라. 네가 그토록 감명 깊게 봤던 모세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티칸박물관의 어마어마한 소장품 규모 역시 절로 감탄하게 하더라. 시스틴에배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천지창조>는 목은 때를 벗겨내서인지 아바와 내가 느꼈다는 강한 느낌은 받지 못했으나 한 시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원없이 보고 또 봤단다. 트레비 분수를 찾아가서는 너와 병욱이, 경덕이(사위)와 다시 함께 이 곳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동전도 넉넉히 던졌으니, 한 번 희망을 가져보자구나. 아바가, 네가, 그리고 병욱이가 던진 동전들 덕분에 결국 내가 뒤늦게나마 이 곳에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딸과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아들이 함께 여행은 가족을 만났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소렌토로 간다며 서둘러 그곳을 떠나가더라. 사람마

로마의 트레비 분수. 뒤돌아서 동전을 던지면 훗날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스위스

다 자신의 여행태마가 다르겠지만, 설새없이 이곳저곳을 많이 보는 것이 그들의 여행목적이었나보다.

이제 삼분의 일 정도 남은 일정을 향해 스위스의 인터라켄으로 떠났어. 내 호텔방 창문이 융프라우를 마주해 정말 전경이 근사했단다. 융프라우 꼭대기까지 기차를 타기도 하고 구름을 걷기도 하면서 도착해 너와 병욱이, 이모에게 업서를 부치던 기분은 그만이었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인상깊은 곳이 스위스라고 하는데, 구름이라는 자연환경을 인공적으로 잘 활용해 조성했을 뿐 문화적 향취가 풍기지 않는 그곳을 왜 그토록 좋아들 할까? 더구나 사람들이 참 인색한 것 같더라.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 도착해 가본 미술관은 입구가

커다란 나무대문으로 돼 있어 처음에는 잘못 왔나 싶었어. 그곳에서의 뜻밖의 수확은, 미술관을 거의 차지한 초기부터 말기까지에 이르는 클레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야.

밤기차를 타고 니스를 향해 가며 차창을 통해 본 새벽바다는 신비롭기 그지없었어. 니스엔 샤갈, 마티스, 뒤피, 아블렌스키 등 인상주의와 거장들의 미술관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더구나. 특히 샤갈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작품이 걸려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기들을 작품화한 것도 기억에 남는데, 남침색 스테인드글라스에 그려진 작품들은 우리가 시카고미술관에서 본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겠니?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대미술관 옥상은 미로 같은 오솔길과 나무숲으로 이루어졌는데, 니스 전 시내가 내다보였지. 많은 화가들이 즐겨 그리던 니스풍경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됐지. 특히 뒤피의 바다풍경은 니스 그대로지. 그리고 엷은 주황색 지붕들. 얼마나 잘 어울리는 풍경이던지.

니스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소매없는 파스텔톤의 원피스에다 나지막한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참 분위기 있고 멋지게 보여더라. 우리나라 여성들도 여름엔 그렇게 좀 입고다니면 어떨까 생각해 봤단다. 20대 뿐만 아니라 60대까지도.

미로 미술관 가는 길

근처 모나코도 가봤는데, 해변로는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영화에서 본 장면 그대로야. 깎아지른 듯한 언덕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보니, 바라다보이는 바다풍경이 여행객에게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주더구나. 놀라운 것은 해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중 서슴없이 나체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보는 나 자신조차 이상하기 보다는 아름답게 느껴졌다는 사실이야. 문화적 분위기 때문일까?

가난하다고 알려진 스페인. 그러나 수도 바르셀로나엔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문화유산이 꼭 차 있었어. 주택가에 자리한 피카소미술관에선 청색시대(BLUE PERIOD), 장미색시대(ROSE PERIOD)의 초기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고, 미로미술관까지 가는 길엔 에스컬레이터식 전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스페인 국민들이 얼마나 미로를 아끼고 있는지 실감했다.

건축가 가우디는 나의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돼버리고 말았다. 백 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성가족 교회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와서 직접 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지. 또 가우디가 이상적인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구엘공원은 동화의 나라에서나 접할 수 있는 조형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 해변가 조개와 해초를 주제로 천장을 장식한 탁 트인 궁전 같은 공간에 울려 퍼지던 기타소리는 천상의 소리가

구엘 공원의 가우디 작품.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따로 없었지. 모든 방문객들이 편한 자세로 음악에 도취해 갔지. 난 자꾸 감사의 눈물만 흘렸고...

마지막 여정지인 파리로 향하면서 이상하게도 이태리, 스페인, 파리의 외곽풍경이 스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도착하자마자 베르사이유궁전에 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붐비며 즐서 있었어. '겨울의 방'의 찬란함이 옛 영화를 환기시켰어. 루브르박물관은 일출간 내내 출근해도 볼 것 같지 않게 규모가 팽창했지만, 막상 내겐 베르사이유가 더 인상깊었던단다. 루브르박물관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들 중 하나는 왜 관람객들이 모나리자 초상화 앞에 바글거릴까 하는 것이었어.

퐁피두 센터서 만난 한국잡지

루브르보다는 오히려 오르세미술관이 더 마음에 들었던단다. 주로 18세기 이후의 작품들이 소장돼 있는데, 고호 작품 같지 않은 꽃그림을 발견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귀국해 그 사진을 선물로도 썼잖나? 보기 힘든 루동의 그림도 그곳에서 만났지. 여기서 1년간 작품과 작가에 대해 공부하고 찾아왔다는 두 명의 여대생도 만나 반가웠단다. 유럽에 가고자 한다면 최소한 자신의 여행목적에 맞는 주제를 공부하고 오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니? 그런데도 내가 만난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 못했으니, 황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나 그곳에서 유럽문화를 스치고 지날지라도 유럽에 왔다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로댕이 살던 대저택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로댕미술관에서 <지옥의 문>과 <칼레의 시민>, <생각하는 사람> 등 낯익은 그의 작품들을 접했단다. 그러나 로댕의 이기심에 희생된 그의 제자며 애인이던 카미유 클로델 생각이 나서 왠지 썩 호감은 가지 않더구나...

내가 고등학교 시절 방문했을 때 막 준공됐던 퐁피두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거의 보기 힘든 루오의 작품들을 보면서 보석 같은 작품상에 또 한 번 감



로댕 박물관 소장 <다나이드>

탄하면서 진정한 신앙심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다. 한때 이모와 나는 루오에 도취돼 그림 하면 루오 그림만 찾는 적도 있었지. 센터 안 도서관의 세계 각국 장서중엔 한국잡지가 노란색으로 변색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 10년 전 것이니 그럴만도 하겠지만, 어떻게 문화정책을 이끌고 나갈 것인가...

노트르담사원에 가기 위해 아침부터 서두르는데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다. 사원 안 스테인

드글라스 <장미의 창>은 보고 또 봐도 너무 아름다웠어. 그곳의 한국인 가이드에게 사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수리중이어서 안된다고 하더구나. 그러다가 사원을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줄서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았더니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하더라. 몇 년 전 너와 병욱이, 이모와 함께 3시간 동안 줄을 서고 기다린 끝에 <자유의 여신상>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것 기억나지? 정말 보람이 있었잖나? 그런데 왜 그 한국인 안내자는 그토록 성의없는 말을 했을까?

세느강을 따라 펼쳐져 있는 아담스레 잘 정돈된 노트르담사원의 정원을 한가로이 걸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노트르담 사원을 함께 꼭 가보자고 했던 옛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잠시 생각해 봤다. 다소 감상적일지라도 이같은 옛 추억이 있는 것이 나이들어 갈수록 새록새록 자산으로 느껴지는구나.

프랑스 신도시 라데팡스

개선문 근처의 샹젤리제 거리는 압구정동 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엔 가난했던 한때의 추억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가며 보니 궁전같이 으리으리한 태국식당이 눈에 띄었는데, 오르세 미술관 화장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만난 서너 명의 미국인 여교수들이 꼭 둘러보라고 추천한 식당이었지. 혼자 그곳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는데, 들어가볼 걸 그랬지?

저녁엔 저녁대로 홀로 유람선을 타고 세느강을 돌며 에펠탑에 올라가 파리 시내의 야경도 보며 기분을 한껏 냈다. 유람선이 특별한 장소에 다가가면 그때마다 그곳에 대한 안내방송과 함께 분위기에 걸맞는 음악이 흘러나와 참 인상적이었다. 특히 노트르담 사원을 지나갈 때 흘러나온 <아베마리아>는 내 심금을 울리더구나...

신도시 라데팡스로 가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철역 안에서 한 프랑스 청년에게 물었더니 내가 서 있는 반대방향이라고 해서 되돌아갔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청년이 텔레벨릭 튀어와 나의 어깨를 치더라. "당신 말이 맞다"며 미안해하는 거야. 내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지만, 대중의 수준이 그 정도는 돼야 '문화민족' 소리를 듣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라데팡스에 도착해서는 장난감 같은 버스를 타고 두루두루 돌아다녔다. 건물, 조각품, 조경이 주변환경과 어치면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곳곳의 미로 조각의 시각적 효과는 기가 막혔어. 특히 호수 같은 분수대 안에는 막대가 가득 꽂혀 있고 이 막대 끝에 갖가지 색

깔의 조각작품들이 매달려 있는 미로의 작품들은 일품이 있어. 그 안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어울려 물장난치는 것도 보기 좋았고.

라데팡스는 21세기 미래도시를 상상하며 건설했다고 한다. 정말 라데팡스 중앙에 우뚝 서 있는 하얀 건물은 잠시 미래세계에 와 있다는 착각을 줄 정도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20층 이상의 이 건물 꼭대기층은 미술관과 더불어 도시의 건설과정이 자료와 사진으로 잘 꾸며져 있더구나. 파리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풍경'을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랑스인들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도 뛰어난 재능을 지닌 국민이더구나.

다음날 아침이면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슬퍼졌다. 고등학생이었던 너도 당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말해서 나를 놀라게 만들었었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구나.

여행기역을 정리해 가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이

렇다. 우선, 적어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아래 여행주제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연구하며 정보도 수집해야겠지. 전문 여행가들이 놀상 하는 말이겠지만, 두번째는 영어는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언어공부를 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어야겠더라. 마지막으로, 온 마음과 시간을 다해 자유롭게 아낌없이 주어진 여행 기회를 즐기는 것이야.

나 '혼자' 떠났지만, 떠나기 전과 여행중, 그리고 귀국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과 손길, 기도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더 많은 곳을 가보고 싶어야 하지 않았나—이왕 어려운 길을 떠났으니—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그것은 '욕심'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금으로선 내가 원하는 주제의 여행을 택해서 낭비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구나.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끝까지 내 마음을 읽어준 것, 고맙다. 무엇보다 12개국 18개 도시로의 유럽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



박형욱

지난 한 달간의 배낭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내게 친구들과 주변 친구들은 여행을 극복한 놀라운 여행이라고 칭찬(?)도 하면서 무지한 자가 용감하다고 놀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려운 떠나기를 때마다 나만이 소중한 간직한 보석을 남 몰래 꺼내보듯이 흐뭇해 하며 삶의 힘을 얻는다. 다시 배낭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일 수 있을까? 지난 7월 2일 <여성의 전화> 15년의 나이트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10년 가까이 여성의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여 13개 기부, 13개 상륙학생상소, 2개 센터, 1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성장하기까지 여성의 전화에 열정을 쏟아부으며, 몸으로 여성운동을 실천해 15년의 나이트를 만들어간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을 받는 기쁨도 누렸다.

“난 그저 사랑에 빠졌을 뿐...”

잘 나가는 여배우의 동성애 고백

오애리(문화일보 기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여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로맨틱 코미디영화를 관객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영화계에서는 연기활동을 위해 성적(性的) 정체성을 숨기는 배우들이 적지 않다. 만인의 연인이었던 톱 허드슨이 에이즈로 죽기 직전까지 동성애자란 점을 숨겼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솔직하게 동성애자임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소재가 자유로운 인디영화를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한정된 배역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미국 여배우 앤 헤이시(27)는 유럽보다 훨씬 보수적인 분위기의 미국 영화계에서 분명 뛰는 존재이다. 기네스 북으로 연상시키는 청순한 이미지를 지닌 그가 일년 반 전

‘커밍아웃’을 선언한 앤 헤이시



‘커밍아웃’을 한 것이다. 당시 그는 자니 덴, 알 파치노와 공연한 <도니 브래스코>, 인디영화 <워킹 앤 토크>, 백악관의 정치적 음모를 그린 <웨그 더 독> 등에 출연해 한창 주목을 끌고 있었다.

코믹배우 스티브 마틴과 2년간 동거생활을 한 적인 그는 그가 사랑에 빠진 새 연인은 TV코미디 연속극 <엘렌>에서 털털한 서점 여주인 엘렌으로 출연, 인기를 모으던 엘렌 드제너레스. 마침 드제너레스는 메이저 방

송사의 드라마, 즉 이른바 ‘메인 스트림’ 드라마 주인공으로 처음 자신이 동성애자란 것을 공개해 큰 화제를 일으키던 중이었다. 여기에 촉망받던 여배우 헤이시가 드제너레스와 연인 관계임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언론과 팬들의 따가운 시선에 चुков되지 않고 시사회나 각종 파티장에 팔짱을 끼고 나타나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

헤이시는 최근 그의 신작영화 <6일밤, 7일밤>이 미국에서 개봉되면서 또 다시 할리우드의 비상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기배우 해리슨 포드와 공연한 이 작품은 두 남녀가 열치닥치닥 신경전을 벌인 끝에 사랑에 빠진다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물론 뉴욕의 잘나가는 잡지편집장인 주인공으로 출연한 헤이시의 연기는 나무랄 데 없었다. 그러나 영화는 미국에서 소위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했다. 그 이유가 로맨틱 코미디의 남자주인공을 연기하기엔 너무 늙어버린 해리슨 포드 때문인지, 감독의 역량 부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누구나 다 아는 동성애자 여배우가 연기한 이성애적 이미지가 영 결끄러웠기 때문이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헤이시 자신은 『하퍼스 바자』 최근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과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게이가 어떻게 스트레이트(이성애자)를 연기할 수 있냐고 질문할 때마다 난 20년도 넘게 스트레이트로 살아온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난 그저 사랑에 빠졌고 그 상대가 여성일 뿐이에요. 배우생활이 끝장날 거라느니, 엘렌과의 관계가 얼마 가지 못해 끝날 거라느니 충고 아닌 충고도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전 남의 시선엔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헤이시는 엘렌과의 애정생활에 대해서도 솔직하다. 일년 반 전 『배너티 페어』지가 주최한 한 파티장에서 엘렌을 처음 본 순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한눈에 반해 애정을 고백한 후, 4일 뒤 엘렌에게 끌

동품 반지를 사서 끼워줬으며, 두 달 뒤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

헤이시가 달콤한 사랑에 빠져 정신없는 연인답다면 엘렌은 훨씬 신중한 태도이다. “처음부터 앤에게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난 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솔

직히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 ‘난 아직도

남자가 좋은 것 같

애’라고 말하며 떠나

갈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시 헤이시의 말을 들어보

자.

“8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난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여

기자가 떠돌아다니면서 살

기 위해 거짓말을 밥먹

듯 했지요. 이젠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

요. 엘렌을

만나기 전

에는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몰랐지요. 엘렌과 함께

지내면서 내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을 알게 됐습

니다. 내

『하퍼스 바자』지는 앤 헤이시를 “경계선이 없다는 게 헤이시의 매력이자, 보통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평가한다.



가 남자처럼 옷을 입든 귀부인처럼 옷을 입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기쁩니다.”

커밍아웃 이후 헤이시의 배우생활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난 몇 달 사이에 줄줄이 개봉한 작품들은 다 커밍아웃 이전에 계약, 촬영한 것들이다. 이후 새로 맺은 출연계약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엘렌 드제너레스가 출연중인 드라마 <엘렌>도 방송사와 재계약할 때가 못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두 사람은 드라마 각본 집필, 영화연출 계획 등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퍼스 바자』지는 “헤이시는 섹시한 여성이다. 그녀의 섹시함은 동성애자 또는 이성애자란 구분과 상관없이 그 자체일 뿐이다. 경계선이 없다는 것이 헤이시의 매력이자, 보통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스타 편집장의 또 한 번의 변신

『뉴욕커』의 티나 브라운, 미라맥스 영화사로 이적

지 난 7월 『뉴욕타임스』는 1면에 한 유명잡지사 편집장의 자진사임 기사를 크게 취급했다. 조금 과장되게 우리 식으로 비유하자면 ‘월간조선’이나 ‘신동아’ 편집주간의 사임을 일간지가 1면에 보도하는 식이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신문기사 관행으로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이 편집장은 『뉴욕커』지의 티나 브라운(44)이다.

짧은 머리에 아직도 동안(童顏)의 이미지를 지닌 브라운은 6년 전인 92년, 미국 잡지그룹 콘데나스트사가 발행하는 『배너티 페어』지 편집장에서 같은 계열의 『뉴욕커』 편집장으로 자리를 옮겨왔을 때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배너티 페어』지 재직시절 도발적인 기사들로 판매부수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수완가로 정평이 나 있었다. 임신말기의 여배우 데미 무어가 불룩한 배를 드러낸 누드

사진을 게재한 것도 브라운의 과감한 결단 덕분이었다.

도발적이다 못해, 선정적인 접근방식을 좋아하는 여자가 감히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뉴요커』의 편집장을 맡다니! 뉴욕의 지식인들은 발끈했다. 『뉴요커』로 말하자면 독자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지 모른다는 이유로 사전조차 실지 않을 정도로 신중한 자세를 지켜온 잡지가 아닌가? 그러나 문제는, 좋은 잡지이긴 해도 판매부수가 나날이 떨어져 폐간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다. 브라운은 고사 직전의 『뉴요커』의 부활 특명을 받고 편집장이 됐다.

그리고 과연, 브라운의 부임 이후 『뉴요커』지는 눈에 띄게 변했다. 유대 랍비가 흑인여성과 입맞춤하는 모습을 담은 파격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이 표지에 등장하는가 하면 사진비중도 높아졌고, 기사도 좀더 대중화된 것. 물론 일

부 고정독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지만, 많은 독자들은 젊고 신선해진 분위기를 환영했다. 영국 출신인 브라운은 이미 30대 초반에 영국의 권위 있는 여성잡지 『태틀러』의 편집장에 취임, 뛰어난 감각을 발휘해 왔다. 그의 언론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용은 진지하게, 포장은 선정적으로”쯤이 될까. 어쨌든 브라운은 영국에 이어 미국 잡지계에서도 대성공을 거둬들여 ‘스타 편집자’로 각광받게 됐다.

브라운이 새로 마련한 일자리는 인디영화의 제작사로 잘 알려진 미라맥스 영화사, 미라맥스의 공동회장인 와인스타인 형제와 지분을 나눠가짐으로써 경영자로 변신한 브라운은 새로운 잡지창간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브라운이 전격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데에는 『뉴요커』지가

도발적 기사들로 잡지 판매부수를 엄청나게 증가시킨 수원으로 알려진 전 『뉴요커』 편집장, 타나 브라운



타나 브라운의 파격적인 기획으로 재기에 성공한 『뉴요커』 표지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한 반면, 제작비 상승과 정통 교양잡지의 인기하락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뉴스위크』지는 보도했다. 이로 인해 모그룹 롱테나스트의 시뉴하우스 회장으로부터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것.

잡지계의 이슈메이커 타나 브라운과 영화계의 악동으로 소문난 하베이, 밥 와인스타인 형제가 창조해낸 시너지 효과가 궁금하다.

고전을 보는 눈, 남녀 따로 노소 따로

명 작소설을 평가하는 기준은 남녀에 따라 다른 것일까.

미국의 저명한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사립대학 래드클리프대 재학생들이 각각 ‘20세기 100대 영문소설’을 최근 발표. 뚜렷한 시각차이로 화제를 모았다. <랜덤하우스>의 선정위원은 학계·문학계 인사들로 10명. 이 중 여성은 영국작가 A.S.바이어트 한 명뿐이었다. 이에 비해 래드클리프 선정위원은 하계 출판학교에 재학중인 20대 남녀학생들로, 이중 약 80%가 여학생들이었다.

래드클리프 리스트의 1위에 오른 작품은 F.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랜덤하우스 리스트에서 64위였던 J.D.살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은 2위로 정중 뛰어올

랐다. 랜덤하우스 리스트의 1위였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6위로 밀려났다. 해밍웨이는 『태양은 또 다시 뜬다』(18위) 등 5편이 선정돼 높은 인기를 과시했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여성작가의 작품이 앨리스 워커의 『컬러퍼플』(5위), 토니 모리슨의 『솔로몬의 노래』(25위), 마거릿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26위), 아인랜드의 『마천루』(43위) 등 30여편이나 선정돼 8편에 불과했던 랜덤하우스 리스트와 대조를 이뤘다. 또 랜덤하우스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던 그림동화책 『살롱의 그들』(13위), 『곰들이 뛰』(22위), 『오즈의 마법사』(47위), 『반지대왕』(40위)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래드클리프 출판학교의 한 여학생은 “래드클리프 리스트 중 읽은 작품은 60%인 데 비해 랜덤하우스 리스트는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 시대변화에 따라 고전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본에서 터진 여성파워

거물 정치인들의 여성정치 선언

김신명숙(본지 편집위원)

지 난 4월 독일 본에서는 독일에서 내로라 하는 여성정치인들과 여성운동가 15명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대대적인 선언을 해 독일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 여성연합의 멤버는 연방국회의장인 리타 뤼스무스(기민당)와 전 법무장관 사비네 로이트이서-슈나렌베르거(자민당), 함부르크 법무국장 로레 마리아 페셀-굿차이트(사민당), 국회의원 리타 그리스하비(녹색당)와 미카엘라 가이거(기사당) 등 각당의 스타 여성정치인들과 독일을 대표하는 맹렬 여성운동가 알리스 슈바르츠 등.

이처럼 영향력있는 유명 여성들이 오로지 여성의 권익을 위해 소속 정당과 입장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모토 아래 독일정치의 심장부인 본에서 연합세력을 결성



기자회견 중인 여성연합 멤버들. 왼쪽에서 세번째가 국회의장 리타 퀴스무스. 그 다음이 여성운동가 일리스 슈비르치.

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그 동안 여성정치인들과 운동가들이 힘을 합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낙태법이나 부강간처벌법 등 문제사안이 생길 때 단발성으로 연대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의 연합결성은 전반적인 여성문제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여성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했다. 우리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여성정치는 항상 투쟁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이 뭉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각 정당에 여성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여성의 힘을 모으겠다는 것. 그래서 여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 비중을 차지하고 더 많은 자기몫을 누리며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계에 더 많은 여성을 진출하게 하고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며 포르노와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

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독일 연방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6%로 상당히 높은 편. 그러나 정치일선에 있는 여성정치인들은 비록 할당제 등의 결과로 많은 여성들이 정계에 진출하기는 했으나 활동을 하다 보면 꼭 어디선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는 사실에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느끼고 있다. 그들의 공통된 결론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싸워서 얻어야 한다’는 것.

이 연합이 여성문제에서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는 성정치. 포르노와 성폭력에 대한 투쟁이 이들의 우선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갈수록 범람하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들은 ‘포르노는 성적으로 표현된 여성혐오’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또 여성이 성적으로 억압당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연맹가는 모든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해 자기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이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계획을 밝히고 동시에 전체 독일여성들의 분발도 촉구했다. 여성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선 여성 스스로가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합결성이 더 관심을 모은 것은 오는 9월 27일 독일에서 총선이 실시되기 때문. 전체 유권자 중 52.5%가 여성인데 이 연합은 여성유권자들에게 무엇보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여성이 연방국회의석의 사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에서 더 강한 정치과위를 위해 초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여성정치인들을 보며 떠오른 생각 하나. 여성과 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 작용하나?

‘허수아비’ 법이 통과된들...

터키의 가족법 개정안과 순결검사

터키 정부는 최근 4년간의 작업 끝에 여성의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법안이 보장하고 있는 남성의 가정 내 지배권, 즉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해 거주장소와 자녀교육에 결정권을 가지게 하고 아내가 직업을 구할 때 남편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을 삭제했다. 그리고 결혼이 가능한 연령도 여자 14세, 남자 17세에서 양자 모두 18세로 제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 이슬람 국가로서 여성차별과 억압이 극심한 데다 국회의원 550명 중 여성 의원은 겨우 13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봄 2년간 국회에 계류된 채 꼼짝 않던 가정 폭력처벌법안을 여권단체들이 나서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 꼭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법률의 국회통과 여부보다 그의 실현 여부. 가정폭력처벌법안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일선경찰들조차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알아도 무시하기 일쑤라는 것. 그 때문에 때때로 여성이 경찰을 찾아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개정된 가족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기능하겠느냐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터키 국민들 사이에 아직도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터키어로 ‘나무스’라 불리는 가족의 명예에 속박되어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가문의 명예는 여성 가족구성원의 순결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시골에서는 아직도 소녀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남학생과 얘기만 나눠도, 혼기에 있는 여성이 집

에서 정해진 남자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나무스’가 훼손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럴 경우 그 여성들은 아버지와 남자형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터키의 여권론자들은 “여성을 가문의 명예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분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터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강제적 순결검사.

터키의 젊은 여성들은 순결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게 되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족이나 학교당국 등에 의해 순결검사를 강제받게 된다.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수명의 여성들이 모욕감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기도했고 여성단체들은 이의 금지를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성부장관인 이실라이 사이긴은 전통이기 때문에 당장 어쩔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허수아비 법에 거북이 걸음 현실. 여성정책 책임자의 눈치보 기식 대응. 이 모두가 여권 후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 듯.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년 전쯤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에 한 터키 여성고위공직자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녀 왈 “터키 여성의 공직진출이 한국보다 활발하다”는 것. 하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여성부장관까지 있고 최근까지 여자수상이 나라를 통치했었으니.

우리가 터키 여성을 불쌍한 눈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야 하나. □

한 남동 유엔빌리지 맨 꼭대기 힐탑아파트 바로 앞, (Ellen Kim Murphy Gallery(엘렌 김 머피 갤러리))라는 간판이 붙은 3층짜리 하얀집. 건물 평 600평이라는 이 거대한 집에 들어서 널찍한 하얀 대리석 계단을 밟고 2층 거실에 올라서면 누구나 "아!" 하는 감탄사만 토할 뿐, 다음 말을 잊지 못한다. 대형 유리창 밖에 펼쳐진 한강변의 풍광에 압도된 때문일 게다. 동호대교로부터 올림픽대교까지 한눈에 굽어보이는 이 전망좋은 대저택의 주인이 40대의 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또 한 번 "아!" 하는 감탄과 부러움의 감정이 일렁인다.

그러다 이 집 여주인을 좀더 사귀게 되면 모두가 그녀의 매력에 빠지고 만다. 지금 그녀에겐 에로스신이 내려와 있는 것 같다.

일과 사랑을 모두 성취하고 여왕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는 그녀지만 내가 그녀, 김은혜 혹은 엘렌 김 머피(44세)에 빠져든 것은 그녀의 현재의 지위가 아니라, 젊은 날의 참담한 아픔 끝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사랑에 빠지더라도 다시는 내 인생 자체를 남자에게 위탁하진 않겠다'는 자각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온 그 노력과 주체성이 더 찬란해 보였기 때문이라.

31살에야 늦결혼을 한 김은혜는, 3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기막힌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결혼 2년만에 생긴 일이었다.

사랑하되 예속되지 않는 길은...

한남동에 자신의 갤러리 연 엘렌 김 머피

"압담하기만 했지요. 나를 돌아보니 혼자 살아갈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혼을 안 해주고 5년을 버텼어요. 혼자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편집기획일을 하고 있던 남편은 김은혜를 문화예술 전달자로 일할 수 있도록 거들어줬다. 이혼할 아내의 앞길을 배려해서였다. 동승아트센터에 화랑을 열고 미술계에 첫 발을 디었다. 무명화가들을 발굴해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함께 커나갈 즈음, 이혼을 했다. 결혼 7년만이었다.

STORY

HER



"박상 이혼을 하고 나니 저를 별 볼일 없는 여자로 봤는지 작가도 떠나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더군요." 물론 친정식구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혼후 혼자 살면서 이따금씩 친정집에도 들러 며칠씩 머물기도 했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너 목욕 좀 갔다 올래?' 하시는 거예요.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오시는데 소박당한 딸을 보여주기 싫으셨던 거지요. 아무 잘못도 없이 이혼당한 딸이 안쓰러워 사위를 죽일 놈 살릴 놈 하시던 엄마건만 소박대기 딸은 엄마에겐 감추고 싶은 애물단지였던 거죠."

지금의 남편 머피씨는 재즈 때문에 만나게 됐다. 재즈에 심취해 재즈에 관한 책을 쓰려고 자료까지 모아왔던 재즈광 김은혜는 또 하나의 재즈광을 첫눈에 알아봤다.

"재즈바에 자주 갔는데 하루는 웬 서양남자가 연주자들의 연주에 '오우,

에!' 하는 주입세를 하며 몸을 흔드는데, 재즈를 제대로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나와 동류임을 알아보고는 자보지도 않고 결혼해 버렸다니깐요."

머피씨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가 있는 모토로라에 취직해 일하다 한국지사장으로 부임해 온 후, 재즈바에서 김은혜에게 '발탁'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다. 김은혜는 이혼 1년만에 Ellen Murphy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머피씨는 마치 나의 불행에 한꺼번에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 전심전력으로 나를 위해 주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면서 'Home Sweet Home! 너로 인해 나는 너무 행복해!' 하며 꼭 껴안아주는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가슴 속의 웅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하고도 한동안 첫번째 결혼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엄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혼하자는 남편과 살면서 나는 웅추러들 대로 웅추러들었던가 봐요. 마루를 걸을 때도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무슨 여자가 그렇게 조심성없이 걷느냐고 꾸중을 듣기도 했지요. 발끝으로 아무리 조심해서 걸어도 남은 마룻장에서 나는 삐걱소리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후 만난 남자들은 한결같이 그녀에게 애교있고 끼가 있다고 했지만 첫 남편 앞에서는 애교 한번 부러울 엄두도 못 냈다. 휴일날 집에서 머피씨의 불룩한 배를 베게삼아 누워 있노라면, 머피씨는 "엘렌, 뭘 먹고 싶어?" 하면서 엘렌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일곱 가지쯤 물어대며 고르라고 한다. 엘렌이 "햄버거"라고 하면 "내가 나가서 사올게. 그대로 누워 있어" 하고는 혼자 차를 몰고 나가 사오기도 한다.

"나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뭘 더 못 해줘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그전 생활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일요일이면 시어머니와 남편, 애기 먹을 것을 챙겨주느라 온종일 종중거리며 부엌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김은혜였다.

18년 동안 화상으로 일해온 엘렌은 금년 5월 한남동 집에 갤러리를 열면서 동시에 미국 LA근교 산타모니카의 비그만 스테이션에도 역시 (Ellen Kim Murphy Gallery)를 개관했다. 산타모니카의 비그만 스테이션이라는 곳은 89개의 유명 화랑들이 집결해 있어 뉴욕의 소호만큼 미국과 세계 미술계가 이곳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갤러리

ELLEN KIM MURPHY

의 동향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곳으로, 엘렌의 화랑은 이곳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계 화랑인 셈이다. 엘렌은 이곳을 통해 한국작가들을 미국 미술계의 본류에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녀는 "한국작가 다섯 명만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하는 야심찬 꿈을 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엘렌의 집, 화랑, 미국의 화랑 등을 모토로라 지사장인 머피씨와 결혼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

"첫 결혼 실패 후, 무일푼으로 나와 압담했던 옛일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하되 절대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자에게 예속되지는 않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다"는 엘렌은 지금의 집과 화랑을 겸한 한남동 갤러리 스페이스 운영비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 사랑하므로 같이 살 뿐이지 재정지원자로 남편과 결혼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남자건 돈이나 지위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 속의 울림에 따라 내가 선택해서 사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머피씨가 금년 1월 아르헨티나 지사장으로 발령났을 때, 엘렌이 따라가지 않은 것도 그렇게 되면 다시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곳에 가면 내가 할 일은 없고 지사장 부인으로서 대접받고 호강하는 일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녀는 요즘 아주 가끔 남편을 만난다.

"우리는 하루 두 번씩 전화를 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내가 다니러 가고, LA화랑일을 보러 갈 때는 그곳에서 랑데뷰도 하고 9월에는 남편이 한달간 휴가를 얻어 서울 내 집에서 지내게 될 거예요."

나이 마흔네 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주변에 남편과 일과 사랑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성이 되어 있다. □



김민숙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로 일하다 유학한 남편 윌버리지하느라 한국일보 시카고 주재기자 및 시카고 한인방송 아나운서를 했다. 남편에게 언제나 화이트 스킨라임으로 공부했다고 말하는 남편은 자신이 과학원 교수로 부임하자 이번에는 나를 헤즈번드 스킨라임으로 공부시키겠다고 유학을 권했다. 서른다섯의 나이에 다섯 살, 열 살짜리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시카고 에트너인스티튜트에서 공부했다.



if에게



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if!

if의 차별화

if가 다른 여성지와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하여 더욱 알찬 내용을 채워서 많은 여성, 남성들이 독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석진/성북구 성북2동 349-1 시보이빌라 104

<여고괴담>보다 더 심한 현실

여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행하는 못 낚자 선생님의 성희롱. 그런데 아이들은 성폭력이 아주 나쁘다는 건 제대로 알고 있지만 성희롱의 개념조차 모른다. 자신이 성희롱 당한 지조차 모른다. <여고괴담>에 나오는 일들이 현실보다 심하면 심했지 않다고 보진 않는다. 신성한 교육의 전당에서...

송미경/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청남빌라 B-103

if 비싼 거 아닌가요?

if의 정서가 중산층에만 머무는 것 같다. 각

계각층의 여성들을 아우를 수 있었으면... 8,500원, 좀 비싼 편 아닌가?(나만 그런가?) 7,000원이나 7,500원 정도는 어떨까? 어쨌든 if fighting!! 가을호는 언제 나오나요~

이상일/동작구 흑석1동 143-116 지층

광고 걱정돼요

요즘 같은 시대엔 if 읽을 때만 행복감을 느낀다면 믿으실지 모르겠네요. 이번 여름호 또한 만족스러웠습니다. 칭찬은 모든 독자들이 하실 터이니 몇 가지 욕의 티를 말하고자 합니다. 전호들보다 상대적으로 광고가 늘어난 것 같은데... 글썽요. 혹시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서 다른 여성잡지처럼 되지 않을까 노과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은주/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명2동 614-372

if라면...

'낙태' 특집 해줘요. 정말 숨어 있지만 여자에게 와닿는 문제잖아요. if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오영/강남 역삼동 7호리아파트 33-103

그래서 if를 읽는다

고2 여학생이다. 나는 내가 여성학파를 지망한다고 하면 주변인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싫다. 결코 '방아쇠를 당기는 첫번째 여자'나 멋지고 당당한 캐리어우먼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자신으로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 나와 다른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캐미니즘이라 믿는

다. 그래서 if를 읽는다.

홍정보람/서초구 반포3동 한신14차아파트

217-1007

if여름호 '나예겐 정말 너무심은 blue stocking'을 읽고

'나예겐 정말 억울한 빨간보자기' 빨간보자기' 즉—단순무식, 생각없음을 솔직함과 햇갈리고 있는 무리(내 사전 인용), 행동양식—지하철에서 성적욕망을 불끈 솟게하는 여인을 만난 빨간보자기, 충동을 느낀 이상 어쩔 수 없다. 솔직함(?) 그의 감정에 충실하려면...

사고방식—왜 여자가 글을 배웠을까? 여성상—온갖 화려함으로 치장해 자신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한 마디에 얽매어 어쩔 줄 모르며, 진정 희생적이고 헌신스런, 게다가 글쓰는 건 물론 활자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여자.

이런! 찾는 여성이 없을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데, 지금은 18세기가 아니거든요.

성대 신명과 JP

구하기 어려운 if

1998년 여름호를 읽고,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곳은 익산시 변두리 시골이라 책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98년 여름호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읽는 유명한 책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송영진 신부/익산시 불동동 382-1 천주교광복동교회

IF 첫번째 소모임 보고서

장소: 고마 카페

일시: 98년 7월 25일 토요일

동참인물

손안병선—여대재학, 다이나믹, 소년락, 토크타트, 주전자 두는 여자.

유숙별—다정한 전사, 기만적인(?) 얼굴생김, 래디컬 페미니스트.

강소진—학과, 실험주의 정신, 개인주의자. 배우는 건 써먹는다(덕분에 사전 많이 찍었다).

임현지—사색과, 나홀로 고민을, 나홀로 식사를, 나홀로 이혼을 꿈꾸며.

노희순—립스틱 못 바르는 여자, 아이세도우 못 바르는 여자, 여자들이기를 포기한 여자.

우안녕—기회를 잃은 한 수다. 서대지 음악에 머리가 터졌다.

외순&안녕

잠든 나를 깨웠다

if는 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나 자신이 여자이면서도 그리고 딸이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면서도 얼마나 '여자'임을 잊고 지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크게 실천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을 다니며 잡게나마 직장생활을 하며 삶을 고민했던 내가 어쨌든 이리도 무감각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if는 잠든 나를 깨웠다.

장지영/영등포구 신길1동 97-45

긴장의 하루하루!

그 동안 마음 속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내 눈 앞에 있다는 사실에 더는 행복감과 기쁨에 젖어, 보고 또 보고를 수차례 반복. 이제는 다음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긴장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if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릅니다. 9월달에 나

을 다음호를 기다리며... 불광동 올라면

정신이 나갔어요

if여름호 특집 남자를 알고 싶다! 를 읽느라고 통신에 접속을 해두곤 정신이 나갔네요 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흥미로워요.

이런 글이 실릴 수 있는 잡지는 역시 if밖에 없군요. 감사합니다.

강보이(dunzel)

if, 왜 나우엔 없을까

안나베어~ if를 읽어서, 통신 망이 있다는 참으로 기쁜 글을 봤는데, 오호 통제라. 왜 하이텔일까, 전 나무를 하거든요. (ID: 하안누리) 답은, 빌런 아이디로나마 들어와보니, 정말 반갑네요. 제가 if를 본 건, 작년 가을호인데...

그리고 정보 하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if를 읽을 산 대가 명품문고인데요. 뭐, 가까워서 편히 갈 수 있어 자주 들르곤 하는데, 거기 if가 작년 여름호부터 다 있답니다. (과월호는 갈 때마다 위치가 달라져요.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지요) 바이. ^^

누리(HOSEE)

와~! 드디어 if를 샀당~

어제 드디어 여름호를 사게되었습니다. 맨날 맨날 서점에서 침만 흘리다가, 후후~ 집에서 돈을 부쳐주셨길래 당장 돈 찾아서 if를 샀거든요. 저 칭찬해주세요. 해해... 아직 완전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번호에 표지 바로 다음 장의 광고가 눈에 띄었는데요. 017광고인데 야시리한 여자가 '악한 권좌는 안씨'라고... 묘한 느낌을... 후후~ (이런... 거저줘도 안씨! 군요). 그러구... 150 페이지의 보충선상품 딸린대요. 헛만, 생리대, 키친타올, 식기세척기... 이런 광고들은 여성잡지에서 질리도록 본답니다. 여자

가 필요한 물건은 모두 가사용품이라는 듯한 광고를 이런 광고를 굳이 추천상품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선주(fox257)

여름호에 대한 유감

저는 if의 창간호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1. 류숙별님의 글에 관한 생각

우선 류숙별님의 '남자의 생각—남성철학자들의 여성혐오주의'라는 글에 대한 불만스러움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상 철학자들의 철학적 문맥이나 역사적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그들의 표현을 단편적으로 옮겨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저는 저널리즘이 진정성의 세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프만큼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 '남자 베스트 위스트'에 관한 생각

남의 사적인 이야기를 엿들은 듯한 부끄러움을 정도로 재미있고 솔직한 특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라도 활자화되어 출판되면 대사회적 발언이 되고 맙니다.

전영준(Atman)

난 여자다...

바위에 몸을 던지는 달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내가 여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군가가 전성으로 던진 말 한 마디에도 파울 듯이—판에는 냉정과 이성으로 포장해 보지만—대드는 내 모습... 이것이 내가 바라는 캐미니즘인가. 이프라는 잡지가 있는 줄 오늘 침 앓았다.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왜 우리 사회는 주려고 하지 않을까, 21살의 나... 바위에 몸을 던지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허현승(nicky214)

〈이프 창간1주년 기념 콘서트〉 성황리 끝나

이프는 지난 8월 27일 창간 1년 3개월만에 큰 행사를 치렀다. 이프 스태프들이 부족한 예산과 일손에도 '그래도 한 번 해보자'는 결정을 어렵게 내려 투쟁을 열었던 〈이프 창간 1주년 기념 콘서트〉!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을 만큼, 소나기로 한때 가슴을 졸였지만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걸리면서 시작된 이프 행사는 이프의 창간 정신인 '웃자! 뛰자! 놀자!'를 몸뚱아리 보여줬다는 평을 들었다.

참가자가 격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한강의 야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서울에서 가장 멋지고 환상적인 장소



이날 행사에 축하를 하던 이미경의원(왼쪽)이 파인대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시화를 본 유자녀(위쪽), 광란의 댄스퍼퍼 현장(아래쪽).

인 앨런 킵 머피 갤러리의 2층 홀을 가득 채우면서 열정적인 춤판이 2시간 가량 이어졌던 그 시간은 '절정의 무대'였고 감동적인 장관이었다. 일흔이 넘은 박형규 목사가 '베스트 댄서'로 뽑혔고 '베스트 드레시'는 힙합스타일의 복장으로 나타난 미술평론가 오혜주씨에게 돌아갔다. 멈추기 어려웠던 댄스판을 잠시 진정시키고 시작된 행운권 추첨시간, 가슴 조이며 번호표를 뒤적이며 즐거워하던 참석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뛰집어 보인 파티'를 선보였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날의 콘서트에는 전위예술가 홍신자씨, 마광수 교수, 시인 최영미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를 비롯해 정희경 의원, 박영숙 전의원, 조선형 걸스카웃연맹총재, 국민회의 김희선 여성위원장, 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 등 여성계인사들 2백여 명이 참석, 모처럼 흥겨운 파티에 즐거워했고 행위예술가 이불씨의 즉석 노래와 멋진 춤도 흥을 돋구었다. 특히 그동안 여성계와 미묘한 긴장관계를 빚어왔던 마광수 교수는 이미경 의원에게 1차 재지를 받은 후 다시 불려나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다른 것 같다고 고백하며 새로운 관계 모색을 시도해 좌중의 박수를 받았다.

이번 파티 성공의 공로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블루문재즈클럽 임재홍 사장이 연결시켜줬던 양준호 밴드의 멋진 반주에 맞춰 배후적인 몸짓으로 노래를 불러줬던 이미경씨, 여기에 맞춰 용감하게 뛰어나가 춤을 췄던 여성특위 이상덕 조장관, 배재대 이강재 교수, 조세현 선생(차병원 건강검진센터 세진 소장)과 화가 최아영씨의 블루스 등이 참석자들을 몸뚱아리 춤으로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끝까지 멋진 음식서빙으로 최선을 다해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정인태 사장과 스태프들, 코카콜라, 진로, 롯데칠성, 라인하어 콜렉션, 의류회사 ROOT의 아낌없는 협찬에 고마움을 전한다. 이 지면을 빌어 앞으로 아낌없는 이프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린다.

장정일의 페미니즘 조우

지난 7월 2일 오후 작가 장정일이 이프사무실을 찾았다. 이 나라 언론이 이 만남을 규정해야 했다면 "포르노작가(?)", "페미니스트 소굴 속으로"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다. 그의 방문 목적은 문화일보에 연재중인 '장정일이 만난 사람'의 인터뷰 대상으로 이프 박미라 편집장을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미라 편집장은 "작가입네, 평론가입네 하는 남자들은 전화하면 흰소리부터 해대는데 댄 남자가 자기가 장정일이라면서 하도 어눌하게 인터뷰 청탁을 해서 처음에는 무슨 착오가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인터뷰—라기보다 그냥 자유토론에 가까웠다—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계속됐다.

4시간 가까이 대화가 오갔지만 별로 얻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는 전화로 다시 인터뷰를 하겠다고 말하고 일어났다. 저녁 7시 기차를 타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교통수단에 관한 한 그는 매우 까다롭다. 그는 기차의 경우 무궁화호만 타고 다니며 택시나 고속버스 등은 절대로 안 탄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 때문이란. 평상시에 그가 애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 2분마다 새로운 탈것이 도착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안심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다같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나가 그의 저녁기차표를 밤기차표로 바꾸고 기차시간까지 근처에서 먹고 마시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우리는 장정일이 되게 떨떨(?)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저녁 기차표는 전날 것이어서 이미 휴지조각으로 변해 있었고 있는 돈을 모두 긁어서 CD를 샀다는—CD 수집백이 있는지 돈만 생기면 CD를 산다고 했다—그는 만약 혼자서 갔다면 영락없이 서울역 노숙자가 될 판이었다. 그래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역 뒤 어느 음식점에서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앞에 놓고 청하를 마시며 장정일의 페미니즘 조우는 계속되었다.

"이프는 임마성을 같이 써서 이름 너자를 쓰는 필자들이 많더군요. 나는 아버지성을 물려받은 내 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혹시 아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는다면 아내 성만 써도 상관 안할 겁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를 싫어하지요?"

"글쎄 아버지의 권력을 싫어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댄 날 죽으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어머님은 어때요?"

"어머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극심한 혐오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장정일은 이프 여류소수다방에서 뽕은 뽕찰은 남자에 포함될 정도로 페미니스트들에게 인기있는 남자다. 똑같이 외설문제로 법정에 선 경력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광수 교수에 대해서는 '하니올시다'의 반응이 나오는 반면, 장정일에 대해서는 열렬하게 '좋아, 좋아' 하며 푸른 신호등이 켜진다. 이유가 다 제각각이었지만 어쨌든 포르노 논란을 일으킨 작가 중에서도 여성들의 선호가 갈리는 것이다.

그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결혼과 함께 소용없어지더라는 고백과 함께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는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인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성토했으며 자신도 페미니즘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정일이 이날의 페미니즘과의 조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프의 결론은 '무사통과'였다. 이프의 '우리 편 만들기' 성공사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보 장정일!

제2회 이프 모니터링소모임에 오세요

이프 6호를 보신 독자들과 함께하는 모니터링 소모임이 마련됩니다. 이프를 만든 사람들, 이프에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일시: 1998년 10월 9일(금) 오후 7시

장소: 대학로 학업다방(742-2877) 3층

참가비: 5,000원

참석하실 분은 10월 2일까지 이프 사무실에 연락해주세요.

(전화: 743-6715/6)

이프는 사랑을 싣고



성격: 광범한 Crazy girl, 착한 Bad girl

신체특성: 아기 같은 피부, 허리 가늘고 허벅지 굵은 용녀형
나이: 누구는 학생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줌마라 한다.

나의 정체: 직장 4년차

원하는 타입: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놀이동산에서 같이
놀 수 있는 ▲순수하고 정력적인 사람 ▲언어의 피부를 지닌
입술이 부드러운 사람 ▲나의 문천(문학적 천박)을 문충
(문화적 충격)으로 바꿔줄 사람.

추신: 24시간 비서 대기중(Pager: 012-940-2653)

전화 주시면 식사제공!

이프는 부자다!!

이프 행사에 도움을 줬던 자원봉사자를 정말 고맙습니다.
군대간 남자친구 생각하며 국방색으로 후원함통 만들고
뿌듯하게 쳐다보던 (방명록 싸게 사겠다고 비뚤딱 맞아가며
몇시간 동안 인사동을 해매고 다닌) 너무 착한 보미, 별 좋
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몇백 명 주소 입력하느라 수고한 매력
녀 서진이, 행사장에서 꽃바구니 들고 다니며 티켓 팔았던
천사 같은 미소를 지닌 소연이, 그리고 그의 선배들과 좌천

구 일당들—선영이, 은주, 신원이, 준재, 상수, 민우—무
거운 엠프와 이것저것 나르느라 아침부터 고생한 후배 태만
이, 두 발로(?) 오토매틱 운전하느라 전담맨 파경맨 진균선
배, 다들 넘넘 수고 많았습니다. 이프는 이런 멋진 자봉단
덕에 부자랍니다.

-색마

이프의 각종 괴담이야기

이프 사무실에는 언제나 각종 '괴담'들이 난무한다.

1. 생리괴담—마감 때만 되면 편집장님 분위기는 '누구
든지 나 건들면 죽여버릴까~! 말시키지마!' 마치 생리 때의
민감한 여인처럼 히스테리컬~해진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혹
편집장님 일년에 네 번 개경(?)을 하는 게 아닐까?

2. 열쇠괴담—감색 프라이트를 들고 다니시는 박모님...
어느날 사무실에 오시더니 아주 덩달하게, "나 오늘 아침,
차 속에 차키를 꽂고 내려서 아저씨 불러서 5,000원 줬다.
근데... 나 지금 또 차키 없어졌어," 이반엔 모 보험회사에
서 무료로 출동해주는 서비스요원을 불렀다.

잠시 후, 사무실에 등장하신 박모님, "차키 내 뒷주머니
에 있었던 거 아니?" 프아~.

3. 3호괴담—실로 간만에 창고 감았던 사무실 장리를 했
다. 반쯤 받은 책들은 박스 속에 풍뎡 뭉여 있어서 몇 호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 하나 다 풀기로 했다. "우린 창간호가
필요해, 여기 있을거야." 푼~(관 자르는 소리) "3호다." 그
럼 이젠 푼~. "3호다." (저쪽에서) "악~ 여기도 3호다."
(독자 여러분, 아리 3호 못 보신 분... 파월호 구입합니다.
연락주시면 할값에 넘겨드리겠습니다.)

4. 저기괴담—"저기야 그거 어딴지?", "그거 저기다 잘
봤지?", "저기 그일 있잖아 그렇게 안 뵈겨 갈텐데." 근데 신
기한건 우리 이프 사무실에서는 서로 다 알아듣는다는 거다.

5. 탱크괴담—이프엔 대단한 파워걸이 계시다. 일명 '탱

크걸'. 이프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 뛰든지 저물적으로
밀고 나간다. 이러니 어떻게 이프가 잘되지 않겠는가? 앗,
중량거리는 계단소리! 1층에서 탱크걸 올라오시나무다.

"자, 열썬~미 일합시다."

6. 치매괴담—"혹시 내 디스켓 본 사람?" "여보세요?
어... 내가 전화 왜 했는지 혹시 알아요?" 퇴근할 때면 정말
한방(?)에 가는 분이 안 계시다. 항상 뛰든 빠뜨리고 다시 사
무실로 들어오신다(특히 아까 그 열쇠괴담의 주인공 박모
님). 그중 압권 윤모님, "나 있잖아 아침에 머리감은 건 기억
이 나는데 땀났는지 기억이 안나."

예찬! 환상의 콤비

80년대, 치열하고 고봉스러웠던 시간을 함께한 친구를 만나
가볍게 수다를 떨고 들어왔다. 겹질이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나
는 부끄러움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이 행복하다.

그리고 또 나를 살찌우는 건, 나태해질 틈을 주지않고 적당한
긴장감을 몰아오는 박선배, 마감 때만 되면 밤샘작업에 점점 피
기(?)감까지 들지만 정말 요술처럼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편집
장. 조금은 시끄럽지만 굵은 일 바다라고 재기발랄함으로 한바
탕 웃음을 주는 막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상의 멤버라는
생각이 든다.

일 속에 묻혀, 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따뜻하게 어깨 한번
감싸주지 못했는데 박선배! 이번호 나오면 좋은 장소로 MT가
서 확실하게 놀 수 있게 해줄까요?

-공마

미친년 꽃다발

나도 다 안다, 요번 「리뷰」는 편집이 난리가 났지?

하지만 당분간은 날 아무도 못 말릴 거다. 머리풀러 헤치기로
했으니까, 도와줄 파트너도 구했다. 다음호에 자세히 쓸게.

-갈마

사과드립니다.

4호(98 봄)에 실린 제주여행기 「제주, 그 4·3의 역사 속으로」
에 게재된 사진 중 2점(208, 209 쪽)은 사진작가 김수남씨의
작품이었습니다. 편집 제작상의 실수로 아래 사진의 작가
크레딧을 빠뜨렸습니다. 김수남씨에게 사과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 743-6715/6, 팩스 765-9059).
- 책속의 엽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4,000원

정기구독혜택

- 본사의 자료해택과 (사)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회원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주소변경

- 미착·분실·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743-6715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 - 6088166(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온라인 입금
서울 16508-3421203(도서출판 이프) 국민 031-01-0415-280(도서출판 이프) 농협 029-01-171261(도서출판 이프)
한일 375-036328-02-001(도서출판 이프) 제일 458-20-031036(도서출판 이프) 우체국 010892-0071882(윤석남)
- 구독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후 반드시 전화해 주십시오.

이프(if) 전국 거래처 한국출판유통(080-082-8240)

그밖에

- if 자판기는 페미니스트 카페 고마(364-5950)나 본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로 직접 연락주십시오.

IF를 만든사람들

- 발행 도서출판 이프 • 발행인 윤석남 • 매니징디렉터 박혜숙 • 편집장 박미라 • 아트디렉터 제미란 • 포토디렉터 조여권
- 편집위원 김숙진 김신명숙 김재희 김혜경 손자희 오한숙의 류숙현 유재지나 이호인 이해경 • 객원기자 권혁관 이숙인 황금희
- 교열 김정복 • 광고기획부 윤숙경 김영란 • 사진편집자문 박영숙 • 디자인 평일문화사 박선미 권순나 • 인쇄소 고려서적
- 배본처 한국출판유통 (080) 082-8240 • 등록번호: 바-02699
-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가 65번지 2층 도서출판 이프 • 전화: 743-6715~6 • 팩스: 765-9059 • Htel ID: iftopia
- 천리안 ID: feminif • 하이텔에서도 if를 보실 수 있습니다(go feif).

'더불어 잘사는 사회'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남, 여) 나이 _____ 세
주소 _____
전화 _____ 직업 _____ (기혼, 미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부

1 3 6 - 0 1 1



여성의 욕망을 아는 집지,
페미니스트저널 **if**

if는 정직하다!

if는 용감하다!

if는 자유롭다!

if는 재미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남, 여) 나이 _____ 세
주소 _____
전화 _____ 직업 _____ (기혼, 미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자에게> 담당자 앞

1 3 6 - 0 1 1



if를 보고 싶다!